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경희(한림대 언론정보학부·교수)
- ▶ 연구보조원 : 장상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손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은 휴대하기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현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서비스를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생활에 필요한 날씨정보나 교통정보, 뉴스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유해콘텐츠접촉이나 사이버bullying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 집단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한 2012년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대비 7.0%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본원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3명중 1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중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켜놓고 있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러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거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 학교, 상담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연구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중, 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이용실태를 조사하였고 청소년 12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깊게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초래된 여러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휴대하기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접속이 가능하며 원하는 때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스마트폰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유해콘텐츠접촉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중, 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중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의 14%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국내 오픈마켓보다는 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 10명중 7명가량이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스마트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2%가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채팅서비스를 통한 따돌림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과의 심층인터뷰결과,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 중 눈에 띄는 것은 랜덤채팅이었다.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성별, 나이, 닉네임만 입력하면 바로 채팅창에 접속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여학생들에게는 랜덤채팅서비스가 탈선의 장소가 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랜덤채팅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나 분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일상화되고 의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스마트폰, 사이버불링, 스마트폰중독, 카카오톡, 게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2013년 7월 3천 5백만 명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여성가족부·한국언론학회(2013)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시간이상~3시간미만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의 채팅과 게임 앱이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또래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SNS 중독이나 게임중독, 사이버따돌림, 음란·유해 애플리케이션 접촉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기존의 PC나 방송매체와 달리 스마트폰은 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가능한 매체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큰 매체임. 특히,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부모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스마트폰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스마트폰이 야기하는 문제는 무수히 많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크게 중독성, 따돌림, 유해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며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기존 조사 자료나 연구 자료를 정리, 분석함. 특히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분석함. 아울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확산된 배경에 대한 요인을 분석했음.
- 전문가자문회의 : 모두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음. 첫 번째는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설문지를 검토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 설문조사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중, 고등학생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의 내용은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용정도, 스마트폰중독정도, 성인용앱 다운로드정도,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정도, 스마트폰사용과 관련한 학교규칙 등이었음.
- 심층면접 :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심층면접의 내용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 불편한 점, 스마트폰사용과 관련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 스마트폰관련 미디어교육여부,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 등임.
- 국내의 스마트폰정책 분석 : 스마트폰 관련 국내의 현행 법·제도 및 외국의 관련 정책사례를 수집·분석하였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3. 주요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실태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중독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6%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했고 7.6%는 고위험군이었음. 즉 전체응답

자의 35.2%가 스마트폰중독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중독이라는 놀라운 연구결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중독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임.

-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스마트폰중독위험에 노출됐음.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친 비율은 여학생들의 경우 42.6%였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28.6%였음.
-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가정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경우가 스마트폰중독위험성이 높았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중독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즉 저소득가정자녀의 스마트폰중독률이 높게 나타남.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실태 조사

-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최근 3개월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함.
-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여러 서비스 중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따돌림 경험은 3.1%, 문자는 2.8%, 사진 1.6%, 이메일 1.3%였음.
- 여학생들의 경우 채팅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음. 남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을 따돌리는 사진이나 이메일을 여학생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중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3) 성인용 앱 다운로드 실태조사

-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음란물, 도박 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그렇다고 답했음.

- 성별로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았음.
-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앱들을 주로 어디서 다운로드 했느냐고 질문한 결과, 구글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음.
-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마트보안관 중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었음.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차단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25.3%였고 스마트보안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2.7%에 그쳤음.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았음.

4) 국내외 소셜미디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 국내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음란물 차단대책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고 나섰다. 그 중 하나가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2012년 개정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본인인증이 강화되었음.
- 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정부, 산업계, 민간단체, 학교 등의 역할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었음. 특히 21세기어린이보호법에 따라 산업계의 역할과 책임이 커져 산업계의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있음. 아울러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도서관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학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전반적으로 미국도 영국처럼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사례 중 눈에 띄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단체인 안전한 인터넷센터(UK Safer Internet Centre)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60 degree safe'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유해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장치나 보안시스템 등 하부구조에서부터 학생, 교사 등에 대한 미디어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얼마나 사이버상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구임.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2009년 3월 도입된 사이버멘토의 육성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사례에서 배울 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리터러시향상과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임. 일본정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리터러시향상을 위해 2012년 9월 청소년 인터넷 리터러시 지표(ILAS: Internet Literacy Assessment indicator for Students)를 개발하고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음. 또한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 의해 인터넷서비스제공 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4. 정책제언

1) 스마트폰중독예방대책

○ 스마트폰이용규칙제정

자녀가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쓰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일정 시간을 제한해 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스마트폰사용에 관한 규칙을 각자 만들어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학교에서도 교사, 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폰이용과 관련된 학교규칙을 정해 실천하는 것도 필요함.

○ 중독방지어플의 설치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사용조절을 잘 못하고 있음. 따라서, 스마트폰중독방지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 중독방지어플을 사용하면 일정시간 동안 특정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현재 시중에는 ‘모모’를 비롯한 스마트폰중독방지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음. ‘모모’의 경우 이용자가 특정앱을 잠그면 그 기간 동안 그 앱을 사용할 수 없고 잠금은 시간별, 요일별로도 가능함.

○ 스마트미디어교육의 내실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자 많은 학교들이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관련된 미디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교육이 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에 초점을 맞췄고 이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단발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디어리터러시함양교육을 강화해야 함. 즉 스마트폰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줘야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도 길러줘야 함. 스마트폰관련 미디어교육도 한 한기에 한두 번 정도 이뤄지는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 확대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게임 등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이나 게임중독에 비해 스마트폰중독은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사실, 그동안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터넷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정책들은 방송이나 지하철 등을 통해 많이 홍보되었음. 그러나, 스마트폰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마트폰중독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음. 24시간 늘 이용가능한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향후 스마트폰중독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함. 대중매체나 지하철 등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중독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함. 이러한 캠페인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 같이 꾸준히 전개돼야 함.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대응방안

○ 부모 및 교사교육의 강화

부모의 경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특히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초기에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사이버불링의 기본개념이나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학교에서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물리적 폭력에 비해 온라인공간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불링을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이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교사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채팅앱에 사이버불링신고 장치 설치

청소년 사이버불링은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채팅 앱에 사이버불링관련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함.

※ 이미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불링이나 자살 등의 글을 발견하면 바로 페이스북 본사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카카오톡 같은 채팅앱에도 이용자들이 사이버불링내용을 바로 본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불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미국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엄한 편임. 2013년 7월 현재 50개 중 49개 주가 불링법안을 가지고 있고 18개 주는 사이버불링을 포함시키고 있음. 가령, 루지애나주(Louisiana)의 경우 사이버불링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거나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할 수 있음. 미국사회와 달리, 우리의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는 사이버불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관련이 높음. 따라서, 사이버불링가해자도 물리적 폭력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바일가디언과 같은 사이버불링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중독방지어플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어플들이 개발되고 있음. 이 중 대표적인 어플이 모바일가디언임. 부모가 회원가입후 자녀의 휴대전화에 모바일가디언이란 어플을 설치하면 자녀가 친구에게서 받는 욕설이나 따돌림 등의 내용을 수집해 부모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함.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면 자녀가 누구로부터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부모가 파악할 수 있음.

3)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정보차단 대책

○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 의무화

본 연구결과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한 청소년은 전체의 3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 등 유해콘텐츠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적임.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치에 스마트폰구입시부터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함.

※ 영국의 경우 보다폰(vodafone)이란 이동통신사는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차단서비스를 설치하는 법을 안내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스마트폰사용을 독려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스마트폰구입시 차단프로그램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휴대전화구입시 차단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많은 경우 차단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스마트폰에 동시에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보안관과 같이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영국사례에서처럼 부모들이 쉽게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할 필요도 있음.

○ 안전한 스마트폰사용을 위한 자녀지도매뉴얼 보급 및 확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일선 학교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매뉴얼(초등용, 중등용)을 배포한 바 있음. 이 매뉴얼에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예방, 진단, 지도 및 상담 등의 생활지도방법이 담겨 있음. 하지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음.

※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자 2010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음. 이 지침서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 사이트 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실려 있음.

※ 영국의 경우도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이 자녀의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북인 'Digital Parenting'을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vodafone, 2012). 이 가이드북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설치해야 하는지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고 우려스러운 스마트폰 내용을 어떻게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게 리포트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음. 즉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녀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임. 이 책자는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포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사회도 하루빨리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사용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2. 연구내용 | 5 |
| 3. 연구방법 | 7 |
| II. 이론적 배경 | 11 |
| 1. 스마트폰의 특성 | 13 |
| 2. 스마트폰 이용현황 및 이용동기 | 15 |
| 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문제점 | 18 |
| 4. 소결 | 27 |
| III. 스마트폰이용설문조사 및 면접조사결과 | 29 |
| 1. 설문조사결과 | 31 |
| 2. 청소년면접조사결과 | 68 |
| 3. 전문가면접조사결과 | 84 |
| 4. 소결 | 90 |
| IV. 국내외 스마트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 93 |
| 1. 한국 | 95 |
| 2. 일본 | 97 |
| 3. 영국 | 111 |
| 4. 독일 | 116 |
| 5. 미국 | 137 |
| 6. 소결 | 162 |

| | |
|-----------------------------------|-----|
| V. 결론 및 정책제언 | 165 |
| 1. 결론 | 167 |
| 2. 정책제언 | 169 |
| | |
| 참고문헌 | 187 |
| | |
| 부 록 | 199 |
| 부록 1.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중독척도 | 201 |
| 부록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설문지 | 203 |
| 부록 3.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대상 인터뷰 자료 | 214 |
| 부록 4. 전문가 대상 인터뷰 자료 | 256 |

표 목 차

| | |
|---|----|
| 〈표 Ⅰ-1〉 주요 연구 내용 | 7 |
| 〈표 Ⅰ-2〉 자문회의 내용 | 8 |
| 〈표 Ⅰ-3〉 설문조사 개요 | 8 |
| 〈표 Ⅰ-4〉 질적조사 개요 | 9 |
| 〈표 Ⅰ-5〉 전문가 인터뷰 개요 | 9 |
| 〈표 Ⅱ-1〉 정보사회론의 계보학 | 14 |
| 〈표 Ⅱ-2〉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 15 |
| 〈표 Ⅱ-3〉 세대별 스마트폰 소유 여부 | 15 |
| 〈표 Ⅲ-1〉 온라인 조사과정 | 32 |
| 〈표 Ⅲ-2〉 응답자 특성 | 33 |
| 〈표 Ⅲ-3〉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정도 | 34 |
| 〈표 Ⅲ-4〉 지역별 스마트폰 중독률 | 36 |
| 〈표 Ⅲ-5〉 학교규칙에 따른 중독률 | 37 |
| 〈표 Ⅲ-6〉 중독요인별 점수 | 37 |
| 〈표 Ⅲ-7〉 스마트폰 중독 척도 문항 | 38 |
| 〈표 Ⅲ-8〉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39 |
| 〈표 Ⅲ-9〉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 43 |
| 〈표 Ⅲ-10〉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따돌림 정도 | 44 |
| 〈표 Ⅲ-11〉 채팅서비스를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46 |
| 〈표 Ⅲ-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46 |
| 〈표 Ⅲ-13〉 문자를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47 |
| 〈표 Ⅲ-14〉 사진을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47 |
| 〈표 Ⅲ-15〉 이메일을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48 |
| 〈표 Ⅲ-16〉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이용현황 | 50 |
| 〈표 Ⅲ-17〉 성인용 앱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 51 |
| 〈표 Ⅲ-18〉 스마트폰 이용 부작용 | 52 |

| | |
|--|-----|
| 〈표 Ⅲ-19〉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학교규칙 | 53 |
| 〈표 Ⅲ-20〉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상담 유무 | 54 |
| 〈표 Ⅲ-21〉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56 |
| 〈표 Ⅲ-22〉 스마트폰 이용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 57 |
| 〈표 Ⅲ-23〉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 | 58 |
| 〈표 Ⅲ-24〉 스마트폰 앱 이용 정도 | 60 |
| 〈표 Ⅲ-25〉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 64 |
| 〈표 Ⅲ-26〉 성/교급에 따른 부모 중재 여부 | 67 |
| 〈표 Ⅲ-27〉 인터뷰 대상자 정보 | 68 |
| 〈표 Ⅲ-28〉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 | 71 |
| 〈표 Ⅲ-29〉 응답자들에게 스마트폰이 가지는 의미 | 82 |
| 〈표 Ⅲ-30〉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 방안 | 83 |
| 〈표 Ⅲ-31〉 인터뷰 대상자 정보 | 85 |
| 〈표 Ⅳ-1〉 미국 10대 청소년의 그룹별 하루당 문자메시지의 양 | 139 |
| 〈표 Ⅳ-2〉 외국의 주요 스마트폰 관련 정책 | 163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1】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22 |
| 【그림 II-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추이 | 23 |
| 【그림 II-3】 휴대폰을 통한 유해콘텐츠 접촉비율 | 25 |
| 【그림 III-1】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중독정도가 제한적 중재에 미치는 영향 | 41 |
| 【그림 III-2】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중독정도가 적극적 중재에 미치는 영향 | 41 |
| 【그림 III-3】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중독정도가 공동이용에 미치는 영향 | 42 |
| 【그림 III-4】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중독정도가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미치는 영향 | 42 |
| 【그림 III-5】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횟수 | 43 |
| 【그림 III-6】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용 앱 다운로드 여부 | 49 |
| 【그림 III-7】 성인용 앱 다운로드 경로 | 49 |
| 【그림 III-8】 스마트폰과 관련된 교육 | 53 |
| 【그림 III-9】 무제한데이터요금제 이용 여부 | 54 |
| 【그림 III-10】 태블릿 PC 보유 여부 | 55 |
| 【그림 III-11】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앱 | 63 |
| 【그림 III-12】 성인물 접촉 경로 | 77 |
| 【그림 IV-1】 독일 JIM-Studie 참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 118 |
| 【그림 IV-2】 독일 청소년의 핸드폰 및 스마트폰 소유(2012) | 119 |
| 【그림 IV-3】 응답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앱들 | 120 |
| 【그림 IV-4】 청소년의 핸드폰의 다양한 사용 선호도 | 121 |
| 【그림 IV-5】 스마트폰을 통한 잔인한 비디오물이나 포르노물 수령 | 123 |
| 【그림 IV-6】 스마트폰 소지자의 스마트폰 폭력 영상 체험 비율 | 124 |
| 【그림 IV-7】 매일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미국 10대 청소년의 수 | 138 |
| 【그림 IV-8】 미국 10대 청소년이 평균적인 날에 주고받는 문자메시지의 양 | 139 |
| 【그림 IV-9】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경험한 휴대폰 사용의 부정적인 현상 | 140 |
| 【그림 IV-10】 미국 학교에서의 10대 청소년 대상 휴대폰 사용 규제 정도 | 141 |
| 【그림 IV-11】 미국 학부모들의 10대 청소년 휴대폰 규제 정도 | 144 |

| | |
|---|-----|
| 【그림 IV-12】 사이버불링 희생자 비율(2004-2011) | 154 |
| 【그림 IV-13】 불쾌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비율(2004-2011) | 155 |
| 【그림 IV-14】 청소년들의 기술 이용(매주 활동 : 10~18세 청소년 대상) | 156 |
| 【그림 IV-15】 사이버 따돌림 유형 | 157 |
| 【그림 V-1】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추이(2011~2013) | 169 |
| 【그림 V-2】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 | 175 |
| 【그림 V-3】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 | 179 |
| 【그림 V-4】 유해콘텐츠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 | 183 |
| 【그림 V-5】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대책 | 184 |
| 【그림 V-6】 미디어리터러시함양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체계 | 185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2013년 7월 3천 5백만 명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미래창조과학부 통계정보 유무선통계 2013년 7월 기준²⁾).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 조사한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소지자는 전체의 36.2%였다(여성가족부, 2011). 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소지율은 48%, 중학생은 41%, 초등학생은 20%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가량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한국언론학회(2013)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시간이상~3시간미만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의 채팅과 게임 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상이 되었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과 게임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 도내 초, 중, 고교생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66%로 나타났다(메디컬투데이, 2012.10.25). 또한 주 사용용도는 채팅 및 메신저, 전화 및 문자, 음악 및 MP3, 정보검색, 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손 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은 생활에 필요한 날씨정보나 교통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1) 이 장은 이창호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2)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2013년 9월 6일 인출.

제공하기도 하지만 SNS 중독이나 게임중독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나 음란·유해 앱 이용접촉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1)의 조사에 의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성인용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5%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접촉경험이 많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성인용 콘텐츠 접촉경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도 청소년 집단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은 2011년 스마트폰 중독척도(S-척도)를 개발한 뒤 인터넷중독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을 처음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만 10~49세 스마트폰 이용자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8.4%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청소년이 11.4%로 성인(7.9%)보다 높았다. 전체 성별로는 여성(8.6%)이 남성(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주 이용 목적은 채팅과 메신저가 많았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한 2012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률이 11.1%로 전년대비 2.7% 포인트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대비 7.0% 포인트 증가하였다(미래 창조과학부, 2013). 이해경(2009)의 조사에서도, 휴대폰 중독 고위험군집단의 비율은 10대(5.9%)가 가장 많았고 20대(1.3%), 30대(0.8%)순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답했고, 자기 전 또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도 절반(53.9%)을 넘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대한 대처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PC나 방송매체와 달리 스마트폰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한 매체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큰 매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부모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이 야기하는 문제는 무수히 많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크게 중독성, 따돌림, 유해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며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및 장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 및 목적, 앱 이용 정도 등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이나 채팅, SNS를 얼마나 이용하는 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독문제, 사이버불링문제, 유해콘텐츠 접촉문제도 중요한 조사영역이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2) 스마트폰의 역기능 예방대책

본 연구의 주목적은 스마트폰 이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불링, 게임중독, 음란·유해 앱 접촉 등 여러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크게 법적·제도적 측면, 교육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곳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외국의 청소년보호정책

본 연구는 영국이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비록 우리나라 청소년들처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지 않지만 이 국가들은 몇 년 전부터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이나 따돌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령,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자 2010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4장 독일사례 참조). 이 지침서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 사이트 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이 실려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12년부터 스마트폰 안심·안전 사용촉진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4장 일본사례 참조). 이를 위해 일본 총무성은 고등학교 학부모교사연합회와 연계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인터넷 리터러시 지표’(ILAS: Internet Literacy Assessment indicator for Students)를 만들어 관련사업자 및 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영국 또한 ‘360 degree safe’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하여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장 영국사례 참조).

본 연구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선진국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나라의 제도나 정책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4) 스마트폰의 안전한 이용방안

스마트폰은 중독이나 따돌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기도 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 SNS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늘 같이 있어야 하는 친구 같은 존재로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 갖는 매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건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내용 및 세부연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I-1>과 같다.

표 | -1 주요 연구 내용

| 주요 연구내용 | 세부 연구내용 |
|----------------|---|
|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이용시간 - 스마트폰 이용동기 - 스마트폰 앱 이용 정도 - 스마트폰 중독정도 - 수업시간 스마트폰 이용 경험 - 스마트사용으로 인한 부모, 교사와의 갈등 - 유해콘텐츠(음란물 등) 접촉 정도 -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사용 여부 -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경험 정도 - 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규칙 - 스마트폰 교육 수강 여부 |
| 스마트폰 역기능 예방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제도적 측면 - 기술적 측면 - 교육적 측면 - 가정의 노력 - 학교의 노력 - 사회의 노력 |
| 외국의 청소년보호정책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사례 조사 - 외국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연구 |
| 스마트폰의 안전한 이용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기존 조사 자료나 연구 자료를 정리·분석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분석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확산된 배경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다.

2)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

본 연구는 모두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표 I-2> 참조). 첫 번째는 실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설문지를 검토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11월 18일)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스마트폰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들었다.

표 I-2 자문회의 내용

| 횟수 | 자문영역(내용) | 자문진 | 비고 |
|----|-------------------------|-----------------------|----|
| 1 | 실행계획 자문회의 (연구방향 설정) | ○ 공무원 ○ 교사 ○ 교수 | |
| 2 | 설문지 검토 자문회의 (설문지 내용 검토) | | |

3) 양적 연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파악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은 모두 3,000명이었고 조사는 4월 25일부터 3주간 진행되었다.

표 I-3 설문조사 개요

| 주요 요소 | 내 용 | 비고 |
|-------|--------------------------|----|
| 모집단 |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 |
| 표집틀 | 2012 교육통계연보 | |
| 표본수 | 중·고등학생 총 3,000명 | |
| 표집방법 | 성, 교급, 지역을 고려한 할당표집 | |
| 조사시기 | 4월 - 5월 | |

4) 질적 연구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선정은 청소년관련기관이나 센터를 통해 이뤄졌고 면접에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다.

표 1-4 질적조사 개요

| 주요 요소 | 내 용 | 비 고 |
|-----------------|----------------------|-----|
|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센터를 통해 섭외 | |
| 면담참여자 수 | 스마트폰 이용자 중고생 12명 | |
|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스마트폰 이용자 | |
| 면담방식 | 구조화된 면접지를 이용하여 조사 | |
| 면담 시간 및 횟수 | 30분~60분 | |
|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녹취한 후 기록 | |
| 면담자 |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 | |

5) 전문가 의견조사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얻기 위해 전문가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 교사, 청소년상담가, 기술개발자 등 모두 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6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표 1-5 전문가 인터뷰 개요

| 주요 요소 | 내 용 | 비 고 |
|----------|---------------------------------------|-----|
| 조사대상 전문가 | 정부부처공무원, 교사, 청소년상담가 및 전문가, 기술개발자 등 8명 | |
| 선정방법 | 개별적으로 접촉 | |
| 조사내용 | 스마트폰 유해 앱 차단방안, 스마트폰 중독해소방안 등 조사 | |
| 조사방법 | 면접 | |
| 조사시기 | 6월 ~ 10월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의 특성
2. 스마트폰 이용현황 및 이용동기
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문제점
4. 소결

제 2 장

이론적 배경³⁾

1. 스마트폰의 특성

스마트폰은 손안의 작은 PC로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쉽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미디어로 규정될 수 있다(Ofcom, 2011). 즉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PDA(개인용휴대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으로 휴대전화기능에 인터넷접속, 일정관리 등의 부가기능을 더한 것이다(배재권·정화민, 2008). 이전에는 음성통화와 문자기능이 주를 이룬 피쳐폰이 대세였다면 영상통화와 인터넷기능이 추가되면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LTE 방식의 4세대 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마트폰의 특성은 크게 운영체제, 무선인터넷플랫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멀티미디어기능, 사용자인터페이스, 멀티태스킹 기능(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수행하는 기능)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배재권·정화민, 2008).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부가기능이 가능하면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공병호(2010)는 스마트폰의 특징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을 이야기한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이전의 피쳐폰에서는 힘든 반면,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과 즉시성이다. 즉 휴대하기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접속이 가능하며 원하는 때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은 중독성이 강한 매체로 볼 수 있다. 데스크톱 PC의 경우 들고 다니기에 불편하고 일정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가볍고 휴대성이 편리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3) 이 장은 이창호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단말기하나에 모든 매체가 융합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애니팡, 바운스볼, 드래곤플라이트 등 스마트폰용게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PC 기반의 게임이용패턴이 스마트폰기반의 게임이용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한편, 스마트폰의 출현은 스마트사회나 스마트라이프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와 삶의 양식을 만들고 있다. 김문조(2012)는 2010년 이후 정보사회론 3.0으로 지칭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론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탈산업사회론이 지배했지만 인터넷이 확산된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연결망사회론이 부각되었다. 2010년 스마트기기의 출현과 확산에 따른 스마트화는 기존의 소통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소통방식을 낳았다. 즉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환경이 출현하고 소통당사자들의 사회성이나 주관성이 중시되는 시대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II-1 정보사회론의 계보학

| 유형 | 정보사회론1.0 | 정보사회론2.0 | 정보사회론3.0 |
|--------|---------------------------|------------------------|---------------------|
| 시기/계기 | 1960s-1980s 자동화 기술의 발전 | 1990s-2000s 인터넷의 확산 | 2010s 이후 SNS의 출현 |
| 관심사 | 산업 활동 | 사회 구조 | 문화 |
| 접근법 | 도구론적 접근 | 기본론적 접근 | 구성론적 접근 |
| 이론적 관점 | 탈산업사회론 | 연결망사회론 | 스마트사회론 |

출처: 김문조(2012). 새로운 미래가 온다, 세상을 바꾸는 스마트 혁명, 20쪽.

유승호·장예빛(2012)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자기노출로 무장한 스마트 종족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집단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 미디어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2. 스마트폰 이용현황 및 이용동기

1) 스마트폰 이용 현황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3년 7월 현재 3천5백9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II-2> 참조). 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가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KT, LG 유플러스 순이었다.

| 구분 | 가입자 수 |
|------|-------------|
| SKT | 17,534,073명 |
| KT | 11,028,184명 |
| LGU+ | 7,383,794명 |
| 합 계 | 35,946,051명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정보 유무선통계(2013년 7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2013년 9월 6일 인출.

세대별로 스마트폰 소지율을 비교한 결과,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이호영·조성은·오주현·김석호·이윤석, 2012). 구체적으로 10대는 78%, 20대는 95%, 30대는 86% 정도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은 31.3%에 그쳤다. 즉 10~40대의 연령층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연령 | 스마트폰 | | 소유 | 비소유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연령 | 10대(15~19세) | 195명(100%) | 152(77.9%) | 43(22.1%) |
| | 20대(20~29세) | 309명(100%) | 294(95.1%) | 15(4.9%) |
| | 30대(30~39세) | 381명(100%) | 329(86.4%) | 52(13.6%) |
| | 40대(40~49세) | 383명(100%) | 304(79.4%) | 79(20.6%) |
| | 50대(50~59세) | 269명(100%) | 167(62.1%) | 102(37.9%) |
| | 60대(60세 이상) | 163명(100%) | 51(31.3%) | 112(68.7%) |
| 계 | | 1,700(100%) | 1,297(76.2%) | 403(23.8%) |

출처: 이호영·조성은·오주현·김석호·이윤석(2012), 디지털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148쪽.

이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10대와 20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0대 이상의 경우 SNS이용률이 낮았다. 세대별 일일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10대의 경우 5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 30대, 40대의 경우 2~5시간, 50대는 1~2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이호영 외, 2012, 155쪽). 이 같은 사실은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꽤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은 만 12세~59세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9.7%가 소셜네트워크게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47.5%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이용계기로는 모바일 앱과 같은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수시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주 평균 다운로드 모바일 앱 개수는 13.1개였고 조사시점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은 평균 46.1개였다. 다운 받은 앱의 유형은 게임·오락(79.7%)이 가장 많았고 음악(32.4%), 유틸리티(30.8%), 커뮤니케이션(30.5%), 지도·내비게이션(30.3%)의 순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과 오락을 가장 즐겨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2012)에 따르면 전체 3,453 가구 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57.5%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전날 이용한 스마트폰 앱을 질문한 결과,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이용이 84.7%로 가장 높았으며, 기사검색(50.3%), 알람·시계(46.6%), 연락처관리(43.2%), 날씨(34.6%) 순이었다. 음성통화를 제외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06분이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2)가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설치한 청소년 14,186명의 앱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앱의 범주는 게임류가 가장 많았고 사진꾸미기나 폰꾸미기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뒤를 이었다. 페이스북이나 카톡 등 SNS 범주는 9%, 날씨나 교통정보 등 생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8%였다.

김영주·정재민·이은주(2011)는 스마트폰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를 실시했다.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앱은 평균 43.9개로 나타났고 이용정도는 커뮤니케이션 앱(SNS, 메신저 등), 생산성 앱(일정관리, 달력/알람/시계 등), 여가오락(게임, 사진, 음악, 동영상 등), 뉴스정보(뉴스, 생활정보 등), 위치기반(내비게이션, 길찾기 등) 순이었다. 스마트폰 앱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앱 자체의 유용성이나 용이성, 인기, 과시, 혁신성향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즉,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앱을 채택하는데 있어 앱이 제공하는 정보 뿐 아니라 그 앱의 인기나 과시욕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을 먼저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앱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즐기는 주요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게임과 카카오톡과 같은 실시간 채팅서비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다. 황경혜·유양숙·조옥희(20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주 이용기능은 SNS가 가장 많았으며 웹정보 검색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나 SNS와 같은 관계적 서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스마트폰 이용동기 및 목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는 휴대전화 이용동기나 SNS 이용동기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일영·이수영(2011)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이용동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획득,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합성, 유행 및 과시, 즉시성 등 8개의 이용동기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이용동기 중 정보획득이 앱 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곤·신동희(2010)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빠른 접속성, 오락성, 사회적 지위, 문제해결성, 촬영/스크린 등의 다섯 가지 요인이 만족요인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은 소프트웨어요인(느린 속도 등), 경제적 요인(비싼 이용요금 등), 하드웨어 요인(통화품질저하 등)이었다. 스마트폰 만족요인이 스마트폰 몰입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오락성과 문제해결성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스마트폰을 오락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이상훈·황현석(2011)은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지각된 유용성)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킨다고 느낄수록(지각된 유희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의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⁴⁾과 사회적 영향⁵⁾은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4) 스마트폰 이용으로 기대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5)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정치 및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원태·차재권·신호철(2012)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고이용자집단은 저이용자집단에 비해 정치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정치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고이용자집단일수록 정보탐색과 정치참여의견표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여러 앱 가운데 뉴스정보관련 앱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희조·조재호(2010)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일수록 투표참여나 정치선거 캠페인, 시위나 사회운동, 특정제품불매운동 등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정보를 얻거나 정치인과의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참여정도가 높았다.

한편, 이혜인·배영(2011)은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이용정도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스마트폰 이용동기로 유행추구, 정보추구, 관계추구, 매체추구 등 4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사회자본은 대인신뢰, 제도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 이용동기는 대인신뢰와 규범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지, 관계추구형만이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제도신뢰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이용동기는 사회자본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시간 역시 사회자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대화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인신뢰도 높고 네트워크도 크며 규범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많이 교환할수록 신뢰와 규범도 높아졌다(이혜인·배영, 2011). 이 같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자본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문제점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을 이용한 따돌림 현상,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콘텐츠 접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희양·박창호(2012)는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 때문에 생기는 초조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의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565쪽). 스마트폰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이용주체의 능동성과 개입활동성이 높아 인터넷중독이나 휴대전화중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의 차원과 정도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김병년, 2013).

스마트폰 중독조사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최근 몇 차례 실시되었다. 먼저, 서울시가 강북과 성북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 고, 대학생 등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5.9%가 중독사용군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중독률(8.3%)이 남학생(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3.3.26 참조). 이 조사에서는 네 집단 중 중학생의 중독률이 가장 높았고 우울이나 불안성향이 높을수록 중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가운데 58.1%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고 79.7%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헤럴드경제, 2013.3.26).

황경혜·유양숙·조옥희(2012)는 대학생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독사용군은 전체의 11.8%로 나타났고 여자대학생들의 중독정도가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상태불안, 특성불안, 우울정도는 높게 나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사용군이 정상사용군에 비해 어깨통증호소가 많았으나 다른 부위의 상지통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년(2013)도 서울소재 46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울이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높은 우울성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통제력 향상과 우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조기발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낮고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중독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김형지·김정환·정세훈, 2012).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우울이나 불안,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스마트폰중독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황용석·박남수(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중독유형은 크게 부적응·일탈, 강박·집착, 금단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독점수의 상, 하위 15%를 기준으로 고위험집단과 안전집단을 구분해 살펴본 결과, 고위험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동조성, 모방성, 충동성, 사회적 고립감 및 불안감이 안전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중독과 관련된 요인들은 친구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의 양, 충동성, 모방성, 사회적 불안감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와의 소통이 활발할수록, 충동적이고 모방적인 성격일수록, 불안감을 많이 가질수록 휴대폰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심리적 성격과 대인관계특징이 휴대폰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동일 외(2012)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음악감상 등 엔터테인먼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한 반면, 성인들은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중독위험군을 대상으로 중독수준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불안, 우울, 충동,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으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황하성·손승혜·최윤정(2011)의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보다는 4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요인은 인터페이스적 기능(독특한 디스플레이, 다양한 색상, 크기, 디자인 등)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의 크기나 색상, 디자인 등에 만족을 느끼는 이용자일수록 중독성향이 높은 것이다.

이해경(2009)의 연구결과, 10대 연령집단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은 우울, 문자메시지서비스이용, 동호회활동시간, 책 읽는 시간, 음성통화건수로 나타났다. 즉 우울할수록, 동호회활동시간이 많을수록, 책 읽는 시간이 적을수록, 타 서비스보다 문자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음성통화건수가 적을수록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우울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한편,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요인 외에도 부모의 중재유형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중재유형이 스마트폰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별로 없지만 인터넷이용이나 게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은 일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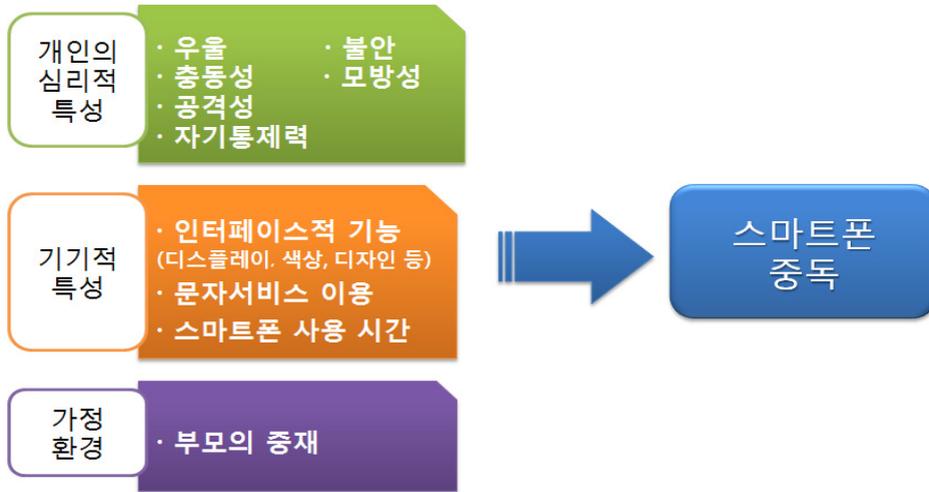
가령, 임소혜·조연하(2011)는 부모의 게임이용 중재 유형을 통제적 중재, 적극적 중재, 공동이용

중재로 나뉘었다. 통제적 중재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특정게임을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게임통제를 의미한다. 적극적 중재는 부모와 게임에 관해 대화를 나누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게임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공동이용중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을 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세 유형 중 통제적 유형만이 게임이용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임소혜·조연하, 2011). 즉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할수록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중재유형은 게임중독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중재유형에 따라 게임중독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또래집단의 통제적 중재가 청소년들의 중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는 부모보다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숙정·전소현(2010)은 부모의 중재유형이 인터넷중독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중재와 기술적 중재⁶⁾는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공동이용과 소극적 중재는 중독경향을 더 높였다. 연구자들은 네 가지 중재유형 중 적극적 중재가 이용자의 내적조절기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효율적인 중재유형이라고 주장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인터넷의 좋고 나쁜 점에 대해 얘기해주거나 유익한 사이트를 추천해주는 등의 적극적 중재는 인터넷이용시간을 줄임으로써 자녀의 중독성향을 낮췄다. 반면, 인터넷 게임이나 온라인채팅을 못하게 하거나 인터넷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소극적 중재는 오히려 인터넷 이용에 대한 조절에 실패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변인들을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 II-1】 과 같다.

6) 컴퓨터잠금장치가 되어 있거나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지가 이 유형에 속한다(이숙정·전소현, 2010, 3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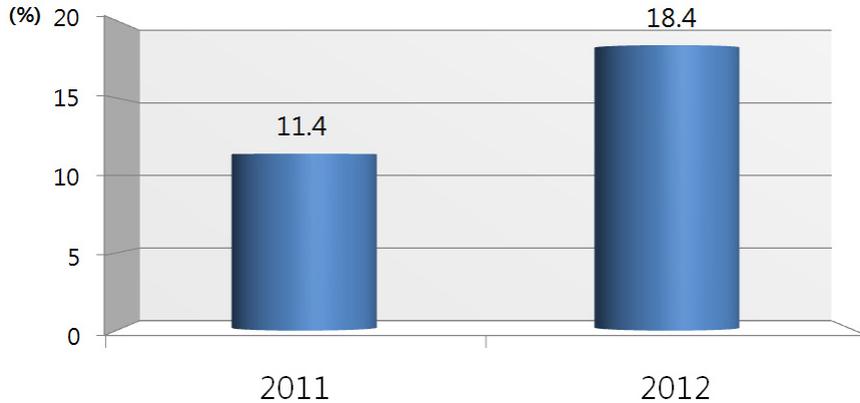
【그림 11-1】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은 크게 개인의 심리적 특성, 스마트폰 기기의 특성, 가정환경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중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모의 중재유형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중독척도를 사용하였다(자세한 문항 및 진단기준은 부록 1 참조). 이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돼 있다. 1요인(1, 5, 9, 12, 13번 문항)은 일상생활장애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학교성적이 떨어지거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요인(2, 6)은 가상세계지향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세계에 몰입돼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3요인(3, 7, 10, 14번)은 금단현상으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4요인(4, 8, 11, 15번)은 내성현상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만족을 얻으려면 더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 이 척도를 이용해 도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위험군 학생은 22%, 잠재적 위험군은 5.7%로 나타나 위험군이 전체의 7.9%로 조사됐다(메디컬투데이, 2012.10.25).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서는 위험군이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폈듯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결과, 2011년도에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11.4%였지만 2012년도 조사에서는 18.4%로 나와 1년 사이에 7% 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II-2】 참조).



【그림 II-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추이

한편, 강희양·박창호(2012)는 인터넷중독척도문항과 휴대폰중독척도문항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모두 23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몰입(6문항), 생활문제(5문항), 일상성(4문항), 과용(6문항), 관계성(2문항) 등 5가지 요인으로 구성돼 있다⁷⁾.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초래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따돌림이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일명 ‘카따’ 현상이 등장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13. 3. 7). ‘카따’는 카카오톡의 왕따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에서도 욕설이나 따돌림, 비방 등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동아일보, 2013. 2. 22).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카톡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며 그룹채팅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채팅을 하는 이른바 ‘반톡’에서 특정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욕을 하거나 놀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7) 자세한 문항은 강희양·박창호(2012), 571쪽 참조바람.

이처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따돌림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사이버따돌림⁸⁾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2.8%가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이슈가 되었다. 사이버불링은 이메일이나 채팅서비스, 소셜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Patchin & Hinduja, 2011, p. 728). 메쉬(Mesch, 2009)는 사이버불링이 루머를 퍼뜨리고 동의 없이 난처한 사진을 올리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p. 388). 미국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SNS사이트에 개인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며 채팅룸에 많이 참여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위험에 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Mesch, 2009). 이는 온라인커뮤니케이션 참여가 활발할수록 사이버불링을 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의 원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Accordino & Accordino, 2011),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 이용(Hinduja & Patchin, 2008; Smith et al., 2008)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다양한 앱 이용이 가능하면서 채팅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 등 타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연결망에서 따돌림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창호·이경상, 2013).

국내의 연구결과, 사이버불링 가해원인으로는 학교, 컴퓨터, 휴대전화에서의 비행친구 수, 부모로부터의 욕설, 폭력경험, 충동성, 도덕적 죄책감이 제시되었다(남상인·권남희, 2013). 즉 비행친구가 많고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충동적이며 도덕적 죄책감을 덜 느낄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크고 학업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길, 2013). 특히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다(이창호·이경상, 2013).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내의 많은 조사연구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오프라인상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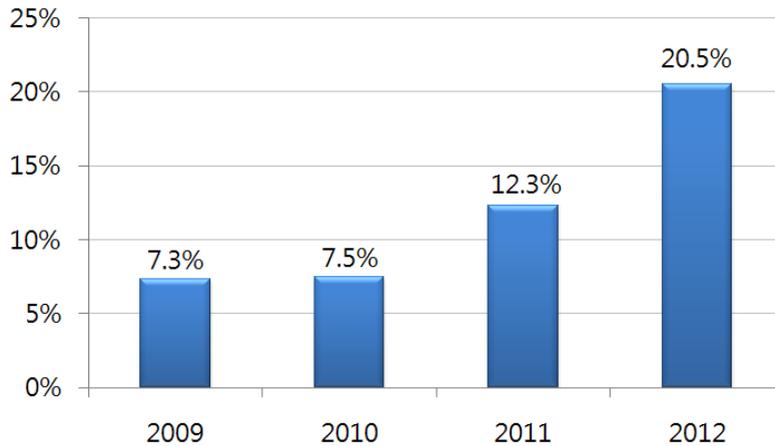
8)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출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서 2013년 5월 31일 인출함).

불링경험이 사이버불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링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링이 매우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Hinduja & Patchin, 2008).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오프라인/온라인 상에서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 비행친구 수 등이 사이버불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콘텐츠 접촉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음란물과 같은 유해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2012)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을 통해 유해매체를 접한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II-3】 참조).



출처: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54쪽.

【그림 II-3】 휴대폰을 통한 유해콘텐츠 접촉비율

특히 휴대폰을 통해 성인용 간행물이나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2)가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이 이용한 모바일 앱(62,379개) 중 성인용 앱은 3,747개로 전체의 6%로 나타났다. 성인용 앱의 대다수는 ‘여친웃벳기기’나 ‘롤렛걸즈’와 같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접속한 웹 사이트는 140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성인용 웹사이트는 7개(5%)였다(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2). 이 가운데 해외불법음란물사이트가 5개나 차지해 해외불법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행정부(2012)의 조사에서는 성인물 이용경험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접촉하는 주 이용매체로 P2P 및 파일공유사이트를 가장 많이 꼽았고, 포털이나 인터넷카페 등 인터넷서비스, 비디오/DVD, 텔레비전, 휴대전화 순이었다. 비록 휴대전화를 통해 성인물을 접촉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았지만 성인물에 대한 타인과의 공유수단으로는 휴대전화가 높게 나타났다. 즉 성인물 이용경험 청소년들의 36.1%가 다른 친구들과 만나 성인물을 돌려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25.3%는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친구들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파일공유사이트는 20.0%, SNS 는 5.7%, 카페/블로그는 5.4%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 2012). 이 같은 사실은 청소년들의 성인물 주요 접촉경로는 웹하드 및 P2P이지만 친구들과의 공유수단은 휴대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성인물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5%가 성인물을 보고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안전행정부, 2012).

4) 기타 문제들(부모, 교사와의 갈등 등)

앞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이용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이영선 외(2012)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흥미와 즐거움 추구, 사회적 상호작용, 일정관리 및 메모, 학습활동 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 등 가족과의 관계약화나 단절 등을 경험하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등 여러 부작용도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교사와 갈등을 겪는 일도 많았다. 또한 카카오톡의 그룹채팅을 통해 언어폭력이나 따돌림도 경험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당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분노나 증오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다(이영선 외, 2012).

여성가족부·한국언론학회(2013)의 조사에서도 41.2%의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응답했다. 27.6%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학부모도 함께 조사했는데 학부모의 59.3%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가끔 겪는다고 답했고, 37.3%는 자주 갈등을 겪는다고 답했다. 즉, 97.3%의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정에서는 부모와, 학교에서는 교사와 갈등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되자 일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꾸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SBS 보도, 2013.2.18). 이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시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정보 등으로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스마트폰은 소지가 간편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이 강한 매체이다.

4. 소결

201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스마트폰은 이전의 피쳐폰에 비해 매우 빠른 확산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듯이, 2011년에 36.2%에 불과했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불과 2년 뒤인 2013년 80%에 육박할 정도로 불과 2년 사이에 배 이상 증가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이제 친구와도 같은 존재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앱을 가지고 있어 적절히 활용되면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앞서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앱은 카카오톡, SNS, 음악, 게임 등으로 나타났다. 성인세대와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청소년들에게 높았다. 특히 카카오톡을 비롯한 채팅서비스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청소년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앱은 관계적 네트워크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면서 여러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심각한 것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다. 앞서 살펴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학생들이 주로 했던 게임을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여학생들도 쉽게 즐기면서 비롯된 새로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채팅서비스 이용이 빈번한 것도 주요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한 따돌림도 증가하고 있다. 반 친구들이 이용하는 카카오

톡방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룹채팅을 통해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행위가 채팅서비스에서 확산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따돌림행위는 사소한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이 이용되고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겪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을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도움도 많이 되지만 중독이나 따돌림 등 그 역기능도 많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 3 장

스마트폰이용설문조사 및 면접조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청소년면접조사결과
3. 전문가면접조사결과
4. 소결

제 3 장

스마트폰이용설문조사 및 면접조사결과⁹⁾

1.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조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패널을 확보하고 있는 한 온라인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년 교육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성, 학년별로 층화한 후 할당하는 방식으로 표집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조사과정¹⁰⁾은 다음과 같다(<표 III-1> 참조). 즉, 웹 설문을 구축한 후 몇 차례 테스트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이후 유효표본(3,000명)의 3배수(9,000명)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참여한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본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3주간이다.

조사내용은 스마트폰 이용시간, 이용동기, 앱 이용 정도, 스마트폰 중독정도, 성인용 앱 다운로드 정도,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정도 등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정도¹¹⁾와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애착정도, 학교생활참여 및 만족도 등도 측정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스마트폰 중독척도문항(부록에 있는 설문지 문 4 참조)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에 대한 질문(문 15 참조)은 임소혜·조연하(2011)가 부모의 게임이용중재를 측정한 것을 참조하여 구성¹¹⁾하였고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애착정도(문 16 참조)는 한국 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¹²⁾를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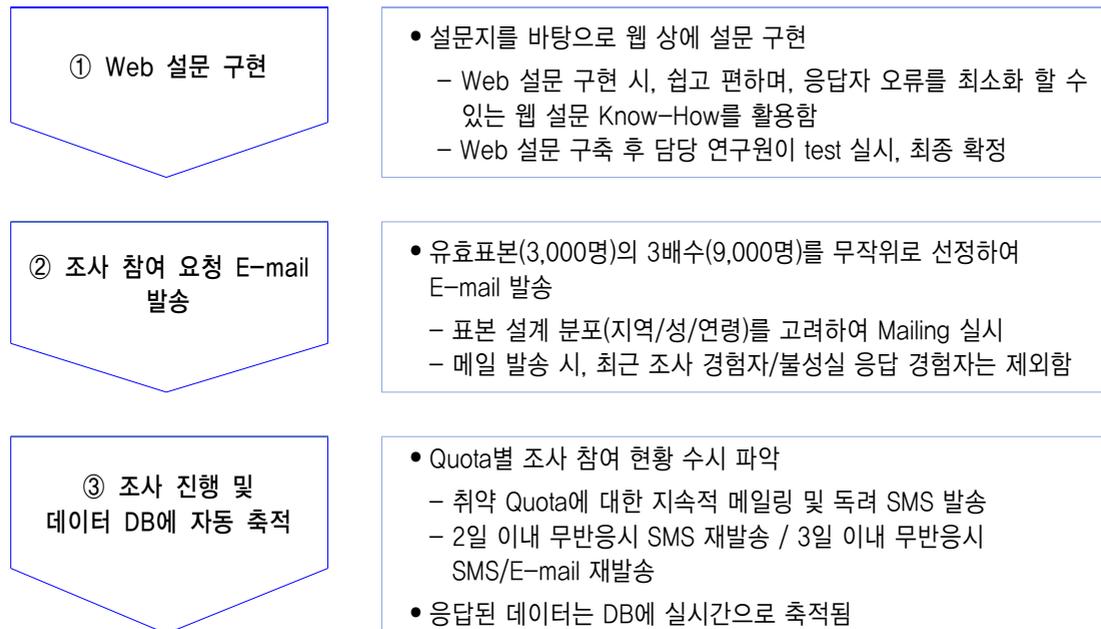
9) 이 장은 이창호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10) 이는 조사업체가 보내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보고서에 기초한 것임.

11) 문 15 10번(부모님은 내가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에 별 신경을 안 쓰신다)과 11번(부모님은 내가 스마트폰을 써도 나무라지 않는다) 두 문항은 필자가 새롭게 추가한 문항들임.

만들었다. 스마트폰 이용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문 2 참조)은 양일영·이수영(2011, 124쪽)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소셜미디어이용동기문항들(이창호·성윤숙·정낙원, 2012, 95쪽)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표 III-1 온라인 조사과정



출처: 엠브레인(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8쪽.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아래 <표 III-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52.7%로 여학생보다 약간 높다.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1,500명, 고등학생이 1,500명으로 동일하다. 학년별 비율은 16% 정도로 비교적 균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4.6%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5%로 뒤를 이었다. 학교성적의 경우 중간이 47.5%로 가장 많았다.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동·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archive.nypi.re.kr)에서 인출(2013년 4월 10일)한 패널조사 질문지를 바탕으로 함.

표 III-2 응답자 특성

| | | 사례수 | 백분율 |
|------|-----------------|-------|-------|
| 전 체 | | 3,000 | 100.0 |
| 성 | 남 자 | 1,580 | 52.7 |
| | 여 자 | 1,420 | 47.3 |
| 교급 | 중 학 교 | 1,500 | 50.0 |
| | 고 등 학 교 | 1,500 | 50.0 |
| 학년 | 중 1 | 487 | 16.2 |
| | 중 2 | 494 | 16.5 |
| | 중 3 | 519 | 17.3 |
| | 고 1 | 503 | 16.8 |
| | 고 2 | 503 | 16.8 |
| | 고 3 | 494 | 16.5 |
| 지역 | 서 울 | 525 | 17.5 |
| | 경 기 | 739 | 24.6 |
| | 인 천 | 167 | 5.6 |
| | 부 산 / 울 산 / 경 남 | 475 | 15.8 |
| | 대 구 / 경 북 | 313 | 10.4 |
| | 광 주 / 전 라 | 336 | 11.2 |
| | 대 전 / 충 청 | 317 | 10.6 |
| | 강 원 | 91 | 3.0 |
| 제 주 | 37 | 1.2 | |
| 학교성적 | 상 | 1,067 | 35.6 |
| | 중 | 1,425 | 47.5 |
| | 하 | 508 | 16.9 |

2) 조사결과

(1) 스마트폰중독

가) 스마트폰중독실태

앞서 논의한 대로,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6%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했고 7.6%는 고위험군이었다. 즉 전체응답자의 35.2%가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율은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독성향도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노출됐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친 비율은 여학생들의 경우 42.6%였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28.6%였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경우가 스마트폰 중독위험성이 높았고 아버지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위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저소득가정의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게 나온 것이다.

표 III-3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정도

| | | 일반사용자군 | 잠재적 위험군 | 고위험군 | 중독률(잠재적 위험+고위험) | 전체 |
|----|---|---------------|--------------|-------------|-----------------|----------------|
| 전체 | | 1942 64.7% | 829 27.6% | 229 7.6% | 35.2% | 3000 100.0% |
| 성별 | 남 | 1127 71.3% | 359 22.7% | 94 5.9% | 28.6% | 1580 100.0% |
| | 여 | 815 57.4% | 470 33.1% | 135 9.5% | 42.6% | 1420 100.0% |

| | | 일반사용자군 | 잠재적 위험군 | 고위험군 | 중독률(잠재적 위험+고위험) | 전체 |
|-------------|------------|---------------|--------------|-------------|--------------------|----------------|
| 교급별 | 중학교 | 1004 66.9% | 386 25.7% | 110 7.3% | 33.0% | 1500 100.0% |
| | 고등학교 | 938 62.5% | 443 29.5% | 119 7.9% | 37.4% | 1500 100.0% |
| 학년별 | 중1 | 372 76.4% | 91 18.7% | 24 4.9% | 23.6% | 487 100.0% |
| | 중2 | 315 63.8% | 143 28.9% | 36 7.3% | 36.2% | 494 100.0% |
| | 중3 | 317 61.1% | 152 29.3% | 50 9.6% | 38.9% | 519 100.0% |
| | 고1 | 301 59.8% | 155 30.8% | 47 9.3% | 40.1% | 503 100.0% |
| | 고2 | 312 62.0% | 154 30.6% | 37 7.4% | 38.0% | 503 100.0% |
| | 고3 | 325 65.8% | 134 27.1% | 35 7.1% | 34.2% | 494 100.0% |
| 가정 유형별 | 양부모 가정 | 1580 64.4% | 687 28.0% | 186 7.6% | 35.6% | 2453 100.0% |
| | 한부모 가정 | 282 68.4% | 98 23.8% | 32 7.8% | 31.6% | 412 100.0% |
| | 조손 가정 | 40 62.5% | 20 31.3% | 4 6.3% | 37.6% | 64 100.0% |
| | 기타 | 40 56.3% | 24 33.8% | 7 9.9% | 43.7% | 71 100.0% |
| 아버지 직업유무 | 있음 | 1791 64.5% | 777 28.0% | 207 7.5% | 35.5% | 2775 100.0% |
| | 없음 | 62 59.0% | 27 25.7% | 16 15.2% | 40.9% | 105 100.0% |
| | 해당사항 없음 | 89 74.2% | 25 20.8% | 6 5.0% | 25.8% | 120 100.0% |
| 어머니 직업유무 | 있음 | 1313 63.8% | 587 28.5% | 158 7.7% | 36.2% | 2058 100.0% |
| | 없음 | 566 66.7% | 222 26.1% | 61 7.2% | 33.3% | 849 100.0% |
| | 해당사항 없음 | 63 67.7% | 20 21.5% | 10 10.8% | 32.3% | 93 100.0% |

| | | 일반사용자군 | 잠재적 위험군 | 고위험군 | 중독률(잠재적 위험+고위험) | 전체 |
|----------|---|---------------|--------------|-------------|-----------------|----------------|
| 가정의 경제수준 | 하 | 134 60.9% | 62 28.2% | 24 10.9% | 39.1% | 220 100.0% |
| | 중 | 1619 64.3% | 712 28.3% | 186 7.4% | 35.7% | 2517 100.0% |
| | 상 | 189 71.9% | 55 20.9% | 19 7.2% | 28.1% | 263 100.0% |

지역별로 중독률을 살펴본 결과, 고위험사용자군의 경우 대전/충청도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도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이 고위험중독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4 지역별 스마트폰 중독률

| | 일반사용자군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 고위험 사용자군 | 중독률 | 전체 |
|----------|--------|-------------|----------|-------|--------|
| 서울 | 337 | 159 | 29 | 35.8% | 525 |
| | 64.2% | 30.3% | 5.5% | | 100.0% |
| 경기/인천 | 595 | 250 | 61 | 34.3% | 906 |
| | 65.7% | 27.6% | 6.7% | | 100.0% |
| 부산/울산/경남 | 313 | 120 | 42 | 34.1% | 475 |
| | 65.9% | 25.3% | 8.8% | | 100.0% |
| 대구/경북 | 195 | 92 | 26 | 37.7% | 313 |
| | 62.3% | 29.4% | 8.3% | | 100.0% |
| 광주/전라 | 216 | 92 | 28 | 35.7% | 336 |
| | 64.3% | 27.4% | 8.3% | | 100.0% |
| 대전/충청 | 200 | 83 | 34 | 36.9% | 317 |
| | 63.1% | 26.2% | 10.7% | | 100.0% |
| 강원/제주 | 86 | 33 | 9 | 32.8% | 128 |
| | 67.2% | 25.8% | 7.0% | | 100.0% |
| 전체 | 1942 | 829 | 229 | 35.2% | 3000 |
| | 64.7% | 27.6% | 7.6% | | 100.0% |

스마트폰과 관련된 학교규칙에 따른 중독률 차이¹³⁾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을 아예 학교에 못가져 오게 하는 경우 중독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기타라고 응답한 19명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표 III-5 학교규칙에 따른 중독률

| | 중독률 | | | 전체 |
|--|--------|-------------|----------|--------|
| | 일반사용자군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 고위험 사용자군 | |
| 스마트폰을 아예 학교에 못 가져오게 하는 경우 | 101 | 33 | 9 | 29.4% |
| | 70.6% | 23.1% | 6.3% | 100.0% |
| 조례 때 거두고 종례 때 돌려주는 경우 | 1324 | 562 | 156 | 35.1% |
| | 64.8% | 27.5% | 7.6% | 100.0% |
| 스마트폰을 소지하도록 하지만 수업시간에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을 주거나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경우 | 504 | 231 | 61 | 36.7% |
| | 63.3% | 29.0% | 7.7% | 100.0% |
| 전체 | 1,929 | 826 | 226 | 35.3% |
| | 64.7% | 27.7% | 7.6% | 100.0% |

중독요인별로 살펴보면 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상생활장애, 금단, 가상세계지향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중학교 집단에서 가상세계지향요인이 더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여학생들의 중독성향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6 중독요인별 점수

| 요인 | 합계 | 성별 | | 교급별 | |
|--------|----------------|----------------|----------------|----------------|----------------|
| | | 남 | 여 | 중학교 | 고등학교 |
| 일상생활장애 | 2.33 (.640) | 2.24 (.642) | 2.43 (.623) | 2.34 (.634) | 2.33 (.647) |
| 가상세계지향 | 1.87 (.685) | 1.87 (.704) | 1.87 (.664) | 1.94 (.715) | 1.80 (.647) |
| 금단 | 2.09 (.669) | 2.03 (.667) | 2.16 (.664) | 2.08 (.670) | 2.10 (.668) |
| 내성 | 2.38 (.634) | 2.27 (.643) | 2.50 (.601) | 2.36 (.640) | 2.39 (.628) |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 ()은 표준편차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다. <표 III-7>이 보여주듯이, 64.6%의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답했고 59.1%의 응답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됐다는 데 동의했다. 절반가량의 학생(50.1%)들은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고 43.8%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공부나 숙제를 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32.8%)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지만 실패했다고 답했다. 또한 43.9%의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표 III-7 스마트폰 중독 척도 문항 (단위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계 |
|---|-----------|--------|------|--------|-----|
|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 23.5 | 45.1 | 26.9 | 4.5 | 100 |
|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 30.1 | 46.7 | 19.3 | 3.9 | 100 |
|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 20.6 | 35.5 | 35.1 | 8.8 | 100 |
|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 23.8 | 43.3 | 27.4 | 5.4 | 100 |
| 5)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 21.7 | 34.5 | 35.5 | 8.3 | 100 |
|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42.3 | 40.7 | 14.2 | 2.8 | 100 |
|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 35.1 | 37.1 | 23.5 | 4.3 | 100 |
|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3.5 | 32.0 | 50.8 | 13.8 | 100 |
| 9)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20.6 | 29.3 | 41.8 | 8.3 | 100 |
|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 4.8 | 33.2 | 46.6 | 15.4 | 100 |
|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 | 12.0 | 31.6 | 44.5 | 11.9 | 100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계 |
|---|-----------|--------|------|--------|-----|
|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 21.0 | 30.7 | 39.2 | 9.0 | 100 |
|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8.5 | 43.7 | 38.0 | 9.7 | 100 |
|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 39.6 | 42.7 | 15.1 | 2.6 | 100 |
|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 13.4 | 27.5 | 47.6 | 11.5 | 100 |

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 교급, 소득수준 등 배경변인을 투입하였다. 투입된 변인은 전체 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 배경변인 가운데는 성과 경제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았다.

두 번째로 투입된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무제한데이터요금제이용여부는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35, p<.001$).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 투입변수들은 92%의 설명력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변화량}=155.102, p<.001$).

표 III-8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 | B | 표준오차 | |
| 단계 1 | | | |
| 성 (여성=1) | .115 | .021 | .100 ^{***} |
| 교급 (고등학생=1) | .018 | .022 | .016 |
| 경제수준 | -.035 | .009 | -.068 ^{***} |
| 단계 2 | | | |
| 스마트폰 이용시간 | .130 | .010 | .235 ^{***} |
|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 여부 (이용함=1) | .054 | .030 | .030 |
| 단계 3 | | | |
| 채팅 | .044 | .012 | .068 ^{***} |
| 소셜네트워크 | .014 | .008 | .035 |
| 게임 | .023 | .007 | .058 ^{**} |
| 음악 | -.018 | .009 | -.036 |
| 뉴스 | .036 | .008 | .088 ^{***} |
| 생활정보 | -.018 | .008 | -.043 [*] |
| 폰꾸미기 | .024 | .010 | .049 [*] |
| 동영상 | .042 | .008 | .098 ^{***} |
| 웹툰 | -.001 | .007 | -.003 |
| e-Book | -.019 | .010 | -.036 |
| 랜덤채팅 | .052 | .011 | .088 ^{***} |
| 단계 4 | | | |
| 제한적 중재 | .122 | .020 | .143 ^{***} |
| 적극적 중재 | .003 | .020 | .004 |
| 공동 이용 | .040 | .016 | .051 [*] |
| 중재를 안하는 경우 | -.080 | .012 | -.113 ^{***} |

1단계에서 $R^2=.021$; 2, 3, 4단계에서는 $\Delta R^2=.092, .059, .039$ (모두 $p<.00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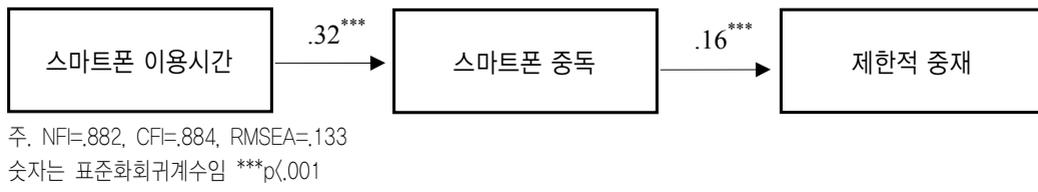
세 번째로 투입된 변수들은 스마트폰 앱 이용정도다. 이 변수들은 5.9%의 설명력을 높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19.39, $p<.001$). 모두 11가지 앱 중 채팅, 게임, 뉴스, 동영상, 폰 꾸미기, 랜덤채팅의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중독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중재여부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9%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변화량=37.09, p<.001). 부모의 중재유형 가운데는 제한적 중재와 공동이용이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중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 중재는 스마트폰 중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중재를 안하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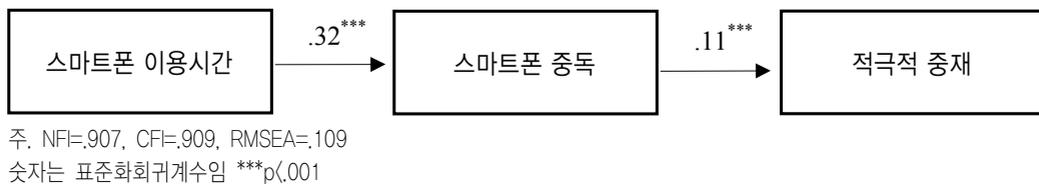
이처럼 부모의 중재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응으로 부모의 중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가령,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중독돼 있기 때문에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III-1】**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제한적 중재도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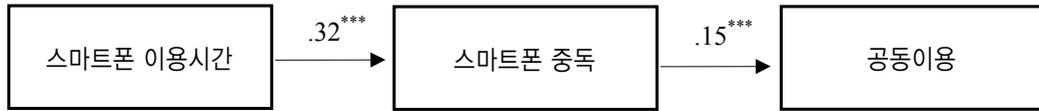


【그림 III-1】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중독정도가 제한적 중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강할수록 적극적 중재와 공동이용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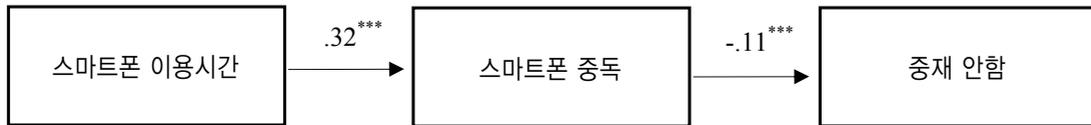
【그림 III-2】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중독정도가 적극적 중재에 미치는 영향



주. NFI=.986, CFI=.989, RMSEA=.038
 숫자는 표준화회귀계수임 ***p<.001

【그림 Ⅲ-3】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중독정도가 공동이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약할수록 부모가 중재를 안 하고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NFI=.937, CFI=.939, RMSEA=.088
 숫자는 표준화회귀계수임 ***p<.001

【그림 Ⅲ-4】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중독정도가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위 결과는 부모의 중재유형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결과로 비롯됐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가)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실태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정도를 살펴본 결과,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따돌림 경험은 3.1%, 문자는 2.8%, 사진 1.6%, 이메일 1.3%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채팅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다. 남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을 따돌리는 사진이나 이메일을 여학생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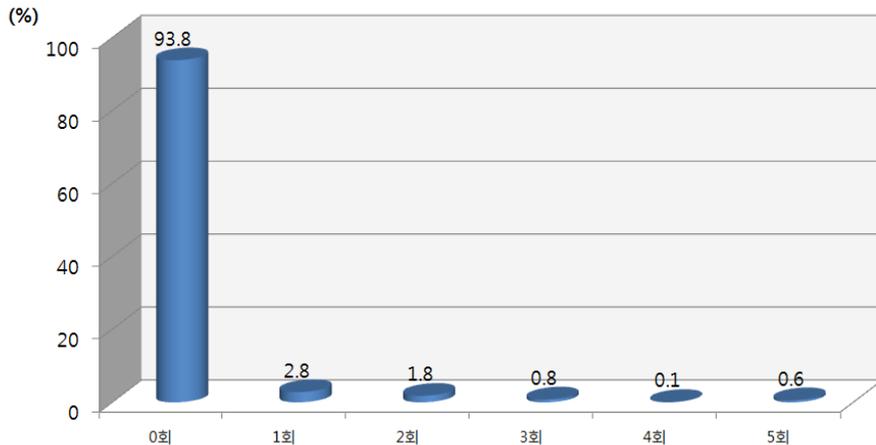
표 III-9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단위 : %)

| | |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다 |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사진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이메일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
| 전체 | | 3.8 | 3.1 | 2.8 | 1.6 | 1.3 |
| 성 | 남 | 3.6 | 2.7 | 2.8 | 2.5 | 2.1 |
| | 여 | 4.0 | 3.5 | 2.7 | 0.6 | 0.4 |
| 교급 | 중학교 | 5.0 | 4.0 | 3.5 | 1.4 | 1.3 |
| | 고등학교 | 2.6 | 2.1 | 2.1 | 1.9 | 1.2 |

* 각 문항에 대해 있다, 없자로 답변함.

따돌림을 당한 횟수를 합쳐 빈도를 살펴본 결과, 따돌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3.8%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비율은 2.8%였고 5회를 다 경험한 비율은 0.6%였다.



【그림 III-5】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횟수

배경변인별로 각 유형별 스마트폰 따돌림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놀리는 사진을 받아 본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카이제곱=16.76, $p < .001$).

또한 채팅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서비스를 통한 따돌림 항목에서도 교급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각각 카이제곱=11.81, $p<.01$, 카이제곱=8.79, $p<.01$, 카이제곱=5.92, $p<.05$). 즉 세 항목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따돌림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채팅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소득이 높은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문자나, 사진, 이메일을 통해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학력이나 직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III-10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따돌림 정도 (단위 : %)

| | |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다 | |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사진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이메일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
|-------|--------|------------------------------|-----|-----------------------------------|-----|---------------------------------|-----|---------------------------------|-----|----------------------------------|-----|
| |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 성 | 남자 | 96.4 | 3.6 | 97.3 | 2.7 | 97.2 | 2.8 | 97.5 | 2.5 | 97.9 | 2.1 |
| | 여자 | 96.0 | 4.0 | 96.5 | 3.5 | 97.3 | 2.7 | 99.4 | .6 | 99.6 | .4 |
| 교급 | 중학교 | 95.0 | 5.0 | 96.0 | 4.0 | 96.5 | 3.5 | 98.6 | 1.4 | 98.7 | 1.3 |
| | 고등학교 | 97.4 | 2.6 | 97.9 | 2.1 | 97.9 | 2.1 | 98.1 | 1.9 | 98.8 | 1.2 |
| 가정 유형 | 양부모 가정 | 96.4 | 3.6 | 97.1 | 2.9 | 97.4 | 2.6 | 98.5 | 1.5 | 99.0 | 1.0 |
| | 한부모 가정 | 95.6 | 4.4 | 96.1 | 3.9 | 96.6 | 3.4 | 98.1 | 1.9 | 97.8 | 2.2 |
| | 조손 가정 | 92.2 | 7.8 | 92.2 | 7.8 | 95.3 | 4.7 | 95.3 | 4.7 | 95.3 | 4.7 |
| | 기타 | 97.2 | 2.8 | 98.6 | 1.4 | 94.4 | 5.6 | 97.2 | 2.8 | 97.2 | 2.8 |
| 경제 수준 | 하 | 94.5 | 5.5 | 95.5 | 4.5 | 96.8 | 3.2 | 99.1 | .9 | 99.1 | .9 |
| | 중 | 96.3 | 3.7 | 97.1 | 2.9 | 97.4 | 2.6 | 98.4 | 1.6 | 98.8 | 1.2 |
| | 상 | 96.2 | 3.8 | 97.0 | 3.0 | 95.8 | 4.2 | 97.3 | 2.7 | 97.3 | 2.7 |

| | |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다 | |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사진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이메일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
|-----------|---------|------------------------------|-----|-----------------------------------|-----|---------------------------------|-----|---------------------------------|-----|----------------------------------|-----|
| |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 아버지 학력 | 고졸 이하 | 96.8 | 3.2 | 97.0 | 3.0 | 97.0 | 3.0 | 97.9 | 2.1 | 98.6 | 1.4 |
| | 전문대졸 이상 | 95.9 | 4.1 | 96.7 | 3.3 | 97.1 | 2.9 | 98.4 | 1.6 | 98.6 | 1.4 |
| 어머니 학력 | 고졸 이하 | 96.7 | 3.3 | 97.2 | 2.8 | 97.2 | 2.8 | 98.0 | 2.0 | 98.7 | 1.3 |
| | 전문대졸 이상 | 95.8 | 4.2 | 96.5 | 3.5 | 96.8 | 3.2 | 98.4 | 1.6 | 98.6 | 1.4 |
| 아버지 직업 | 있음 | 96.3 | 3.7 | 97.0 | 3.0 | 97.3 | 2.7 | 98.4 | 1.6 | 98.8 | 1.2 |
| | 없음 | 93.3 | 6.7 | 95.2 | 4.8 | 96.2 | 3.8 | 96.2 | 3.8 | 97.1 | 2.9 |
| 어머니 직업 | 있음 | 96.2 | 3.8 | 96.9 | 3.1 | 97.1 | 2.9 | 98.4 | 1.6 | 98.7 | 1.3 |
| | 없음 | 96.0 | 4.0 | 96.8 | 3.2 | 97.3 | 2.7 | 98.0 | 2.0 | 98.6 | 1.4 |

주14) 아버지직업 N=2,880, 어머니직업 N=2,907
 아버지학력 N=2,707, 어머니학력 N=2,700

나)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채팅서비스를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배경변인 가운데는 교급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채팅서비스를 통한 따돌림을 받는 확률이 높았다. 학교생활참여 및 만족도 변인 가운데는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일수록 따돌림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변인 가운데는 부모와의 애착이 따돌림을 줄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됐다.

14) 부모직업이나 부모학력의 경우 잘 모르겠거나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함.

표 III -11 채팅서비스를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변수 | | B | S.E.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상수) | | 2.289 | .719 | 10.140 | 1 | .001 | 9.870 |
| 배경 변인 | 성 | .156 | .201 | .598 | 1 | .439 | 1.168 |
| | 교급 | -.851 | .215 | 15.695 | 1 | .000 | .427 |
| | 소득수준 | -.043 | .094 | .205 | 1 | .651 | .958 |
| 학교생활 참여 및 만족도 | 교우관계 | -.908 | .184 | 24.465 | 1 | .000 | .403 |
| | 학교활동 참여 | .307 | .158 | 3.765 | 1 | .052 | 1.360 |
| | 학교생활 만족 | -.373 | .154 | 5.859 | 1 | .016 | .689 |
| 애착 | 부모애착 | -.587 | .182 | 10.432 | 1 | .001 | .556 |
| | 친구애착 | -.284 | .173 | 2.696 | 1 | .101 | .753 |
| | 선생님과의 애착 | .144 | .162 | .793 | 1 | .373 | 1.155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교급,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 부모애착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SNS를 통한 따돌림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부모애착이 강한 학생일수록 SNS를 통한 따돌림을 덜 겪었다.

표 III -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변수 | | B | S.E.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상수) | | 1.400 | .792 | 3.126 | 1 | .077 | 4.055 |
| 배경 변인 | 성 | .348 | .224 | 2.420 | 1 | .120 | 1.416 |
| | 교급 | -.777 | .237 | 10.783 | 1 | .001 | .460 |
| | 소득수준 | .092 | .104 | .786 | 1 | .375 | 1.097 |
| 학교생활 참여 및 만족도 | 교우관계 | -.956 | .200 | 22.746 | 1 | .000 | .385 |
| | 학교활동 참여 | .153 | .171 | .799 | 1 | .371 | 1.165 |
| | 학교생활 만족 | -.375 | .170 | 4.856 | 1 | .028 | .687 |
| 애착 | 부모애착 | -.647 | .201 | 10.397 | 1 | .001 | .524 |
| | 친구애착 | -.080 | .193 | .171 | 1 | .679 | .923 |
| | 선생님과의 애착 | .172 | .179 | .931 | 1 | .335 | 1.188 |

문자를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은 교급,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 부모애착, 선생님과의 애착이었다. 즉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문자를 통한 따돌림을 더 많이 받았고 교우관계가 좋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으며 부모애착이 강한 학생일수록 문자를 통한 따돌림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의 애착정도가 강한 청소년들의 경우 오히려 따돌림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문자를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변수 | B | S.E.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 (상수) | .720 | .816 | .780 | 1 | .377 | 2.055 | |
| 배경 변인 | 성 | .055 | .231 | .057 | 1 | .810 | 1.057 |
| | 교급 | -.586 | .243 | 5.803 | 1 | .016 | .556 |
| | 소득수준 | .139 | .107 | 1.694 | 1 | .193 | 1.149 |
| 학교생활 참여 및 만족도 | 교우관계 | -.670 | .212 | 9.971 | 1 | .002 | .512 |
| | 학교활동 참여 | .059 | .183 | .106 | 1 | .745 | 1.061 |
| | 학교생활 만족 | -.593 | .173 | 11.754 | 1 | .001 | .553 |
| 애착 | 부모애착 | -.437 | .216 | 4.090 | 1 | .043 | .646 |
| | 친구애착 | -.364 | .205 | 3.148 | 1 | .076 | .695 |
| | 선생님과의 애착 | .522 | .191 | 7.434 | 1 | .006 | 1.685 |

사진을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 교우관계, 친구애착이었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따돌리는 사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교우관계가 좋고 친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그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사진을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 변수 | B | S.E.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 (상수) | .117 | .988 | .014 | 1 | .906 | 1.124 | |
| 배경 변인 | 성 | -1.208 | .379 | 10.140 | 1 | .001 | .299 |
| | 교급 | .353 | .309 | 1.308 | 1 | .253 | 1.423 |
| | 소득수준 | .156 | .137 | 1.300 | 1 | .254 | 1.169 |
| 학교생활 참여 및 만족도 | 교우관계 | -.810 | .266 | 9.255 | 1 | .002 | .445 |
| | 학교활동 참여 | -.114 | .238 | .228 | 1 | .633 | .892 |
| | 학교생활 만족 | .258 | .258 | .997 | 1 | .318 | 1.294 |
| 애착 | 부모애착 | -.413 | .286 | 2.084 | 1 | .149 | .661 |
| | 친구애착 | -.567 | .259 | 4.797 | 1 | .029 | .567 |
| | 선생님과의 애착 | .115 | .250 | .213 | 1 | .645 | 1.122 |

이메일을 통한 따돌림에는 성, 소득수준, 교우관계, 애착변인 모두가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이메일을 통한 따돌림에 취약했고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메일을 통한 따돌림을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만한 교우관계는 이메일을 통한 따돌림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부모와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따돌림 정도는 감소되었다.

표 III-15 이메일을 통한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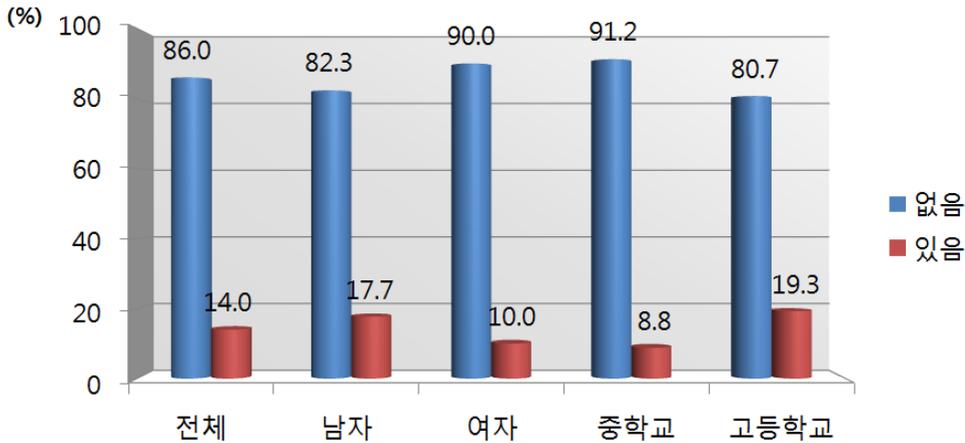
| 변수 | B | S.E.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 (상수) | .639 | 1.090 | .344 | 1 | .558 | 1.895 | |
| 배경 변인 | 성 | -1.500 | .492 | 9.287 | 1 | .002 | .223 |
| | 교급 | .035 | .355 | .010 | 1 | .921 | 1.036 |
| | 소득수준 | .393 | .156 | 6.336 | 1 | .012 | 1.481 |
| 학교생활 참여 및 만족도 | 교우관계 | -.765 | .305 | 6.296 | 1 | .012 | .465 |
| | 학교활동 참여 | -.133 | .283 | .220 | 1 | .639 | .876 |
| | 학교생활 만족 | -.130 | .290 | .202 | 1 | .653 | .878 |
| 애착 | 부모애착 | -1.045 | .333 | 9.878 | 1 | .002 | .352 |
| | 친구애착 | -.692 | .299 | 5.332 | 1 | .021 | .501 |
| | 선생님과과의 애착 | .679 | .303 | 5.026 | 1 | .025 | 1.971 |

(3)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콘텐츠접촉

가)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콘텐츠접촉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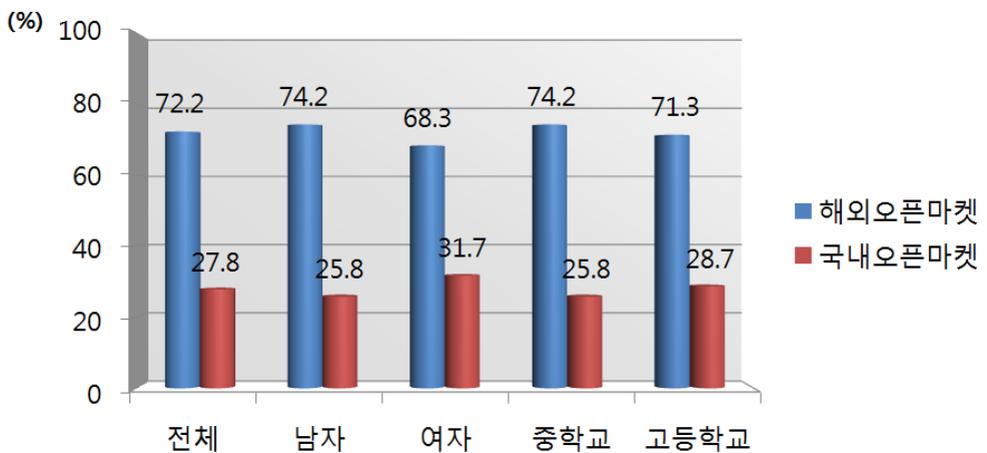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음란물, 도박 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III-6】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용 앱 다운로드 여부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앱들을 주로 어디서 다운로드 했느냐고 질문한 결과, 구글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많이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성인용 앱 다운로드 경로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마트보안관 중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차단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25.3%였고 스마트보안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2.7%에 그쳤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았다.

표 III-16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

| | | 둘 중 어떤 것도 이용 안함 |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스마트보안관 이용 |
|-----|------|--------------------|------------------------|-----------|
| 전 체 | | 71.3 | 25.3 | 12.7 |
| 성 | 남 | 73.9 | 22.9 | 12.7 |
| | 여 | 68.3 | 28.0 | 12.7 |
| 교급 | 중학교 | 67.2 | 29.1 | 15.3 |
| | 고등학교 | 75.3 | 21.5 | 10.0 |

나)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콘텐츠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앞서 살폈듯이, 응답자의 14%가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성인용 앱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배경변인 가운데는 성과 교급이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활동참여는 오히려 앱 다운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변인 가운데는 부모애착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이 성인용 앱을 덜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스마트보안관이나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미약하나마 영향을 미쳤는데 전자는 다운로드를 강화시키는데, 후자는 다운로드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유해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II-17 성인용 앱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 변수 | B | S.E. | Wals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 (상수) | -1.501 | .448 | 11.243 | 1 | .001 | .223 | |
| 배경변인 | 성 | -.663 | .115 | 33.498 | 1 | .000 | .515 |
| | 교급 | .927 | .118 | 61.949 | 1 | .000 | 2.527 |
| | 소득수준 | .062 | .051 | 1.505 | 1 | .220 | 1.064 |
| 학교생활 참여 및 만족도 | 교우관계 | -.092 | .113 | .664 | 1 | .415 | .912 |
| | 학교활동 참여 | .175 | .089 | 3.890 | 1 | .049 | 1.191 |
| | 학교생활 만족 | -.133 | .089 | 2.237 | 1 | .135 | .876 |
| 애착 | 부모애착 | -.393 | .100 | 15.472 | 1 | .000 | .675 |
| | 친구애착 | .129 | .105 | 1.505 | 1 | .220 | 1.137 |
| | 선생님과의 애착 | .018 | .086 | .042 | 1 | .837 | 1.018 |
|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 스마트보안관이 용여부 (이용한다=1) | .322 | .179 | 3.226 | 1 | .072 | 1.380 |
| | 이동통신사 제공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한다=1) | -.286 | .147 | 3.805 | 1 | .051 | .751 |

(4) 기타 조사결과

가) 스마트폰 이용 부작용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질문한 결과, 자는 척하면서 부모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다.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목이 빠근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느라 잠을 설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선생님 몰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51.8%에 달했다.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6.3%나 돼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 갈등을 겪는 비율은 16.6%로 낮게 나타났고 스마트폰 때문에 귀나 손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낮았다.

성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

스마트폰 이용 부작용

(단위 : %)

| | | 자는 척하면서 부모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다 | 목이 빠근 하거나 아픈 적이 있다 | 스마트 폰을 이용 하느라 잠을 설친 적이 있다 | 선생님 몰래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스마트 폰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눈이 침침 하거나 아픈 적이 있다 | 어깨나 팔이 절리거나 아픈 적이 있다 | 귀가 울리거나 멍멍한 적이 있다 | 손이 떨리거나 아픈 적이 있다 | 스마트폰 때문에 선생님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
| 전체 | | 62.6 | 53.2 | 52.3 | 51.8 | 46.3 | 45.1 | 42.4 | 23.4 | 17.4 | 16.6 |
| 성 | 남 | 55.9 | 47.8 | 47.2 | 49.9 | 42.3 | 38.2 | 37.0 | 21.7 | 15.6 | 16.8 |
| | 여 | 69.9 | 59.3 | 58.1 | 53.9 | 50.7 | 52.8 | 48.5 | 25.4 | 19.4 | 16.4 |
| 교급 | 중학교 | 60.1 | 47.5 | 45.1 | 36.9 | 49.7 | 37.5 | 36.1 | 20.1 | 15.9 | 15.4 |
| | 고등학교 | 65.1 | 58.9 | 59.5 | 66.6 | 42.9 | 52.7 | 48.8 | 26.8 | 18.9 | 17.8 |

* 각 문항에 대해 있다, 없자로 답변함.

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학교규칙, 스마트폰 교육 및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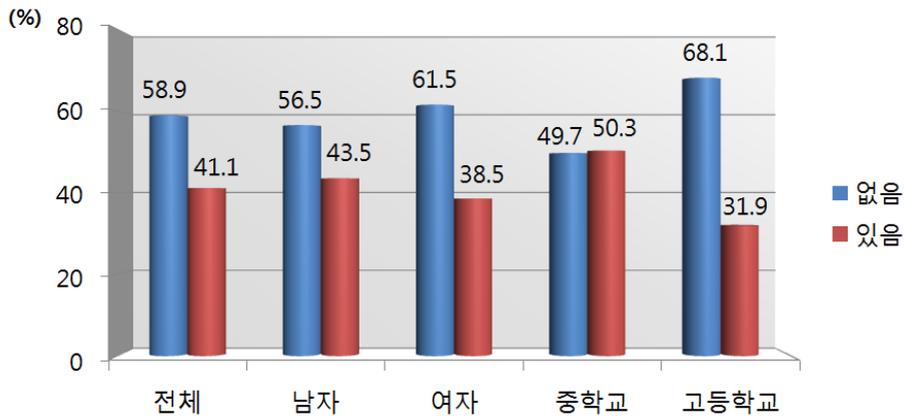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어떤 규칙이나 방침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례 때 스마트폰을 거두고 종례 때 돌려주는 수거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아예 못 가져오게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4.8%였다. 수거방침은 중학교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 응답자 전체의 82.0%가 조례 때 거두고 종례 때 스마트폰을 돌려준다고 답한 반면 고등학생 응답자 중 54.1%가 이 같은 방침을 학교에서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표 III-19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학교규칙

(단위 : %)

| | | 조례 때 거두고 종례 때 돌려준다 | 소지하도록 허용하지만 수업시간에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을 주거나 다른 제재를 가한다 | 스마트폰을 아예 학교에 못 가져 오게 한다 | 기타 | 계 |
|--------|------|-----------------------|--|-------------------------------|-----|-----|
| 전 체 | | 68.1 | 26.5 | 4.8 | 0.6 | 100 |
| 성 | 남 | 66.1 | 27.2 | 5.8 | 0.8 | 100 |
| | 여 | 70.2 | 25.8 | 3.6 | 0.4 | 100 |
| 학 교 | 중학교 | 82.0 | 12.0 | 5.7 | 0.3 | 100 |
| | 고등학교 | 54.1 | 41.1 | 3.8 | 1.0 | 100 |

최근 1년 내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받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에 못 미치는 41.1%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학생의 경우 50.3%, 고등학생의 경우 31.9%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반응을 보여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교육이 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8】 스마트폰과 관련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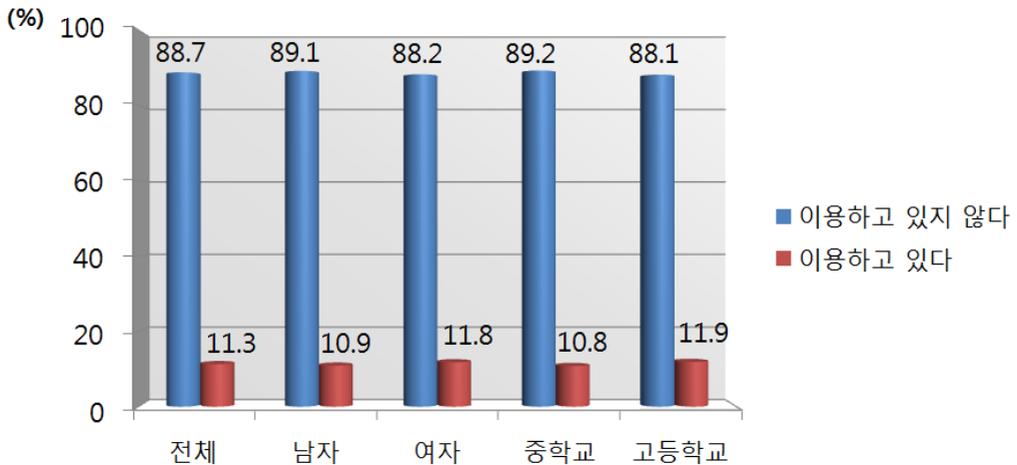
최근 1년간 스마트폰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지 23%의 응답자만이 있다고 답했다.

표 Ⅲ-20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상담 유무 (단위 : %)

| | | 없다 | 있다 | 계 |
|-----|------|------|-----|-----|
| 전 체 | | 97.7 | 2.3 | 100 |
| 성 | 남 | 97.7 | 2.3 | 100 |
| | 여 | 97.7 | 2.3 | 100 |
| 학교 | 중학교 | 96.7 | 3.3 | 100 |
| | 고등학교 | 98.6 | 1.4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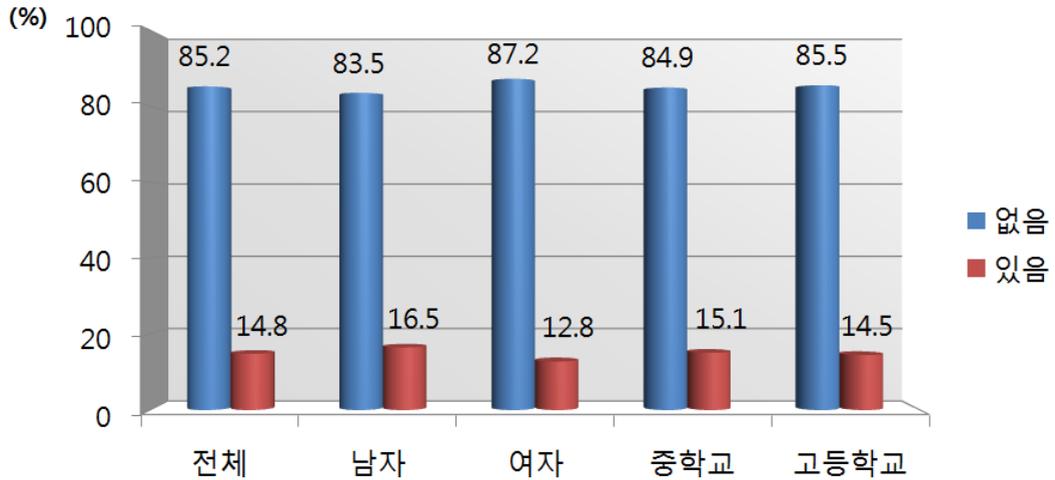
다) 무제한 데이터요금제이용 및 태블릿 PC 소유 여부

스마트폰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1.3%가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무제한 데이터요금을 다소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Ⅲ-9】 무제한데이터요금제 이용 여부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14.8%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보유율이 더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보유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림 Ⅲ-10】 태블릿 PC 보유 여부

라)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이용동기

주중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지 살펴본 결과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9%였고 응답자 10명 중 2명 가량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보낸 걸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3시간 이상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봤을 때, 7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3시간 이상~5시간 미만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5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 7시간 이상 | 전체 | |
|-----------|-----|--------------|-----------------|-----------------|-----------------|--------------|----------------|----------------|
| 스마트폰 이용시간 | 전 체 | 328 10.9% | 1364 45.5% | 799 26.6% | 302 10.1% | 207 6.9%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220 13.9% | 821 52.0% | 365 23.1% | 97 6.1% | 77 4.9% | 1580 100.0% |
| | | 여자 | 108 7.6% | 543 38.2% | 434 30.6% | 205 14.4% | 130 9.2%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203 13.5% | 690 46.0% | 397 26.5% | 134 8.9% | 76 5.1%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125 8.3% | 674 44.9% | 402 26.8% | 168 11.2% | 131 8.7% | 1500 100.0% |
| | 학년별 | 중1 | 95 19.5% | 222 45.6% | 120 24.6% | 27 5.5% | 23 4.7% | 487 100.0% |
| | | 중2 | 63 12.8% | 236 47.8% | 123 24.9% | 50 10.1% | 22 4.5% | 494 100.0% |
| | | 중3 | 45 8.7% | 232 44.7% | 154 29.7% | 57 11.0% | 31 6.0% | 519 100.0% |
| | | 고1 | 39 7.8% | 249 49.5% | 122 24.3% | 55 10.9% | 38 7.6% | 503 100.0% |
| | | 고2 | 38 7.6% | 215 42.7% | 144 28.6% | 59 11.7% | 47 9.3% | 503 100.0% |
| | | 고3 | 48 9.7% | 210 42.5% | 136 27.5% | 54 10.9% | 46 9.3% | 494 100.0%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정보/즐거움/통합서비스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체의 26.86%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크론바하알파값은 .7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유행/과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체의 13.55%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크론바하알파값은 .653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정체성/교류/학습자료공유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체의 10.22%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크로바하알파값은 .577로 낮았다.

표 III-22 스마트폰 이용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 요인 |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대한 문항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설명변량 |
|---------------------------------|---|------|------|------|--------|
| 정보/즐거움/ 통합서비스 (.772) | 2)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용한다. | .662 | | | 26.86% |
| | 3) 아는 사람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이용한다. | .658 | | | |
| | 6) 즉각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이용한다. | .690 | | | |
| | 7) 재미있고 즐거워서 이용한다. | .716 | | | |
| | 8) 심심해서 이용한다. | .625 | | | |
| | 9) 친구들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어 이용한다. | .438 | | | |
| | 14) 여러 개의 서비스(TV시청, 통화, 인터넷 등)를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한다. | .613 | | | |
| 유행/과시 (.653) | 11) 친구들이 사용하니까 이용한다. | | .735 | | 13.55% |
| | 12)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용한다. | | .699 | | |
| | 13) 습관적으로 이용한다. | | .632 | | |
| 정체성/ 교류/학습 자료공유 (.577) | 1) 나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 이용한다. | | | .547 | 10.22% |
| | 4)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 수 있어 이용한다. | | | .643 | |
| | 5)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이용한다. | | | .736 | |
| | 10) 학습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한다. | | | .540 | |

*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회전방법을 사용함.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 ()은 문항간 신뢰도 계수임.

스마트폰 이용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아는 사람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각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점과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였다. 재미있고 즐거워서, 심심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높았다. 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사람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적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도 낮았다. 흥미롭게도 스마트폰을 과시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예상보다 적었다.

성별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 아는 사람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거나 친구들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어 이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급별로 보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귄 수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중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각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 집단에게서 더 높았다. 특히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 중학생들의 경우 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과시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향이 보다 많았다.

표 III-23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 (단위 : 평균)

| | 합계 | 성별 | | 교급별 | |
|-----------------------------------|----------------|----------------|----------------|----------------|----------------|
| | | 남 | 여 | 중학교 | 고등학교 |
| 1) 나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 이용한다. | 2.46 (.777) | 2.46 (.805) | 2.46 (.744) | 2.55 (.798) | 2.37 (.744) |
| 2)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용한다. | 3.35 (.600) | 3.30 (.622) | 3.41 (.570) | 3.30 (.623) | 3.41 (.571) |
| 3) 아는 사람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 이용한다. | 3.45 (.614) | 3.37 (.655) | 3.53 (.552) | 3.43 (.629) | 3.46 (.597) |
| 4)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귄 수 있어 이용한다. | 2.48 (.876) | 2.53 (.877) | 2.42 (.872) | 2.59 (.894) | 2.37 (.843) |
| 5)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이용한다. | 2.46 (.835) | 2.54 (.866) | 2.36 (.788) | 2.50 (.858) | 2.41 (.808) |
| 6) 즉각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이용한다. | 3.39 (.643) | 3.32 (.676) | 3.45 (.597) | 3.29 (.681) | 3.49 (.587) |
| 7) 재미있고 즐거워서 이용한다. | 3.41 (.635) | 3.34 (.672) | 3.48 (.584) | 3.43 (.648) | 3.39 (.622) |
| 8) 심심해서 이용한다. | 3.31 (.688) | 3.21 (.724) | 3.42 (.629) | 3.29 (.722) | 3.32 (.652) |
| 9) 친구들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어 이용한다. | 3.06 (.760) | 2.95 (.799) | 3.19 (.694) | 3.09 (.772) | 3.04 (.747) |
| 10) 학습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한다. | 2.64 (.791) | 2.60 (.817) | 2.69 (.758) | 2.64 (.807) | 2.65 (.774) |
| 11) 친구들이 사용하니까 이용한다. | 2.56 (.883) | 2.50 (.908) | 2.62 (.850) | 2.64 (.884) | 2.48 (.875) |

| | 합계 | 성별 | | 교급별 | |
|---|----------------|----------------|----------------|----------------|----------------|
| | | 남 | 여 | 중학교 | 고등학교 |
| 12)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용한다. | 1.93 (.854) | 1.95 (.887) | 1.90 (.816) | 2.06 (.885) | 1.80 (.802) |
| 13) 습관적으로 이용한다. | 3.02 (.812) | 2.86 (.854) | 3.20 (.724) | 2.97 (.838) | 3.07 (.782) |
| 14) 여러 개의 서비스(TV시청, 통화, 인터넷 등)를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한다. | 3.22 (.731) | 3.15 (.759) | 3.30 (.689) | 3.20 (.747) | 3.24 (.713) |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 ()은 표준편차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는 성, 교급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은 친교와 즐거움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남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중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이 고등학생들보다 많아 고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이 다소 적극적인 정보추구 경향을 보였다. 또한 친구들이 사용하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도 중학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중학생들이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앱 이용정도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의 앱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지 살펴본 결과,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같은 채팅서비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토리같은 소셜네트워크, 음악 등을 즐겨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폰 꾸미기, e-book의 사용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랜덤채팅서비스의 경우도 76.0%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이용률이 저조했다.

표 III-24 스마트폰 앱 이용 정도

| | |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일주일 에 1일 미만 이용한다 | 일주일 에 1-2일 이용한다 | 일주일 에 3-4일 이용한다 | 일주일 에 5일 이상 이용한다 | 전체 | |
|------------------------------------|-----|-------------------|---------------------------|-----------------------|-----------------------|---------------------------|-----------------|-----------------|
| 채팅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전체 | 49 1.6% | 106 3.5% | 178 5.9% | 309 10.3% | 2,358 78.6%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36 2.3% | 79 5.0% | 118 7.5% | 191 12.1% | 1,156 73.2% | 1,580 100.0% |
| | | 여자 | 13 .9% | 27 1.9% | 60 4.2% | 118 8.3% | 1,202 84.6%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25 1.7% | 60 4.0% | 115 7.7% | 187 12.5% | 1,113 74.2%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24 1.6% | 46 3.1% | 63 4.2% | 122 8.1% | 1,245 83.0% | 1,500 100.0% |
|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 전체 | 377 12.6% | 184 6.1% | 296 9.9% | 388 12.9% | 1,755 58.5%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230 14.6% | 118 7.5% | 182 11.5% | 203 12.8% | 847 53.6% | 1,580 100.0% |
| | | 여자 | 147 10.4% | 66 4.6% | 114 8.0% | 185 13.0% | 908 63.9%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169 11.3% | 98 6.5% | 161 10.7% | 209 13.9% | 863 57.5%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208 13.9% | 86 5.7% | 135 9.0% | 179 11.9% | 892 59.5% | 1,500 100.0% |
| 게임 | 전체 | 452 15.1% | 336 11.2% | 453 15.1% | 628 20.9% | 1,131 37.7%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185 11.7% | 157 9.9% | 247 15.6% | 332 21.0% | 659 41.7% | 1,580 100.0% |
| | | 여자 | 267 18.8% | 179 12.6% | 206 14.5% | 296 20.8% | 472 33.2%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171 11.4% | 158 10.5% | 198 13.2% | 328 21.9% | 645 43.0%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281 18.7% | 178 11.9% | 255 17.0% | 300 20.0% | 486 32.4% | 1,500 100.0% |
| 음악 | 전체 | 115 3.8% | 202 6.7% | 335 11.2% | 553 18.4% | 1,795 59.8%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74 4.7% | 111 7.0% | 198 12.5% | 290 18.4% | 907 57.4% | 1,580 100.0% |
| | | 여자 | 41 2.9% | 91 6.4% | 137 9.6% | 263 18.5% | 888 62.5%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73 4.9% | 143 9.5% | 211 14.1% | 290 19.3% | 783 52.2%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42 2.8% | 59 3.9% | 124 8.3% | 263 17.5% | 1,012 67.5% | 1,5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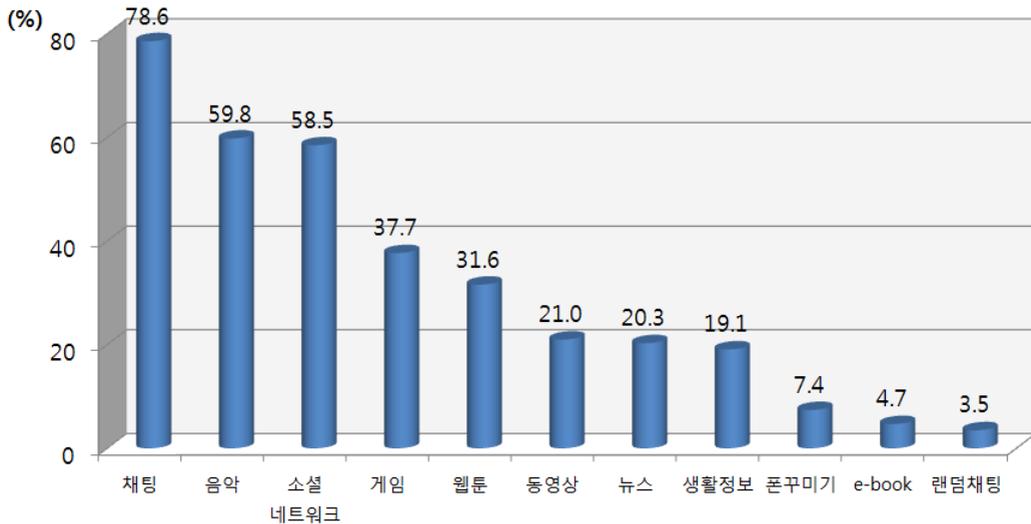
| | |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일주일에 1일 미만 이용한다 | 일주일에 1-2일 이용한다 | 일주일에 3-4일 이용한다 |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다 | 전체 | |
|-----------------------------|-----|-------------------|-----------------------|----------------------|----------------------|-----------------------|-----------------|-----------------|
| 뉴스 (포털뉴스, 언론사뉴스 등) | 전체 | 534 17.8% | 578 19.3% | 712 23.7% | 568 18.9% | 608 20.3%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302 19.1% | 268 17.0% | 362 22.9% | 279 17.7% | 369 23.4% | 1,580 100.0% |
| | | 여자 | 232 16.3% | 310 21.8% | 350 24.6% | 289 20.4% | 239 16.8%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383 25.5% | 370 24.7% | 334 22.3% | 204 13.6% | 209 13.9%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151 10.1% | 208 13.9% | 378 25.2% | 364 24.3% | 399 26.6% | 1,500 100.0% |
| 생활정보 (날씨, 교통정보 등) | 전체 | 578 19.3% | 672 22.4% | 679 22.6% | 499 16.6% | 572 19.1%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306 19.4% | 318 20.1% | 365 23.1% | 260 16.5% | 331 20.9% | 1,580 100.0% |
| | | 여자 | 272 19.2% | 354 24.9% | 314 22.1% | 239 16.8% | 241 17.0%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361 24.1% | 406 27.1% | 319 21.3% | 201 13.4% | 213 14.2%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217 14.5% | 266 17.7% | 360 24.0% | 298 19.9% | 359 23.9% | 1,500 100.0% |
| 폰꾸미기 | 전체 | 877 29.2% | 1119 37.3% | 542 18.1% | 239 8.0% | 223 7.4%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617 39.1% | 536 33.9% | 245 15.5% | 85 5.4% | 97 6.1% | 1,580 100.0% |
| | | 여자 | 260 18.3% | 583 41.1% | 297 20.9% | 154 10.8% | 126 8.9%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403 26.9% | 510 34.0% | 276 18.4% | 143 9.5% | 168 11.2%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474 31.6% | 609 40.6% | 266 17.7% | 96 6.4% | 55 3.7% | 1,500 100.0% |
| 동영상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 전체 | 432 14.4% | 576 19.2% | 780 26.0% | 583 19.4% | 629 21.0%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233 14.7% | 235 14.9% | 387 24.5% | 305 19.3% | 420 26.6% | 1,580 100.0% |
| | | 여자 | 199 14.0% | 341 24.0% | 393 27.7% | 278 19.6% | 209 14.7%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231 15.4% | 260 17.3% | 366 24.4% | 299 19.9% | 344 22.9%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201 13.4% | 316 21.1% | 414 27.6% | 284 18.9% | 285 19.0% | 1,500 100.0% |

| | |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일주일 1일 미만 이용한다 | 일주일 1-2일 이용한다 | 일주일 3-4일 이용한다 | 일주일 5일 이상 이용한다 | 전체 | |
|-----------------|-----|-------------------|----------------------|---------------------|---------------------|----------------------|-----------------|-----------------|
| 웹툰 | 전체 | 624 20.8% | 380 12.7% | 569 19.0% | 480 16.0% | 947 31.6%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317 20.1% | 158 10.0% | 268 17.0% | 261 16.5% | 576 36.5% | 1,580 100.0% |
| | | 여자 | 307 21.6% | 222 15.6% | 301 21.2% | 219 15.4% | 371 26.1%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330 22.0% | 221 14.7% | 281 18.7% | 218 14.5% | 450 30.0%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294 19.6% | 159 10.6% | 288 19.2% | 262 17.5% | 497 33.1% | 1,500 100.0% |
| e-Book | 전체 | 1925 64.2% | 513 17.1% | 280 9.3% | 140 4.7% | 142 4.7%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997 63.1% | 274 17.3% | 149 9.4% | 72 4.6% | 88 5.6% | 1,580 100.0% |
| | | 여자 | 928 65.4% | 239 16.8% | 131 9.2% | 68 4.8% | 54 3.8%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955 63.7% | 272 18.1% | 128 8.5% | 69 4.6% | 76 5.1%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970 64.7% | 241 16.1% | 152 10.1% | 71 4.7% | 66 4.4% | 1,500 100.0% |
| 랜덤채팅 (똥단배 등) | 전체 | 2279 76.0% | 358 11.9% | 177 5.9% | 80 2.7% | 106 3.5% | 3,000 100.0% | |
| | 성별 | 남자 | 1171 74.1% | 189 12.0% | 107 6.8% | 49 3.1% | 64 4.1% | 1,580 100.0% |
| | | 여자 | 1108 78.0% | 169 11.9% | 70 4.9% | 31 2.2% | 42 3.0%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1092 72.8% | 205 13.7% | 98 6.5% | 35 2.3% | 70 4.7%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1187 79.1% | 153 10.2% | 79 5.3% | 45 3.0% | 36 2.4% | 1,500 100.0% |

성별로 살펴보면, 게임의 경우 남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였고 채팅 앱은 여학생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폰 꾸미기의 경우는 여학생들의 이용비율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교급별로 보면, 게임의 이용 빈도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뉴스 앱의 경우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그림 III-11】 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채팅을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고 음악, 소셜네트워크, 게임, 웹툰 순이었다. 반면, 폰꾸미기, e-book, 랜덤채팅서비스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림 III-11】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앱

이 같은 사실은 카카오톡 같은 채팅과 음악, 소셜네트워크, 게임, 웹툰 등의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확산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 스마트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정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부모가 어떤 중재노력을 하는 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중재유형을 크게 제한적 중재, 적극적 중재, 공동이용으로 구분하였고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 37%의 응답자들은 부모가 얼마나 오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지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48.1%)은 부모와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대화한다는 데 동의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31.6%)은 부모와 스마트폰 게임을 함께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경우(18.1%)는 드물었다. 또한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찾는 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17%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5분의 1 가량(19.5%) 학생들은 부모가 유익한 앱을 소개해준다고 말했고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지정해 준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에 비해 부모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남학생들에 비해 부모와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5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 중재유형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 제한적 중재 (.798) | 1) 부모(혹은 보호자)는 내가 얼마나 오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지 확인한다. | 전체 | 742 24.7% | 1141 38.0% | 969 32.3% | 148 4.9% | 3000 100.0% | |
| | | 성별 | 남 | 382 24.2% | 582 36.8% | 538 34.1% | 78 4.9% | 1580 100.0% |
| | | | 여 | 360 25.4% | 559 39.4% | 431 30.4% | 70 4.9% | 1420 100.0% |
| | | 교급별 | 중학교 | 252 16.8% | 525 35.0% | 603 40.2% | 120 8.0% | 1500 100.0% |
| | | | 고등학교 | 490 32.7% | 616 41.1% | 366 24.4% | 28 1.9% | 1500 100.0% |
| | | 2) 부모(혹은 보호자)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 | 전체 | 1294 43.1% | 1164 38.8% | 440 14.7% | 102 3.4% | 3000 100.0% |
| | 성별 | | 남 | 614 38.9% | 617 39.1% | 287 18.2% | 62 3.9% | 1580 100.0% |
| | | | 여 | 680 47.9% | 547 38.5% | 153 10.8% | 40 2.8% | 1420 100.0% |
| | 교급별 | | 중학교 | 470 31.3% | 607 40.5% | 338 22.5% | 85 5.7% | 1500 100.0% |
| | | | 고등학교 | 824 54.9% | 557 37.1% | 102 6.8% | 17 1.1% | 1500 100.0% |
| | 3) 부모(혹은 보호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지정해 준다. | | 전체 | 1644 54.8% | 1043 34.8% | 261 8.7% | 52 1.7% | 3000 100.0% |
| | | 성별 | 남 | 758 48.0% | 599 37.9% | 190 12.0% | 33 2.1% | 1580 100.0% |
| 여 | | | 886 62.4% | 444 31.3% | 71 5.0% | 19 1.3% | 1420 100.0% | |

| 증재유형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 | | 교급별 | 중학교 640 42.7% | 625 41.7% | 194 12.9% | 41 2.7% | 1500 100.0% | |
| | | | 고등학교 1004 66.9% | 418 27.9% | 67 4.5% | 11 .7% | 1500 100.0% | |
| 적극적 증재 (.807) | 4) 부모(혹은 보호자)는 나와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전체 | | 1078 35.9% | 1020 34.0% | 792 26.4% | 110 3.7% | 3000 100.0% |
| | | 성별 | 남 | 537 34.0% | 542 34.3% | 436 27.6% | 65 4.1% | 1580 100.0% |
| | | | 여 | 541 38.1% | 478 33.7% | 356 25.1% | 45 3.2% | 1420 100.0% |
| | | 교급별 | 중학교 | 420 28.0% | 551 36.7% | 444 29.6% | 85 5.7% | 1500 100.0% |
| | | | 고등학교 | 658 43.9% | 469 31.3% | 348 23.2% | 25 1.7% | 1500 100.0% |
| | | 5) 부모(혹은 보호자)는 나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찾는 법을 알려 준다. | 전체 | | 1359 45.3% | 1132 37.7% | 429 14.3% | 80 2.7% |
| | 성별 | | 남 | 657 41.6% | 593 37.5% | 276 17.5% | 54 3.4% | 1580 100.0% |
| | | | 여 | 702 49.4% | 539 38.0% | 153 10.8% | 26 1.8% | 1420 100.0% |
| | 교급별 | | 중학교 | 520 34.7% | 617 41.1% | 299 19.9% | 64 4.3% | 1500 100.0% |
| | | | 고등학교 | 839 55.9% | 515 34.3% | 130 8.7% | 16 1.1% | 1500 100.0% |
| | 6) 부모(혹은 보호자)는 나에게 유익한 앱을 소개해준다. | | 전체 | | 1348 44.9% | 1066 35.5% | 493 16.4% | 93 3.1% |
| | | 성별 | 남 | 661 41.8% | 577 36.5% | 281 17.8% | 61 3.9% | 1580 100.0% |
| 여 | | | 687 48.4% | 489 34.4% | 212 14.9% | 32 2.3% | 1420 100.0% | |
| 교급별 | | 중학교 | 513 34.2% | 599 39.9% | 317 21.1% | 71 4.7% | 1500 100.0% | |
| | | 고등학교 | 835 55.7% | 467 31.1% | 176 11.7% | 22 1.5% | 1500 100.0% | |
| 공동이용 (.728) | | 7) 부모(혹은 보호자)는 나와 스마트폰 게임을 함께 즐기는 편이다. | 전체 | | 1112 37.1% | 940 31.3% | 810 27.0% | 138 4.6% |
| | 성별 | | 남 | 602 38.1% | 537 34.0% | 376 23.8% | 65 4.1% | 1580 100.0% |

| 증재유형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 8) 부모(혹은 보호자)는 나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한다. | 교급별 | 여 | 510 35.9% | 403 28.4% | 434 30.6% | 73 5.1% | 1420 100.0% | |
| | | 중학교 | 479 31.9% | 529 35.3% | 405 27.0% | 87 5.8% | 1500 100.0% | |
| | | 고등학교 | 633 42.2% | 411 27.4% | 405 27.0% | 51 3.4% | 1500 100.0% | |
| | 성별 | 전체 | | 1201 40.0% | 1057 35.2% | 632 21.1% | 110 3.7% | 3000 100.0% |
| | | 남 | 여 | 642 40.6% | 558 35.3% | 330 20.9% | 50 3.2% | 1580 100.0% |
| | | | 여 | 559 39.4% | 499 35.1% | 302 21.3% | 60 4.2% | 1420 100.0% |
| | | 교급별 | 중학교 | 517 34.5% | 576 38.4% | 350 23.3% | 57 3.8% | 1500 100.0% |
| | | | 고등학교 | 684 45.6% | 481 32.1% | 282 18.8% | 53 3.5% | 1500 100.0% |
| | 9) 부모(혹은 보호자)는 나와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대화한다. | 전체 | | 797 26.6% | 759 25.3% | 1187 39.6% | 257 8.6% | 3000 100.0% |
| | | 성별 | 남 | 454 28.7% | 424 26.8% | 590 37.3% | 112 7.1% | 1580 100.0% |
| | | | 여 | 343 24.2% | 335 23.6% | 597 42.0% | 145 10.2% | 1420 100.0% |
| | | 교급별 | 중학교 | 388 25.9% | 434 28.9% | 565 37.7% | 113 7.5% | 1500 100.0% |
| 고등학교 | | | 409 27.3% | 325 21.7% | 622 41.5% | 144 9.6% | 1500 100.0% | |
| 10) 부모(혹은 보호자)는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에 별 신경을 안 쓴다. | 전체 | | 511 17.0% | 1179 39.3% | 1056 35.2% | 254 8.5% | 3000 100.0% | |
| | 성별 | 남 | 285 18.0% | 616 39.0% | 544 34.4% | 135 8.5% | 1580 100.0% | |
| | | 여 | 226 15.9% | 563 39.6% | 512 36.1% | 119 8.4% | 1420 100.0% | |
| | 교급별 | 중학교 | 317 21.1% | 659 43.9% | 438 29.2% | 86 5.7% | 1500 100.0% | |
| | | 고등학교 | 194 12.9% | 520 34.7% | 618 41.2% | 168 11.2% | 1500 100.0% | |
| | 11) 부모(혹은 보호자)는 내가 | 전체 | | 555 18.5% | 1201 40.0% | 988 32.9% | 256 8.5% | 3000 100.0% |

| 중재유형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스마트폰을 써도 나무라지 않는다. | 성별 | 남 | 304 19.2% | 632 40.0% | 507 32.1% | 137 8.7% | 1580 100.0% |
| | | 여 | 251 17.7% | 569 40.1% | 481 33.9% | 119 8.4% | 1420 100.0% |
| | 교급별 | 중학교 | 344 22.9% | 675 45.0% | 389 25.9% | 92 6.1% | 1500 100.0% |
| | | 고등학교 | 211 14.1% | 526 35.1% | 599 39.9% | 164 10.9% | 1500 100.0% |

* ()은 문항간 신뢰도계수임.

각 중재유형별 평균은 아래와 같다. 전체적으로 중재를 안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재유형 가운데는 공동이용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의 경우 제한적 중재와 적극적 중재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동이용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세 가지 중재 유형 모두에서 중학교 집단이 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중재를 안 하는 쪽이 중학교보다 더 높았다.

표 III-26 성/교급에 따른 부모 중재 여부

| | | 제한적 중재 | 적극적 중재 | 공동이용 | 중재를 안하는 경우 |
|-----|------|---------------|---------------|---------------|---------------|
| 전 체 | | 1.84 (.67) | 1.83 (.70) | 2.05 (.73) | 2.33 (.80) |
| 성별 | 남 | 1.91 (.70) | 1.89 (.74) | 2.01 (.72) | 2.31 (.81) |
| | 여 | 1.76 (.63) | 1.76 (.66) | 2.11 (.73) | 2.34 (.80) |
| 교급별 | 중학교 | 2.05 (.69) | 2.01 (.73) | 2.10 (.72) | 2.17 (.77) |
| | 고등학교 | 1.62 (.58) | 1.65 (.63) | 2.01 (.73) | 2.49 (.81) |

2. 청소년면접조사결과

1) 인터뷰 대상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 고등학생 총 1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참가자 선정은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청소년수련관, 학교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고 인터뷰에 참가한 학생들은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인터뷰에 걸린 시간은 30여분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대상자의 정보는 아래 <표 III-27>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이고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6명이다. 데이터요금제는 청소년 전용요금제가 가장 많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2명이었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많게는 14~16시간, 적게는 2~3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인터뷰 대상자 정보

| 인터뷰 대상자 | 성별 | 교급 | 학년 | 데이터 요금제 | 하루 스마트폰 이용시간 | 인터뷰 장소 | 인터뷰 소요 시간 |
|---------|----|------|----|-------------------------|--------------|--------------|-----------|
| 1 | 여 | 중학교 | 3 | 65,000 (3G 무제한제공) | 6시간 | OO I will 센터 | 약 30분 |
| 2 | 여 | 중학교 | 3 | 35,000 (3G 100MB 제공) | 3~4시간 | OO I will 센터 | 약 30분 |
| 3 | 남 | 중학교 | 3 | 10,000 (2G 일반요금제) | 2~3시간 | OO I will 센터 | 약 20분 |
| 4 | 여 | 중학교 | 3 | 65,000 (LTE 2G 제공) | 16시간 | OO복지 문화센터 | 약 30분 |
| 5 | 여 | 중학교 | 3 | 55,000 (3G 무제한제공) | 5시간 | OO복지 문화센터 | 약 30분 |
| 6 | 남 | 고등학교 | 2 | 24,000 (LTE 청소년전용) | 3~4시간 | OO 청소년 문화의 집 | 약 30분 |
| 7 | 남 | 고등학교 | 2 | 54,000 (LTE 1G 제공) | 7~10 시간 | OO 청소년 수련관 | 약 20분 |
| 8 | 여 | 고등학교 | 2 | 42,000 (LTE 청소년전용) | 14시간 | OO 청소년 수련관 | 약 30분 |
| 9 | 남 | 중학교 | 3 | 30,000 (2G 청소년전용) | 4시간 | OO 청소년 수련관 | 약 25분 |

| 인터뷰 대상자 | 성별 | 교급 | 학년 | 데이터 요금제 | 하루 스마트폰 이용시간 | 인터뷰 장소 | 인터뷰 소요 시간 |
|---------|----|------|----|-----------------------|--------------|-----------|-----------|
| 10 | 남 | 고등학교 | 2 | 35,000 (LTE 청소년전용) | 3시간 | OO복지 문화센터 | 약 30분 |
| 11 | 남 | 고등학교 | 2 | 17,000 (2G 일반요금제) | 3~4시간 | OO커피 전문점 | 약 30분 |
| 12 | 여 | 고등학교 | 2 | 34,000 (LTE 청소년전용) | 4~5시간 | OO커피 전문점 | 약 30분 |

인터뷰내용은 아래 박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루 언제 어디서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지와 스마트폰 앱 중 어떤 것을 많이 이용하는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문제점 등이다. 아울러, 학교나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하는 지도 질문하였고 스마트폰이 응답자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물었다. 질문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캐묻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내용〉

인터뷰_

- 일시 :
- 장소 :
- 인터뷰 대상자 : 학교, 학년, 성별도 함께 표기
- 인터뷰 소요시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
- 하루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지 질문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지 질문 (수업시간, 쉬는시간, 방과 후 시간, 학원, 잠자기 전 등)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 (게임, SNS, 카카오톡, 폰꾸미기 등)
 - 게임을 이용한다면 어떤 게임을 이용하는지 질문
 - 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질문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 (정보검색, 또래와의 소통강화 등)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 (중독, 따돌림 등)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 (스마트폰을 아예 못 가져오게 하는지, 수거를 하는지 등등)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부모의 중재여부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파악)
-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접촉 정도 (랜덤채팅이나 문자 등을 통한 접촉)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 설치여부 (스마트보안관, 자녀폰 안심서비스 등)
 - 얼마나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
 - 설치를 안 한 경우 그 이유 질문
-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 수강 여부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질문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 (스마트폰 중독대책,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예방대책 등)에 대한 질문

인터뷰내용은 크게 몇 가지 중심주제로 분류한 뒤 각 중심주제에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내거나 이를 개념화하거나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1)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이용

응답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저녁에 집에 가서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했다. 일부 학생은 학원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확인하고, 학교 가서 게임 몇 번하고, 쉬는 시간 마다 게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카톡하고, 게임하고 해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밤에 또 게임하다가 인터넷소설도 읽고, 네이버 검색도 하다가 자요. (인터뷰 1)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알람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카카오톡 보고 게임하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카카오톡이랑 게임해요. (인터뷰 2)

잘 때도 충전기에 꽂아놓고 노래들으면서 켜놓고 자요. (인터뷰 3)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끄기 시작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잡고... (인터뷰 4)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이나 연락 온 것 있나보고, 등교할 때도 버스에서 계속보고 있고...학교 끝나면 그냥 잘 때까지 계속 보고 그래요. (인터뷰 8)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사용해요. (인터뷰 10)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 10시 30분이 되요. 스마트폰을 안 쓰고 싶은데 계속하게 되니까 새벽 2시까지 하게 되고. (인터뷰 11)

이처럼 스마트폰은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청소년들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즐겨 이용하는 앱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즐겨 이용하는 앱을 정리해 본 결과, 카카오톡, 게임, SNS, 웹툰 등이 많았다. 게임의 경우는 애니팡, 윈드러너, 쿠키런, 스포츠게임 등이 인기를 끌었다. SNS의 경우 카카오톡스토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페이스북도 인기가 많았다. 일부 응답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머게시글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었다.

표 III-28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

| 인터뷰 대상자 | 앱 목록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게임(애니팡, 캔디팡, 드래곤 플라이트, 다함께 차차차, 아이러브커피, 에브리타운)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아이러브커피)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웹서핑(유머게시글, 인터넷기사)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SNS(카카오톡스토리, 싸이월드)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SNS(트위터, 페이스북) |

| 인터뷰 대상자 | 앱 목록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헝그리샤크, 쿠키런) • 웹툰(네이버) • 동영상(유튜브) • 음악(멜론)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SNS(카카오톡스토리) • 게임(축구게임, 애니팡, 윈드러너) • 웹툰(네이버) • 영어단어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SNS(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 게임(야구게임) |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SNS(BAND, 페이스북) • 게임(윈드러너) |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SNS(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BAND)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SNS(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 웹툰(네이버)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 SNS(카카오톡스토리) • 게임(애니팡, 쿠키런) • 웹서핑(유머게시글) |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카카오톡스토리) • 게임(애니팡, 쿠키런) • 블로그(네이버) • 웹툰(네이버) • 동영상(네이버, 다음, 판도라TV) |

이처럼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앱은 일부 장르에 국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오락이나 흥미, 재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인터뷰 6)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영어단어를 찾거나 EBS 동영상도 보는 등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내용은 일상 얘기가 주류를 이뤘다.

그냥 일상 얘기 많이 하죠. 뭐하느냐고 묻고. 심심하다고 보내고. 같이 게임해서 캡처해서 보내고 누가 이겼나 보고. (인터뷰 1)

카톡은 주로 학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학원 친구들이랑 얘기해요. 여자애들이랑 얘기할 때는 남자애들 얘기 하거나 연예인 얘기 하구요. 남자애들이랑 할 때는 언제 만나서 놀 건지, 만나서 뭘 할 건지... (인터뷰 4)

학교에서 영어단어 책을 하나 정해줘서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보는데, 영어단어 앱이 있어서 그걸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이용해요. EBS 동영상도 많이 봐요. (인터뷰 6)

카카오톡으로는 어제 점심 맛없다 이런 얘기했고 평소에는 주로 게임얘기 많이 해요. (인터뷰 7)

주로 오늘 어땠는지 안부 물어보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SNS로 물어보고 있어요. (인터뷰 9)

그냥 만나서 놀자는 얘기나, 잡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학교친구들이랑은 학교과제물이나 학교 얘기하고... (인터뷰 10)

반톡을 통해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장난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웃기게 사진을 찍어 올리면 하지마라는 얘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번에 어디를 놀러간다 그러면 너 좋겠다며 글을 올려요. (인터뷰 11).

이처럼 응답자들은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예 이야기, 게임 이야기, 잡담 등을 나누고 있었다.

(3)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한 점

응답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의 가장 편리한 점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꼽았다. 즉 문자를 보내면 돈이 들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무료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점이 좋다는 것이다.

문자는 어디서나 보낼 수 있는데,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카톡은 와이파이나 데이터만 켜면 되니까. 그리고 바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돈이 안 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4)

예전에는 전화, 문자 이런 거 밖에 없었잖아요. 문자는 비싸기도 하고. (2G 핸드폰) 학생 요금

때는 문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라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톡으로 계속 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게 있으면 실시간으로 올리면 바로 다른 애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8)

또 하나의 편리한 점은 손쉬운 정보습득이다. 컴퓨터의 경우 부팅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바로 켜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스마트폰의 매력이다.

네이버 앱이나 웹툰, 카카오톡도 유용한 것 같고. 컴퓨터로만 했던 건데 핸드폰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게 유용한 것 같아요. 네이버 앱으로 주로 스포츠나 연예 기사보고, 실시간 검색어도 한 번씩 터치해서 보고. 그리고 '김급식'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걸로 학교 급식 메뉴도 볼 수 있어요. 다른 애들도 많이 써요. (인터뷰 6)

정보검색도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로 인터넷 기사나 일단 급상승검색어에 뜨는 것들 봐요. (인터뷰 7)

서울버스 앱을 쓰는데, 학교 등교를 하려고 할 때 버스 알려주는 단말기가 정류장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서울버스 앱을 쓰면 알 수 있으니까 편해요. (인터뷰 10)

정보접근이 쉽다는 거. 수행평가를 할 때 뭘 조사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는 굳이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찾아보고 바로 받아 적고 하면 몇 분 내로 수행평가 조사가 다 끝나버려거든요. 이게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11)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만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스마트폰의 매력으로 꼽혔다. 특히 동아리회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이 활용되기도 했다.

친구끼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보 같은 거 바로 알 수 있고. (인터뷰 3)

멀리 떨어진 사람과 메시지로 대화할 수 있고요. (인터뷰 7)

우선 가장 좋은 건,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편리한 거죠. 만나지 않고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밴드 같은 경우는 동호회나 동아리 회원들끼리 모여서 일정이나 주소록을 공유한다던지 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운 걸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인터뷰 9)

이같이 응답자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스마트폰의 가장 큰 매력으로 생각했다.

(4)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

응답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랜덤채팅이다. 랜덤채팅은 스마트폰에 채팅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아무 채팅방이나 무작위로 입장하게 되는데 서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다(아이뉴스24, 2013.1.24). 이 때문에 음란채팅이 은밀하게 이뤄지기 쉽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타요. 랜덤채팅 같은 데서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요. 저도 호기심에 OOO 앱을 다운 받아봤죠. 아이디를 올려봤는데 카톡이 바로 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고 채팅을 했는데 이상한 남자밖에 없어요. 얼굴은 다 잘생겼는데 머리가 좀 이상해요. 변태끼가 있어요. 이걸 앱 사용할 때 아이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앱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아이디만 올리면 알아서 카톡이 와요. 이거 쓰는 애들 엄청 많아요. 친구 중에 이거 많이 하는 애가 있는데, 다 이상한 남자들과 카톡해요. (인터뷰 1)

OOO 씨 봤어요. 재밌긴 했는데, 그냥 그것도 한 순간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친구가 먼저 썼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너무 궁금하고. 친구가 할 때는 재밌어 보였는데 제가 하니깐 별로 재미없었어요. (인터뷰 4)

학교 친구 중에 OOO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사귀고... 저는 안하고 싶어요. 친구랑 모르는 사람이랑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 쪽에서 사귀자고 하면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그걸 자랑인 것처럼 말해요. 대화 내용은 안 보여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귀고 나면 설렁설렁 넘어가요. 사귀기로 했어, 그런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랑 얘기하고 그러던데. OOO은 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필요해서. (인터뷰 5)

위 내용대로,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랜덤채팅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성별, 나이, 닉네임만 입력하면 바로 채팅창에 접속해 대화를 할 수 있어 여학생들에게는 탈선의 장소가 되기 쉽다. 심지어는 채팅창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채팅 앱이 새로운 성매매의 장이 되고 있다(중앙일보, 2013. 4.

16 보도). 특히, 랜덤채팅업체 서버 접속자기록이 1개월도 안되어 삭제되기 때문에 경찰이 성매수 남성을 추적해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도 문제다. 특히 카카오톡 방을 통해 비방이나 욕설, 따돌림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욕설이나 따돌림은 대체로 사소한 문제로 비롯되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갈등이 그룹채팅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있었는데, 저를 카톡으로 초대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XXX아, 네가 OO한테 욕을 했는데. 네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냐'면서 단체로 욕을 해요. 한 다섯 명 정도가. 그래서 저는 '나 안 그랬다'하면서 그냥 카톡 방을 나갔어요. (인터뷰 2)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제 뒷담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룹채팅 있잖아요. 그걸로 그 친구랑 다른 친구랑 같이 저를 직접 불러서 욕하면서 싸우기도 했고, 저도 싸우고 나서도 다른 애들한테 그 아이 욕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저한테 짜증난다고 싸가지 없다고 하길래, 너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 저도 그 그룹채팅방에 다른 제 친구 불러서 같이 싸웠어요. (인터뷰 4)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3천원 가량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카스에다 '돈을 빌려가고 안 갚으면 그것도 갈취 아니냐'고 올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학생회 친구가 있나 봐요. (학생회 친구가) 그 글에 '그런 것도 금품갈취야'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애들도 제 이야기에 (저를 욕하는) 댓글을 달고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인터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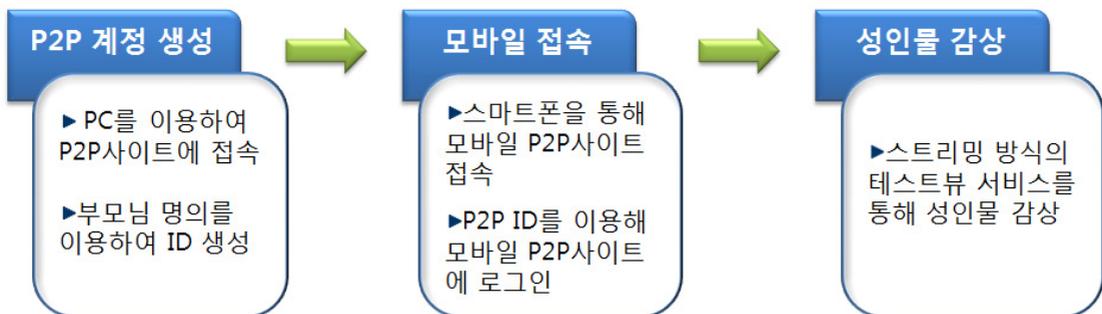
친구를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도 많이 본 적 있어요. 그냥 남자들끼리는 일상적으로 욕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저희 학교가 남녀 동반인데요, 반 단체 톡에서 누가 한 명이 나가면 단체로 그 친구 뒷담화를 하거나 욕을 해요. 반 톡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 애 하나가 자기 3G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을 나간 거예요. 솔직히 좀 재수 없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속으로 삭혀뒀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여자애 나가니까 욕을 하고. 반 톡 하다가 나가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시 초대를 하는데, 그 여자애는 다시 초대 안 해요. 그 여자애가 저희 반 내에서는 따돌림 당하는 애예요. (그 여자애랑) 같이 놀던 애들이 있는데, 그 여자애가 좀 남자애를 많이 갈아타서 그 우리에서 찍히니까 그때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요. 반 톡에서 이런 얘기를 (다른 여자애들이) 해요. 재 남자만 밝혀가지고 OOO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은 그 여자애에 대한 욕을 다 봤어요...카카오톡스토리에 저격글(특정인물을 노리고 험담을 하는 행위) 같은 거 많이 올라와요. 너랑 절교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 누구라고 안 밝혀는데 꺼지라고 써 놓으면, 읽는 사람은 내 얘기인 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애들이 많이 써요. (인터뷰 10)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을 직접 봤다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지만 친구들이 보는 것을 목격한 응답자들은 많았다.

1학년 때 학교에 친구들이 보는 건 많이 봤어요. 플레이 스토어에 계정을 입력해야 되는데 아예 엄마계정을 입력해서 성인 앱을 받는 친구도 있었고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는 성인인증창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 교실에서 본 적도 있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많이 봐요. 한 명이 음란물 주소 같은 걸 알아오면 방에 모여서 같이 보니까 선생님들은 모르죠. (인터뷰 6)

친구 중에 성인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모바일 P2P사이트로 보는 것 같았어요. 모바일 OOOO라고 있는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다운 받는 게 아니라 테스트뷰라고 해서 미리보기 같은 건데 풀(full)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와이파이로 보면 데이터도 안 쓰고, 동영상을 다운 받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니까 다 공짜여서. 예를 들면 부모님 명의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잖아요. OOOO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성인동영상 같은 걸 (다른 인증 절차나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볼 수 있어요. (인터뷰 10)

특히 인터뷰 10이 이야기한 바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P2P 사이트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는 경로는 아래 【그림 III-12】 과 같다.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쉽게 성인물을 볼 수 있다. 즉 기존 P2P 사이트 계정이 있다면 모바일 P2P 사이트의 가입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별도의 본인인증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¹⁵⁾.



【그림 III-12】 성인물 접촉 경로

15) 모바일 P2P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시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대신 기존 ID와 비밀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돼 있어 PC 기반의 P2P사이트 계정만 있으면 쉽게 모바일 P2P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도 심각한 문제이다. 응답자 중에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자기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된 경우가 많았다.

중독된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도 눈뜨면 핸드폰이 만져지고 그러면 안심이 되죠.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옆에 있어야 돼요. 핸드폰을 충전한 상태에서 켜 놓고 자요. (인터뷰 1)

한번 빠지면, 다른 걸 못해요.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2G폰 쓸 때는 문자에 목매달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더 용량도 크고 연락도 잘되고 하니까. (인터뷰 4)

계속하면 조절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되는데도 계속 해요. 트위터도 글을 올리기 보다는 보니까, 계속 보게 돼요.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생겨요. 궁금하고. (인터뷰 5)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니까 없으면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인터뷰 6)

그냥 자꾸 빠지게 되는 거. (인터뷰 8)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카톡이 오면 답장하고 싶고. 내가 공부나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을 뺏기는 느낌이 들어요. (인터뷰 10)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인터뷰 11)

이처럼 응답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으로 채팅 앱을 통한 무분별한 사귀, 따돌림, 중독, 공부소홀 등을 지적했다.

(5)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설치

스마트보안관 같은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설치한 학생은 12명 가운데 단 한명도 없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몰랐다. 한 학생(인터뷰 6)은 너무 억압받는 것 같아서 거슬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마트보안관에 관해 이름만 들어봤고 뜻은 잘 몰라요. (인터뷰 1)

학교에서 그런 거 나눠주긴 하는데 그냥 버리고 해서 잘 몰라요. (인터뷰 2)

스마트보안관은 모르겠고 자녀폰안심서비스는 알아요. 근데 이용 중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거 부모님이 걸어 놓으시는데 애들이 가서 풀죠. 좀 다르긴 한데 대리점에 가서 풀어달라고 하면 그냥 풀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기 거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등본이나 이런 거 가져가서 푸는 애들도 있고. (서비스 해지를 하면 보호자에게 문자가 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 전에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죠. 가지고 나와서 확인 문자 바로 지우고. (인터뷰 4)

몰라요. 근데 그런 서비스는 너무 억압받는 것 같아서 거슬릴 것 같아요. (인터뷰 6)

오히려 짝연 용량만 차지할 것 같아서 관심은 없어요. (인터뷰 7)

이처럼 많은 응답자들이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너무 억압받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6)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규제

응답자들에게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많은 학교들에서 조례 시에 스마트폰을 걷고, 종례 시에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걷는 경우에도 일부 학생들은 잘 안내거나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 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즉 수업시작하기 전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있기는 하나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마다 걷는 반이 있고, 안 걷는 반이 있거든요. 저희 반은 걷는데, 저는 안 내요. 원래 정해진 규정은 '내려' 이거인데, 남자 선생님 반 경우는 귀찮아서 안 걸어요. 저희 반은 상자 같은 캐리어 조그만 데다가 넣어서 개수 확인하고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왜 안 가져 왔는지 이유 물어보고 걸어가요. 근데 진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요. (인터뷰 4)

제가 입학할 때부터 학교에서는 걸으라고 했었고, 핸드폰 가방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마다 담임 선생님 재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선생님들은 내든 말든 알아서 해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조건 내라하고 개통이 되어 있나 확인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다 달라요. 확인 하는 거는 핸드폰을 무조건 내게 하시니까 애들이 가짜 폰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확인을 하세요. (인터뷰 8)

학교 전체에서 걷고 있어요. 그런데 안내는 애들은 또 안내요. 선생님들이 검사를 꼼꼼하게 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낼 때 스마트폰 빼고, 케이스만 내고. 그냥 내면 들키니까 케이스를 뒤집어서 내고 그래요.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서 놓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안내고 그래요. (인터뷰 12)

스마트폰을 수거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걸리면 벌점을 받거나 며칠간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생님마다 다른데, 저희 반은 10번 걸리면 뺏어요. 거의 애들은 켜놓고 가지고 있어요, 주머니에. 수업시간에는 무음으로 해놓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수업시간에 고개 숙여서 밑에 핸드폰 두고 카톡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인터뷰 1)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사용하다가 걸리면 일주일동안 뺏고 벌점주고. 쉬는 시간에는 괜찮은데 수업시간에 걸리면 안 돼요. (인터뷰 3)

수업시간에 사용하면 일주일 압수되고 담임선생님께 통보가 되고, 청소도 하고 벌점도 받아요. 그런데 봐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인터뷰 7)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학교의 규제는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교사나 반마다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달라 일관된 규칙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 가정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

많은 응답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시험 볼 때 부모의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좀 조절하라고 하시는 편이죠. 잔소리를 하시죠. (인터뷰 3)

공부 좀 하라고 하시고. 중독이라고 하시고. 뺏을 거라고 협박도 하세요. (인터뷰 5)
자유롭게 하시는데,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타이르세요. 평소보다 조금 시간을 많이 사용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스마트폰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다른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세요. 계속 타이르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스마트폰을 놓게 되더라고요. (인터뷰 9)

저 혼자 밥먹다가 메신저 와서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고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 시험시간에 하다가 시험기간인데 미쳤냐고 하신 적도 있고. (인터뷰 10)

저 같은 경우는 제재를 별로 안 당하는데 친구들은 시험기간에 정지를 당하기도 하고 해요. (인터뷰 11)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도 있었다. 인터뷰 9의 경우 부모님이랑 자주 얘기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통제를 하는 편이었다.

(8)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미디어교육

응답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미디어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교육이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에 초점을 맞췄고 이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발긴 받는 데 애들이 신경을 안 써요. (인터뷰 1)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전자파가 나오는 등의 안내문을 가끔 나눠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2)

스마트폰 중독 이런 내용이었는데 설명을 잘 안들었어요. (인터뷰 6)

1년에 두세 번 정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해요. 중독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예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인터뷰 9).

외부선생님이 와서 동영상 보여준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얘기를 해 줬는데, 다들 자요. (인터뷰 12)

스마트폰과 관련된 미디어교육은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스마트폰

중독진단이나 예방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설명을 잘 안 듣거나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과 관련된 미디어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9) 스마트폰의 의미

응답자들에게 스마트폰이 갖는 의미를 물었다. 아래 <표 III-29>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나 분신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라는 생각도 많았다. 하지만, 인터뷰 11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헤어날 수 없는 존재이자 늘 같이 따라다니는 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그들이 즐기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다.

표 III-29 응답자들에게 스마트폰이 가지는 의미

| 인터뷰 대상자 | 스마트폰이 가지는 의미 |
|---------|---|
| 1 | 저의 분신이죠. 저랑 항상 함께 있고, 심심할 때 놀고 이런 거. |
| 2 | 친구 같아요. 다 연결이 되고, 게임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편해요. 실제 친구보단 못하지만, 계속 옆에 두고 다른 애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
| 3 | 정보를 알려주는 것. 연예관련 뉴스나 유머 같은 거. |
| 4 |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진짜 스마트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집에다 놔두고 온 적도 한 번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고. 잃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
| 5 | 애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매체예요. 그리고 심심하거나 지루할 때 그런 걸 없애주는 거. 더 좋게 말하면 친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의 같이 있으니까. |
| 6 | 인생의 일부. 필요한 것. 확실히 쓰면 유용하고 좋는데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니까. 계속 쓰진 않더라도 주머니나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
| 7 |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조회시간 때 한 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반은 한 번 걸리면 다음 날까지 스마트폰을 선생님에게 내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내니까 불안하고 그럽더라고요. 없으면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
| 8 | 주변과 소통하는 그런 기계.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평소에 연락을 하다가 하루라도 없�지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불안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사진이나 글 같은 걸 올리면 바로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모르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애들하고 더 친해지고 소통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 인터뷰 대상자 | 스마트폰이 가지는 의미 |
|---------|--|
| 9 | 통신수단 정도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
| 10 | 그냥 통신기. 애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것. 근데 없으면 불안해요. 핸드폰을 버스에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편하더라고요. 핸드폰 빨리 찾아서 카톡 왔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
| 11 |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걸 극복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힘들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핑을 안 한다는 게. |
| 12 |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매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엄마한테 들키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엮어두면 제가 인터넷 하는지 모르니까. 저는 전화나 메시지를 잘 안 쓰는 편이라 저한테 스마트폰은 인터넷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하고 있으면 엄마가 몇 시간하는 거냐고 꼬라고 하시는데 핸드폰은 모르잖아요. |

(10)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방안

응답자들은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방안으로 중독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많이 언급하였다. 중독방지 앱을 설치한다든지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해외마켓에 나와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앱에 대한 성인인증절차강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기절제력함양 등도 거론되었다.

표 III-30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 방안

| 인터뷰 대상자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 방안 |
|---------|--|
| 1 | 카카오톡 같은 큰 회사에서 잘 관리를 해서 채팅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카카오톡친구만들기란 앱을 다운받은 후 아이디를 입력해 '카톡 주세요' 하면 이상한 카톡들이 와요. 그걸 저만 갖고 있잖아요. 이걸 카카오톡 회사가 볼 수 있게끔, 신고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톡은 차단만 있지, 신고는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친구를 다운받아봤어요. 제가 제 아이디로 카톡 달라고 하니깐 변태 남자가 카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해봤는데 그 남자가 또 알아가지고 카톡을 했어요. 어떤 남자는 자기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제 친구한테 보내줬대요. 부모님한테는 말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신고하고 싶대요. |
| 2 | 해외마켓에 보면 이상한 앱들이 많은데 성인인증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 3 | 학생들이 무제한 요금제 같은 걸 못쓰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 밖에서는 인터넷을 못하니까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 스마트폰을 덜 쓰는 것 같아요. |
| 4 | 오래 쓰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냥 정해진 시간을 두고, 근데 좋은 방안 같은 거 그런 걸 정해도 많이 쓸 거 같은데. 요즘 애들이 그냥 시키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어도 별로 애들이 따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 생각으로는 자기 핸드폰이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 이거죠. |

| 인터뷰 대상자 | 건강한 스마트폰 활용 방안 |
|---------|--|
| 5 |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쓰는 시간하고 공부하는 시간하고 나눠야 되는데 잘 안되잖아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
| 6 | 중독방지 앱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용 중이에요. 'Addiction Stop'이라는 앱인데 사용금지 시간을 그때그때 설정할 수 있어요.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이 방해되니까 저는 보통 한 시간 정도 중독방지 앱을 설정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혹시 급하게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통화나 메시지, 음악은 놔두고 나머지는 사용금지 해놔요. |
| 7 |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카메라를 켜서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앱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앱을 사용하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학급회의 때는 스마트폰을 내내 안내내 이런 회의만 했어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지 토론을 갖는 시간이 없었어요. |
| 8 | 중독방지 앱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이니까 학생요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낮춰서 설정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요금을 다 쓰게 되면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은 요금을 좀 낮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 9 | 스마트폰이 한번 잡으면 놓기가 힘든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제를 할 수 있게 잘 타이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1년에 2-3번 정도 밖에 없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2달에 1번씩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촬영을 한다든지, 미술 수업이라든지, 정보 수업에서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미술수업에서 쓴다면 원하는 풍경 같은 것을 미리 찍어놓고 보고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
| 10 |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게임에 있는 셧다운제처럼. 그러면 좀 덜 쓰게 될 것 같아요. |
| 11 | 가끔씩 애들이 새로운 게임 초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그 게임을 하면 헤어 나올 수 없지만, 아예 시작을 안 하면 그 게임을 안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애들이 방을 만들어서 게임을 초대하게 되는 것, 이걸 없애야 될 거 같아요. |
| 12 | 자기절제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은 하다보면 금방 질리니까 관촬을 거 같은데. 애니팡이나 그다음에 보석 맞추기 나오는 거나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숫자 맞추면 점수 올라가는 거. 그리고 윈드러너랑 쿠키런도 똑같은 게임이라 오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그게 그거니까 금방 질릴 것 같아요. |

3. 전문가면접조사결과

전문가 면접조사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인터뷰에 참가한 전문가는 모두 8명으로 청소년폭력예방이나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청소년보호업무나 학교, 기술개발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인터뷰는 주로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소요시간은 30분~60분이다. 앞서 본 연구가 스마트폰의 부정적 영향으로 서술한 중독, 따돌림,

유해콘텐츠접촉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이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거나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을 만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이 중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부록 3 참조).

표 III-31 인터뷰 대상자 정보

| 인터뷰 대상자 | 소 속 | 인터뷰 장소 | 인터뷰 소요 시간 |
|---------|---------------------|----------|-----------|
| 1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000팀장 | 사무실 | 약 60분 |
| 2 | 000중학교 000교사 | 학교 | 약 30분 |
| 3 | 000 I will 센터 000팀장 | 사무실 | 약 30분 |
| 4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00팀장 | 사무실 | 약 40분 |
| 5 | 여성가족부 000 공무원 | 근처 커피전문점 | 약 30분 |
| 6 | 000고등학교 000교사 | 학교 | 약 60분 |
| 7 | 블랙스톤 000 대표 | 사무실 | 약 60분 |
| 8 | SK 텔레콤 000 부장 | 사무실 | 약 60분 |

1) 중독대책

인터넷중독예방 및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000팀장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스마트폰 관리를 위한 안내서가 부모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 주는데 어떤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 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부모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아이들이 주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니까 주의해야 한다든지 하는 매뉴얼이 잘 설명되어 있으면 부모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좋겠다고 말한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들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만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샀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걸 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은 차단프로그램을 깔아서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답답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주긴 사줘야 되는데, 약간 지식이 있는 엄마들은 차단 프로그램을 깔긴 깔잖아요. 스마트 보안관이나 그린아이넷이나 이런걸 까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것은 제한시간을 뒀야 하고, 이 친구의 사용 빈도나

아이템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는지, 아이들이 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고 하니까 주의해야 한다든지 하는 매뉴얼이 동영상처럼 설명되어 있으면 부모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스마트폰이 중독이 돼서 상담을 오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차단프로그램이 조금 업그레이드되거나 업데이트 돼서 나오는 수준이고. (인터뷰 3)

그는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사 줄 때 기본적인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운로드자체가 안되게끔 약속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서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특성과 작동방식을 잘 알아야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000교사가 속해 있는 00중학교의 경우 2013년 봄 학기부터 학생들이 아예 스마트폰을 학교에 못 가져오도록 했다. 물론,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학생은 부모 동의하에 가져오도록 허용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60% 가량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는 스마트폰 규제조치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000교사는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이 같은 정책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는 생각 안한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1년에 한두 번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데 한 학급에만 강사가 들어가고 나머지 학급의 학생들은 교실에서 TV 시청만 하다보니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학급에 전문강사가 들어가 미디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000고등학교 000 교사 역시 미디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재량교육, 방과후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통해 미디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기적인 대책에서는 지금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오기는 힘들니까 재량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그런데서 미디어 교육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가 준비한 게 이런 것들을 몇 시간 이상, 특히 생산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아이들이 미디어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할 것인가, 진로 시간에 할 것인가, 재량수업시간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6).

이처럼,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용 안내책자개발의 필요성과 학교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스마트폰 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특히 000 교사는 ‘스마트폰 바구니운동’을 주장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이다.

또 하나는 저희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가정들을 보면 집안에 모여서 다 따로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늘릴 수 있을까 하다가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스마트폰 바구니를 하나 놓고, 가족들이 스마트폰을 그 스마트폰 바구니에 넣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내 손안에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했구요. 그래서 지금 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습니다(인터뷰 6).

이처럼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바구니운동’ 등 다양한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 따돌림대책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상담지원을 하고 있는 000 팀장은 사이버따돌림이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사이버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이버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더라도 교사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서도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낮은 수준이다. 그는 사이버따돌림의 경우 겉으로 잘 안 드러나서인지 학교에서의 대처가 물리적 폭력보다 뒤쳐져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사이버따돌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이버따돌림도 신체적, 물리적 폭력 못지 않게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서 일하는 000 팀장은 학교에서 따돌림경험이 있는 학생들일수록 인터넷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한다. 즉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보니 미디어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따돌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들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용도로 보급되었는지와 같은 것을 알려주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000 고등학교 교사는 사이버불링의 경우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즉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니까 교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이버불링사건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불링대응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000대표는 사이버불링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모바일가디언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차단프로그램이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되면 자녀가 친구들과 주고받는 내용 중에 욕설이나 헐박, 따돌림과 같은 글들이 있으면 부모의 이메일나 문자로 전송되게 된다. 따라서, 이 앱을 사용하면 자녀가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1년 말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친구의 폭력에 견디지 못한 한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신문을 보니까 이 아이를 괴롭히는 문자메시지가 그동안 많이 온 걸 보고 만약 이 문자를 부모님이 사건 있기 전에 일찍 보셨다고 하면 그렇게 극한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바일을 활용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계기로 이 모바일가디언을 개발하게 됐습니다(인터뷰 7).

현재 모바일가디언은 SK텔레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SKT는 청소년안심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모바일가디언 뿐 아니라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을 종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물리적 폭력 못지 않게 사이버따돌림의 폐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이버불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응매뉴얼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이버불링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모바일가디언 같은 프로그램이 널리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3) 유해콘텐츠접촉대책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 등 유해한 콘텐츠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단서비스와 같은 앱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2012년 6월 스마트보안관이란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차단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상에서 음란물, 폭력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다. 스마트 보안관을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녀가 어떤 앱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이트를 주로 방문하는지를 부모가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마트보안관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000 팀장은 스마트보안관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로 부모들이 이 서비스를 잘 모른다는 점을 꼽는다. 따라서, 부모들이 스마트보안관과 같은 유해콘텐츠차단정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연합회측은 향후 학교에 교사관리툴을 제공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량과 이용패턴을 파악하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00 공무원은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일본처럼 우리도 핸드폰제조업체나 이동통신사가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는 핸드폰을 판매하는 자가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판매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유해웹사이트차단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예전에 PC 기반의 인터넷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시 11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스마트폰의 경우 9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 예산규모를 많이 늘려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프로그램개발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SK텔레콤 000 부장과의 인터뷰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안심서비스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스마트보안관과 같은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와 프로그램설치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4. 소결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카카오톡이나 SNS와 같은 서비스를 여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과 갈등도 빈번했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목이 아프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의 경우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의 학생들이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¹⁶⁾ 서비스 형태 중에는 카카오톡같은 채팅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4%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대부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오픈마켓에 비해 해외오픈마켓의 성인인증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에 참가한 청소년들 대부분(71.3%)은 어떠한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학교방침으로는 조례 때 거두고 종례 때 돌려주는 규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결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들이 많아 많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응답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가운데 랜덤채팅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여러 채팅 창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를 통해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미디어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디어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설치, 유해물신고센터의 설치 등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방안을 학생들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안하기도 했다.

인터넷중독예방센터나 학교폭력예방재단, 학교, 정부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와의 인터

16) 이 수치는 다른 연구결과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이다. 최근 3개월간 경험을 질문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경험이 비교적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뷰 결과,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중독예방이나 사이버불링대책, 유해콘텐츠접촉대책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 지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과 스마트보안관이나 그린아이넷과 같이 유해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의 설치가 강조되었다. 아울러, 물리적 폭력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심각성을 학교구성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사이버불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대책으로 거론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도 제작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미디어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조명할 수 있는 리터러시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제 4 장

국내외 스마트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한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미국
6. 소결

제 4 장

국내외 스마트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한국¹⁷⁾

1) 음란물차단 및 중독대책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음란물 차단대책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고 나섰다(김정녀 외, 2012). 그 중 하나가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이 2012년 개정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본인인증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 나타난바와 같이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연령 및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7조 (www.law.go.kr에서 2013년 5월 20일 인출함)

17) 이절은 이창호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이러한 조치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가입 시 본인이 원치 않는 이상 유해콘텐츠 차단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로는 SKT의 'T 청소년안심서비스', KT의 '올레 자녀폰 안심서비스', LG유플러스의 '자녀폰지킴이'가 있다. 이 외에도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스마트보안관이라는 유해콘텐츠차단 앱을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랜덤채팅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과잉금지원칙위반우려 때문에 폐기되기도 했다¹⁸⁾.

아울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한 입법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가령,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2013)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학교규칙(학칙)에 포함할 수 있다. 권의원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특정학생을 따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문제가 되자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일선 학교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매뉴얼(초등용, 중등용)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매뉴얼에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예방, 진단, 지도 및 상담 등의 생활지도방법이 담겨 있다.

2)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관리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일선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학교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는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했다. 학칙 중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만 한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을 제, 개정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휴대전화사용을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이 주최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이 토론한 내용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3)의 조사결과, 조사에 참여한 전국 초, 중, 고 교원 3,147명 중 71%가 학교 내 학생휴대전화사용에 대해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5%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다고 답해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담임교사 책임 하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91%)의 교원들이 학교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보관하는 업무에 대해 심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응답해 휴대전화수거문제로 교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원 3명중 1명은 최근 1년간 휴대전화 분실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3).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37%의 응답자들이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소지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 즉 많은 교사들이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사용이 수업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의 휴대전화사용에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일본¹⁹⁾

1) 일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

총무성(總務省)의 『2012년판 정보통신백서(平成24年版情報通信白書)』에 의하면 2011년 말 기준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0년보다 148만 명이 증가한 9,610만 명, 인터넷 인구보급률은 79.1%로 인터넷은 일본에서도 이미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있다.²⁰⁾ 또한 정보통신 기기 중 “휴대폰 및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의 세대보급률은 94.5%, “PC”의 세대보급률은 77.4%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전체적으로 포화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9년 NTT DoCoMo가 “i모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휴대폰에 의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보급되었는데, 2001년경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이 발매된 후 2005년경부터는 많은 중고등 학생이 개인전용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휴대폰에서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9년에 애플의 아이폰 3G가 발매된 이후 서서히 스마트폰이 인기를 얻고, 2011년경부터는

19) 이 절은 문연주 박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가 집필함.

20) 조사대상연령은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수(추정)는 6세 이상으로 조사대상 기간인 1년 간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로부터 추정치임. 출처는 일본 총무성의 『2012년판 정보통신백서』 제2부 제3절 「인터넷 이용동향」(<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4/pdf/n4030000.pdf>) 참조. 2013년 7월 1일 인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단말기도 증가하여 2012년이 되면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폰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교체되었다. 2010년경부터는 스마트폰의 세대보급률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이용률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에 관해서는 내각부(內閣府)가 2009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대강의 추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내각부가 올 3월에 발표한 『2012년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實態調査調査結果)』²¹⁾에 의하면 2012년 11월 현재 일본 초등학생의 휴대폰 소지율은 27.5%, 중학생은 51.6%, 고등학생은 98.1%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중학생의 25.3%, 고등학생의 약 55.9%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중학생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5.4%, 고등학생이 7.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40.8%, 중학생의 75.3%, 고등학생의 95.4%가 휴대폰으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한정되지 않는다. 내각부의 2012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게임기나 태블릿 등 인터넷을 연결하는 다른 단말기의 소지율을 함께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일본 청소년의 50% 이상이 게임기 또는 태블릿형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²²⁾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내각부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시작한 2009년에는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이 7.8%, 평균 이용 시간이 77.5분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전체 청소년의 35.1%가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이용 시간은 97.1분으로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상습화, 장시간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이처럼 휴대폰을 통해 일상적으로 장시간 인터넷에 접속하여 메일, 검색, 음악

21) 올해 발표된 내각부의 2012년도 조사는 2012년 11월에 실시된 것임. 2013년 3월 발표. 조사대상은 만 10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3,000명과 이들과 동거하는 보호자 3,000명. 청소년으로부터 응답 수는 1,867명(62.2%), 보호자로부터의 응답 수는 1,915명(63.8%). 이하 일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에 관한 내용은 내각부의 『2012년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이하, 2012년도 조사)를 참조하여 소개함.

출처는 <http://www8.cao.go.jp/youth/youth-harm/chousa/h24/net-jittai/pdf/kekka.pdf>. 2013년 7월 30일 인출.

22)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 68.0%, 중학생 50.2%, 고등학생 53.5%가 게임기 또는 태블릿형 단말기를 소유

및 동영상 열람, 게임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앱(이하 앱)을 통해 게시판,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SNS와 같은 다양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가 실시한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이용되는 대표적 소셜미디어 Facebook, mixi, Twitter 3종류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은 약 500만 명에 달하며, 2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840만 명으로 추계되었다.²³⁾ 특히 청소년은 복수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저항감 없이 기능과 취향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점이 이용 특성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교우관계 확대·사람들과의 만남”을 드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셜미디어에는 주로 신변잡기적인 글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중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일일 인터넷 이용시간이 비교적 길었으며,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무성의 2012년 정보통신에 관한 현상 보고에 의하면 종래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행한 전후 소셜미디어의 이용률을 비교할 때 SNS에서는 약 27%, 동영상 송신 서비스에서는 약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보급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앱(Kakao Talk, LINE, comm처럼 이용자 간의 무료통화, 무료메시지 교환 등이 가능한 앱)은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서의 보급이 현저하다.²⁴⁾

정리하자면 현재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앱, 인터넷 동영상 등의 이용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문제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의존 경향이 높고 『학교 우라 사이트(學校裏サイト: 특정 학교에 관한 화제를

23) 2012년 9월에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실시한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총무성의 「통신이용동향조사」 및 「인구추계」로부터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추계한 수치임. 일본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함. 자료의 출처는 주식회사 노무라종합연구소가 2012년 11월 12일에 발표한 제181회 NRI미디어포럼 자료의 『소셜미디어이용실태조사(ソーシャルメディア利用実態調査)』 출처는 www.nri.co.jp/publicity/mediaforum/2012/pdf/forum181.pdf 2013년 7월 28일 인출

24) 미츠비시종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의 위탁연구 「아동포르노사이트 차단을 포함하여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환경정비 시책과 제외국의 법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児童ポルノサイトのブロッキングをはじめとする電気通信サービスの利用環境整備施策と諸外国の法制度等に関する調査研究)」에서 2013년 3월 13일~15일,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중·고·대학생 및 사회인 1,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SNS를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중학생 83%, 고등학생 86%, 대학생 87%, 사회인 81%였던 것에 반해 커뮤니케이션 앱을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중학생 92%, 고등학생 80%, 대학생 71%, 사회인 48%이었다. 출처는 위와 동일.

다루는 비공식 커뮤니티 사이트)』라 불리는 게시판 등에서의 중상·비방, 『만남게사이트(出會い系サイト)』에서 기인하는 아동매춘과 음란행위 피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2005년경부터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행정, 학교, 경찰, 각종 사업자, 시민단체·NPO 등이 연대 협력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왔으나,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그동안 시도해온 각종 대책이 그대로 통용되지 않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롭고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일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관련 문제점

스마트폰이란 컴퓨터가 소형화된 다기능 단말기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앱으로 제공되는데 피쳐폰이 일본 특유의 사양으로 발전해온 것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세계 규모의 시장에서 OS와 단말기, 앱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피쳐폰에 적용해 온 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그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심넷만들기촉진협의회(安心ネットづくり促進協議會, 2012, 이하 안심넷)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²⁵⁾

첫째, 휴대폰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필터링은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 랜에 접속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또한 휴대폰 회선·무선 랜 회선 모두 일부 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에는 필터링이 기능하지 않는다.

둘째, 피쳐폰은 단말기별로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트 측에서 단말을 식별하여 부정행위로 퇴회한 자가 같은 단말로 재입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는 이러한 개체식별번호가 없으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단말기에 의한 인증을 하지 않고 메일 주소만 인증하여 입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퇴회한 자가 재입회하는 것이 용이하다.

셋째,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자 간에 무료통화 및 메시지 교환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앱이 공개되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앱으로는 어카운트명만 전달되면 연락이 되기

25) 안심넷만들기촉진협의회는 무선 랜 및 앱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관계사업자들과 문제 인식 및 대책을 공유하고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무선 LAN 및 앱 경로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작업 부회(スマートフォンにおける無線LAN及びアプリ経由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に関する作業部会)」를 설치했다. 본 작업 부회의 보고서는 2012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이하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출처는 http://good-net.jp/press_sp_20120608.html 2013년 7월 20일 인출

때문에 일반 사이트 및 앱을 다운로드하는 마켓의 리뷰란 등에 어카운트 명을 공개하고 연락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다. 더 나아가 인기 앱을 사용한 상대를 탐색하기 위한 앱도 다수 공개되어 있다.

넷째, 지금까지 표준 필터링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운영되고 있을 때 제3자기관이 인정(認定)한 사이트로 접속 가능하게 되어 필터링에 가입하면 EMA인정사이트는 접속 가능, EMA비인정 쌍방향 교류 사이트는 접속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앱 마켓이나 스마트폰용의 필터링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쌍방향 교류 서비스를 일괄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일괄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앱 중에는 이용자 본인이나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지인 등의 연락처 정보를 얻어 이용하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허락을 얻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앱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중에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정보 이용을 허락하여 본인의 정보가 의도치 않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에서 앱의 다운로드는 꽤나 까다로운 문제이다.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일본에서는 08년 4월에 설립된 EMA(모바일 콘텐츠 심사·운용 감시 기구)가 주로 모바일 사이트를 대상으로 “커뮤니티사이트 운용관리체제 인정제도” 등을 실시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만 필터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불법·유해 사이트를 관리해왔다. 현재 이러한 인정제도를 스마트폰 대상의 앱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심사 후 인정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업자가 먼저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사이트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필터링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에 그 어떤 이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인정제도를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라면 굳이 비용까지 들여가며 인정제도를 신청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 대상의 앱이 청소년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제도상 결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iOS나 Android에는 앱을 다운로드할 때 보호자의 승인을 얻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휴대폰 제조업자가 독자적으로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보호자의 통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내각부의 2012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할 때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 청소년의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격감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66.6%가 앱의 다운로드 시 보호자의 확인을 받고 있었으나, 중학생은 39.0%, 고등학생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보호자 승인 방식은 좀처럼 효과적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환경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 및 이용이 안고 있는 불안 요소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인터넷 지식 격차이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인터넷 지식이 자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내각부의 2012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호자에게 “보호자와 자녀 중 어느 쪽이 인터넷을 잘 아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부모가 자녀보다 인터넷 지식이 더 자세하다”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의 보호자는 70% 이상, 중학생의 보호자는 40% 이상, 고등학생의 보호자는 단 20%에 그쳤다. 이처럼 보호자의 인터넷 리터러시가 자녀에 비해 낮다는 현상은 인터넷에서의 유해 환경을 방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스마트폰 이용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²⁶⁾

2008년 6월에 성립되어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약칭하여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青少年インターネット環境整備法)”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인터넷 환경정비법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로써 제정되었으나,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이용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도 기본 법제도로써 작동하고 있다.

이 법률이 성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인터넷 콘텐츠 중에 청소년이 열람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가 다량으로 유통되고 청소년이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범죄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적지 않다는 불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세대 간 인터넷 지식 격차로 인해 인터넷 이용이나 그 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26)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의 전문(全文)은 총무성에서 제공하는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출처는 <http://law.e-gov.go.jp/htmldata/H20/H20H0079.html>이며, 이하 동법의 내용에 대한 소개는 이를 참조하여 작성함. 2013년 7월 1일 인출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조언을 주거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p.260).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는 동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으로(3조) 첫째,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3조1항), 둘째,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의 보급을 촉진하여 청소년이 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3조2항), 셋째, 민간 관계자가 자주적·주체적으로 대응하도록 존중하며 지원하는 것(3조3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관련사업자, 보호자에게는 각각의 입장에서 준수해야 할 책무가 규정되었다. 우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해야 하며(4조),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유해정보를 열람하게 될 기회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5조). 그리고 보호자는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정보가 다량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교육 방침 및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춰 자신이 보호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상황을 적절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이용 및 기타 방법으로 인터넷 이용을 적절히 관리하고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6조1항). 특히 휴대폰 및 PHS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부적절하게 행해졌을 경우, 매춘, 범죄 피해, 집단 괴롭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6조2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한 정부 부처와 지방공공단체는 동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시책을 강구하고 연대협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졌으며(7조),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관계 정부 부처 즉 문부과학성·총무성·경제산업성·내각부·경찰청 등이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부과학성은 초·중·고등학생의 휴대폰 학교 반입 금지, 고등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고 정보윤리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방송국·휴대폰 사업자·교재회사 등이 휴대폰에 관한 교재를 작성하고 각종 사업자가 학교에 출강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시카와현(石川縣)에서는 초·중학생에게 휴대폰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정하는 등 지방자치체가 청소년의 휴대폰의 위험한 이용을 억제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관련 사업자 측에서는 필터링 보급을 위한 활동 및 사이트패트롤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藤川, 20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이

현저해지면서 일본 총무성은 내각부가 2008년부터 주최해온 “청소년 인터넷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검토회(青少年インターネット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検討會)”(이하 검토회)²⁷⁾를 통해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그간의 검토 결과를 총괄한 보고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관한 제언(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に関する提言)』을 정리·공표했다.²⁸⁾ 2011년 8월에 공표된 이 보고서는 휴대폰을 통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전제로 일본 사회 전체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교육 및 보급계발활동의 추진, ② 필터링의 성능 향상 및 이용의 보급, ③ 민간단체 지원, ④ 기타 중요사항(관계기관과의 연대 등), ⑤ 추진체제 정비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한 법 제정 이후 가장 중시되어 온 중점 과제는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인터넷 리터러시 향상”과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시대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중점과제라 할 수 있다.

(2)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²⁹⁾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이 가져온 인터넷 이용의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만남주선 사이트 등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의 이용이 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무료 커뮤니케이션 앱을 통한 낯치·강간·살해, 공갈·협박, 아동매춘 등 청소년이 범죄에 휘말린 사건이 널리 세간에 보도되면서 청소년보호 관점에서의 인터넷 위법·유해정보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27) 검토회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의 기본 이념에 근거한 내각부의 기본 계획을 정비하고 그 진행 현황을 검토, 개별 추진 시책을 보다 구체화·현실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3년 4월 22일에 제17차 검토회가 개최되었다. 검토회의 개요 및 논의 내용은 내각부 홈페이지 중 “청소년 인터넷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검토회”(<http://www8.cao.go.jp/youth/youth-harm/kentokai/>)에 공표되어 있다.

28) 보고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관한 제언』에는 당시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점,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보호자, 관계사업자, 제3자기관 등 각 주체 별로 제안되어 있다. 이하 중점 과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출처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35703.pdf 2013년 7월 20일 인출

29)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 해설(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の解説)」(<http://www.npa.go.jp/cyber/deai/law/>)과 총무성에서 제공하는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http://law.e-gov.go.jp/htmldata/H15/H15HO083.html>)을 참조하였으며, 이하 동법의 내용에 대한 소개는 이를 참조하여 작성함. 2013년 7월 1일 인출.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出會い系サイト規制法, 정식 명칭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3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만남주선 사이트에 의한 범죄가 다수 발생하자, 만남계 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법의 일부를 개정,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은 만남계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아동매춘 및 그 밖의 범죄로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만남계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을 상대로 이성교제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금지유인행위)은 금지되고 있으며(6조), 만남계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을 성교의 대상으로 교제를 요구하는 글이나 아동을 상대로 금품을 목적으로 한 이성교제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남계 사이트 운영자(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자)는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신고 제출, 이용자가 아동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확인, 금지유인행위에 관한 게시글 삭제 등의 의무가 있으며(3조, 7조~14조, 16조), 만남계 사이트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보호자는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3조, 4조).

4) 스마트폰 시대의 청소년 보호 관련 정부 시책³⁰⁾

(1) 스마트폰에 관한 교육 및 주지계발활동

총무성이 마련한 「스마트폰 안심·안전이용촉진 프로그램(スマートフォン安心・安全利用促進プログラム)」(2012년 9월 발표)에 의하면, 총무성은 관계사업자, 소비자단체, PTA 등과 연대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종합적·중점적인 주지계발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주지계발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는 ① 스마트폰의 기본적 사항(특성과 서비스 구조 등), ②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용자정보 취급 현상, 이용자가 주의해야할 사항 「스마트폰 프라이버시 가이드」의 활용 등), ③ 정보 보안 대책(「스마트폰

30) ‘스마트폰 시대의 청소년 보호 관련 정부 시책’은 2012년 9월에 총무성이 발표한 「스마트폰 안심·안전이용촉진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관련한 내용으로부터 주요하게 이하 4개의 항목을 선별했다. 「스마트폰 안심·안전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출처는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75588.pdf이며, 2013년 7월 20일 인출함.

정보 보안 3개조』 등), ④ 청소년·보호자, 고령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청소년·고령자: 필터링의 이용방법 등, 고령자: 스마트폰의 적절한 설정 방법 등)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주지계발 소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앞에 제시한 제공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한 주지계발용 자료와 DVD 등의 소재를 관계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안심협 등과 연대하여 신속하게 작성, 2012년 9월 이후부터 총무성의 HP 등에 게재하여 일반 이용자의 주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시의 설명 및 주지계발에 필요한 자료 작성에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종합적인 주지계발활동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 지원 연락회나 e넷캐러밴이 주최하는 연수회의 장을 활용하거나, 내각부 등과 연대하여 TV·라디오, 신문·잡지, 홍보잡지·팸플릿,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총무성은 특히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급이 현저한 상황을 감안하여,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중점적인 주지계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1개 지역에 소재하는 총무성의 종합통신국 등이 지역 코디네이터가 되어 PTA나 고등학교, 자치체 등이 주최하는 연수회, 지역의 NPO 등 각종 단체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이벤트, e넷캐러밴 연수회 등을 활용하여 관계사업자나 안심협, 모바일사이트의 심사·운영의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제3자기관 등과 연대하면서 풀뿌리 차원에서의 중점적인 주지계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스마트폰의 필터링 성능 향상 및 이용의 보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성립된 이후 휴대폰 및 스마트폰의 필터링 성능 향상 및 이용의 보급은 각 관계자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해 휴대폰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휴대폰 또는 PHS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가 청소년일 경우 반드시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청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필터링 서비스의 내용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내각부의 2012년도 조사에 의하면, 2012년 11월 현재, 일본 청소년의 휴대폰(PHS, 스마트폰 포함) 필터링 이용률은 초등학생이 76.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68.9%, 고등학생은 54.4%가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필터링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의 여부를 물은 결과, 해마다 설명을 들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2012년도에는 보호자의

80%가 휴대폰 구입 당시 필터링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링 의무화 초기인 2009년에 비하면 필터링 이용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으며, 판매업자의 설명 의무도 상당 정도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필터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에게 자신이 보호하는 청소년의 연령, 발달 단계 등에 적절하게 필터링 설정 방법을 선택하여 설정하고 있는지(customizing)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보호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그대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³¹⁾ 필터링은 자녀의 인터넷 리터러시에 맞춰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링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에 안심하고 있다면 이 역시 유해 콘텐츠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임하고 있는 것과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내각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45.7%가 무선 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경우, 무선 랜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면 캐리어 측의 필터링이 무효가 된다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 50%의 고등학생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총무성은 스마트폰의 필터링 개선을 위해 종래의 휴대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안심·안전한 필터링 서비스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관계사업자와 연대하여 스마트폰의 필터링 시스템 및 이용자의 연령확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개인 간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앱에 대해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정을 받도록 관계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인터넷 리터러시 향상

스마트폰의 경우 다양한 사업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높은 리터러시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총무성은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리터러시 현상을 가시화하여 각지에서의 주지계발활동 향상이나 관계사업자에 의한 안심·안전 서비스 및 인터넷 리터러시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9월 청소년 인터넷 리터러시 지표(ILAS: Internet Literacy Assessment indicator for Students)를 개발하고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31) 초등학생 81.3%, 중학생 89.2%, 고등학생 87.6%

ILAS란 PC나 휴대폰, 스마트폰에서의 인터넷 이용 리스크를 분류하고 각각의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행동능력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작성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표화한 것이다. 이 지표에 의해 청소년의 인터넷 리터러시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지표로 파악된 정보는 각 관계자가 각 지역에서 전개하는 주지계발활동이나 서비스 활동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효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청소년의 리터러시 지표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ILAS의 OECD 지표작성 등 일본에서의 지표 개발 및 활용을 국제적인 활동에도 접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의 보급 추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소년에 의한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간단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타인에 대한 중상·비방으로 피해를 주고 범죄피해 등에 휘말리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대학이나 기업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시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에서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중점 내용은 ① 법령준수(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개인 존중(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따른 발언(중상비방이나 차별적 발언을 삼간다), ④ 수비의무·기밀유지(발언 전에 기밀성을 확인하다), ⑤ 정확한 정보 기재(부정확한 내용을 발언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는 정정·사죄한다), ⑥ 자신 및 타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본인의 승낙 없이 발신하지 않는다), ⑦ 한번 발신한 내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는 이상 7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성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등학생 및 그 이하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 작성 시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대학·고등학교 등 각 커뮤니티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제3자 기관의 청소년 보호 대책

일본에서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최대 가치로

삼는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가 콘텐츠 규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어디까지나 제3자기관이나 사업자·이용자가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원칙하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된 제3자기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이트 인정제도나 등급제 등의 활동을 추진·전개해오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총무성의 제언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전제로 각 관계자가 연대하여 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처하기 위한 제3자기관의 앱 평가 및 인정제도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하 안심넷이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심안전 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고, 안심협의 ‘스마트폰 무선 랜 및 앱 경유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작업부회’가 2012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평가하는 제3자 기관 “모바일 콘텐츠 심사·운용감시기구(이하, EMA)”와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급기구(이하, CERO)의 대책을 살펴본다.

(1) 안심넷의 스마트폰 안심안전 가이드³²⁾

안심·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 이용자 및 산학관계자가 상호 연대하여 2009년 2월에 설립한 안심넷은,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확대와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보호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리스크와 대책(保護者のための青少年のスマホ利用のリスクと対策)」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를 위한 스마트폰 안심안전 가이드(保護者のためのスマートフォン安心安全ガイド)」(이하 안심안전 가이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32) 안심넷의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보호자를 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리스크와 대책」에는 유해사이트로 인한 피해, 교류사이트를 통한 만남주선에 의한 피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감염, 고액 요금 청구 등의 트러블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안심넷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언제든지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호자를 위한 스마트폰 안전안심 가이드」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이하 내용은 안심넷이 제공한 상기 2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보호자를 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리스크와 대책」의 출처는 <http://sp.good-net.jp/>이며, 「보호자를 위한 스마트폰 안전안심가이드」의 출처는 http://sp.good-net.jp/smartphone_guide_20130611_print.pdf로, 양쪽 모두 2013년 7월 10일에 열람·인출했다.

안심넷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필터링 서비스 활용이다.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 의해 휴대폰사업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휴대폰회선(3G회선)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에만 유효하며, 스마트폰에서 무선 랜(Wi-Fi)이나 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는 종래의 필터링 서비스가 유효하지 않다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에 안심넷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선 랜이나 앱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무선 랜은 대용량으로 속도도 빠르고 동영상을 보거나 큰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하는 데는 매우 편리하고 적합하지만, 보호자의 입장에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선 랜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휴대폰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능제한 앱³³⁾을 이용하여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무선 랜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싶다면 무선 랜 접속에서도 유효한 필터링 소프트웨어³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안심안전가이드에서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휴대폰사업자가 추천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확인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필터링 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설정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취학 연령에 맞는 레벨 설정이다. 보호자는 자신이 보호하는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레벨을 설정하고 카테고리별로 열람 가능/불가능을 선택하도록 설정하며, 설정 변경에 필요한 패스워드를 보호자가 관리하고 아이의 성장에 맞춰 대화를 통해 적절히 변경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앱을 통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에는 휴대폰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능제한 앱을 이용하여 앱의 다운로드 제한이나 다운로드가 종료된 앱의 기동을 제한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또한 OS(iOS, Android, WindowsPhone OS 등) 제공회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 등에서는 개개의 앱에 연령 등급을 부여하여 스마트 폰 본체의 이용 제한 기능을 사용해 아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앱을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이트의 접속을 제한하는 필터링과 마찬가지로, 앱에 대한 필터링³⁵⁾이 일부 휴대폰사업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33) 휴대폰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능제한 앱으로는 NTT도코모의 「안심모드(あんしんモード)」, KDDI의 「안심 앱 제한(安心アプリ制限)」, 소프트뱅크모바일(ソフトバンクモバイル)의 「안심설정 앱(あんしん設定アプリ)」 등이 있다.

34)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주식회사 야후(ヤフー)의 「Yahoo! 안심넷(Yahoo! あんしんねっと)」, 디지털아츠(デジタルアーツ株式会社)의 「i 필터(i-フィルター)」 등이 있다.

35) 휴대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앱 필터링으로는, NTT도코모의 「안심모드(あんしんモード)」, KDDI의 「안심 액세스 for Android™ (安心アクセス for Android™)」, 소프트뱅크모바일의 「스마트폰 안심서비스(スマホ安心サービス)」 등이 있다.

(2) EMA의 앱 인정제도³⁶⁾

EMA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사이트 운용감시상황을 인정하는 제도와 카테고리 선택기준에 관한 검토 등의 필터링 개선 활동과 인정사이트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발·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제3자기관이다. 2011년 10월부터 스마트폰의 앱에 관한 취급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여 2012년 6월 현재 앱에 대응하는 인정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필터링 개선을 목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휴대폰사업자와의 회합에서 스마트폰의 무선 랜 접속과 앱 이용에 관한 청소년 보호 대책에 대한 검토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단말기 측의 제한 기능(NTT 도코모의 ‘안심모드’, KDDI의 ‘안심 앱 제한’,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안심 인정 앱’ 등의 기능제한 앱)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보호자의 부담을 배려한 필터링 방식과 제3자기관의 인정 취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3) CERO의 등급제

CERO의 등급제는 본래 가정용 게임기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주요 대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모바일 콘텐츠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포함하여 모바일 온라인 게임과 디지털 게임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2011년 여름부터 모바일온라인게임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 이용자에 의한 가변요소(이용자의 댓글, 투고 등)는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자와 검토할 예정이다.

3. 영국³⁷⁾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현황 및 문제점

36) 안심넷 이외에 EMA의 앱 인정제도와 CERO의 등급제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안심넷의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무선 LAN 및 앱 경유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작업부회」의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출처는 http://good-net.jp/press_sp_20120608.html 2013년 7월 20일 인출

37) 영국의 스마트폰 정책에 관한 자료는 필자가 영국출장(8월 25일~9월 1일)을 다녀오면서 수집한 자료와 관련기관 종사자와의 인터뷰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절은 이창호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II가 발달한 영국도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Ofcom³⁸⁾(2011)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27% 가량이 스마트폰이용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략 1,200만 명 가량의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2세~15세 청소년들의 4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기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는 블랙베리, 아이폰, 갤럭시 안드로이드폰으로 나타났다(Ofcom, 2011). 이 조사에 따르면, 10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즐겨하는 주요 세 가지 영역은 소셜 네트워킹, 음악듣기, 게임으로 나타났다(Ofcom, 2011). 반면, 성인들은 이메일, 인터넷서핑, 소셜 네트워킹이었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관계형성과 오락목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데 반해 성인들은 업무목적과 관계형성이 많았다.

2012년 Ofcom(2012)의 조사에서는 12~15세 청소년들의 87%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62%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1년 사이에 12~15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15%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피쳐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찍는 것,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등이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fcom, 2012). 이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인터넷이용이 쉽고 SNS 이용이 간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2~1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71%가 휴대전화와 관련해 규칙을 정하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fcom, 2012). 특히 12~15세 자녀를 둔 18%의 부모들이 자녀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지 규칙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2~1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31%가 자녀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18세 이상의 성인을 타깃으로 한 웹사이트에 접근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Ofcom, 2012). 이러한 조치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자녀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와 달리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도 많았다.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들의 47%는 화장실이나 침대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스마트폰에 더 중독됐다고 응답했다(Ofcom, 2011).

38) 영국의 독립적인 민간자율의 커뮤니케이션산업규제기구로 해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산업 전반의 이용현황을 다룬 'Communications Market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사이버불링 또한 영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한 인터넷언론에 따르면, 16~25세 영국 젊은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온라인 상에서 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Cyber bullying leaves one third of UK youth depressed, 2013). 특히 16~18세 학생들의 20%가 사이버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국 젊은이들의 3분의 1 가량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 본 것 때문에 침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언급한 Ofcom(2012)의 조사에서도 12~15세 학생들의 8%가 지난 1년간 휴대전화를 통해 불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Beatbullying³⁹⁾(2012)이 최근 펴낸 사이버불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600명의 중, 고등학생 중 28%의 응답자들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유형 중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을 놀리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eatbullying, 2012).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유형은 소셜네트워크킹 프로파일을 통해 역겨운 코멘트를 받는 것이었다. 성별로 볼 때 여학생(32%)이 남학생(23%)보다 더 많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이 일어나는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과 MSN 메신저가 가장 많았다(Beatbullying, 2012). 전체응답자의 17%가 사이버불링가해자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로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39%)가 가장 많았고 단지 장난으로 했다는 응답(26%)이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불링을 당한 학생들의 경우 그 후유증도 심각했다(Beatbullying, 2012). 20%의 학생들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했고 19%의 학생들은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했다. 또한 14%의 학생들은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학생들은 사이버불링대책으로 보다 개선된 사이버불링 신고체계를 제시했다(Beatbullying, 2012).

이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영국 청소년들에게서도 사이버불링이 점차 확산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와 마찬가지로 SNS와 메신저가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었다.

2)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대책

영국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UK Safer Internet Centre⁴⁰⁾가 안전한 인터넷사용을 촉진하기

39) 영국 런던에 위치한 청소년폭력예방단체로 물리적 폭력예방 뿐 아니라 사이버불링에 관해서도 여러 연구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60 degree safe’ 프로그램⁴¹⁾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SWGFL E-Safety Team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학교가 얼마나 온라인 안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도구이다⁴²⁾. 즉 유해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장치나 보안시스템 등 하부구조에서부터 학생, 교사 등에 대한 미디어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얼마나 사이버상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인터넷안전에 대한 장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급에 따라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분해 놓았다. 최근 말레이시아정부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측정결과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e-safety’ 마크를 부여하는 데 현재 60여개 학교가 이 마크를 단 상태이다(저자와의 인터뷰, 2013년 8월 28일). 이러한 학교사업 외에도 UK Safer Internet Centre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인터넷안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매년 인터넷안전의 날(2014년의 경우 2월 11일 예정)을 정해 인터넷상의 위험을 알리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2009년 3월 도입된 사이버멘토의 육성을 들 수 있다⁴³⁾. 즉 5세~17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이 무엇인지, 사이버불링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이버멘토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령, 5~7세의 학생들에게는 하루 훈련을 통해 우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를 훈련하며 8~10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2일간 교육을 통해 불링의 개념을 소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책임과 멘토링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11세~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일간의 교육에서는 불링이나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원인과 멘토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주시민이 되는 방법과 불링이나 사이버불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도의 경우 150여개 학교에서 2,600여명의 학생들을 사이버멘토로 육성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사이버멘토들은 동료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모바일기기나 온라인

40)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단체로 매년 안전한 인터넷날을 지정하여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41) 웹사이트 주소는 www.360safe.org.uk 임.

42) 이 내용은 필자가 영국출장 시 직원과의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43) 이 내용은 필자가 영국출장 시 Beatbullying 직원들과 수행한 인터뷰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공간을 통해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Beatbullying, 2009).

유해콘텐츠차단대책으로는 민간과 정부, 경찰, 학교 등이 서로 협력하여 핫라인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⁴⁴⁾. 가령, IWF⁴⁵⁾ (Internet Watch Foundation)는 온라인 상에 유포되고 있는 아동 성 학대 이미지나 동영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 정부, 교육계, 온라인사업과 연계하여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IWF 웹페이지를 통해 신고 된 내용이 영국법을 저촉하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사에 들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인터넷사업자에게 공지를 하고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과 협력하여 일이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공지가 돼 내용물이 제거되는 시간은 채 1 시간도 안 걸린다고 한다. 또한 INHOPE 핫라인을 통해 영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용물도 제거하고 있다. 2012년도의 경우 모두 39,2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25%가 아동성학대나 남용혐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9,550개의 웹페이지가 아동성학대내용을 담고 있었다.

IWF는 뉴스그룹의 내용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동성폭력물이 발견되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폐쇄조치를 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 아울러,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성학대나 폭력물을 담고 있는 URL 리스트를 매일 제공함으로써 관련 인터넷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해콘텐츠를 걸러내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안전을 지키려는 이동통신사들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가령, 영국의 가장 큰 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은 부모들을 위해 'Digital Parenting'이란 안내책자를 2010년 발간했다 (Vodafone, 2012). 이 가이드북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설치해야 하는지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고 우려스러운 스마트폰 내용을 어떻게 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 리포트 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즉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녀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다.

3)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관리⁴⁶⁾

영국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을 조레 때 거두고 종레 때 돌려주는 조치를

44) 이 내용은 필자의 영국출장 때 수행한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45) 1996년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핫라인을 운영하여 인터넷상의 유해콘텐츠에 대한 신고, 접수를 통해 온라인상의 유해콘텐츠를 규제하고 있음. 인터넷산업체에 의해 설립된 민간자율기구로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음.

46) 이 부분은 필자가 영국출장 때 수행한 한인 고등학생 2명과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취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두 명의 학생은 모두 한인학생들인데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처럼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경우(조례 때 거두고 종례 때 되돌려 줌)는 없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이한 점은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교사가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데 학생들이 찾고 싶으면 50펜스(0.5 파운드)를 교사에게 내야 되돌려준다고 한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 아이패드를 비롯한 고가의 전자제품을 잃어버리거나 사고가 있을 우려가 있어 되도록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들고 오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점을 받기도 한다.

부모가 학생들을 직접 학교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생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어린자녀를 둔 경우 부모들 자체도 아이들에게 꼭 스마트폰을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가령,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감상하게 한다든지 수학시간에 전자계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영국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도 우리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가 얼마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도구를 무료로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해 또래 친구들을 사이버멘토로 교육,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독일⁴⁷⁾

1)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현황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2012년 초 독일 민간가구의

47) 이 절은 이민희 교수(평택대 아동청소년복지학과)가 집필함.

90.3%는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사용가구가 30%에 불과했었는데 12년 사이에 60%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46%의 가구가 1개의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었고, 34%가 2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 20%가 3개 이상의 핸드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구가 가장 많이 핸드폰을 소유하였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양부모가구가 99%, 한부모 가구의 98%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1인 가구 중에는 약 83%가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2).

독일의 현행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의 제7조에 따르면 ‘아동’은 14세 미만⁴⁸⁾,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 ‘젊은 성인(成年)’은 18세 이상 26세, 모든 ‘젊은이’는 27세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제1조 1항에서 “모든 젊은이는 개인의 발달을 위하여 지원받을 권리와 책임이 있고, 사회생활 능력이 있는 한 개체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독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연령은 엄밀히 말하여 14~26세라고 말할 수 있다.

2012년 독일의 핸드폰 사용에 관한 통계에서 청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조사 대상에는 18~24세가지만 조사되었다. 이 통계에서는 2004~2012년 사이의 18~24세까지의 청소년의 핸드폰 사용의 추이를 조사했는데 2004년에 90.6%였던 사용률이 2011년부터는 100%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급속히 늘어난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미디어교육의 전문기관인 미디어교육남서부네트워크(MPF⁴⁹⁾)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MPFS, 2012).

(1) MPFS의 조사에 따른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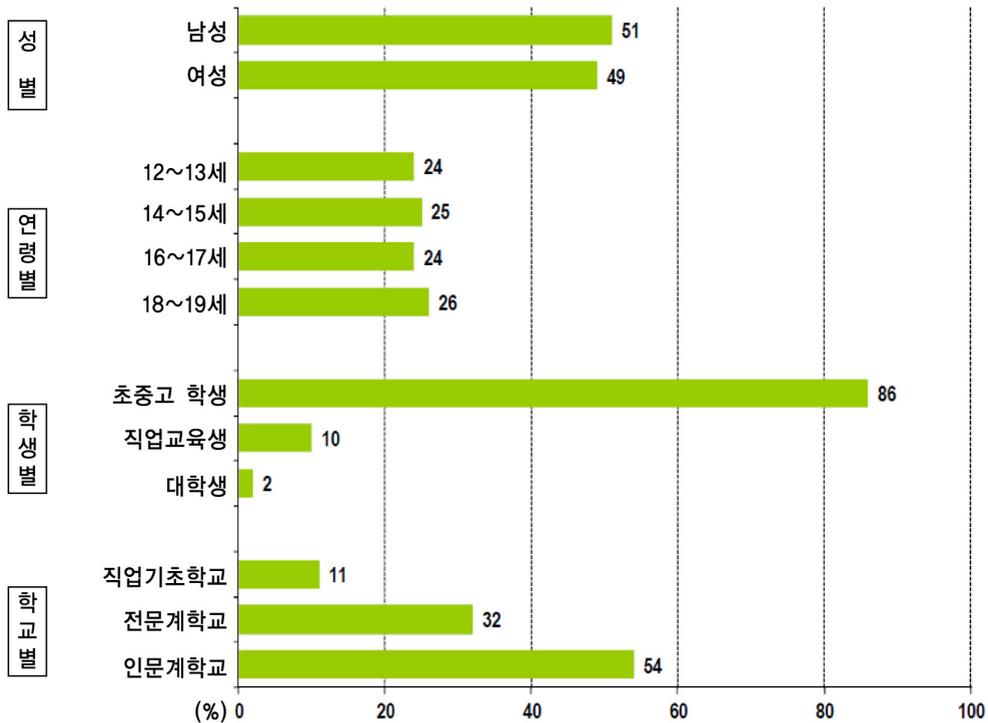
MPFS는 JIM⁵⁰⁾-Studie⁵¹⁾를 통해 2012년 5월 7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독일의 전체 12~19세 청소년인구 약 700만 명 중에서 1,201명을 전화로 질문하여 이동전화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48) 단, 동법 제1조 2항에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은 자연권이고 최우선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경우의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9) Medienpädagogischer Forschungsbund Südwest

50)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 청소년, 정보, (멀티)미디어의 약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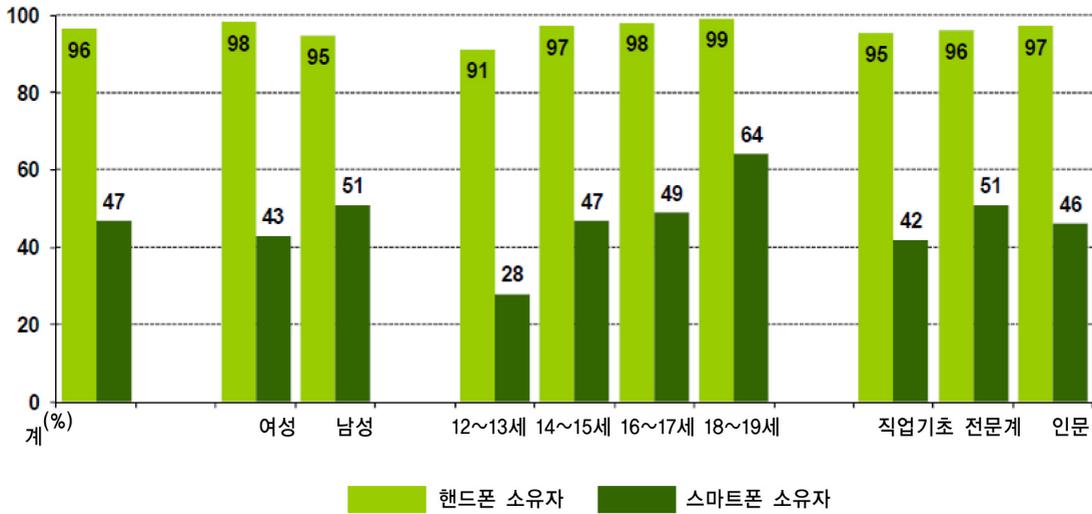
51) <http://www.mpf.de/index.php?id=527>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출처: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4.

【그림 IV-1】 독일 JIM-Studie 참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독일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구당 63%로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Tablet-PC는 가구 당 19%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 IV-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에 응답한 남성 청소년의 51%와 여성 청소년의 43%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조사 청소년의 83%가 매일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있고, 일주일에 간혹 핸드폰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청소년은 8%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13%에서 2011년에는 29%로, 2012년에는 응답 청소년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인 49%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인터넷 서핑 속도가 일반 PC의 속도에 못지않게 빠르게 발전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출처: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2.

【그림 IV-2】 독일 청소년의 핸드폰 및 스마트폰 소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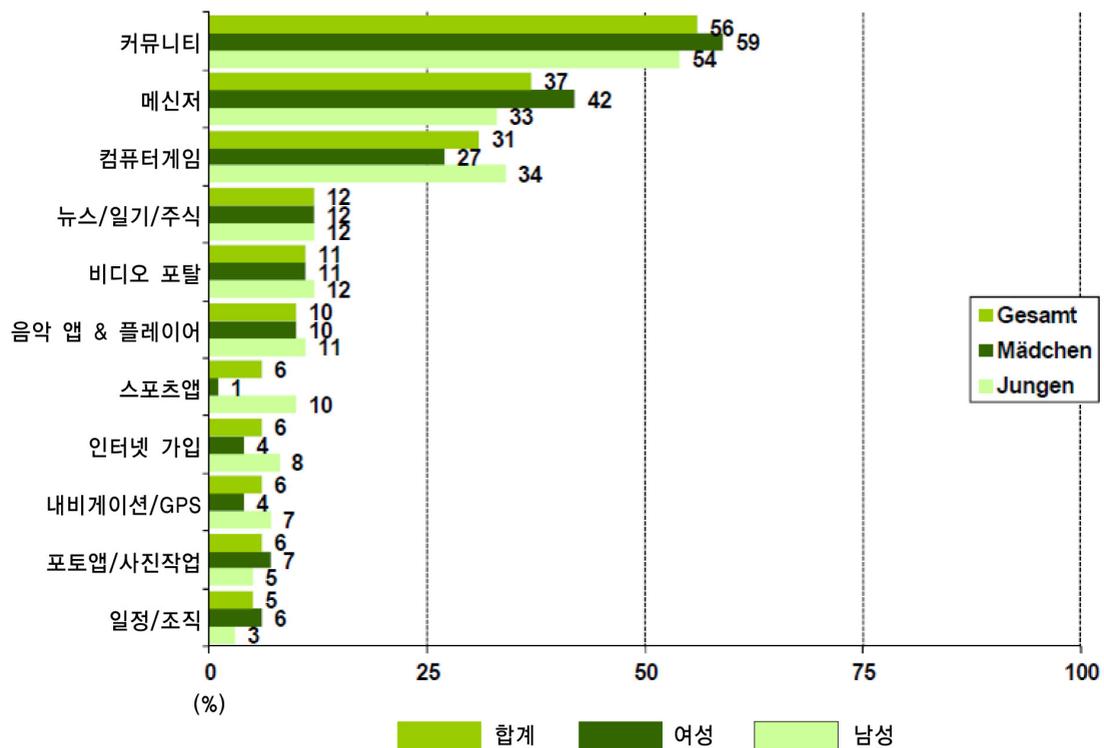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의 소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핸드폰은 여성 청소년(98%)들이 남성(95%)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은 남성 청소년(51%)들이 여성(43%)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응답한 청소년들은 핸드폰 사용비용으로 월 평균 약 17€(유로)⁵²⁾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월 평균 20~50€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의 사용 현황

JIM-Studie의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응답 청소년의 83%가 인터넷이 가능한 핸드폰으로 나타났다. 52%의 응답 청소년들은 핸드폰에 다양한 앱을 가지고 있었고, 51%의 청소년들은 GPS로 위치가 파악될 수 있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에는 응답한 청소년들의 40%가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년 전인 2010년에는 불과 8%에 그쳤던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2011년에는 22%에

52) 2013.09.04. 현재 기준 약 25,128원 정도

달하는 등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률의 급격한 증가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더 많은 부가 기능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 사용 비용을 균일 가격으로 묶어 놓아 청소년들이 월 평균 사용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응답 청소년들은 평균 23개의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이 29개의 앱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16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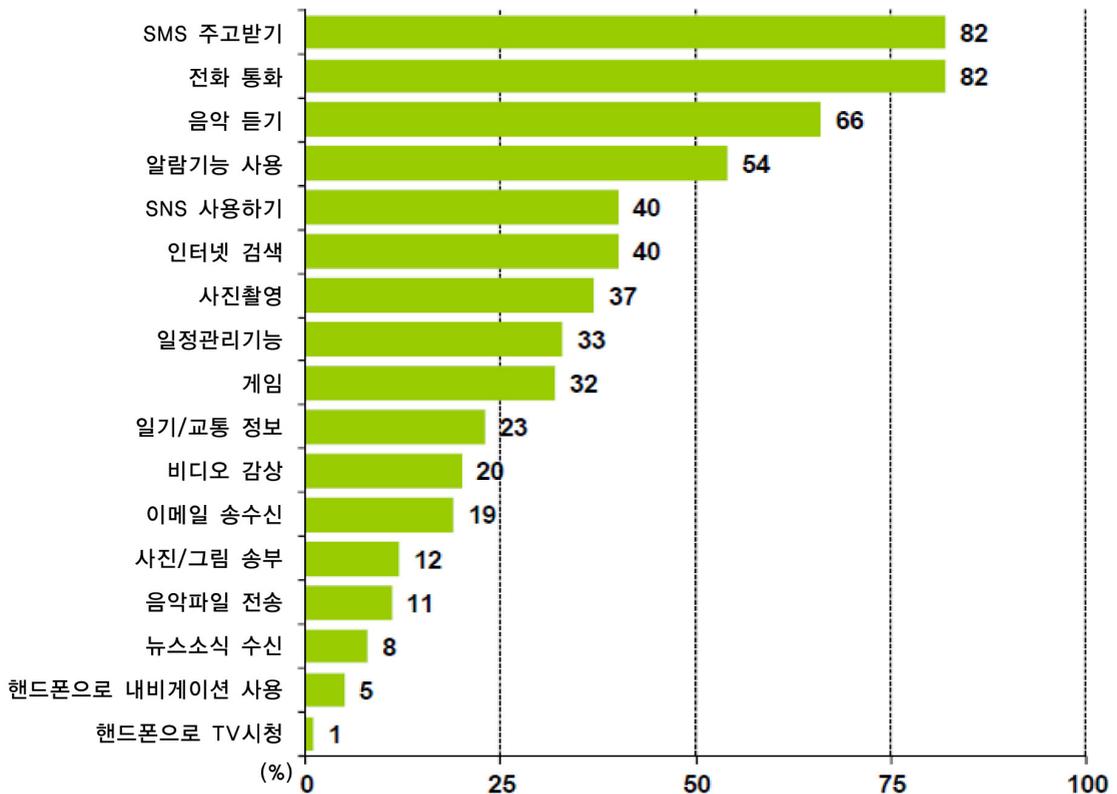
출처: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5.

【그림 IV-3】 응답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앱들

응답 청소년들에게 복수로 3개를 택하라는 것을 위와 같이 【그림 IV-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위 SNS(Social Network Service)라 하는 커뮤니티 대화방이 56%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페이스북(Facebook)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즉시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와 같은 쌍방 대화 앱이 인기이고(37%),

‘앵그리 버드(Angry Birds)’나 ‘두들 점프(Doodle Jump)’와 같은 게임 앱(31%)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2~13세의 비교적 어린 연령의 청소년들의 약 49%는 게임을 가장 중요한 3개의 앱 중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게임보다는 SNS나 뉴스, 내비게이션 등의 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래의 【그림 IV-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핸드폰의 주요 기능인 통화(82%)와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메시지서비스(82%)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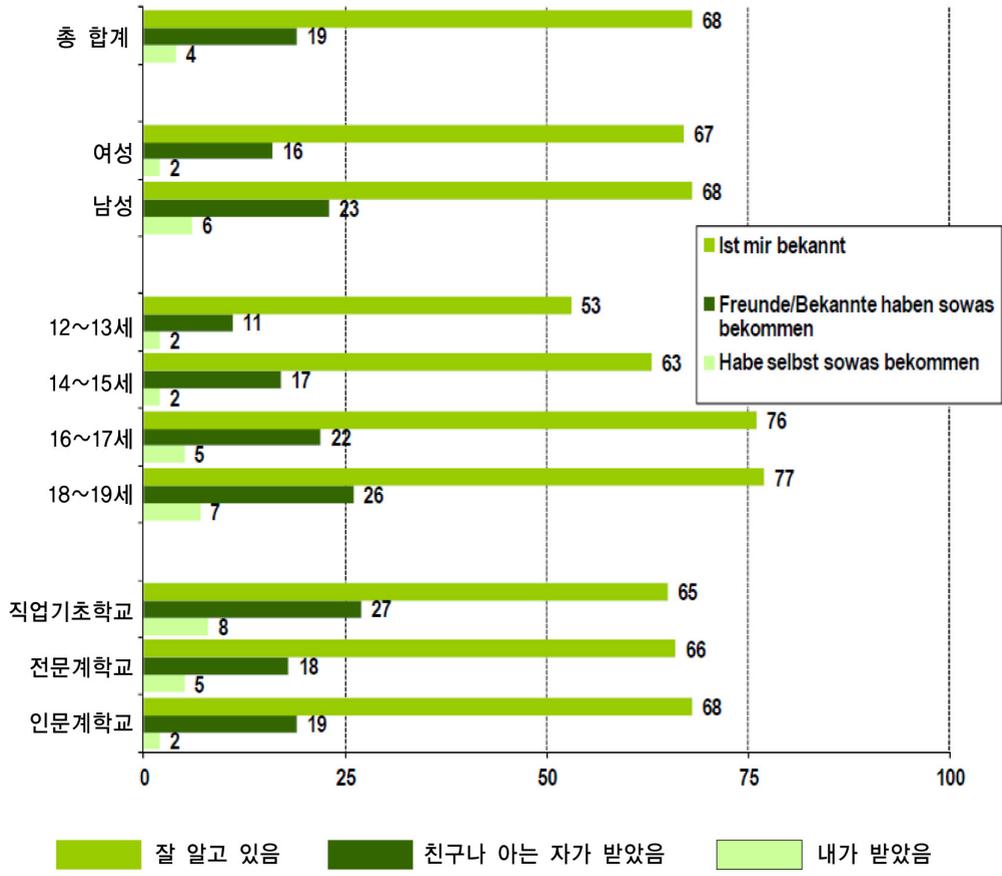
【그림 IV-4】 청소년의 핸드폰의 다양한 사용 선호도

다음으로는 음악 청취기능의 사용 비율이 높았으며(66%), 잠을 깨워주는 알람기능도 54%로 높은 사용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 검색과 SNS 사용 비율은 각각 40%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

2012년 독일의 JIM-Studie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의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핸드폰이 다양한 기술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부모들은 Desktop-PC와 같이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인터넷 등의 사용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대부분 청소년들 자신으로부터의 오용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을 통하여 잔인한 비디오물들이나 포르노 동영상들을 손쉽게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아래 【그림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JIM-Studie의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2/3(68%)는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청소년들의 1/5(19%)은 이러한 유통이 자신의 친구들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으며, 응답 청소년의 약 4% 정도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이, 저 연령보다 고 연령이, 교육수준이 높은 학교보다 낮은 학교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스마트폰의 부정적 사용이 2010년 6%, 2011년 4%에서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MPFS, 2012: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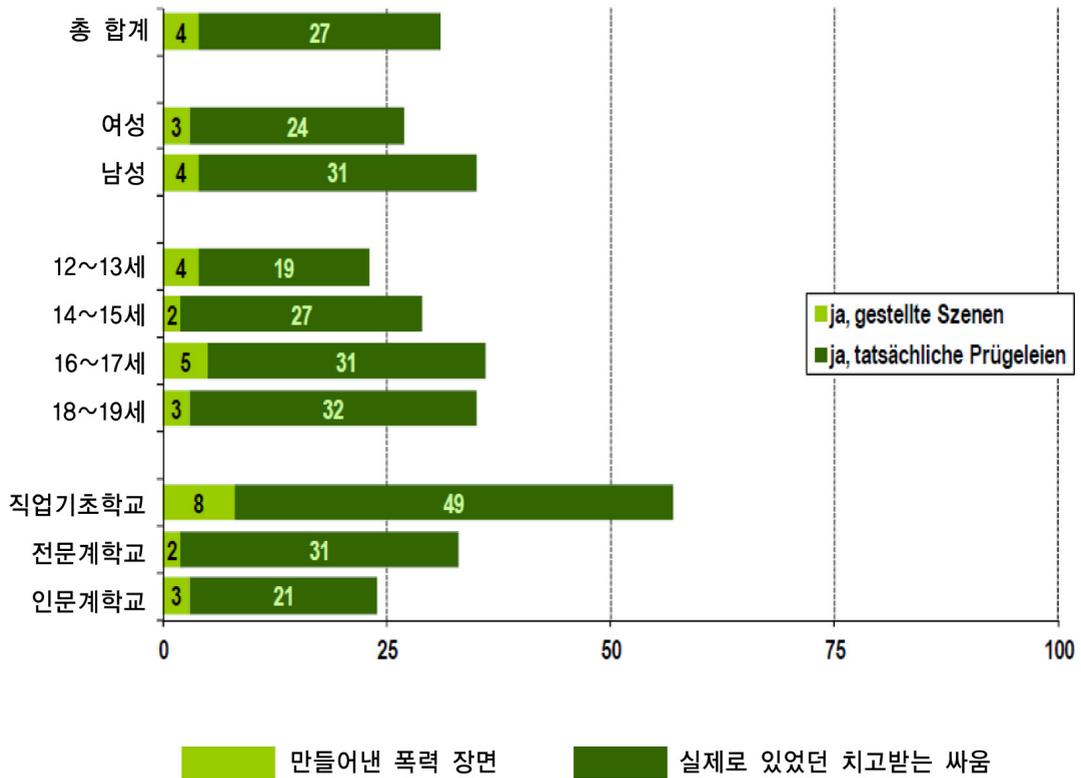


출처: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7.

【그림 IV-5】 스마트폰을 통한 잔인한 비디오물이나 포르노물 수령

독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물리적 폭력 장면이나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여 촬영하여 퍼뜨리는 일이다. 실제로 폭력이 행해지고 일회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래 【그림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소지 청소년의 세 명 중 한 명(31%)은 이미 이러한 폭력이 촬영되는 것을 보았다고 응답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보다는 남성 청소년이, 저 연령 보다는 고 연령의 청소년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출처: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8.

【그림 IV-6】 스마트폰 소지자의 스마트폰 폭력 영상 체험 비율

3)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관련 법제도

독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조건과 환경은 한국과 달라서, 우리와 비교할 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독일 청소년들은 대학입학시험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활동거리와 문화적 향수, 생활체육 등의 탈출구들을 많이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각종 문제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마트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독일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보호’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추이와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1) 「청소년보호법(JuSchG)⁵³⁾」

독일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부처인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⁵⁴⁾)에서는 오래 전부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1951년에 가정이나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으로서 요청되어 처음 제정되었는데 담배, 주류, 영상물, 컴퓨터게임물 등의 판매와 유통 및 디스코텍과 같은 업소 출입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85년과 1990년에 일부 개정을 거쳐 최근 정보사회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매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 청소년의 부모나 교육자들, 그리고 관계자들과 관계당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청(Jugendamt)이나 법원에서 형벌제재를 가할 수 없고 오직 경고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만 하게 되어 있다.

(2) 국가행동계획 「Jugendschutz aktiv⁵⁵⁾」

「청소년보호법」을 근간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최근 2011년부터 정보사회의 급속한 사회적, 기술적 발전에 도전을 받고 있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능동적 청소년보호(Jugendschutz aktiv)”라는 구호를 가지고 국가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국가적 청소년보호 프로젝트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고,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보호 관계자들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동참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중앙의 연방(Bund) 정부와 16개 자치 주(州)(Länder) 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로 연방 정부에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과제가 부여되어 있고, 각 주 자치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결정들을 엄수하여 시행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목적은 독일의 중앙정부와 주 정부들뿐만 아니라 독일 각 지역의 청소년보호 개선을 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중앙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의 청소년 보호를

53) 법의 원명은 「공공청소년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Öffentlichkeit(JÖSchG)’이나 보통 줄여서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로 불리운다.

5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49) <http://www.bmfsfj.de/BMFSFJ/Service/Publikationen/publikationen,did=187110.html>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프로젝트들이 청소년 현장의 실천가, 관계자, 책임자들로부터 전개되었다. 이 계획의 중요한 의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mffFSFJ, 2012: 6).

- 성공적인 청소년보호 대책들과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고, 도움이 되는 경험들의 교환을 위한 기초가 형성됨. 이를 위해 설치된 “프로젝트데이터은행(Projectdatenbank)”은 총괄적인 청소년보호 개관과 이를 위한 직접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함.
- 공공성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모든 책임자들과 참여자들에게 깊이 인식됨. 부모와 교육자들도 아동과 청소년보호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감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

(3) 청소년보호 전국 네트워킹의 프로젝트 데이터 은행(Projectdatenbank)

독일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청소년보호 국가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프로젝트 데이터 은행”의 설치이다. 프로젝트 데이터 은행은 한 마디로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자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 외에도 독일 전국의 연방, 주 정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젝트들과 아이디어들이 취합되고 있다.

활동가들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가 많아질 수록 이 데이터 은행은 더 많은 역량을 가지게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활동가들이 경험과 아이디어들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구나 데이터 은행에서 키워드(keyword)를 입력하여 원하는 정보들과 경험, 아이디어,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방아동청소년보호사업협회(BAJS⁵⁶)와 연결하여 성공적인 경험들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은행은 이웃 지역에서 유용한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방대책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활동가들은 데이터 은행에서 우편번호와 프로젝트 관련 문헌들을 찾아 볼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의 결과에 관한 중요한 키워드 목록도 제공 받는다.

56) *Bundesarbeitsgemeinschaft Kinder- und Jugendschutz e.V.*

결국 청소년보호를 위한 독일 정부의 열쇠는 네트워크에 있다. 즉, 청소년보호 수행의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의 대부분은 한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청소년청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지역사회들 간의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의 중심에 이 데이터 은행이 있는 것이다.

(4)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계약(JMStV)⁵⁷⁾」⁵⁸⁾

21세기 정보사회에 들어 매체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각해지자 독일 정부는 「청소년보호법」만으로는 급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02년 9월 독일 전국의 16개 주들이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계약」법을 제정하고 계약을 맺어 인터넷, TV, 라디오와 같은 전자매체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통합된 법적 기초를 만들었다. 이 법의 제1조에는 “국가계약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과 교육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전자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서비스들로부터 이들을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과 그와 같은 법으로 보장된 것들을 해하는 서비스들로부터의 보호에 있다.”라고 법 제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법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14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법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TV나 인터넷과 같은 원격매체로부터의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정부는 특히 2007년 2월 매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의 개선을 위해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즉각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즉, 2008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위한 첫 번째 법’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 법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들의 목록이 폭력적 묘사들을 고려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 매체의 폭력묘사들과 관련하여 법에서 명명된 유해목록의 범주가 넓어졌고 자세하게 되었다.
- 영상물협회의 자율적 통제(FSK⁵⁹⁾)에 따른 시청연령 표기의 최소 크기와 가시성이 확정되었다.

57)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58) 이 법령의 내용은 독일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계약」법령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책자에 들어있다(BMFSFJ, 20115: 77~125).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자는 대상자들에게 유해매체를 통한 폭력이 줄어들어야만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영상물에 있어서 뚜렷하고 더 커진 연령 표기는 모두에게 첫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5) 프로젝트 “위험 없는 핸드폰(Handy ohne Risiko)”

- 안전한 핸드폰 사용을 위한 부모 지침서⁶⁰⁾

독일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정보사회에 와서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 교환과 소통의 환경에 직면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핸드폰과 인터넷이 결합되는 매체 환경의 변화와 확산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더 많아졌음을 깊이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모들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0년 “위험 없는 핸드폰”이라는 모토아래 지침서 형태의 소책자를 개발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확장된 기능에 따른 위험들을 부모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침서 형태의 소책자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급격한 변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위험에 대한 진단 및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2011년 이미 3쇄가 출판될 정도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핸드폰을 통한 유해매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소책자에서 핸드폰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인터넷이 가능한 핸드폰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부적합한 내용들을 막아야 한다.
-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핸드폰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비활성화하거나 인터넷이 없는 아동용 핸드폰을 구입한다.
- 핸드폰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배워서 핸드폰의 환경설정을 바꾸어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도록 한다.

59) *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60) <http://www.bmfsfj.de/BMFSFJ/Service/Publikationen/publikationen,did=101196.html> (2013.09.13)

이 글의 내용은 독일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이 급증하고 이를 통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부모교육 차원에서 부모들에게 홍보하는 소책자 속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 요약하였다(BMFSFJ, 20113: 77~125). 본 내용은 김경준·김희진·성윤숙(2012)의 보고서 87~90쪽에도 소개된 바 있다.

-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의 홍보물 “아동을 위한 네트워크. 위험 없는 인터넷 탐색?”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 핸드폰을 통한 괴롭힘으로부터 아동 보호

- 아동들에게는 핸드폰의 인터넷을 비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좋다.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적합한 앱을 공동으로 찾아본다.
- 청소년에게 안전수칙을 전달하여 이름, 주소, 핸드폰이나 메신저 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사귀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그치고, 절대로 동반자 없이 혼자 상대방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불쾌한 대화나 접촉은 중단한다.
- 핸드폰 사용 시 문제가 있는 내용이거나, 채팅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핸드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찰 및 인터넷 신고센터(www.jugendschutz.net)에 알린다.
- ‘위험 없는 채팅’ 사이트⁶¹⁾에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③ 대화하기

- 부모는 자녀들과 핸드폰 영상물들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이미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을 때에만 상대방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거나, 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학교에서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영상물의 내용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에 알리기 전에 먼저 교사, 부모, 청소년이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④ 관련 법 내용들

- 청소년들은 14세부터 법적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들에게 포르노 사진이나 폭력적인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여주거나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된다.
- 교사들은 학생들의 핸드폰이 수업을 방해하게 될 경우 수업시간 동안에 보관할 수 있다.

61) www.chatten-ohne-risiko.net

동의나 허용 없이 핸드폰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경찰과 검사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즐거움을 주는 핸드폰 게임 하기

- 자녀들과 함께 게임들과 프로그램들을 찾아본다. 선택에 있어서는 핸드폰잡지에 나와 있는 게임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녀들에게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Multi-Player 게임의 위험에 관하여 알려준다. 잘 모르는 게임 파트너들을 조심하라 일러준다.
- 가족용 PC에서 당신이 'iTunes Store'와 같은 온라인 상점에 등록되었다면 당신의 비밀번호를 잘 간수하고, 항상 확실하게 로그아웃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저장하지 않는다.
- 무료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은 무단복사로 절도에 해당하며, 다운로드도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알도록 한다. 자녀와 함께 가격이 저렴한 음악과 게임을 찾아보도록 한다.

⑥ 핸드폰 비용

- 핸드폰 관련 비용을 자녀들이 알도록 한다. 핸드폰과 관련된 것들을 자녀들이 구매할 때에는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글들을 자세히 읽도록 한다. 게임물 구입이나 할인된 통화요금에 있어서 비용 조정을 하도록 한다.
- 원치 않는 구매 시 구매 동의 서약은 최대한 빨리 취소하도록 한다.
- 이동통신 회사에게 프리미엄 문자서비스, 특별번호, 해외통신, 인터넷접속을 비활성화 시키도록 요청한다. 아동보호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도록 한다.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특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하도록 한다.

⑦ 위치정보 서비스에서의 유의 사항

- 위치정보 서비스 오용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고, 부주의하게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비밀번호 해제 시 아이디를 물어보도록 핸드폰을 설정한다. 자신만의 비밀번호를 길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와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대화를 한다. 자녀에게 위치정보 서비스 사용방법과 제3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용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⑧ 전자파에 대한 유의 사항

- 가능한 핸드폰보다는 일반 전화 사용을 권장한다.
- 전화통화를 가능한 짧게 한다.
- 수신 상태가 좋을 때에만 핸드폰을 이용하도록 한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을 시 전자파가 더 많이 작동하게 된다.
- 전자파 흡수 수준이 낮은 핸드폰을 구입하도록 한다.
- 가급적 헤드폰을 사용하고, 전자파 흡수를 줄이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관련 대책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독일 청소년정책의 집행부서인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계약」 법령을 근간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세계와 청소년들과의 만남에 대하여 다각도로 법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급속한 기술의 발달을 법령이 따라 잡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이전에 없던 청소년보호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이 대책으로 등장하지만, 해당 법령이 만들어졌을 즈음에는 또 다른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인해 보다 나은 청소년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사용자나, 이를 불법으로 판매·유통 및 전송 하는 사용자나 늘 새로워지는 법령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규제의 속도가 정보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한계이다.

한 예로 독일의 연방내무부는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청소년관계자들 즉, 부모, 교육자, 청소년단체나 시설의 전문가,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모두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방내무부는 청소년보호 트레이너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잘 숙지하도록 양성하고, 누구나

이들에게서 청소년보호와 청소년매체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청소년보호 트레이너는 문의자에게 운전면허자격검정과 같은 형태로 “일반 법 기초”, “공공 청소년보호”, “매체에서의 청소년보호”의 3개 영역에서 현장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을 주고, 응답이 잘 되었으면 각 영역에서 구두로 서술하도록 한다. 응답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바른 응답을 할 때까지 다시 반복하여 문의자가 주제에 관련한 정보와 지식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결하여 준다.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국면에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청소년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독일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폭력, 음란물 차단에 관한 대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스마트폰 중독 대책

앞서 언급한 JIM-Studie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인 SMS 주고받기, 음악 듣기, SNS 사용하기, 인터넷 검색, 게임, 비디오 감상, E-mail 송수신, 사진/그림 송부, 음악파일 전송 등은 그 동안 컴퓨터로 사용해오던 기능들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은 컴퓨터 중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집에서 부모의 통제를 피하여 사용해야 하는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은 사용자 자신의 손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성은 컴퓨터보다도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중독성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의 중독 예방은 컴퓨터 중독 예방 대책에 준하여도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연방내무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ESCapade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한다.⁶²⁾

독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미 2011년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로 컴퓨터가 TV를 앞서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는 상호 소통과 참여의 기회 이외에도 다양성과 서로 다른 가치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제공되는 전무후무한 매력적인 매체였던 것이다. 컴퓨터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이 매체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학교,

62) 아래에서 소개하고 있는 “ESCapade 프로젝트” 관한 내용은 독일의 ‘약물중독예방소’에서 시행되었고 출처는 다음과 같다. Fachstelle für suchtprevention der Drogenhilfe(2012). *Das Bundesmodellprojekt ESCapade - Computer/Sucht/Familie*. <http://www.escapade-projekt.de>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직장, 가정과 자유 시간이 경시되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임과 채팅방에서 많은 상호갈등을 가지게 되었으며 부모 등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Capade 프로젝트”가 개입되었다.

이는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문제행동을 가족차원에서 개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세 가지의 핵심내용을 기초로 수행한다. 첫째는 가족과의 대화이다. 즉,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를 지원한다. 둘째, 가족세미나를 개최하여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문제행동 수정 역량을 얻도록 지원한다. 셋째,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을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이 연습하도록 하고, 상호 소통하여 컴퓨터 사용의 규칙을 만들도록 한다.

독일 연방 모델프로젝트 ESCapade에 대해서는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의 목적은 가족 지향적 개입의 효과와 제공된 서비스들의 실용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ESCapade는 무엇보다 컴퓨터 사용행위로 인한 심리사회적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의 감소와 가족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부담들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컴퓨터 중독 예방프로그램도 과학적으로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는 필수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보건부에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연말까지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국적 시행을 위해 쾰른(Köln) 시에 있는 약물중독예방소가 허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스마트폰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⁶³⁾

독일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 교육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건전한 내용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게임,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의 서핑, 각종 유해 동영상 등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진촬영, 채팅, SNS, 음성통화, 메시지 송수신 등의 기능은 청소년 범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은 심각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63) 이 글과 아래의 ‘음란물 차단 대책’에 관한 글의 내용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회소(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 BPjM)가 발행하는 기관지 “BPjM-Aktuell”(3/2006)에 실린 “Gewalt- und Pornovideos auf Schülerhandys. Rechtliche Bewertung und medienpädagogischer Umgang”에서 발췌한 내용을 참고로 작성된 글이다.
<http://bundespruefstelle.de/bpjm/publikationen,did=93838.html> 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이에 대한 대책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청소년들이 충격적인 동영상에 대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이러한 동영상을 같은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하여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Snuff-Videos”와 “Happy Slapping”이다. “Snuff-Videos”의 ‘snuff’는 영어로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없애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Snuff-Videos”는 몇 십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잔인한 신체 손상이나 폭행 및 끔찍한 사형집행을 묘사하는 동영상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동영상들은 인터넷으로부터 제공 되고,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들을 통하여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Happy Slapping”은 문자의 뜻 그대로 즐거워하면서 모욕을 주는 폭력을 의미한다. 즉 가해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전에 계획한 대로 혹은 무작위로 폭력 행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은 이러한 “Snuff-Videos”와 같이 폭력을 미화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독일의 형법 ‘제131조 폭력의 묘사’ 조항에는 “(1)인간이나 인간과 유사한 종류의 존재에게 끔찍하거나 비인간적인 폭행을 묘사하고 있고, 그러한 폭력을 미화하거나 숭상하는 표현을 하거나, 사건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이 인간 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묘사하는 작품들을 유포하거나 공적으로 전시하거나,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자, (...)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넘겨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라디오나, 매체 및 전화 서비스로 유포하는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의 미성년 동급생에게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개인 간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이 촬영한 “Happy Slapping” 비디오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사이버폭력 비디오의 책임자가 발견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가동되고, 가해자는 스마트폰을 압수당하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가해 청소년은 경찰이나 검찰 당국으로 인하여 노역이나 사회복지시설에의 기부금 납부 등 교육조례 판결을 받게 된다. 죄질이 안 좋을 때에는 가해 청소년이 구금되거나 형법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과 같은 위험한 내용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적 조치를 통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확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검토하고 논의하여

야 한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이 미디어교육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있다. 또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스마트폰이 어떠한 기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그로 인해 어떠한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 접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하자는 예방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의 기프호른(Gifhorn)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알프레드-테베스(Alfred-Teves-Schule) 교사 마르쿠스 뤼프케(Marcus Lüpke)는 한 예방 프로젝트 “건전한 스마트폰”을 개발하였다. 이 학교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교홈페이지의 전면에 보도 하였다. 이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은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1단계 : 폭력예방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 형성
- 2단계 : 교사들에게 정보 제공
- 3단계 : 부모의 책임의식 확립
- 4단계 : 스마트폰 사용규칙 제정
- 5단계 : 수업계획에 폭력예방 시간 편입
- 6단계 : 학생을 전문가로 영입
- 7단계 : 미디어 역량 강화
- 8단계 : 넓은 공간으로의 네트워크

알프레드-테베스 홈페이지(www.alfred-teves-schule.de)는 “학생 스마트폰의 폭력 비디오”와 관련된 자료들, 예를 들면 교사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TV 보도, 그리고 위에서 간략히 언급된 프로젝트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3)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대책

독일에서는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대책도 사이버폭력 예방의 대책에 준해 일차적으로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형법 제184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포르노그래피를 제공하거나, 넘겨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자, 한 장소에서 18세 미만의 자들에게 포르노그래피를 접촉하게 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전시하거나,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자,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포르노그래피를 전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법 184a조에는 “폭행이나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 작품들을 유폐하는 자나 공적으로 전시하거나,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의 동급생에게 스마트폰을 통하여 포르노그래피 비디오를 전송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동급생에게 학교에서 포르노그래피 비디오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을 때에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 수업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는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과 포르노그래피 오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교육적 수단을 이용해 대응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의 협력,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특수지식 전환을 위한 학생 작업그룹 형성, 스마트폰 사용 규칙 제정, 교육적 대책, 학교 조례를 통한 대책, 학교 당국과 경찰 및 검찰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독일의 ‘학교 네트워크 단체(Schulen ans Netz e.V.)’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배경을 가지고 학교지도부와 교사들을 위한 법적 우선점과 행위지침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쟁점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한편으로는 학교지도부와 교사들의 감독·감시 책임과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기들과 데이터 소장기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그럼에도 학교지도부와 교사들은 만약 학생이 가지고 온 기기와 기구들이 법의 준칙을 벗어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거나, 정해진 학교운영을 저해할 위험이 있을 시에 개입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 성명서에는 사례들과 함께 교육적 대책에서부터 시간제 적용의 스마트폰 수거까지, 범법의 혐의가 있을 시 경찰의 입회부터 퇴학처분까지 학교조례적 대책들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금지 와 제한에 대한 내용도 서술되어 있는데, 이동식 디지털기기의 지참을 금지할 수 있지만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은 특수한 경우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이나 음란물 차단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성찰과정을 마련해 줌으로써 폭력의 원인에 대하여 민감해지도록 하며,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창조적·능동적 접근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능숙하게 새로운 미디어에 친숙해지지만 그들에게는 미디어의 내용을 적절히 평가하고 자신만의 가치지향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가치와

규범의 척도가 결여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주제로 학급단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 능동적 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스마트폰을 자신만의 창조적인 형태로 다룰 수 있도록 배우게 될 것이다.

5. 미국⁶⁴⁾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와 법 제도 및 정책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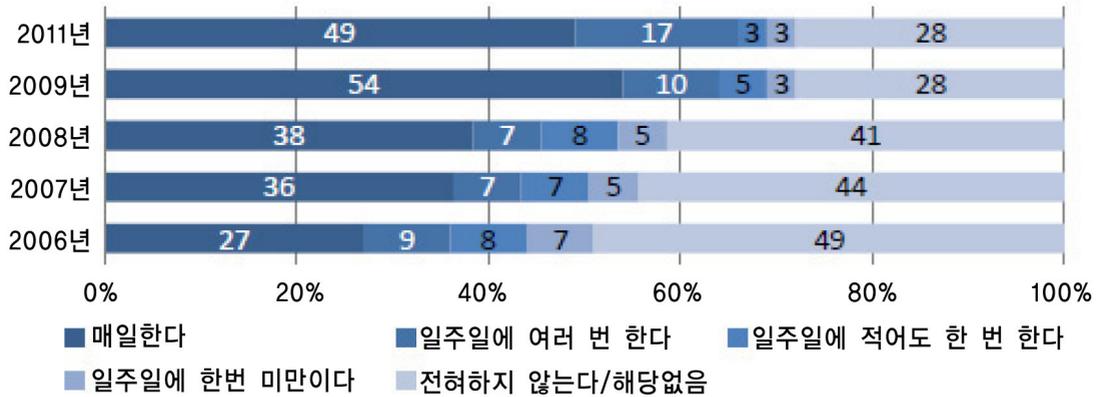
퓨 리서치 센터가 2011년 4월 19일에서 7월 14일까지 청소년 12-17세의 청소년과 부모(가디언 포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보고서(Pew Research Center, 2012)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IV-7】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10대 청소년들은 매일 다른 사람들과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며, 문자 메시지의 받은 친구들과 주고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63%가 매일 문자 메시지를 교환한다고 답했고, 단지 응답자의 1%만이 한 주에 한번 미만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응답자도 조사대상자의 26%에 해당했는데, 여기에는 휴대폰이 없는 응답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하게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대들의 28%는 전혀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49%는 문자 메시지를 매일 친구들과 주고받고 있다고 답해, 10대 청소년의 반가량은 휴대폰을 통해 매일 친구들과 문자를 교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매일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지난 2년에 걸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V-7】 참조). 2009년에는 전체 10대들(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는 청소년까지 포함)의 54%가, 또 2011년에는 49%의 청소년이 매일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었다.

64) 이 절은 김경희 교수(한림대 언론정보학부)가 집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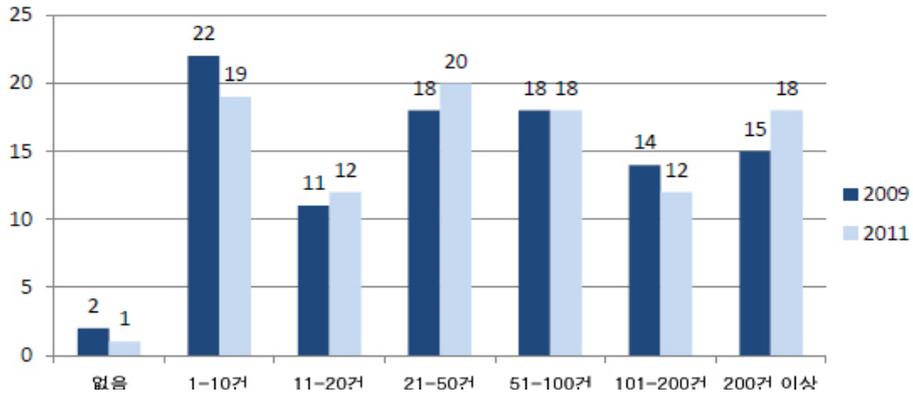


조사기간: 2011.4.19-7.14. 조사대상: 청소년 대상 조사 799명.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2). 『Teens, Smartphones & Texting』. Pew Research Center.

【그림 IV-7】 매일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미국 10대 청소년의 수
(휴대폰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10대에서 해당하는 %임)

또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하루당 사용하는 문자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V-8】 참조). 평균적인 날에 보낸 문자의 양에서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문자의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2-17세가 2009년 50자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에는 60자의 문자를 보내고 있어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4-17세이다. 2009년 조사에서는 하루에 60자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중간지점에 해당했는데, 2011년에는 100자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17세의 10대 남학생들의 경우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2009년 조사에서는 보통 하루에 30자의 문자를 보냈었는데, 2011년 조사에서는 50자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같은 연령대인 14-17세 여학생의 경우는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여학생이 100자의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10대 여학생들이 문자 메시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 참조).



조사기간: 2011.4.19-7.14. 조사대상: 청소년 대상 조사 799명.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2). 『Teens, Smartphones & Texting』. Pew Research Center.

【그림 IV-8】 미국 10대 청소년이 평균적인 날에 주고받는 문자메시지의 양 (휴대폰을 소유한 10대 청소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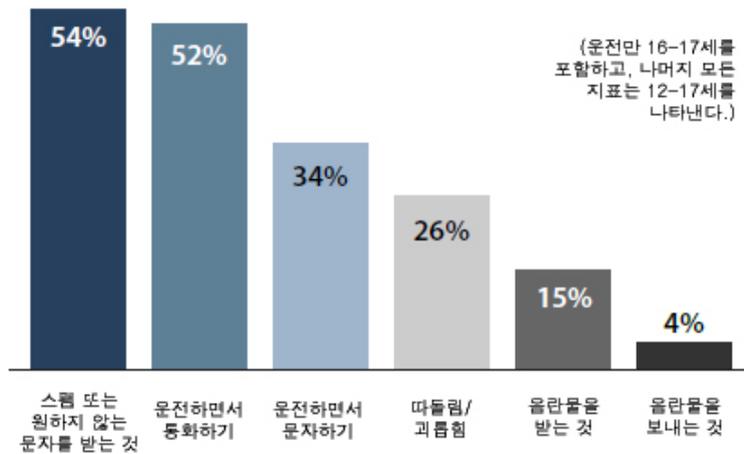
표 IV-1 미국 10대 청소년의 그룹별 하루당 문자메시지의 양

| | | 평균 | 중간값 |
|-----------------|-------------------|-----|-----|
| 총 청소년 문자메시지 이용자 | | 167 | 60 |
| 성별 | 여자 | 168 | 50 |
| | 남자 | 165 | 90 |
| 나이 | 12~13 | 122 | 30 |
| | 14~17 | 181 | 100 |
| 성별 / 나이 | 여학생 12~13 | 116 | 35 |
| | 남학생 12~13 | 131 | 20 |
| | 여학생 14~17 | 187 | 100 |
| | 남학생 14~17 | 176 | 50 |
| 인종 / 민족성 | 백인/히스패닉계가 아님 | 149 | 50 |
| | 흑인/히스패닉계가 아님 | 186 | 80 |
| | 히스패닉계 | 202 | 100 |
| 가계 소득 | \$30,000 이하 | 212 | 100 |
| | \$30,000~\$49,999 | 162 | 60 |
| | \$50,000~\$74,999 | 128 | 50 |
| | \$75,000 이상 | 171 | 50 |
| 부모 교육 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88 | 100 |
| | 고등학교 졸업 | 190 | 100 |
| | 대학교 중퇴 | 171 | 50 |
| | 대학교 이상 | 135 | 50 |

조사기간: 2011.4.26-5.22. 조사대상: 휴대폰을 소유한 10대 청소년/부모 대상 조사 799명.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2). 『Teens, Smartphones & Texting』. Pew Research Center.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과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휴대폰 과다 사용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현상들이다. 아래 【그림 IV-9】에 제시된 바처럼, 실제로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2010)의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12-17세)들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스팸 또는 원하지 않는 문자를 받는 것(54%), 운전하면서 통화하기(52%), 운전하면서 문자하기(34%)를 많이 들었다. 이어 따돌림/괴롭힘(15%), 음란물을 받는 것(15%), 음란물을 보내는 것(4%)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과다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기간: 2009.6.26-9.24. 조사대상: 휴대폰이 있는 12-17세 청소년 6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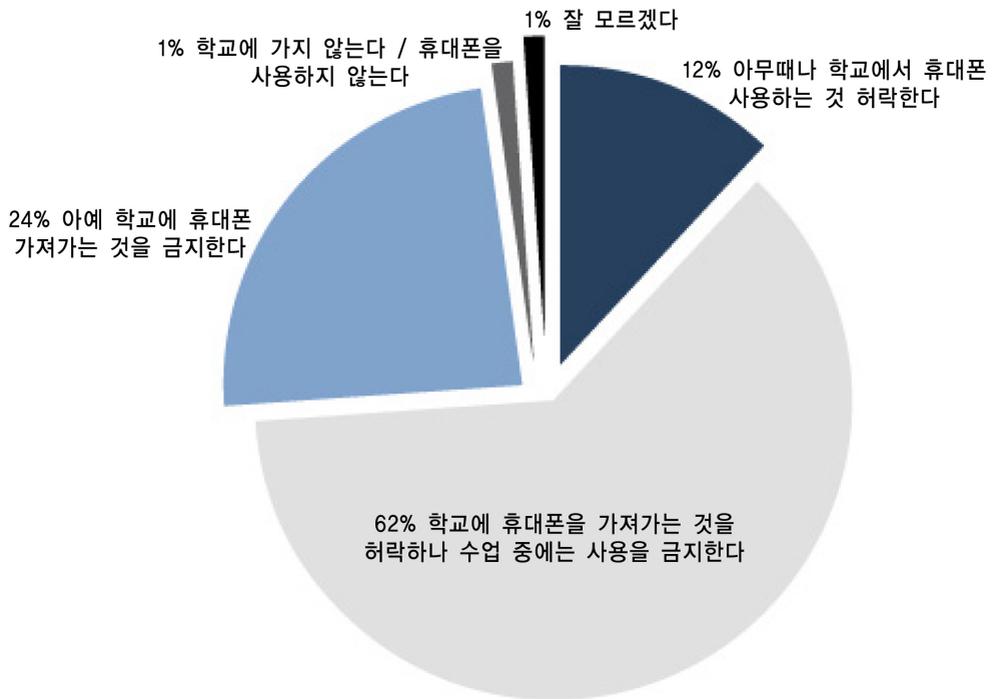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0). 『Teens and Mobile Phones』. Pew Research Center.

【그림 IV-9】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경험한 휴대폰 사용의 부정적인 현상

(2)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가정의 대책

휴대폰의 과다 이용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 정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가의 법이나 제도로써 실행하여 청소년의 과다사용을 막으려는 시도보다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거나 가정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다 사용을 자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퓨 리서치센터가 12-17세의 10대 청소년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Pew Research Center, 2010)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2%가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지만, 수업 중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4%의 경우는 ‘아예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림 IV-10】 참조). 조사대상의 12%에 해당하는 응답자만이 ‘아무 때나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고 있다’고 답해, 미국의 학교 10개 중 8개 학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기간: 2009.6.26-9.24. 조사대상: 휴대폰이 있는 12-17세 청소년 625명.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0). 『Teens and Mobile Phones』. Pew Research Center.

【그림 IV-10】 미국 학교에서의 10대 청소년 대상 휴대폰 사용 규제 정도

구체적인 예로서 워싱턴 주에 있는 노스쇼어 교육구(Northshore School District)에 소속된 학교에서 발표한 휴대폰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잉글모어 고등학교(Ingmoor High school)의 경우를 보면, 휴대폰과 카메라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학교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⁵⁾ 수업 중에는 절대로 휴대폰이나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 준비 시간에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휴대폰, 아이패드, 카메라 등 개인용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도 명확하게 규정해놓았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방과 후 1시간동안 남게 되며, 2번째 위반의 경우 2시간동안 토요일 학교에 등교하고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번째 위반의 경우는 휴대폰 같은 개인용 커뮤니케이션 기구를 압수해 부모에게 전달하며, 학생은 4시간동안 토요일 학교에 출석해야하고 45일 동안 학교에 개인용 테크놀로지 기구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4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짧은 기간 정학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스쇼어 교육구의 초등학교들은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 고등학교보다 좀 더 엄격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캐논 크릭 초등학교(Canyon Creek elementary school)에서는 휴대폰이 가족들과 연락하는데 중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고 올 수는 있으나 학교에 있는 동안 교실, 카프테리아, 운동장 등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⁶⁵⁾. 만약 학부모가 아이와 연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켄모어 초등학교(Kenmore Elementary School)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휴대폰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으나 학교에 있는 동안 가방 안에 보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학생에게 연락할 일이 생기면 행정실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⁶⁷⁾.

또 선라이즈 초등학교(Sunrise Elementary)는 휴대폰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어 부모나 동년배 친구들과 연락하는 훌륭한 통로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교육 과정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⁶⁸⁾.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들어오면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 안에 넣어두기를 기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만약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5)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2Nob29sX1BvbGljaWVzXzlwMTItMjAxMy5wZGY6Ojovd3d3L3NjaG9vbHMvc2MvcmVtb3RlL2lYWdicy9kb2NiZ3lvMTI2MDJmaWxMTUxMTAxLnBkZg==§iondetailid=78158> 2013년 8월 21일 인출

66) Canyon Creek Elementary School (2012). 『BEHAVIOR STANDARDS』. Canyon Creek Elementary School.

67)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MTMIMTRlU3R1ZGVudF9GYW1pbHlISGFuZGJvb2sucGRmOjovd3d3dy9zY2hvb2xzL3NjL3JlbW90ZS9pbWFnZXNvZG9jbWdylzQ2MGZpbGUxNjMzOTAucGRm§iondetailid=12009> 2013년 8월 21일 인출

68)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3BIY2hhbF9zdmNzX0FTQl9jZWxsX3B0b25lcy5wZGY6Ojovd3d3L3NjaG9vbHMvc2MvcmVtb3RlL2lYWdicy9kb2NiZ3lvNDQyZmlsZTE2MzQyNi5wZGY=§iondetailid=11949> 2013년 8월 21일 인출

휴대폰을 압수해 학교 행정실에서 하루 종일 보관할 것이며, 휴대폰과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부모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웨스트힐 초등학교(Westhill Elementary School)의 경우에도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만약 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휴대폰을 꺼서 가방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휴대폰은 압수되며 부모에게 보내진다고 안내하고 있다⁶⁹⁾.

우드무어 초등학교(Woodmoor Elementary)는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기를 권하며 학교 스태프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⁰⁾ 오전 8시55분부터 3시35분까지 휴대폰은 보여서도 안 되고 올려서도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휴대폰은 부모가 학교에 학생을 데리러 올 때까지 압수될 수 있으며,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해 수업에 지장을 준 학생은 정학을 받을 것이라고 적시해놓았다. 이와 함께 휴대폰의 분실, 손상, 절도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의 대책과 함께 미국의 가정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청소년 625명의 부모들에게 실시한 조사결과(Pew Research Center, 2010)를 보면,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규제방식을 알 수 있다(【그림 IV-11】 참조). 조사대상자의 62%는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뺀 벌을 준 적’이 있으며, 응답자의 52%는 ‘아이의 휴대폰 일일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참여자의 46%는 아이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답한 학부모의 28%는 아이들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64%는 아이의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48%는 아이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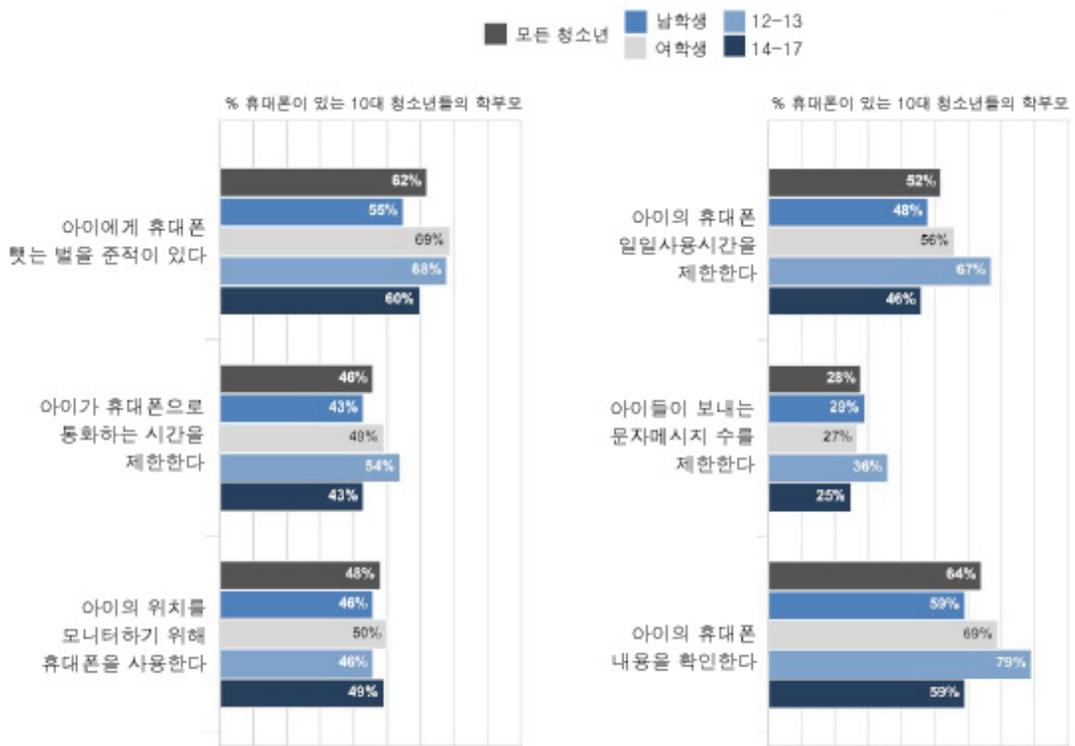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12-13세의 어린 청소년의 경우는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조사대상자의 79%가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8%가 별로서 휴대폰을

69)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V2VzdGhpbGxtSGFuZGJvb2tMjAxMS0yMDEyLnBkZjo6Oj93d3cvc2Nob29scy9zYy9yZW1vdGUvaW1hZ2VzL2RvY21nci80NjY5X2ZpbGVMTAxNzk5X21vZF8xMzA5OTkzMTMyLnBkZg==§iondetailid=96526> 2013년 8월 21일 인출

70)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3R1LVBhcl9lZG5rXzEzMTRlLnBkZjo6Oj93d3cvc2Nob29scy9zYy9yZW1vdGUvaW1hZ2VzL2RvY21nci9BTExmaWxMTYzODM4LnBkZg==§iondetailid=446> 2013년 8월 21일 인출

압수하고, 67%가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7세의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들의 규제정도가 다소 약해져서 휴대폰을 별로 압수해본 적이 있는 부모가 조사대상자의 60%, 휴대폰 내용을 확인해보는 부모가 응답자의 59%에 해당했고,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참여자의 46%였다.

이런 조사결과로 볼 때 미국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과 휴대폰을 압수하는 벌을 주는 방법,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을 자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간: 2009.6.26-9.24. 조사대상: 휴대폰이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학부모 625명.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0). 『Teens and Mobile Phones』. Pew Research Center.

【그림 IV-11】 미국 학부모들의 10대 청소년 휴대폰 규제 정도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이용 실태와 법 제도 및 정책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이용실태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2009)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휴대폰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의 교환 행위(sexting)⁷¹⁾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서 생산된 유해콘텐츠에 접근하는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소셜 네트워킹이나 문자 등을 통한 유해콘텐츠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미국 청소년들의 유해콘텐츠 이용실태를 파악하게 해주는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2009)가 미국의 12-17세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휴대폰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휴대폰을 소유한 조사대상자의 4%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누드나 누드에 가까운 자신의 이미지를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휴대폰 소유 청소년의 15%는 누군가의 누드나 누드에 가까운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후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휴대폰으로 성적 이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17세 이상의 조사대상자의 8%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도발적인 이미지를 텍스트로 보냈던 것이 있고 30%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누드 또는 누드에 가까운 이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 결과, 휴대폰 비용의 지불을 자신이 하는지 부모가 지불하는지에 따라 성적인 메시지를 교환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자신의 휴대폰 비용을 지불하는 10대들은 대부분 성적인 메시지 교환 행위(sexting)를 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휴대폰 비용을 지불하는 10대 청소년의 17%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이미지를 문자로 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자신의 휴대폰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휴대폰 비용의 일부만을 지불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3%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만이 성적 이미지를 문자로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의 휴대폰 비용을 부모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한국과 달리, 청소년 스스로 휴대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미국에서는 휴대폰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71) 섹스팅(sexting)이란 외설적인 문자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
(<http://en.wikipedia.org/wiki/Sexting> 2013년 8월 16일 인출)

따라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행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Pew Research Center, 2009)에 따르면,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에서는 성적인 메시지 교환 행위(sexting)와 관련해 세 가지의 주요한 시나리오가 발견됐다. 첫 번째는 연인끼리만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주고받는 행위이며, 세 번째는 대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국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통해 연인이나 지인 뿐 아니라, 대인관계가 없는 불특정의 사람들과도 성적인 메시지 교환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적 메시지 교환행위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행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2) 스마트폰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및 정책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적 메시지의 교환 행위(sexting)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스마트폰의 확산은 청소년들이 유해콘텐츠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유해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제정한 직접적인 법 제도적 장치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과 「21세기 어린이 보호법」(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은 인터넷의 유해한 콘텐츠에 미성년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해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로 이해해볼 수 있다.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은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음란하거나 해로운 콘텐츠에 접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다⁷²⁾. 이 규정은 학교나 도서관이 E-레이트 프로그램(E-rate program)을 통해서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레이트 프로그램은 학교와 도서관에 적합한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2001년 초에 FCC가 이 법의 시행 세칙들을 발표했고 2011년에 시행 세칙들이 보완되었다. 학교는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2)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 Available online <http://transition.fcc.gov/cgb/consumerfacts/cipa.pdf> 2013년 8월 16일 인출. 이후 기술은 이 사이트를 참조했음.

- (1) 인터넷 안전 정책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모든 모니터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2) 「21세기 어린이 보호법」에서 요구된 의무사항에 따라 학교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채팅룸에서의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작용과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등을 포함한 적절한 온라인 행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에는 이 법에 영향을 받는 학교와 도서관은 인터넷 안전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와 도서관은 (a) 인터넷에서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방지 (b) 온라인 메일, 채팅룸 그 밖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호 (c) 해킹과 다른 불법적 행동 등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승인되지 않는 행위로의 접근 금지 (d)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개인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출, 이용, 노출의 금지 (e)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술적 조치의 사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에도 언급되어 있는 「21세기 어린이 보호법」은 사이버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또 어린이 포르노그래피를 규정하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작시키기 위해,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⁷³⁾. 이 법은 크게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인터넷의 증진’(Title I -Promoting a Safe Internet for Children)과 ‘어린이 포르노그래피 법집행의 강화’(Title II -Enhancing Child Pornography Enforcement)로 구성된다.

‘타이틀 I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인터넷의 증진’은 인터넷 안전(section 101. Internet safety)과 공공의식 캠페인(section 102. Public awareness campaign), 연간리포트(section 103. Annual reports), 온라인 안전과 기술 실무 협의단(section 104. Online safety and technology working group), 학교 내 온라인 안전의 증진(section 105-Promoting online safety in schools), 정의(section 106. Definitions)로 구성되어 있다. 또 ‘타이틀 II-어린이 포르노그래피 법집행의 강화’는 어린이 포르노그래피 방지; 어린이 포르노그래피 위반 관련 벌금(section 201.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forfeitures related to child pornography violations)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인터넷의 증진’에 대한 Title I 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3)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 Available online <http://www.gpo.gov/fdsys/pkg/BILLS-110s1965es/pdf/BILLS-110s1965es.pdf> 2013년 8월 16일 인출. 이후 기술은 이 사이트를 참조했음.

‘섹션 101. 인터넷 안전’에서는 인터넷 안전의 이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즉, 인터넷 안전의 이슈는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을 증진하고, 어린이들이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어른들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이용 관련 이슈들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21세기 어린이 보호법」을 제정한 취지와 같은 것이다.

‘섹션 102. 공공의식 캠페인’에서는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섹션 103. 연간리포트’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3월 상업·과학·교통 상원 위원회에 섹션 102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다.

‘섹션 104. 온라인 안전과 기술 실무 협의단’에서는 ‘이 법이 발표된 후 90일 이내에 정보와 통신을 담당하는 상무부 차관은 온라인 안전과 기술 실무 협의단을 구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의단은 정부기관, 산업계, 공익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 (1) 온라인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의 상태 - 교육적 노력, 부모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차단(blocking)과 필터링(filtering)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수준 표시, 그 밖의 어린이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된 기술이나 시도 등
- (2) 명백한 어린이 포르노그래피를 신고함으로써 온라인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의 상태
- (3) 어린이에 대한 범죄 관련 기록 보유와 관련된 원격 정보처리 서비스 사업자와 정보통신 사업자의 활동
- (4) 인터넷에서의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술 개발

‘섹션 105. 학교 내 온라인 안전의 증진’에서는 인터넷 안전 정책은 적절한 온라인 행동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교육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교육에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채팅룸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섹션 106. 정의’에서는 ‘위원회는 연방무역위원회를 말한다’는 것과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종합해보면, 「21세기 어린이 보호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어린이 포르노그래피 등에 대한 감시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온라인 안전과 기술 실무 협의단에서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시키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을 기반으로,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은 학교와 도서관에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률인 셈이다. 결국 이와 같은 법률의 효과는 청소년들의 실생활 속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스마트폰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의 대책

앞서 스마트폰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한 미국 학교의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지만, 수업 중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거나 아예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대책이 시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기도 하다.

좀 더 직접적으로 유해콘텐츠와 관련하여 미국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워싱턴 주 노스쇼어 교육구(Northshore School District)에 소속된 캐년 파크 중학교(Canyon Park Junior High)의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⁷⁴⁾

이 학교의 규정을 보면, 먼저 10대들의 성적 메시지 교환 행위(TEENSEXTING)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적 메시지 교환 행위(Sexting)은 보통 휴대폰을 통해 누드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행위는 다른 기기와 웹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행위는 10대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법률적·심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성적 메시지 교환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법률적 제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누드 또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사진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만약 그런

74) Canyon Park Junior High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components/scrapbook/default.php?sectiondetailid=100170&linkid=nav-menu-container-1-438065> 2013년 8월 21일 인출.

일을 본인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내온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어린이 포르노그래피를 생산하거나 배포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또 만약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을 소유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하며, 소유하고 있던 사진이 누군가에게로 보내졌다면(그런 일은 쉽게 일어난다), 그것은 연방 중범죄(federal felony)에 해당한다고 밝혀놓았다.

다음으로 비법률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나중에 헤어지게 된 친구에게 보낸 본인의 은밀한 사진이 가져올 수 있는 정서적 피해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헤어진 친구가 자신의 은밀한 사진을 자신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받은 다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어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검색을 통해 그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고하고 있다.

또 성적 메시지의 교환행위는 이메일과 웹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공유 기계나 테크놀로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에게 성적으로 대담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낸 10대들은 어린이 포르노그래피 확산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종 어린이들은 동년배에게 사이버따돌림의 형태로, 또는 남자친구나 여자 친구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그들의 사진을 복수하려는 의도에서 여기저기 보낸 경우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때때로 그것은 충동적인 행동이거나 희롱하는 일이거나, 갈취행위일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안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인이 다운로드하는 것 뿐 아니라 업로드 하는 콘텐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보호대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스스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는 효과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들이나 학교는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산업계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유해콘텐츠 차단하는 앱을 개발하거나, 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유해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 스마트폰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산업계와 민간기구의 대책

「21세기 어린이 보호법」에서 중요시했듯이 유해콘텐츠를 차단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사(정진욱, 2013.4.2)에 따르면, 미국 앱 개발사 ‘카이트폰’이 개발한 ‘카이트타임’은 13세~17세 자녀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해한 앱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앱으로, 부모에게 스마트폰을 통한 자녀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문자로 알려준다고 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넷 넌시’에서 개발한 넷 넌시 안드로이드 버전은 자동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을 차단해주며, ‘넷 넌시 소셜’이란 서비스는 자녀가 이용하는 웹사이트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모니터링해서, 사이버 불링, 음란물 접근, 사이버 절도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불량 콘텐츠를 차단해주는 무료 앱(플레이 리픽)도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개발된 앱들은 유해콘텐츠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 폰 이용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미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가족 온라인 안전 기구(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인터넷 교육재단(Internet Education Foundation)⁷⁵⁾, 사이버 엔젤스(CyberAngels, 자원봉사 모니터링 단체)⁷⁶⁾, WHO@(Working to Halt Online Abuse)⁷⁷⁾ 등 민간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하나인 ICRA(예전의 인터넷 콘텐츠 등급 협회)은 인터넷을 안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일하는 인터넷 리더들의 비영리기관이다.⁷⁸⁾ ICRA는 자율 규제가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흐름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 가장 최선의 균형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직의 핵심적인 일은 ‘ICRA 질문지로 간주되는’ 어휘를 기술하는 것으로. 콘텐츠 제공자들이 웹사이트로부터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면, 제공하는 콘텐츠에 라벨들이 붙여진 작은 파일들이 생성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용자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라벨 안에 적혀있는 정보들을 기초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75) Internet Education Foundation, Available online <http://neted.org/> 2013년 9월15일 인출.

76) CyberAngels, Available online <http://www.cyberangels.org/> 2013년 9월15일 인출.

77) WHO@ -Working to Halt Online Abuse, Available online <http://www.haltabuse.org/> 2013년 9월15일 인출.

78) ICRA at a glance, Available online <http://www.fosi.org/icra/#glance> 2013년 9월15일 인출.

허락할지 허락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RA 질문에 기술된 어휘는 국제적으로 구성된 패널이 추출해내며 가능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디자인된다고 한다. ICRA 라벨링 시스템은 나체의 존재 유무, 성적인 콘텐츠의 존재 유무, 폭력의 묘사, 사용된 언어,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존재 유무, 도박·마약·알코올과 같은 유해한 콘텐츠의 묘사 등 폭넓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웹 제작자들은 이처럼 폭넓은 주제들 중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사이트에 특정한 아이템이나 이미지 등이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질문들을 받게 된다고 한다.

ICRA는 인터넷 콘텐츠에 등급을 매겨 사이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들이 ICRA 라벨링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콘텐츠의 특성을 표시하게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산업계 스스로의 자율 규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통해 성적 메시지 교환 행위(Sexting)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대폰 이용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과 「21세기 어린이 보호법」(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었다. 「21세기 어린이 보호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어린이 포르노그래피 등에 대한 감시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온라인 안전과 기술 실무 협의단에서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은 학교와 도서관에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져오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성적 메시지 교환 행위 등 유해콘텐츠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법률적, 심리적 결과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산업계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해콘텐츠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기구에서는 콘텐츠 제작자 스스로 콘텐츠의 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거나 청소년 유해콘텐츠를 감시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부모들이 산업계나 민간 기구에서 개발한 앱이나 시스템을 통해 자녀를 스스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와 법 제도 및 정책

(1)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

사이버불링 리서치 센터(Cyberbullying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⁹⁾ 다음에 소개하는 조사결과는 사이버불링 리서치센터가 2002년 사이버불링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 조사대상자의 생애에서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개의 이전 연구들은 온라인에서 편의적인 표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주의해야하며, 최근 6개의 연구들은 학교에서 전체 모집단 중 무작위 표본 추출을 거쳐 조사됐으므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를 해석해보자.

아래 【그림 IV-12】 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2004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사이버불링의 희생자의 비율은 온라인 편의 표본으로 이루어진 2004년 6월에는 조사대상자의 40.6%, 2005년 1월에는 36.7%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 2007년 5월에는 조사대상자의 18.8%, 2009년 6월 21.5%와 24.2%, 2009년 11월 28.7%, 2010년 2월 20.8%, 2011년 12월 29.2%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6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24%가 그들의 생애의 어떤 지점에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청소년 10명 중 2명에서 3명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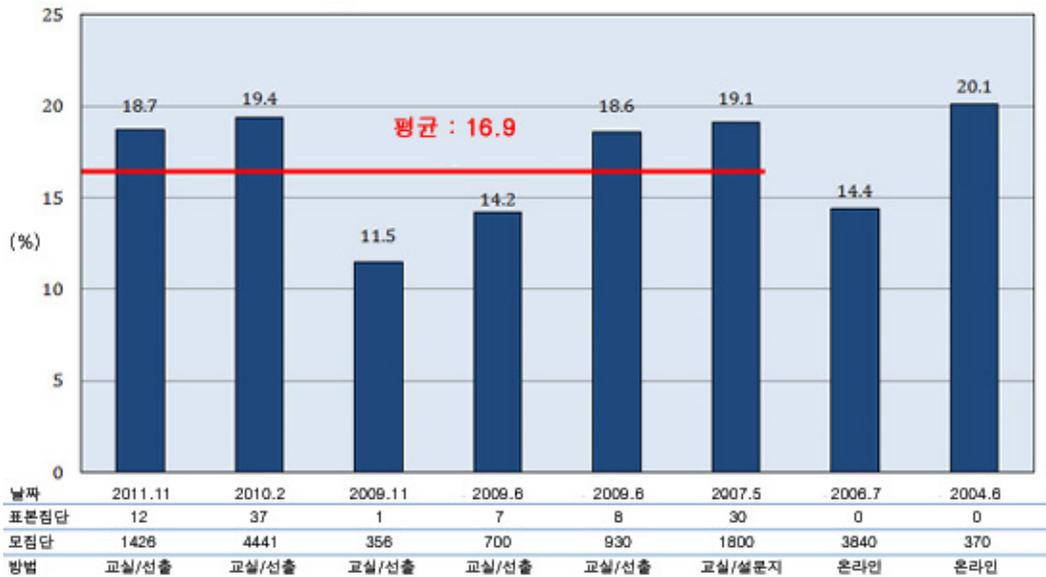
79) CYBERBULLYING RESEARCH FROM 2004-2011. Available online <http://cyberbullying.us/research/>. 2013년 8월 15일 인출. 이후 기술은 이 조사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출처: Sameer Hinduja and Justin W. Patchin (2012)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Available online
http://cyberbullying.us/2011_charts/cyberbullying_victimization_meta_chart.jpg (2013년 8월 15일 인출)

【그림 IV-12】 사이버불링 희생자 비율(2004-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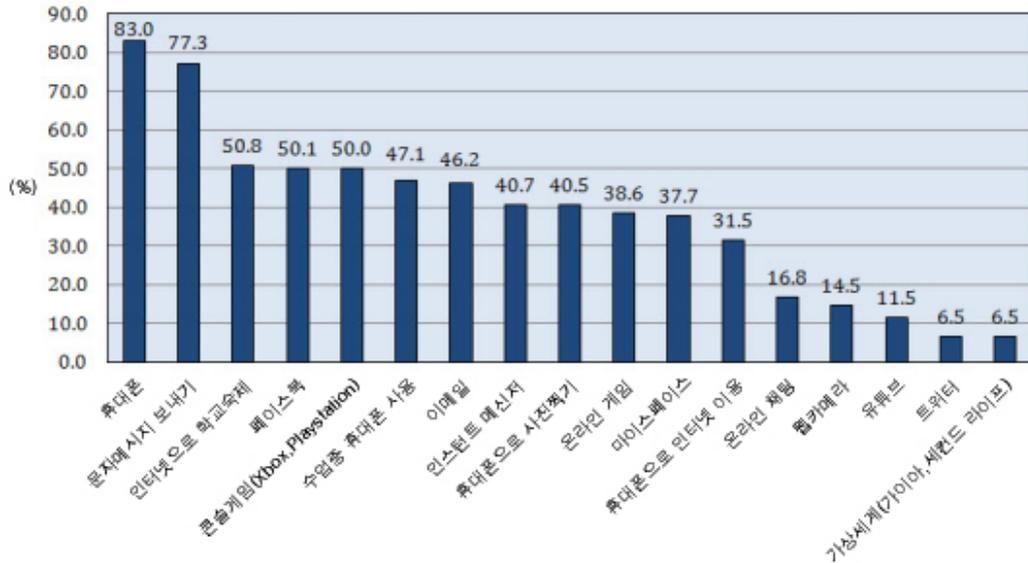
또한 청소년들을 불쾌하게 하는(offending) 사이버불링의 비율도 높아서, 2004년 6월에는 조사대상자의 20.1%, 2005년 1월에는 14.4%가 사이버불링으로 불쾌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7년 5월에는 조사대상자의 19.1%, 2009년 6월에는 18.6%와 14.2%, 2009년 11월에는 11.5%, 2010년 2월에는 19.4%, 2011년 12월에는 18.7%가 사이버불링으로 불쾌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IV-13】 참조). 무작위 표본 추출로 조사가 이루어진 최근 6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16.9%가 그들 생애의 어떤 지점에서 불쾌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10명 중 1명 또는 2명이 불쾌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미국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시켜준다.



출처: Sameer Hinduja and Justin W. Patchin (2012)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Available online
http://cyberbullying.us/2011_charts/cyberbullying_offending_meta_chart.jpg (2013년 8월 15일 인출)

【그림 IV-13】 불쾌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비율(2004-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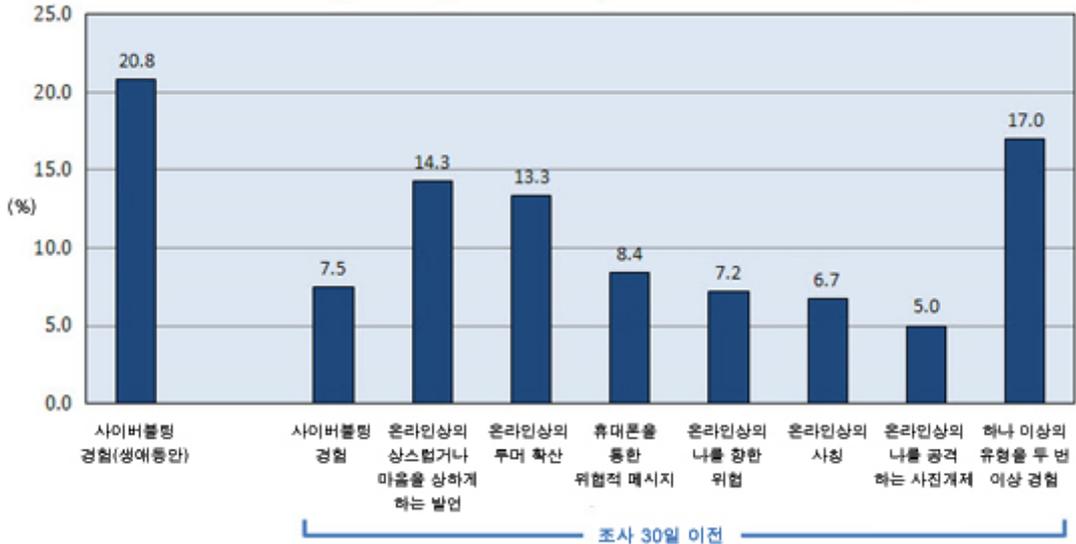
한편, 2010년 사이버불링센터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Hinduja & Patchin, 2010)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휴대폰이었다(【그림 IV-14】 참조). 지난 한 주 동안 조사대상자의 83%가 휴대폰을 사용했고, 77.3%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50.1%는 페이스북을 했다고 답했다. 또 40.7%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했으며, 38.6%는 온라인 게임을 했고, 37.7%는 마이스페이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이라면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 스마트폰을 가진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크게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불링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Sameer Hinduja and Justin W. Patchin (2010)
http://cyberbullying.us/2010_charts/teen_tech_use_2010.jpg(2013년 8월 15일 인출)

【그림 IV-14】 청소년들의 기술 이용 (매주 활동 : 10~18세 청소년 대상)

사이버불링 리서치 센터(Cyberbullying Research Center)는 이 조사(Hinduja & Patchin, 2010)에서 ‘누군가가 온라인 또는 휴대폰, 기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희롱하거나,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재미거리로 만드는 것’을 사이버불링으로 간주했다. 이런 정의에 따라 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약 20%는 생애의 어떤 시점에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시점으로부터 이전 30일안에 경험한 사이버불링의 유형을 물었을 때, ‘상스럽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들’(14.3%)과 ‘온라인상에서 루머의 확산’(12.9%)을 가장 많이 꼽았다(【그림 IV-15】 참조). 또 17%는 하나 이상의 유형을 두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Sameer Hinduja and Justin W. Patchin (2010)
http://cyberbullying.us/2010_charts/cyberbullying_victim_2010.jpg(2013년 8월 15일 인출)

【그림 IV-15】 사이버 따돌림 유형

이와 같은 사이버불링은 스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이 많아져 손쉽게 메시지를 쓸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범죄예방센터(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불링에 관한 FAQ⁸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버불링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따돌림은 문자와 이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폰, 인터넷, 기타 기기를 사용하는 10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황하게 만들 의도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이버불링이 모든 미국 10대 청소년의 거의 반 이상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을 만들어내는 10대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미며, 희생자에 대한 거짓말과 루머를 확산시킨다고 한다. 또 이들은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처럼 속이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달하고, 희생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이버불링으로 희생자를 괴롭히는 10대들의

80) Cyberbullying FAQ For Teens. Available online
<http://www.ncpc.org/topics/cyberbullying/cyberbullying-faq-for-teens>. 2013년 8월 15일 인출. 이후 기술은 이 조사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81%는 사이버불링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이버불링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가범죄예방센터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이버불링이 중대한 일이며, 10대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미국 국가범죄예방센터는 상기시키고 있다. 즉,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화가 치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며, 당황스러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서, 사이버불링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복수를 시도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피하기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불링은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미로 시작된 사이버불링의 희생자들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2)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및 정책

미국 사회는 40개 주 이상이 반불링법(Anti-Bllying Law)를 이미 가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 공간에서의 불링 행위를 금지한 기존 법률만으로 사이버불링을 규제할 수 있는가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임상수, 2011). 2012년 기준으로 현실에서의 불링행위를 금지한 반불링법과 별도로, 사이버불링을 법제화하고 있는 미국의 주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칸자스, 루이지아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워싱턴 등 총 15개 주이며, 조지아, 일리노이, 캔터키, 마인,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최유진·홍승희, 2012).

미국 연방 입법부에서도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린다 산체즈(Linda Sanchez) 하원의원이 2009년 4월에 제안한 메간 마이어 사이버불링 방지법(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⁸¹⁾이 그것이다. 사이버불링이 초래할 수 있는 심리적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된 이 법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적대적인 행동을 심하게 반복적으로 행하여, 특정인에게 강압(coerce), 위협(intimidate), 희롱(harass), 상당한 정신적 고통(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을 준 사람들에게 징역과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2~17세 미국 어린이의 다섯 중 4명은 그들 또는 그들의 부모가 집에서 인터넷에

81) Cyberbullying - A Global Concern. Fosi Report,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Available online <http://www.fosi.org/images/stories/resources/cyberbullying.pdf> 2013년 8월 15일 인출.

접속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사이버불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 전자 통신은 가해자가 익명으로 광범위하게 대중들에게 무언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불링은 정신적 우울증 등 심리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 안전,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살인과 자살 등 극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인터넷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60%는 최근 5년 동안 인터넷에서 문제를 경험한 환자를 적어도 한명이상 치료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대상자의 54%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청소년에게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메간 마이어 사이버불링 방지법이 다소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청소년의 행동을 불법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법 의원들은 곤혹스럽게 하는 사진들이나 루머의 확산 등을 포스팅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⁸²⁾ 그래서 쉘츠(Debbie Wasserman Schultz) 하원의원은 2009년 6월 웹에 대한 청소년 인식 교육의 의무화 법(Adolescent Web Awareness Requires Education Act, AWARE Act) 도입을 미국 하원에 제출했다.

어웨어법(The AWARE Act)은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해 형사상의 처벌보다는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 청소년에게 웹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사이버불링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법(SAFE Internet Act)에 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어린이나 10대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일 없이 사이버불링을 막아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및 가정의 대책

미국 학교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기술한 핸드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워싱턴 주에 있는 노스쇼어 교육구 관리 센터(Northshore School District Administrative Center)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내용⁸³⁾

82) Cyberbullying - A Global Concern, Fosi Report,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Available online <http://www.fosi.org/images/stories/resources/cyberbullying.pdf> 2013년 8월 15일 인출.

을 살펴보면 사이버불링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은 인종, 종교, 혈통, 모국, 젠더, 성적 정향성, 정신적·신체적 장애와 같은 실제로 인식되는 특성을 인터넷, 휴대폰, PDA, 기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스처, 글, 말, 그래픽 등으로 전달할 때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핸드북에서는 학교 자산 또는 학교에서 지원한 기능이나 기계를 사용해서 일어난 행동일지라도, 그러한 행동은 괴롭힘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 사이버불링은 테크놀로지 기계를 사용해서 곤혹스럽게 하거나 부적절하거나 경멸하는 이메일 메시지, 문자 메시지, 디지털 사진(이미지)을 보내는 것 또는 학생의 교육적 기회를 방해할 수 있는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웹사이트 포스팅(블로그 포함)을 하는 것 등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집적거리거나, 협박, 위협, 공포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1) 누군가에게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 2) 누군가에게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해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3) 누군가에게 자산의 손실 또는 피해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4) 학교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사이버불링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그런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학생의 직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이런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사이버불링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시켜주는 일은 중요한 교육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국가범죄예방센터(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에서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해놓고 있다.⁸⁴⁾

그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들과 사이버불링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의 규칙을 가르쳐줌으로써 사이버불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규칙은 '인스턴트 메시지 프로필, 채팅룸, 블로그 또는 개인 웹사이트 등에 개인 정보를 게재하지 않는다', '친구를 포함해 누구에게

83) Northshore School District Administrative Center(2012). Rights & Responsibilities Handbook Concerning Student Conduct.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lllyMDEzLTlwMTQxLnBkZjo6Oi93d3cvc2Nob29scy9zYy9yZW1vdGUvaW1hZ2VzL2RvY21nci84NDQzX2ZpbGVfMTE0OTMwX21vZF8xMzc3ODc2OTA3LnBkZg==§iondetailid=46165>. 2013년 8월 21일 인출.

84)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What Parents Can Do About Cyberbullying. Available online

<http://www.ncpc.org/topics/cyberbullying/stop-cyberbullying> 2013년 8월 15일 인출.

도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반응하지 마라. 그것을 저장하거나 프린트해서 어른에게 보여줘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이메일은 열어보지 마라', '친구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은 어떤 것들도 이메일을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재하지 마라', '화가 났을 때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보내기”를 클릭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느낄까를 자신에게 물어봐라', '온라인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고, 그 아이를 괴롭히는 메시지를 어른에게 보여줘라', '항상 예의바르게 온라인을 사용해라' 등이다.

또 대부분의 사이버불링이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사이버불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참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적절한 웹사이트를 피하게 도와줌으로써 부모들은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컴퓨터를 집에서 분주한 곳에 위치시켜라', '자녀들의 이메일과 채팅 아이디를 설정해주어라. 자녀들이 온라인 프로필에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라', '규칙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인스턴트 메신저에 접속해서 “버디 리스트”를 살펴봐라. 버디리스트에 있는 친구가 누구이고 어떻게 그 친구를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봐라', '자녀들과 사이버불링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이 경험적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봐라', '자녀들이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다면, 자녀들을 비난하지 말라. 또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해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마라. 그것이 아이들이 어른에게 사이버불링에 대해 말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다' 등이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어 보이는 작은 방안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사이버불링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방안들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을 사이버불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안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방안을 실천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 청소년 10명 중 2명에서 3명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적이 있고, 청소년 10명 중 1명 또는 2명이 불쾌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사이버불링센터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Hinduja & Patchin, 2010)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휴대폰이어서, 앞으로 스마트폰이 확산되면 사이버불링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현실에서의 불링행위를 금지한 반불링법과 별도로, 사이버불링을 법제화하고 있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칸자스, 루이지아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워싱턴 등에서 사이버불링을 법제화하고 있다(최유진·홍승희, 2012).

또 미국 연방 입법부에서도 메간 마이어 사이버불링 방지 법(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서는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적대적인 행동을 심하게 반복적으로 행하여, 특정인에게 강압, 위협, 희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징역과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해 형사상의 처벌보다는 청소년에게 웹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웹에 대한 청소년 인식 교육의 의무화 법’(Adolescent Web Awareness Requires Education Act, AWARE Act)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이버불링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법(SAFE Internet Act)에 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기술한 핸드북을 통해, 사이버불링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그런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학생의 직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국가범죄예방센터(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등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의 대부분이 집에서 일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방안들을 부모들이 얼마나 잘 실천할지 여부가 실제로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소결

이상에서 국내 뿐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가가 스마트폰의 과다노출이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외국의 정책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IV-2>와 같다.

표 IV-2 외국의 주요 스마트폰 관련 정책

| 국가 | 주요 정책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리터러시지표를 개발하고 활용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지를 자체평가하도록 '360 degree safe' 프로그램 실시 - 사이버멘토의 교육과 육성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예방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용 지침서를 개발 - 'ESCapade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개입을 강화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도서관에서 미성년자가 유해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의무화 - 산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모니터링 및 기술개발 등) - 사이버불링에 대한 입법화 및 처벌강화 |

우리와 가까운 일본사례에서 배울 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리터러시향상과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이다. 앞서 살폈듯이, 일본정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리터러시향상을 위해 2012년 9월 청소년 인터넷 리터러시 지표(ILAS: Internet Literacy Assessment indicator for Students)를 개발하고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 의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영국 또한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단체인 안전한 인터넷센터(UK Safer Internet Centre)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60 degree safe' 프로그램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프로그램은 유해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장치나 보안시스템 등 하부구조에서부터 학생, 교사 등에 대한 미디어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얼마나 사이버상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구이다.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2009년 3월 도입된 사이버멘토의 육성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미디어교육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학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살폈듯이, 한 이동통신사는 부모들을 위한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지침서를 발간해 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모들이 알기 쉽게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독일 또한 2010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지침서에는 자녀와의

대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등이 실려 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정부, 산업계, 민간단체, 학교 등의 역할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21세기어린이보호법에 따라 산업계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산업계의 자율규제가 스마트폰의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도서관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학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도 영국처럼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스마트폰 정책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독일과 영국 사례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이들 두 국가들은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 이용지침서를 이미 2010년부터 발간해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 이용지침서를 하루빨리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의 스마트폰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할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나 스마트폰 제조업체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유해콘텐츠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구입 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사례에서처럼, 온라인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시민사회, 산업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⁸⁵⁾

1. 결론

최근 몇 년 전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수품이 된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열차티켓도 구입할 수 있고 여행정보도 검색할 수 있으며 날씨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평소 궁금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여러 지식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잘못 사용되면 독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스마트폰 중독이다. 인터뷰에 응한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스마트폰을 잘 때까지 곁에 뒀야 하는 등 중독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양적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습에 방해를 받으며 부모와의 관계나 대화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 뿐 아니라 따돌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집중적인 따돌림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따돌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금품갈취나 심부름 등 물리적 폭력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대부분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이버따돌림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사이버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85) 이 장은 이창호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수 있다.

본 연구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국내 오픈마켓보다는 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보다 해외오픈마켓이 비교적 성인인증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음란물이나 도박 등 유해콘텐츠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독이나 따돌림 등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학교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많은 학교들이 스마트폰을 조려 때 거두고 종려 때 돌려주는 규칙을 실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만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반 마다 혹은 선생님 마다 휴대전화를 거두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 이러한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고 있었다. 절반에 못 미치는 41%의 학생들이 최근 1년 내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질적 연구결과 대부분의 스마트폰 교육이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자가진단 하는 데 그쳐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미디어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영국은 학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또한 학교의 교육과 안전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학교가 나서서 유해콘텐츠를 차단하고 사이버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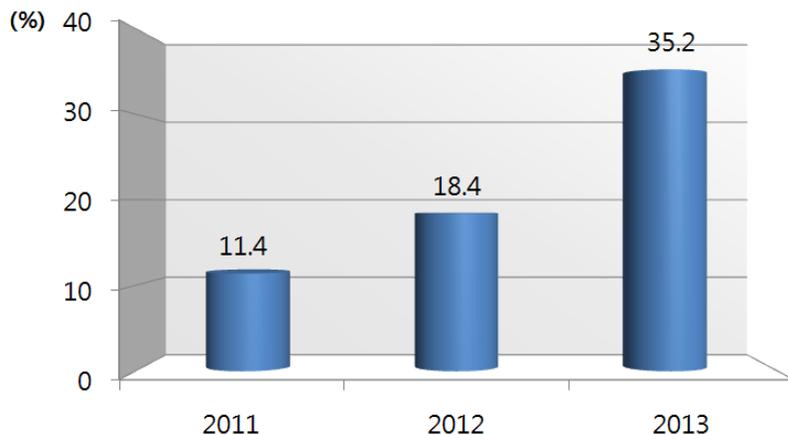
사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스마트폰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기에 바빴지 그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 따라서,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기술발전에 조응하는 정보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전하고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제언

1) 스마트폰 중독대책

(1) 제안배경

앞서 살펴본 대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이제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일상화되고 있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과 교류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화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거나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등 무절제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항시 휴대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독성이 강한 매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중독, 게임중독처럼 스마트폰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본 조사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무려 35%에 달했다. 아래 【그림 V-1】⁸⁶⁾에서도 나타나듯이, 해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V-1】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추이(2011~2013)

86) 2011년과 2012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임.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때다.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추진과제

가) 스마트폰 이용규칙제정

앞서 분석했듯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에 중독될 경향이 높았다. 특히 면접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잘 때도 스마트폰을 켜 놓는 경우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일일 정도로 스마트폰이 매우 청소년들의 삶에 일상화돼 있다. 즉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다닐 정도로 스마트폰은 이제 청소년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근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달래느라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모습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기기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가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쓰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일정 시간을 제한해 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규칙을 각자 만들어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앞서 논의한 임소혜·조연하(2011)의 연구결과 부모의 중재유형 중 통제적 유형만이 게임이용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할수록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정해 놓는 경우가 자녀의 스마트폰의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

OOO 고등학교 교사가 제안한 것처럼, 스마트폰 바구니를 가정에 비치해 두는 것도 부모와 자녀의 대화 활성화와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령, 저녁 10시가 넘으면 바구니에 담긴 가족 구성원의 모든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 놓는다는 등의 행동규칙을 정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저녁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에서도 교사, 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학교규칙을 정해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인터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떤 규칙을 정하면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학교들이 등교시 스마트폰을 거두고 하교시 되돌려주는 규칙을 정해 실천하고 있는데 보다 일관성 있고 엄격하게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중독방지 앱의 설치 및 청소년가입 시 청소년전용요금제의 의무화

앞서 인터뷰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사용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을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인터뷰 6과 8이 제안한 대로, 중독방지 앱을 사용하면 일정시간 동안 특정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시중에는 ‘모모’를 비롯한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들이 많이 나와 있다. ‘모모’의 경우 이용자가 특정 앱을 잠그면 그 기간 동안 그 앱을 사용할 수 없다(bntnews, 2013. 1. 31). 잠금은 시간별, 요일별로도 가능하다.

중독방지 앱의 설치와 더불어 청소년가입 시 청소년전용요금제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현재는 청소년들도 무제한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동의하에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서 양적 분석결과와 인터뷰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무제한 요금제를 쓰지 않는 경우 데이터제한 때문에 스마트폰을 덜 쓰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데이터제한이 있는 청소년전용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스마트미디어교육의 내실화 및 법제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학교교실의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예전 같으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하는 게 일상화 되었다. 특히 수업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아예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자 많은 학교들이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미디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교육이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에 초점을 맞췄고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놓고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지를 나눠준 뒤 스스로 얼마나 스마트폰에 중독됐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발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디어리터러시함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줘야 하고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도 길러줘야 한다.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교육도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이뤄지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수업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 음악이나 미술작품 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앱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앱들을 적절하게 수업시간에 활용한다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오락목적에 치우쳐 이용하기 보다는 학습목적으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이 법제화된다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스마트폰 사용규칙 준수 및 실천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2012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는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했다. 학칙 중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학교는 아예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하기도 했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면 수업시간 전 거둬 수업 후 돌려주는 규칙을 정해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스마트폰을 종례 때 거두고 종례 때 돌려주는 규칙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마다, 교사마다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고 준수하는 정도가 달랐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제대로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거나 두 개를 가져와 이 중 하나를 제출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정한 규칙은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만 신뢰할 수 있는 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규칙준수문화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사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스마트폰 중독예방 캠페인 확대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게임 등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이나 게임중독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은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예방 캠페인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터넷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정책들은 방송이나 지하철 등을 통해 많이 홍보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홍보가 되지 않았다.

24시간 늘 이용 가능한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향후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는 ‘스마트폰 1-1-1’ 운동을 전개했다(뉴스천지, 2013.6.25). 이 운동은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스마트폰을 끄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출발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사용하기와 같은 스마트폰 에티켓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철 등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시 상담할 수 있는 연락창구도 알릴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캠페인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과 같이 꾸준히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 피쳐폰갖기 운동 및 피쳐폰 개발

일본의 경우 초, 중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는 스마트폰

이 아니라 피쳐폰이라고 한다(최현주, 2013). 영국의 경우도 8~11세 학생들의 43%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Ofcom, 2012). 이에 비해 여성가족부·한국언론학회(2013)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72.7%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국학생들에 비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같이 비교적 어린나이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대신 피쳐폰을 갖게 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들의 경우 어느 정도 자기통제력이 가능할 시기인 고등학교부터 스마트폰을 갖게 하는 데 비해 우리는 너무 이른 시기에 스마트폰을 사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중, 고등학교시기부터 스마트폰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특히 고3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집중이 어려워 피쳐폰으로 바꾸기도 한다. 일부가정에서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피쳐폰을 사주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이 갖는 중독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 아주 어린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제조업체도 스마트폰의 성능향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피쳐폰개발 및 기능향상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사) 올바른 스마트폰사용 및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매뉴얼 개발

앞서 살폈듯이, 스마트폰의 급작스런 보급과 확산은 가정, 학교 등 여러 곳에서 갈등과 문제를 낳고 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지나치게 해 부모와 갈등을 빚는 일이 흔하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통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과 불편은 스마트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없이 이 기기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들과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건전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일선 학교에 배포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매뉴얼은 시의적절하다. 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건강한 스마트기기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건강한 스마트기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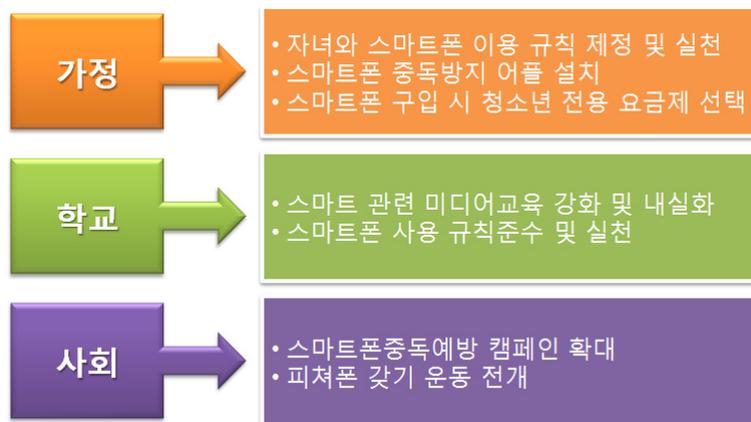
- 스마트기기 화면과 눈 사이의 거리를 30센티미터 이상 유지하자
- 스마트 기기 사용시 10-20분마다 휴식시간을 갖자
- 실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는 가끔 환기를 시키자
- 먼 곳을 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자
- 화장실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자제하자
- 스마트 사용목적을 분명히 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자
- 수업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지 않는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87쪽.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가이드라인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진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일상화된 스마트폰기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안내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 발간된 인터넷중독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매뉴얼에 이어 스마트폰 중독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매뉴얼도 개발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센터 등에 보급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V-2】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

2) 사이버불링대책

(1) 추진배경

앞서 살펴보듯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이버불링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본 조사결과,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당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최근 3개월간의 경험을 질문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경험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근래 들어서는 친구 뿐 아니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링이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사회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사이버불링은 온라인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빠르게 확산된다는 면에서 그 피해 및 후유증이 물리적 폭력보다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경시하거나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피해가 신체적 폭력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이미 주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이버멘토의 육성

앞서 살펴본 영국의 사이버멘토육성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직접 멘토로 활동하면서 또래친구들의 상담을 돕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또래조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멘토육성과정을 추가해 운영한다면 사이버불링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2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이버따돌림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의 주요한 양상으로 사이버불링을 다루지 않고 있다. 영국처럼 학교현장에서 사이버불링의 개념이나 유형, 사이버불링신고요령 등을 일정기간 교육해 많은 사이버멘토를 육성한다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리라 본다. 아울러, 사이버멘토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친구들끼리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나) 부모 및 교사 교육의 강화

부모의 경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초기에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사이버불링의 기본개념이나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영국의 가장 큰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이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행동을 제시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자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최근 누군가로부터 자녀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이메일이나 문자, 동영상 등을 받았는지를 파악한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했다고 하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지 모르므로 자녀에게 어떠한 불링에도 대응하지 말 것을 이야기 해 준다.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텍스트를 저장하거나 이메일과 캡처한 웹사이트를 프린터 해 놓는다.

만약, 자녀의 친한 친구가 괴롭혔다고 생각하면 교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녀가 위협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면 지역 경찰과 접촉하는 것이 좋다.

출처: www.vodafone.com/parents/cyberbullying 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부모교육 뿐 아니라 교사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앞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에서도 물리적 폭력에 비해 사이버불링을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이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교사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국내외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 채팅서비스나 SNS를 통해 따돌림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이버불링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들에게 사이버불링의 폐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공유될 때 사이버불링을 쉽게 보고 넘기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 채팅 앱에 사이버불링신고 장치 설치

앞서 논의했듯이, 청소년 사이버불링은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에 응한 한 학생이 제안한 것처럼, 카카오톡에는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차단만 할 수 있지 신고할 곳이 없다. 따라서, 채팅 앱에 사이버불링관련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불링이나 자살 등의 글을 발견하면 바로 페이스북 본사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Vodafone, 2012, p. 86).

그러므로, 카카오톡 같은 채팅 앱에도 이용자들이 사이버불링내용을 바로 본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 사이버불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앞서 논의한 대로, 미국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엄한 편이다. 2013년 7월 현재 50개 중 49개 주가 불링법안을 가지고 있고 18개 주는 사이버불링을 포함시키고 있다(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2013). 가령, 루지애나주(Louisiana)의 경우 사이버불링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거나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다(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2013). 이처럼 미국은 사이버불링에 있어서도 기존 학교문화에서 견지해 온 무관용정책을 도입하고 있다(임상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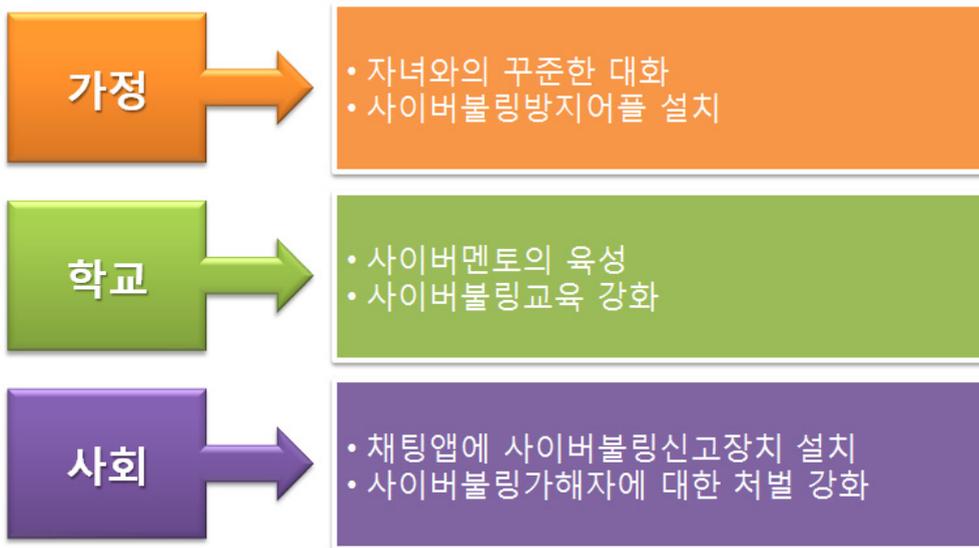
이러한 미국사회와 달리, 우리의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이버불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관련이 높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가해자도 물리적 폭력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모바일가디언과 같은 사이버불링예방 앱 설치

중독방지 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앱이 모바일가디언이다. 월 3,3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부모가 회원가입 후 자녀의 휴대전화에 모바일가디언이란 앱을 설치하면 자녀가 친구에게서 받는 욕설이나 따돌림 등의 내용을 부모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⁸⁷⁾.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면 자녀가 누구로부터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부모가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경우도 부모에게 자녀의 인터넷사용내역을 문자로 알려주거나 유해콘텐츠 접촉을 차단하는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바일가디언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자녀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V-3】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

87) 모바일가디언 홈페이지 <http://mguardian.co.kr>에서 2013년 10월 2일 인출.

3) 유해콘텐츠차단대책

(1) 추진배경

앞서 설문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응답자의 14%가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주로 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와 같이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해 성인용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오픈마켓과 달리 해외오픈마켓의 성인인증절차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과의 인터뷰결과, 모바일 P2P 사이트로도 성인물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이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스마트보안관과 같은 유해차단정보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2) 추진과제

가)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 의무화

앞서 양적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한 청소년은 전체의 30% 가량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 등 유해콘텐츠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치는 스마트폰 구입시부터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앞서 영국의 경우처럼, 이동통신사는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차단서비스를 설치하는 법을 안내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000 공무원이 말한 대로, 일본의 경우도 스마트폰 구입시 차단프로그램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구입시 차단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차단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스마트폰에 동시에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보안관

과 같이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사례에서처럼 부모들이 쉽게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 한선교의원은 2011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미성년자와 정보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⁸⁸⁾. 그는 1년 뒤인 2012년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등에게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도록 기술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⁸⁹⁾. 하지만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내용을 엄격히 해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이동통신사의 적극적 참여

앞서 전문가인터뷰(인터뷰 8)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 최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 텔레콤은 올 10월부터 청소년안심팩서비스를 청소년가입자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0%에 달한 이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매우 늦은감이 있지만 매우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외국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스마트폰제조업체나 이동통신사들이 청소년보호와 스마트미디어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국처럼 이동통신사들이 부모용, 자녀용 스마트폰안전이용가이드북을 만들어 해당 판매대리점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보급한다면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부모용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자녀지도매뉴얼 보급 및 확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일선 학교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매뉴얼(초

88) <http://www.hansunkyo.com/> 에서 2013년 11월 1일 인출

89) <http://www.hansunkyo.com/> 에서 2013년 11월 1일 인출

등용, 중등용)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매뉴얼에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예방, 진단, 지도 및 상담 등의 생활지도방법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미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자 2010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지침서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 사이트 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실려 있다. 영국의 경우도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이 자녀의 안전한 스마트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북인 ‘Digital Parenting’을 발간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vodafone, 2012). 이 가이드북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설치해야 하는 지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고 우려스러운 스마트폰 내용을 어떻게 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 리포트 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즉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녀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자는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포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전문가 인터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도 하루빨리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라) 청소년유해콘텐츠제공사업자의 본인인증준수여부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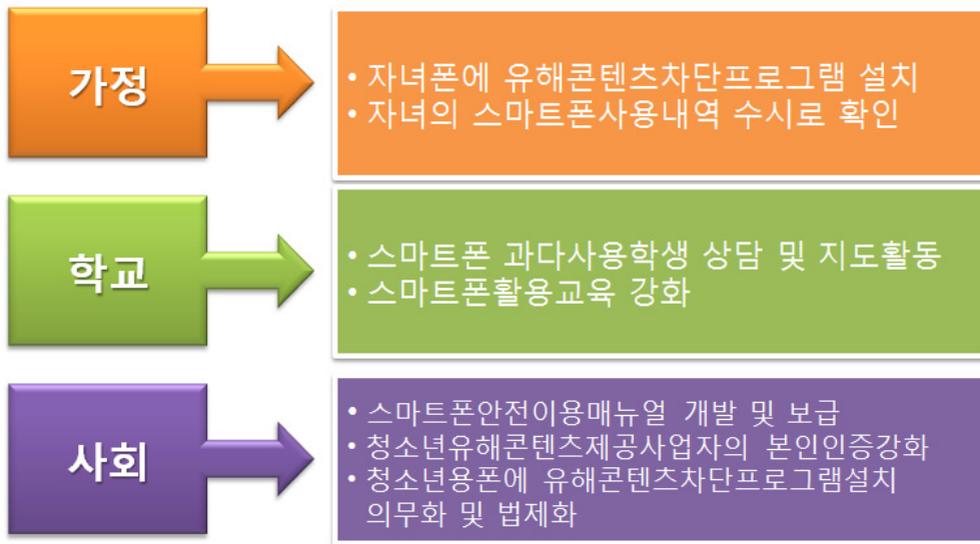
앞서 살펴봤듯이,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2012년 개정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본인인증이 강화됨에 따라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PC 기반의 사업자에 한해서 이 제도의 시행을 점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제도준수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마) 스마트보안관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 과다사용학생상담 및 지도활동

앞서 전문가인터뷰(인터뷰 1)에서도 나타났듯이, 스마트보안관 프로그램은 부모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스마트보안관에 가입하게 되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나 어떤 종류의 앱을 이용하는 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교사관리 툴이 제공된다. 이를 활용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및 상담활동이 가능하다. 000 팀장(인터뷰 1)이 지적한 대로,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보호 면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을 찾아내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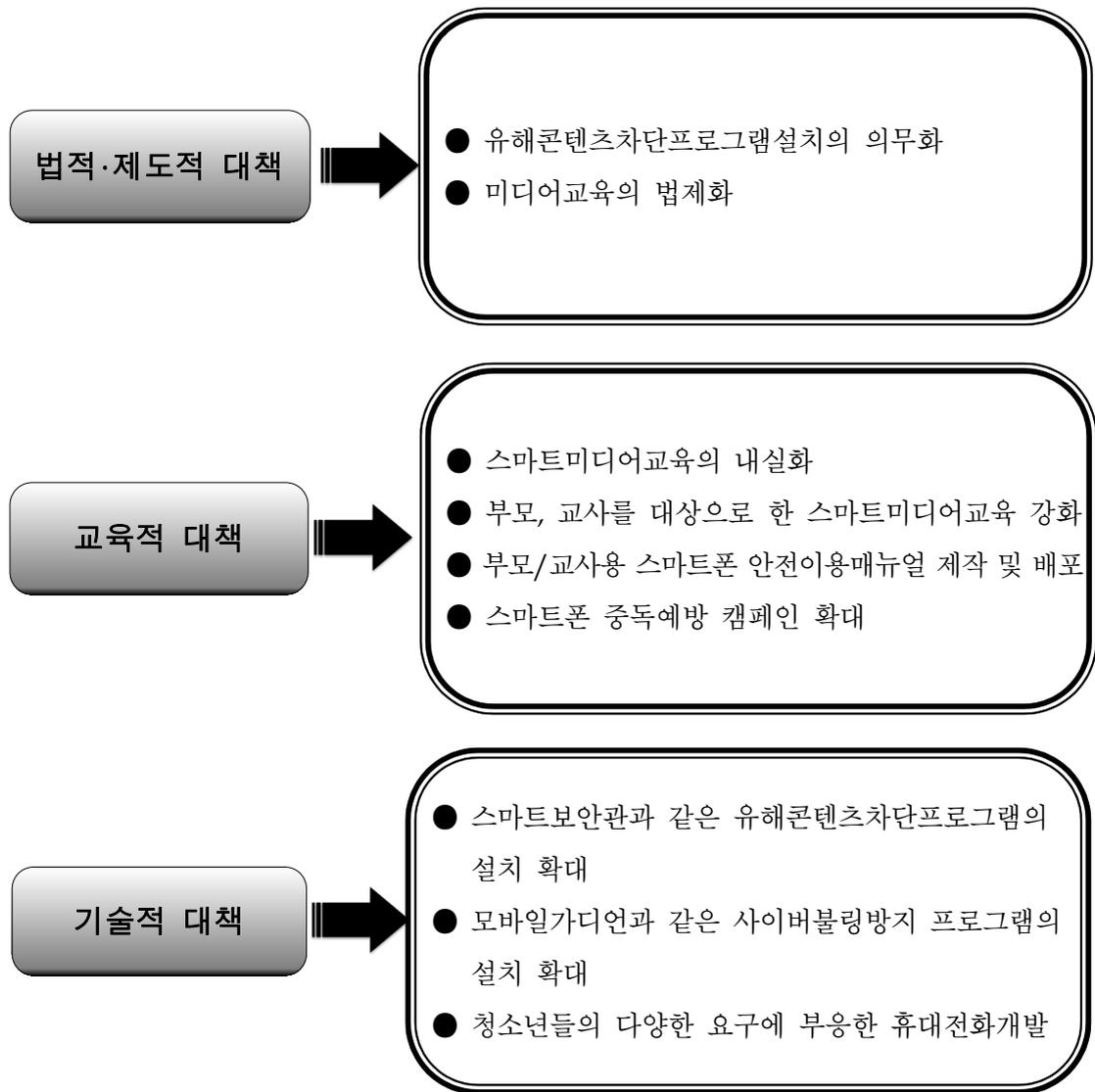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유해콘텐츠접촉차단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V-4】 유해콘텐츠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

이상에서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스마트폰중독, 사이버불링, 유해콘텐츠접촉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서술해 놓았지만 상호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법적·제도적 측면, 교육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아래 【그림 V-5】와 같다.



【그림 V-5】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대책

이 같은 대책들 역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다. 가령, 스마트보안관이 나 모바일가디언 같은 필터링 서비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학생,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됐다 할지라도 이용자들이 그 기술을 불신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대책들이 함께 전개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 확산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즉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먼저 이뤄져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돼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은 몇 년 전부터 법제화가 이뤄져 각 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후 미디어교육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미디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제도화된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과교육이 구체화될 것이고 미디어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양성도 필요하다. 미디어전문교사가 양성돼 미디어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된다면 청소년들의 미디어리터러시는 함양되며 그 결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림 V-6】 미디어리터러시함양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체계

미디어가 진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는 더욱더 중요한 생활의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새롭게 진화해 발전하는 미디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희양·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 공병호 (2010). **공병호의 모바일혁명**. 서울: 21세기북스.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규칙운영매뉴얼(초등용)』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규칙운영매뉴얼(중등용)』
- 교육과학기술부(2012).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초등용)』
- 교육과학기술부(2012).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중등용)』
- 금희조·조재호 (2010).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격차, 그리고 정치참여: 소셜미디어효과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348-371.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2012).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 김동일·이윤희·이주영·김명찬·금창민·남지은·강은비·정여주 (2012).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 연구**, 20권 1호, 71-88.
- 김문조 (2012). 새로운 미래가 온다, 세상을 바꾸는 스마트 혁명. 김동욱 외, **다가온 미래 스마트 라이프**(19-31쪽). 서울: 삼인.
- 김병년 (2013).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9, 49-81.
- 김수연·이상훈·황현석 (2011). 스마트폰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0(1), 29-39.
- 김은미·정화음 (200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2호, 125-161.
- 김영주·정재민·이은주 (201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채택과 이용: 이용정도, 지속이용의사,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227-252.
- 김정녀·임재덕·조현숙 (2012).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의 유해 콘텐츠 차단 현황 및 대책방안. **2012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47~62쪽).

- 김종길 (2013).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 범죄심리연구**, 9권 1호, 47-68.
- 김형지·김정환·정세훈 (2012). 스마트폰중독의 예측요인과 이용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29권 4호, 55-93.
- 남상희·권남희 (2013). 청소년사이버불링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박인곤·신동희 (2010).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과 충족, 의존도, 수용자 혁신성이 스마트폰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권 4호, 192-225.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 배재권·정화민 (2008). 스마트폰의 기능적 속성이 채택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e 비즈니스 연구**, 제9권 4호, 337-361.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사이버폭력피해경험·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호, 79-129.
- 안정임 (2008). 인터넷이용중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6, 230-266.
- 양일영·이수영 (2011). 이용동기에 기반한 스마트폰 초기 이용자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109-139.
- 엠브레인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 여성가족부 (2011).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조사**.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 조사**.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이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한국언론학회 (2013).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문화조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유승호·장예빛 (2012). 김동욱 외, **다가온 미래 스마트 라이프**(117-126쪽). 서울: 삼인.
- 이경상·안선영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숙정·전소현 (2010). 인터넷중독에 대한 부모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289-322.
- 이영선·이현숙·조은희·김래선 (2012).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2012 한국 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21~41쪽).

- 이원태·김춘식·고삼석·신호철 (2012).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 이원태·차재권·신호철 (201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 SNS 이용과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탁과제 보고서.
- 이창호·성윤숙·정낙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이용실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권 3호, 259~285.
- 이해경 (2009).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예측변인들: 20대, 30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호, 117-153.
- 이혜인·배영 (2011).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이용정도가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21, 35-71.
- 이호영·조성은·오주현·김석호·이윤석 (2012). **디지털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 임상수(2011) 사이버 불링에 대한 윤리교육의 대응. 『윤리연구』 81호. 291-316.
- 임소혜·조연하 (2011). 부모와 또래집단의 게임이용중재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권 4호, 173-218.
- 정재기 (200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 생활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호, 51-78.
- 정진욱(2013.4.2). 미국이나 한국이나...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골치. etnews. Available online 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744214_1496.html. 2013년 9월 15일 인출
- 최유진·홍승희(2012).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임상수(2011). 사이버불링에 대한 윤리교육의 대응. **윤리연구**, 81호, 291-315.
- 최현주 (2013. 7).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본의 동향**.
http://www.nypi.re.kr/bbs/list.np?code=abroad_trend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2013).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수거·관리 관련 교원설문조사결과 보고**.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2). **스마트폰 유해정보 유통실태 및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제51기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과정 교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2. 3. 5). 해외 청소년정책동향 모니터링 보고서, 제29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06. 0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황경혜·유양숙·조옥희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65-375.

황용석·박남수 (2011). 청소년휴대전화 중독요인과 중독예방에 있어 부모·교사의 역할 연구.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309-348.

황하성·손승혜·최윤정 (2011).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5권 2호, 277-313.

[언론보도]

뉴스천지 (2013. 6. 25). [서울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448>에서 2013년 9월 12일 인출.

동아일보 (2013. 2. 22). [초등생 톡톡] 스마트폰이란?.

<http://news.donga.com/3/all/20130222/53212124/1>에서 2013년 5월 13일 인출.

동아일보 (2013. 3. 7). 왕따에 떨던 10대, 이젠 '카따' 공포.

<http://news.donga.com/3/all/20130307/53516043/1>에서 2013년 5월 13일 인출.

메디컬투데이 (2012. 10. 25). 초·중·고생 2.2%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의 2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6464>에서 2013년 5월 22일 인출.

아이뉴스 24 (2013. 1. 24). 욕설-음란대화 판치는 '랜덤채팅' 제동.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19744&g_menu=020300에서 2013년 5월 13일 인출.

중앙일보 (2013. 4. 16). 10대 성매매 온상된 스마트폰 '랜덤채팅' 해보니...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10초만에 접속 1분만에 40여명이 '성매매 대화' 신청, A10면.

헤럴드경제 (2013. 3. 26). '스마트폰 중독' 여학생이 남학생 3배.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326000072>에서 2013년 5월 22일 인출.
SBS 뉴스 (2013. 2. 18). [취재파일] 스마트폰에서 2G폰으로 갈아타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36590에서
2013년 5월 27일 인출.

bntnews (2013. 1. 31). 스마트폰 중독방지 어플 '모모', 알람 설정하듯 간편하게 잠근다.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5&c3=00&nkey=201301311154193&mode=sub_view에서 2013년 9월 12일 인출.

[보도자료]

권은희 의원실 (2013. 6. 7). 권은희 의원, 왕따 근절 위한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추진.

http://www.eunhee.kr/bbs/board.php?bo_table=press&wr_id=59에서 2013년 6월
20일 인출.

미래창조과학부(2013. 06. 13).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및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285에서 2013년 6월 20일 인출.

안전행정부(2012. 7. 30). 음란물 본 청소년 5% “성추행·성폭행 충동 느껴”.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2554&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에서 2013년 5월 3일 인출.

[인터넷자료]

스마트폰 가입자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2013년 9월 6일 인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13년 5월
20일 인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중 사이버따돌림에 관한 규정,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에서 2013년 5월 31일 인출.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2013). State Cyberbullying Laws.

<http://cyberbullying.us/cyberbullying-laws/>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 Accordino, D. B., & Accordino, D. B. M. P. (2011). An Exploratory Study of Face-to-Face and Cyberbullying in Sixth Grade Students.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40(1), 14-30.
- Beatbullying (2009). *Virtual Violence : Protecting Children from Cyberbullying*.
- Beatbullying (2012). *Virtual Violence II: 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Fight against cyberbullying*.
- Cyber bullying leaves one third of UK youth depressed(2013. 01. 02).
<http://www.firstpost.com/tech/cyber-bullying-leaves-one-third-of-uk-youth-depressed-576221.html> 에서 2013년 4월 2일 인출.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 129-156.
- Mesch, G. S. (2009). Parental Mediation, Online Activities, and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12(4), 387-393.
- Ofcom (2011, August). *Communications Market Report: UK*.
- Ofcom (2012). *Children and Parents Media Attitudes-Smartphone findings*.
-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43(2), 727-751.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Vodafone (2012). *Digital Parenting*.

[미국사례]

- Canyon Creek Elementary School(2012). BEHAVIOR STANDARDS. Canyon Creek Elementary School. Available online :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MTMtMTRfU3R1ZGVudF9GYW1pbHlfSGFuZGJvb2sucGRmOjo6L3d3dy9zY2hvb2xzL3NjL3JlbW90ZS9pbWFnZXMvZG9jbWdyLzQ2MGZpbGUxNjMzOTAucGRm§iondetailid=12009>. 2013년 8월 21일 인출

-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SUMMARY OF OUR CYBERBULLYING RESEARCH FROM 2004-2011. Available:
<http://cyberbullying.us/research/> 2013년 8월 15일 인출.
- Hinduja, S. & Patchin, J. (2010). Cyberbullying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Response.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Available:
<http://cyberbullying.us/research/> 2013년 8월 15일 인출
- Hinduja, S. & Patchin, J. W. (2012). School Climate 2.0: Preventing Cyberbullying and Sexting One Classroom at a Time. Thousand Oaks, CA: Sage Available:
<http://cyberbullying.us/research/> 2013년 8월 15일 인출
- Hinduja, S. & Patchin, J. W. (2013). Social influences on cyberbullying behavior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5), 711-722. Available:
<http://cyberbullying.us/research/> 2013년 8월 15일 인출
- Inglmoor High school(2011) IHS Policies & Procedures 2012-2013.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2Nob29sX1BvbGljaWVzXzIwMTItMjAxMy5wZGY6Ojovd3d3L3NjaG9vbHMvc2MvcmVtb3RlL2ltYWdlcy9kb2NtZ3IvMTI2MDJmaWxlMTUxMTAxLnBkZg==§iondetailid=78158> 2013년 8월 21일 인출
- Kenmore Elementary School(2013) Student Family Handbook 2013-14.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MTMtMTRfU3R1ZGVudF9GYW1pbHlfSGFuZGJvb2sucGRmOjo6L3d3dy9zY2hvb2xzL3NjL3JlbW90ZS9pbWFnZXMvZG9jbWdyLzQ2MGZpbGUxNjMzOTZlc3Rm§iondetailid=12009> 2013년 8월 21일 인출
- Northshore School District Administrative Center(2012). Rights & Responsibilities Handbook Concerning Student Conduct.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llYmDEzLTIwMTQxLnBkZjo6Oi93d3cvc2Nob29scy9zYy9yZW1vdGUvaW1hZ2VzL2RvY21nci84NDQzX2ZpbGVfMTE0OTMwX21vZF8xMzc3ODc2OTA3LnBkZg==§iondetailid=46165> 2013년 8월 21일 인출.

- Pew Research Center(2009). 『Teens and Sexting』. Pew Research Center Available online
http://ncdsv.org/images/PewInternet_TeensAndSexting_12-2009.pdf 2013년 8월 16일 인출
- Pew Research Center(2010). 『Teens and Mobile Phones 』. Pew Research Center. Available online
<http://pewinternet.org/~media//Files/Reports/2010/PIP-Teens-and-Mobile-2010-with-topline.pdf> 2013년 8월 16일 인출
- Pew Research Center(2012). 『Teens, Smartphones & Texting』. Pew Research Center.
- Sunrise Elementary School(2013) Special_svcs,_ASB,_cell_phones.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3BIY2lhbF9zd mNzX0FTQ19jZWxsX3Bob25lcy5wZGY6Ojovd3d3L3NjaG9vbHMvc2MvcmVtb3 RIL2ltYWdlcy9kb2NtZ3IvNDQyZmlsZTE2MzQyNi5wZGY=§iondetailid=11949> 2013년 8월 21일 인출
- Westhill Elementary School (2011) Westhill Handbook.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V2VzdGhpbGxfSGFuZGJvb2tfMjAxMS0yMDEyLnBkZjo6Oi93d3cvc2Nob29scy9zYy9yZW1vdGUvaW1hZ2VzL2RvY21nci80NjY5X2ZpbGVfMTAxNzk5X21vZGF8xMzA5OTkzM TMyLnBkZg==§iondetailid=96526> 2013년 8월 21일 인출
- Westhill Elementary School (2013) STUDENT~PARENT HANDBOOK.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3R1LVBhcl9IZG5rXzEzMTRfLnBkZjo6Oi93d3cvc2Nob29scy9zYy9yZW1vdGUvaW1hZ2VzL2RvY21nci9BTExmaWxlMTYzODM4LnBkZg==§iondetailid=446> 2013년 8월 21일 인출

[일본사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2), 외국의 방송통신 콘텐츠 규제체계 비교연구
 安心ネットづくり促進協議會 (2012)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ける無線LAN及びアプリ経由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に関する作業部會報告書’
http://good-net.jp/press_sp_20120608.html(2013.7.20 열람)

安心ネットづくり促進協議會 (2013) ‘保護者ための青少年のスマホ利用のリスクと対策’
<http://sp.good-net.jp/>(2013.7.10 열람)

安心ネットづくり促進協議會 ‘保護者ためのスマートフォン安心安全ガイド’
http://sp.good-net.jp/smartphone_guide_20130611_print.pdf(2013.7.10 열람)

警察廳 ‘出會い系サイト規制法の解説’
<http://www.npa.go.jp/cyber/deai/law/index.html>(2013.7.20 열람)

總務省 (2011) ‘青少年が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に関する提言—スマートフォン時代の青少年保護を目指して’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35703.pdf(2013.7.30. 열람)

總務省 (2012) ‘スマートフォン安心・安全利用促進プログラム’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75588.pdf(2013.7.20 열람)

デジタルアーツ株式會社 (2013) ‘未成年の携帯電話・スマートフォン使用實態調査’

http://www.daj.jp/company/release/2013/0910_01/(2013.7.30. 열람)

內閣府 (2013) ‘平成24年度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實態調査調査結果’

<http://www8.cao.go.jp/youth/youth-harm/chousa/h24/net-jittai/pdf/kekka.pdf>(2013.7.30. 열람)

野村総合研究所(2012) ‘ソーシャルメディア利用實態調査’

www.nri.co.jp/publicity/mediaforum/2012/pdf/forum181.pdf(2013.7.28. 열람)

藤川大祐 (2012) ‘青少年のスマートフォン利用にかかわるリスクと対応策’

<http://dfujikawa.cocolog-nifty.com/jugyo/files/jset28fujikawa2s.pdf>(2013.7.1 열람)

[독일사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Hg.)(2012). Jugendschutz aktiv. Erfolgreicher Jugendschutz als Gemeinschaftsaufgabe von Bund, Ländern und Kommunen. Berlin: Silber Druck oHG, Niestetal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Hg.)(20115). Jugendschutzgesetz und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der Länder. Meckenheim: DCM GmbH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Hg.)(20113). Handy ohne Risiko? Mit Sicherheit mobil - ein Ratgeber für Eltern. Aschaffenburg: Druckhaus Main-Echo GmbH & Co. KG.
- 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BPjM)(2006). Gewalt- und Pornovideos auf Schülerhandys. Rechtliche Bewertung und medienpädagogischer Umgang. BPjM-Aktuell 3/2006. Bonn: BPjM
- Fachstelle für suchtprevention der Drogenhilfe(2012). Das Bundesmodellprojekt ESCapade - Computer/Sucht/Familie. <http://www.escapade-projekt.de>
- Statistisches Bundesamt(2012). Statistisches Jahrbuch 2012. Deutschland und Internationales.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Stuttgart: LFK

부 록

- 부록 1.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중독척도
- 부록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설문지
- 부록 3.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대상 인터뷰 자료
- 부록 4. 전문가 대상 인터뷰 자료

부 록

부록 1.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중독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1년도부터 스마트폰 중독척도(S-척도)를 만들어 청소년과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률을 조사하고 있다. 아래 척도는 청소년자가진단척도로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S-척도 청소년 자가진단

| 번호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 그렇다 (4점) |
|----|---|-------------------|----------------|-------------|-------------------|
| 1 |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 | | | |
| 2 |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 | | | |
| 3 |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 | | | |
| 4 |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 | | | |
| 5 |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 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 | | | |
| 6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 | | |
| 7 |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 | | | |
| 8 |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 | | |

| 번호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 그렇다 (4점) |
|----|--|----------------------|-------------------|-------------|-------------------|
| 9 |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10 |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 | | | |
| 11 |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 | | | | |
| 12 |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 | | | |
| 13 |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 | | |
| 14 |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 | | | |
| 15 |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 | | |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제51기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과정교재, 255쪽.

위험군/일반군 판정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즉 총점이 45점부터 60점이면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고 42점~44점이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총점이 41점 이하면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표 위험군/일반군 판정방식

| 판정 | 총점 | 요인별 점수 | 비고 |
|-------------|-----------|---------------------------------------|--------------------------------|
| 고위험 사용자군 | 45점 이상 | 1요인 16점 이상, 3요인 13점 이상, 4요인 14점 이상 | 총점에 해당하거나 요인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 42점 ~ 44점 |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3점 이상 | 총점과 요인 중 한 가지라도 해당 |
| 일반사용자군 | 41점 이하 | 1요인 13점 이하, 3요인 11점 이하, 4요인 12점 이하 | 총점, 요인 모두 해당해야 함 |

* 8, 10, 13번 문항은 역코딩(1점=매우 그렇다, 2점=그렇다, 3점=그렇지 않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제51기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과정교재, 256쪽.

부록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 | | |
|-------------------|-------------|---------------|
|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이창호 박사 | (02)2188-8801 |
| 수행기관: (주)마크로밀엠브레인 | 담당자: 장현정 과장 | (02)3406-3907 |

스마트폰 이용 현황

문 1. 학생은 주중에 하루 평균 얼마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③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④ 5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 ⑤ 7시간 이상

문 2.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 아는 사람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귄다 수 있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6) 즉각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7) 재미있고 즐거워서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8) 심심해서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9) 친구들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0) 학습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1) 친구들이 사용하니까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습관적으로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여러 개의 서비스(TV시청, 통화, 인터넷 등)를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문 3. 학생은 아래의 스마트폰 앱을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 |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일주일에 1일 미만 이용한다 | 일주일에 1-2일 이용한다 | 일주일에 3-4일 이용한다 |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다 |
|--------------------------|-------------------|-----------------------|----------------------|----------------------|-----------------------|
| 1) 채팅(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카카오토리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게임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음악듣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뉴스(포털 뉴스, 언론사 뉴스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생활정보(날씨, 교통정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폰꾸미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동영상(아프리카TV, 유튜브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웹툰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e-Book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랜덤채팅(똥단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4.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 ① | ② | ③ | ④ |
|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 ① | ② | ③ | ④ |
|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 ① | ② | ③ | ④ |
| 5)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 ① | ② | ③ | ④ |
|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9)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문 5.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래에 열거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
|-----------------------------------|----|----|
| 1) 선생님 몰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2) 스마트폰 때문에 선생님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3)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4) 스마트폰을 이용하느라 잠을 설친 적이 있다. | ① | ② |
| 5) 자는 척하면서 부모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6) 손이 떨리거나 아픈 적이 있다. | ① | ② |
| 7) 눈이 침침하거나 아픈 적이 있다. | ① | ② |
| 8) 귀가 울리거나 멍멍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9) 어깨나 팔이 절리거나 아픈 적이 있다. | ① | ② |
| 10) 목이 빠근하거나 아픈 적이 있다. | ① | ② |

문 6. 학생은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음란물, 도박 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없음 (문 8로 가시오)
- ② 있음 (문 7로 가시오)

문 7. 성인용 앱을 주로 어디서 다운로드 했습니까?

- ① 국내 오픈 마켓(T스토어, 올레마켓, 유플러스앱마켓 등)
- ② 해외 오픈 마켓(구글 Play 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등)

문 8. 학생은 아래의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 | 이용하고 있다 | 이용하고 있지 않다 |
|--|---------|---------------|
| 1) 스마트보안관 | ① | ② |
| 2)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T 청소년 안심서비스, 올레KT자녀 폰안심서비스, LG유플러스자녀폰지킴이) 중 어느 한 가지 | ① | ② |

문 9. 학생은 최근 3개월간 아래에 열거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
|---|----|----|
| 1) 스마트폰 채팅서비스(카카오톡 등)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2)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3)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다. | ① | ② |
| 4)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사진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① | ② |
| 5)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이메일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① | ② |

문10. 현재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어떤 규칙이나 방침을 가지고 있나요?

- ① 스마트폰을 아예 학교에 못 가져 오게 한다
- ② 조레 때 거두고 종레 때 돌려준다
- ③ 스마트폰을 소지하도록 하지만 수업시간에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을 주거나 다른 제재를 가한다
- ④ 기타 _____

문 11. 학생은 최근 1년간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문 12. 학생은 최근 1년간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 어디서 받았는지 기입해 주세요. _____

문 13. 학생은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이용하고 있지 않다
- ② 이용하고 있다

문 14. 학생은 현재 태블릿 PC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문 15. 부모님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아래에 해당 되는 곳에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 보호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하면 됩니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내가 얼마나 오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지 확인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 | ① | ② | ③ | ④ |
| 3)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지정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 4)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나와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나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찾는 법을 알려 준다. | ① | ② | ③ | ④ |
| 6)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나에게 유익한 앱을 소개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 7)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나와 스마트폰 게임을 함께 즐기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8)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나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소통한다. | ① | ② | ③ | ④ |
| 9)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나와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대화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0)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에 별 신경 안 쓴다. | ① | ② | ③ | ④ |
| 11)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내가 스마트폰을 써도 나무라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부모, 친구, 선생님과 애착정도

문 16. 아래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부모님(혹은 보호자)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나는 부모님(혹은 보호자)과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나는 부모님(혹은 보호자)과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혹은 보호자)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6) 나는 부모님(혹은 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7) 나는 친한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 8) 나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 ① | ② | ③ | ④ |
| 9) 나는 친한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0) 나는 친한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1)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 ① | ② | ③ | ④ |
| 13)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학교생활참여 및 만족도

문 17. 아래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교우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나는 수업 외 학교활동(동아리, 학생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대중매체 이용

문 18.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의 대중매체를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 | 전혀 이용하지 않음 | 1시간 미만 | 1시간 ~ 2시간 미만 | 2시간 ~ 3시간 미만 | 3시간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 1) 신문(활자화된 종이신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TV(스마트폰이 아닌 TV수상기를 사용한 시청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라디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잡지(활자화된 종이잡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인터넷(스마트폰이 아닌 PC를 사용한 인터넷이용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배경 질문

배문1.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다니는 학교는?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배문3.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배문4. 학생의 학교성적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 ① 매우 못하는 수준
 ② 못하는 수준
 ③ 중간 수준
 ④ 잘하는 수준
 ⑤ 매우 잘하는 수준

배문5. 학생은 어떤 가정에 속합니까?

- ① 양부모 가정(부모가 돌보는 경우)
 ② 한부모 가정(부모 중 한 분이 돌보는 경우)
 ③ 조손 가정(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보는 경우)
 ④ 기타(위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배문6.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래에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 | 학교 안다님 | 초등 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 학교 졸업 | 2-3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 잘 모르겠음 (혹은 해당사항 없음) |
|--------|-----------|----------------|-----------|----------------|-------------------|-----------------|----------------------|---------------------------------|
| 1.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⑨ |
| 2.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⑨ |

배문7.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해 주세요)

| |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
| | 있음 | 없음 | |
| 1. 아버지 | ① | ② | ⑨ |
| 2. 어머니 | ① | ② | ⑨ |

배문8.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못 산다 | | 보통 수준 | | | | | 매우 잘 산다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 | | | | | | | | |

배문9.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대상 인터뷰 자료

〈학생 인터뷰 1〉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3일 (수) |
| 장 | 소 | OO I Will 센터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 | 000 (여, 00중 3학년) |
| 인 | 터 | 뷰 |
| 소 | 요 | 시 |
| | | 간 |
| | | 약 40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한 달에 최대가 20만원, 최소가 10만 원 정도 요금이 나와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6시간 정도 돼요.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확인하고, 학교 가서 게임 몇 번하고, 쉬는 시간 마다 게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카톡하고, 게임하고 해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밤에 또 게임하다가 인터넷소설도 읽고, 네이버 검색도 하다가 자요.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집에 가면 오후 5시 30분 정도 되는데, 교복 갈아입고 씻고 하면 한 시간 지나겠죠. 그러면 그 때부터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 만지작 거려요.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톡이랑 게임 같은 거요. 카카오톡 게임의 경우 애니팡, 캔디팡, 드래곤 플라이트, 다함께 차차차, 그리고 아이러브커피 같은 거. 에브리타운 같은 거 많이 하죠. 카카오톡은 반톡이라던가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거의 오는 건 게임초대 밖에 없어요.

- 카카오톡 친구는 몇 명이나 있나요?

300명 조금 넘게 있어요. 기본인거죠. 보통 100명은 넘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아는 아저씨 아줌마들. 거의 친구들이죠. 아는 언니 오빠들, 교회 사람들.

- 카카오톡으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그냥 일상 얘기 많이 하죠. 뭐하냐고 묻고. 심심하다고 보내고. 같이 게임해서 캡처해서 보내고 누가 이겼나 보고. 여자애들은 아이러브커피 같은 거나 에브리타운 같은 거 많이 하고. 남자애들은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많이 하고. 여자애들은 좀 키우는 거, 꾸미는 거 하고. 남자애들은 부수고 던지고 싸우는 거 위주로 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심심할 때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학교에서 영어 단어 쓰면 모르는 거 검색하면 나오고. 네이버에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게, 메일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런 거 바로 알 수 있고, 카페도 알 수 있고 해서 좋은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반 애들이 만든 카페랑 여자애들에 대한 거 렌즈, 옷에 대한 거. 화장품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그런 거 보죠. 좋아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중독 된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도 눈뜨면 핸드폰이 만져지고 그러면 안심이 되죠.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옆에 있어야 돼요. 핸드폰 충전한 상태에서 켜놓고 자요. 거의 애들은 안 꺼놓고 자요. 자다가 카톡 오면 딱 눈떠가지고 확인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없으면 불안해요. 손에 없으면 왠지 불안해요.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 오실 때만 꺼 놓고.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마다 다른데, 저희 반은 10번 걸리면 뺏어요. 거의 애들은 켜놓고 가지고 있어요, 주머니에. 수업시간에는 무음으로 해 놓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수업시간에 고개 숙여서 밑에 핸드폰 두고 카톡 하는 애들이 많아요. 다른 반에 있는 애들이나 반 근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과 카톡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뒷자리인데 다 보면 서랍에 핸드폰이 들어있어요. 쉬는 시간이면 남자애들은 게임하거나 게임 하는 거 구경하고. 여자애들은 노래듣고.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안하세요. 가끔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안하세요. 밥 먹을 때 핸드폰 하느라 안 먹을 때가 많아요. 밥 먹으라고 하는데 안 가고, 밥을 먹긴 먹는데 늦게 먹죠. 10분만 하고 먹을 게 이려고. 거의 혼자 먹죠. 부모님이 컴퓨터는 몇 시간만 해라 하는데 핸드폰은 별다른 애길 안 해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OO양 이런 거 문자가 와요. 처음에는 친구인줄 알고 장난친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여서. [OO님이 보낸 동영상도 도착했습니다. 밑에 URL주소 첨부] 이런 게 애들한테 많이 와요. 클릭해봤는데 이상한 동영상이 떠요. 이런 거 많이 와요. 연예인 X파일 이런 거. 근데 들어가 보면 연예인은 아니에요. 요새는 이런 게 와도 안 들어가요. 이걸 보내는 이유가 핸드폰 돈 많이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이런 거 오면 누르지 말래요. 동영상을 보려면 19세 인증이 떠요. 이런 게 오면 제가 누를까봐 고민이에요. 또 좀 변태끼가 있는 남자들이 카카오토리에 동영상 URL을 올리는데 궁금해서 눌러보면 이상한 포즈가 들어 있는 성인 앱이 떠요. 저희 주변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친구의 스토리스토리를 확인하다 가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호기심에 눌러보죠.

- 카카오톡친구만들기 같은 랜덤채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타요. 랜덤채팅 같은 데서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요. 저도 호기심에 카카오톡친구만들기 앱을 다운 받아봤죠. 아이디를 올려봤는데 카톡이 바로 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고 채팅을 했는데 이상한 남자밖에 없어요. 얼굴은 다 잘생겼는데 머리가 좀 이상해요. 변태끼가 있어요. 이젠 앱 사용할 때 아이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앱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아이디만 올리면 알아서 카톡이 와요. 이거 쓰는 애들 엄청 많아요. 친구 중에 이거 많이 하는 애가 있는데, 다 이상한 남자와 카톡해요. 맨날 카카오톡 하고, 카카오토리에 사진 올리고, 일단 채팅으로 사귀고 나중에는 만나요. 똥단배라고 마구잡이 채팅이 있어요. 이런 거 나이 속여서 많이 사용해요. 여잔데 '나 남자 42살'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외로워서 쓰는 애들도 있고, 재미로 쓰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 언니도 똥단배를 받았는데 심심이처럼 로봇채팅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채팅이라 삭제하고 그랬어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이용 안하죠. 스마트 보안관에 관해서 이름만 들어봤고 뜻은 잘 몰라요.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긴 받는데 애들이 신경을 안 써요. 학교에서는 그런 것 보다 공부에 대한 것 있잖아요. 핸드폰 어디에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주로 이런 거를 공지해주죠. 학교폭력 이런 거는 막 가르쳐줘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저의 분신이지요. 저랑 항상 함께 있고, 심심할 때 놀고 이런 거.

-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놀았죠. 놀이터에서 놀거나. 지금은 놀이터 가는 게 귀찮아 졌어요. 어차피 가도 애기들만 있어서. 옛날에는 핸드폰 없을 때는 놀이터 가서 놀고, 친구들이랑 길도 모르는데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차피 채팅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영상도 되고 전화도 되고.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카카오톡 같은 큰 회사에서 잘 관리를 해서 채팅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카카오톡친구만들기란 앱을 다운받은 후 아이디를 입력해 '카톡 주세요' 하면 이상한 카톡들이 와요. 그걸 저만 갖고 있잖아요. 이걸 카카오톡 회사가 볼 수 있게끔, 신고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톡은 차단만 있지, 신고는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친구를 다운받아봤어요. 제가 제 아이디로 카톡 달라고 하니깐 변태 남자가 카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해놨는데 그 남자가 또 알아가지고 카톡을 했어요. 어떤 남자는 자기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제 친구한테 보내줬대요. 부모님한테는 말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신고하고 싶대요.

〈학생 인터뷰 2〉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3일(수) |
| 장 | 소 | OO I Will 센터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 | OOO (여, OO중 3학년) |
| 인 | 터 | 뷰 |
| 소 | 요 | 시 |
| | | 간 |
| | | 약 30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월 3만 5천원 요금제를 사용해요. 스마트폰 요금 중에 제일 싼 거예요. 일정량을 쓰면 끊겨서 못써요. 요금을 다 쓰면 컴퓨터, TV... 그리고 카톡이 안 되더라도 문자는 남았잖아요. 20일 정도면 다 써요. 저도 요금제가 무제한이었으면 좋겠어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서너 시간 이용해요.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알람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카카오톡 보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카카오톡 하는데...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마다 카카오톡이랑 게임해요.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는 쉬는 시간에 자거나 앉아있고, 다음시간 수업준비하고 그랬어요.

방과 후 활동 하고 나면 오후 5-6시쯤 돼요. 잠자는 건 열 두시쯤. 그때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있고, TV보고, 컴퓨터 하고. 아빠 엄마도 일 나가시고, 오빠 둘이 있는데 일해서 혼자 있어요. 스마트폰은 누워서 하기 편해요.

- 반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나요?

한 반에 35명인데, 그 중에 두 명 빼고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카오톡 게임 중 아이러브커피 많이 해요. 커피를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거. 여러 사람

가게를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하면 돈을 빨리 모으고 레벨업도 빨리 되요. 게임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퀘스트랑 돈벌기를 빨리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한 열 명 정도와 함께 게임해요.

- 카카오톡 친구는 몇 명인가요?

한 50명 정도. 그냥 학교 친구들하고, 카카오톡친구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온라인친구가 좀 있어요. 그 앱을 다운 받으면 사람들이 게시글을 올려요. '친구해요' 이런 거 올리면 아이디가 있으니까 친구해서 얘기하고 그래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문자 말고 카톡 같은 게 편해요. 밥 먹었냐 이런 대화도 흔하게 할 수 있고. 사진 같은 것도 편리하게 올릴 수 있고, 음성파일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편한 것 같아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이나 카카오톡이나. 그냥 이게 편하니까 스마트폰만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스마트폰을 통해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한 번 있었어요.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있었는데, 저를 카톡으로 초대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XXX아, 네가 OO한테 욕을 했는데. 네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냐면서 단체로 욕을 해요. 한 다섯 명 정도가. 그래서 저는 '나 안 그랬다'하면서 그냥 카톡 방을 나갔어요. 딱 한 번 2학년 겨울 방학 때 그랬어요. 얼마 안됐어요. 짜증나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었어요. 찾아와서 말하지도 못할 거면서 카카오톡 초대해서 그러는 게 어이없었어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규칙이 한번 걸리면 선생님이 일주일 압수, 두 번째 걸리면 한 달 압수해요. 계속하면 휴대폰을 부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는 뺏기면 혼나니까, 안 해요. 저희 반 애들은 수업시간에는 안 해요. 담임선생님이 엄격하시기도 하고. 그냥 한 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보이면 바로 일주일 압수예요. 수업시간에 벨이 울린다거나. 소리를 들으면 찾아서 뺏는 선생님이 있고, 너그러운 선생님은 그냥 봐주세요.

한 번 적발되면 선생님이 뺏아서 서랍 같은 데 보관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휴대폰 주세요 하면 주시고. 담임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가끔 오셔서 확인을 하세요. 누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으면 뺏어요. 학교자체에서 휴대폰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쉬는 시간에도 하고 있으면 뺏어요.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스마트폰 사용에는 별 말씀 안하시는데, 대신 요금제가 제한이 있으니까 완전히 마음대로 쓰지는 못해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문자가 몇 개 와요. 이름이 똑같아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나오길래 꺾어요. 친구들도 요즘에는 누르면 돈 나가는 그런 게 많아서 잘 안 눌러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안 해봤어요. 학교에서 그런 거 나눠주긴 하는데 그냥 버리고 해서 잘 몰라요. 학교에서 가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나오면 설치 안한다고 내거나 그냥 버려요.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전자파가 나오는 등의 안내문을 가끔 나눠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친구 같아요. 다 연결이 되고, 게임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편해요. 실제 친구보단 못하지만, 계속 옆에 두고 다른 애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마켓에 보면 이상한 앱들이 많은데 성인인증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인터뷰 3〉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3일(수) |
| 장 | 소 | OO I Will 센터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000 (남, 00중 3학년) | | |
| 인 | 터 | 뷰 |
| 소 | 요 | 시 |
| 간 | | 약 20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2G요금제를 그대로 옮겨와서 문자랑 전화만 되는 거 쓰고 있어요. 핸드폰은 스마트폰인데 학생 요금제를 옮겨와서 3G는 안 되는 거예요. 월 만 원 될 거예요. 인터넷은 집에서 와이파이로 쓰고 있어요.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사면 공유기를 설치해줘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두세 시간 써요.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이 카톡 보낸 거 그런 거 보고. 학교 끝나고 와서 친구랑 얘기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집에서 주로 써요. 다 와이파이로 쓰고 있어요. 잘 때도 그냥 충전기에 꽂아놓고 노래 들으면서 켜놓고 자요.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로 웹서핑해요. 인터넷 검색에서 유머자료 같은 것도 보고, 기사도 보고, 만화도 보고. 뉴스는 네이버 뉴스 메인에 뜨는 것만 봐요. 주로 스포츠, 연예 기사들. 정치, 사회적인 기사들은 잘 안 봐요. 카카오톡은 반 애들끼리 단체 방 만들어서 수업준비물 같은 거 이야기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친구끼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보 같은 거 바로 알 수 있고, 듣고 싶은 노래도 바로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너무 편리해서 중독이 쉽다는 거.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사용하다가 걸리면 일주일동안 뺏고 벌점주고. 쉬는 시간에는 괜찮은데 수업 시간에 걸리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는 반에서 한 세 네 명 정도 몰래 사용해요.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부모님은 좀 조절하라고 하시는 편이죠. 잔소리를 하시죠.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 스마트보안관 같은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못 들어봤어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은 아니고 컴퓨터 같은 거. 컴퓨터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받았어요. 1년 동안 두세 번 교육을 받았고 한 번 받을 때 두세 시간 교육 받아요. 선생님은 안 들어오고 방송실에서 TV로 보여주고, 전문가가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정보를 알려주는 것. 연예관련 뉴스나 유머 같은 거.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무제한 요금제 같은 걸 못쓰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 밖에서는 인터넷을 못하니깐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 스마트폰을 덜 쓰는 것 같아요.

〈학생 인터뷰 4〉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7일(일) |
| 장 | 소 | 00복지문화센터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 | 000 (여, 000중 3학년) |
| 인 | 터 | 뷰 |
| 소 | 요 | 시 |
| | | 간 |
| | | 약 30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6만 5천 원 정도. 데이터가 무제한은 아닌데 쓰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추가요금이 나온 적은 없고, 매월 데이터를 2G씩 받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요금제는 아빠가 정해주신 거예요. LTE 쓰기 전에 3G 있을 때 무제한 있었잖아요. 그 때도 무제한 썼어요. 가족이 다 넉넉하게 여유 있게 써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는 시간이 한 6-7시간 되니까 그 시간 빼고 다요. 16시간?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 끄기 시작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잡고, 학교 가면서도 잡고, 학교에서도 내라고 할 때 안내니까. 계속 붙들고 있어요. 학원에서도 안내요.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스, 카톡, 싸이. 이거 세 가지 주로 이용해요. 연예기사나 웹툰은 잠깐 이용하고. 친구들도 다 카스, 카톡 쓰는데 가끔 페이스북도 있어요. 카톡은 주로 학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학원 친구들이랑 얘기해요. 여자애들이랑 얘기할 때는 남자애들 얘기 하거나 연예인 얘기 하구요. 남자애들이랑 할 때는 욕을 많이 해서 별 내용이 없어요. 아니면 언제 만나서 놀 건지, 만나서 뭘 할 건지. 게임은 하긴 하는데 많이 안 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카톡이요. 문자는 어디서나 보낼 수 있는데,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카톡은 와이파이나 데이터만 켜면 되니까. 그리고 바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돈이 안 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는 집이나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카톡은 아니니까. 그리고 문자는 쓸 때 마다 알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카톡은 아니잖아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한 번 빠지면, 다른 걸 못해요.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2G폰 쓸 때는 문자에 목매달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더 용량도 크고 연락도 잘되고 하나까.

좀 나쁜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안 좋은 일 한 거, 뭐 흠친 거 이런 거를 카스에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어디를 얼마나 맞았으며, 피는 얼마나 났으며 이런 걸 다 말을 해요. 저는 읽힐까봐 댓글도 안 남기고 구경만 했어요. 카스에 이런 거 많이 올려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애를 카스 친구인데도 '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름은 안 밝히지만 찌르는 말 있잖아요. 그런 글도 올리고. 카스에 공지로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필독. 대놓고 필독 걸어놓고 누구누구 맘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놓는 애들도 있어요.

-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와 다투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나요?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제 뒷담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룹채팅 있잖아요. 그걸로 그 친구랑 다른 친구랑 같이 저를 직접 불러서 욕하면서 싸우기도 했고, 저도 싸우고 나서도 다른 애들한테 그 아이 욕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저한테 짜증난다고 싸가지 없다고 하길래, 너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 저도 그 그룹채팅방에 다른 제 친구 불러서 같이 싸웠어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 MP3나 핸드폰이나 전자제품은 규정상으로 못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가져가도 뭐라고 안하는데, 저희 반은 아침에 냈다가 저녁에 줘요. 근데 반마다 걷는 반이 있고, 안 걷는 반이 있거든요. 저희 반은 걷는데, 저는 안 내요. 원래 정해진 규정은 '내라' 이근데, 남자 선생님 반 경우는 귀찮아서 안 걷어요. 저희 반은 상자 같은 캐리어 조그만 데다가 넣어서 개수 확인하고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왜 안 가져 왔는지 이유 들어보고 걸어가요. 근데 진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요. 가져왔다가 안 가져왔다가 하면 선생님이 의심하시니까 아예 예전 핸드폰 쓰던 거를 내고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은 안 내요. 저희 반에서는 8명 정도 안 내요.

다른 반 애가 쓰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 그 반 담임선생님이 학생주임 선생님이라 세요.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바로 엄마 모시고 오라 그러고. 그 반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핸드폰 안 걷는 반 애들도 신경을 쓰셔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가져와’ 하고 말 안 듣는 애들은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지세요. 딱 한 번은 창밖으로 던졌어요. 3층인데.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깨네 엄마 아빠가 학교에 소환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갓 구매한 스마트폰을 밖으로 던져서 돌에 맞아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네 엄마 아빠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계속 늘어져서 위약금만 물어주셨어요. 원래 선생님이 ‘학생이 내라고 했는데, 안 냈으니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냐요?’ 했는데, 부모가 ‘물론 우리 아이가 잘못 했지만, 여기 3층인데 던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교장 교감선생님 까지 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만 (선생님한테) 1년 내내 찍혔어요. 애들은 (선생님이) ‘대박’, ‘쩌네’ 이려고. 그 선생님이 애들 핸드폰을 잘 던져요. 근데 물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긴 했는데 곱게 주진 않으셨어요.

학원에서는 가자마자 걷고 끝나고 주는데, 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주시긴 해요.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잔소리 하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시험 기간에는 옆에다 놔둬요. 두기만 하고 공부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손에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다 놔두는데, 근데 제가 숨겼으니까 알잖아요. 또 잡고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쫓았는데, 또 어느새 엄마한테 가서 ‘핸드폰 달라’고 하고 있고. 엄마가 뺏은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시험 기간에 막 들어가는 한 달 전쯤에 제가 핸드폰을 너무 잡고 있으니까 엄마가 ‘내놔!’하고 가져갔었어요. 근데 엄마가 밖에 나간 사이에 가지고 왔어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애들 다 그래요. 뚫리는 데는 다 뚫리니까. 주로 핸드폰 잘 안 쓰는 애들 꺼 빌려서 봐요. 본인 거로는 흔적이 남아서 엄마아빠한테 들키니까. 아니면 중고 핸드폰 하나 구해서 해요. 남이 쓰다가 안 쓰는 거 내놓은 거. 만 원, 이만 원이면 사니까. 그걸로 친구네 집이나,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데 가서. 그리고 그룹채팅 한 열 명 넘어갈 때, 그 때 한명이 뿌리면 애들이 돌려 보고.

- 스마트폰을 통해 랜덤채팅 앱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똥단배 써 봤어요. 재밌긴 했는데, 그냥 그것도 한 순간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친구가 먼저 썼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너무 궁금하고. 친구가 할 때는 재밌어 보였는데 하니까 별로 재미없었어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스마트보안관은 모르겠고 자녀폰안심서비스는 알아요. 근데 이용 중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거 부모님이 걸어 놓으시는데 애들이 가서 풀죠. 좀 다르긴 한데 대리점에 가서 풀어달라고 하면 그냥 풀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기 거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등본이나 이런 거 가져가서 푸는 애들도 있고. (서비스 해지를 하면 보호자에게 문자가 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 전에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죠. 가지고 나와서 확인 문자 바로 지우고.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단체로 나눠줄 때 (유인물을) 받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안 좋은 점만 쪽 쓰여 있어요. 오래 쓰면 눈이 안 좋아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머리가 바보가 된다는 등 뻘한 얘기만 쓰여 있어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진짜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집에다 놔두고 온 적도 한 번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고. 잃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래 쓰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냥 정해진 시간을 두고. 근데 좋은 방안 같은 거 그런 걸 정해도 많이 쓸 거 같은데. 요즘 애들이 그냥 시키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어도 별로 애들이 따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 생각으로는 자기 핸드폰이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 이거죠.

〈학생 인터뷰 5〉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7일(일) |
| 장 | 소 | 000복지문화센터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 | 000 (여, 000중 3학년) |
| 인 | 터 | 뷰 |
| 소 | 요 | 시 |
| | | 간 |
| | | 약 30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무제한 3G요금요. 원래 이게 제 거로 만든 게 아니고. 아빠가 엄마 걸로 만들어줬는데, 엄마가 잘 안 쓰시니까 제가 썼어요. 1월 달부터 언니랑 번갈아가면서 쓰다가, 언니는 2월 달에 핸드폰을 써서 그 다음부터 제가 갖고 다녀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한... 다섯 시간.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 오기 전까지 해요. 여섯시 정도부터 아홉시나 열 시 까지 계속 써요. 엄마가 오면 뭐라고 하시니까, 오시면 내버려뒀다가 자기 전에 한 번 쓰고. 아침에는 잘 안 써요. 애들하고 만나야 되니까, 전화만 쓰고. 쉬는 시간에도 애들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잘 안 쓰고.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을 더 많이 쓰긴 해요.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애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트위터랑 페이스북 하다보면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게 좋아서. 얘기하고 하는 게 재밌어요.

카카오톡 친구는 120-130명, 페이스북은 30명, 트위터는 백 명 정도. 제 학교 친구나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친구들도 있어요. 카톡에는 팬클럽 친구들이랑 단체톡(그룹 채팅)도 있고, 반 친구들 단톡(단체톡 줄임말)도 있고, 아빠랑도 해요. 아빠가 따로 사시거든요. 아빠랑 연락도 하고. 언니도 따로 살아서 언니하고도 카톡하고. 전화보다 카톡을 더 많이 해요.

트위터로는 학교 친구들이랑 학교 얘기 많이 하고, 페이스북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나 힙합 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려요. 어디서 공연한다고 하고, 그러면 재밌겠다고 댓글 쓰고 가서 보기도 하고. 사진이나 이런 거 많이 봐요.

게임은 '헝그리샤크'랑 '쿠키런'을 많이 해요. 상어가 사람이랑 물고기 잡아먹는 게임인데 혼자 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웹툰도 핸드폰으로 봐요. 많이 볼 때는 한 시간 보고. 올라오는 거 볼 때는 한 20-30분 봐요. 유튜브에서 영상도 많이 봐요. 좋아하는 가수 무대 하는 영상이나, 만화도 보고 영화도 봐요. 노래도 많이 듣고. 노래 듣는 걸 제일 많이 해요. 뭘 하든 노래를 들으면서 해요. 멜론 스트리밍 음악 감상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격이 올랐는데 저는 전부터 사용 중이라 계속 3천원 이에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날씨도 볼 수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전화하고 문자하는 건 요금도 나가잖아요. 카톡은 데이터로 나가니까 카톡이 얘기하기 더 편한 것 같아요. 와이파이로 많이 쓰고 데이터 무제한이면 (카톡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자는 몇 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이스톡(카카오톡 내 통화기능, 여러 명이 동시에 통화 가능)도 해봤어요. 다 같이 통화할 수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단톡에 있는 애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전화 해봤어요. 세 명이예요. 근데 세 명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정보를 얻을 때 편해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정보를 제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때는 스마트폰을 가진 애가 정보를 얻으면 그걸 저한테 문자로 날렸어요. 그럼 복잡하잖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지금은 빨리 알 수 있어서 좋아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계속 하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되는데도 계속 해요. 트위터도 글을 올리기도 보다는 보니까, 계속 보게 돼요.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생겨요. 궁금하고.

한번은 누가 제 험담하는 적을 당해 본 적이 있어요. 저랑 친구랑 싸웠었는데, 그걸 친구가 다 카스에 올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카스 내용을 딱 보면 저 인줄 알잖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보여줬더니 그게 제 얘기가 맞는 거 같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 얘기 아니냐. 그냥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면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제 얘기가 아니래요. 그 친구가 두 번이나 그랬어요. 만약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했으면, 저도 제가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잘 풀렸을 텐데. 그렇게 혼자 (카스에) 얘기하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오해도 안 풀리고 싸우기만 한 거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3천원 가량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카스에다 '돈을 빌려가고 안 갚으면 그것도 갈취 아니냐고 올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학생회 친구가 있나 봐요. (학생회 친구가) 그 글에 '그런 것도 금품갈취야'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애들도 제 얘기에 (저를 욕하는) 댓글을 달고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수업할 때만 안 사용하면 되요. 걸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꺼 놓으라고 하는데, 애들은 거의 켜봐요. 스마트폰이 없는 애들은 2명인가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수업시간에 하는 애들도 많아요. 약간 느슨하고 그런 선생님들 시간에 다 핸드폰 하거나 자거나 노래듣거나, 게임, 카톡해요. 그러다가 뺀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달라고 하면 줘요. 걷는 반도 있긴 있어요. 필요한 시간 있잖아요, 미술 시간 이런 때. 그 때만 주고. 미술 시간에 인물 캐리커처 그리는 데,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보고 그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미술 선생님이 걷는 반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 하셔서 그 시간만 줘라 해서.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공부 좀 하라고 하시고, 중독이라고 하시고. 뺏을 거라고 협박도 하세요. 근데 그냥 '진짜로 뺏을 거야'하고 끝나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저랑 친한 친구는 유튜브에서 OOO 같은 걸 봐요. TV를 통해 보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가끔 부모님 안계시면 저랑 저희 집에서 같이 자면서 핸드폰으로 보고 그래요. 19세 이상 관람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OOO 동영상이 나와요. OOO 같은 연예인이 나와서 야한 걸 입고, 춤추고.

- 스마트폰을 통해 랜덤채팅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학교 친구 중에 돛단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사귀고... 저는 안하고 싶어요. 친구랑 모르는 사람이랑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 쪽에서 사귀자고 하면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그걸 자랑인 것처럼 말해요. 대화 내용은 안 보여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귀고 나면 설렁설렁 넘어가요. 사귀기로 했어, 그런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러던데. (돛단배는) 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필요해서.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청소년 보호 같은 걸 학교에서 나눠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핸드폰이 아니고 컴퓨터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예 모르세요. 근데 엄마가 (스마트보안관) 들으시면 저는 아예 스마트폰을 못 쓸지도 몰라요.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냥 적당히 써야 된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애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매체예요. 그리고 심심하거나 지루할 때 그런 걸 없애주는 거. 더 좋게 말하면 친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의 같이 있으니까.

저 1학년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 때 한창 애들이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할 때였는데, 1학년 때 만약에 그 때 생각해보면 애들이랑 친하고 했으면 핸드폰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 때 제가 아예 핸드폰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연락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만약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더 애들하고 친해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쓰는 시간하고 공부하는 시간하고 나눠야 되는데 잘 안되잖아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학생 인터뷰 6〉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7일(일) |
| 장 | 소 | 000 청소년 문화의 집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000 | (남, 0000고 2학년) | |
| 인 | 터 | 뷰 |
| 소 | 요 | 시 |
| 간 | | 간 |
| | | 약 30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한 달 전까진 62요금제 썼는데, 지금은 청소년 24요금으로 바꿨어요. LGU+ 청소년 요금제가 따로 있어요. 데이터가 많이 줄었어요. 한 750MB 정도로. 엄마가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바꾸셨어요. 요금은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나와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세 네 시간. 학교에서 걸어서 많이 사용을 못해요.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등교할 때 영어단어 앱을 사용하고,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내기 전까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보고. 오전 9시에 핸드폰을 걸어서 그 때부터 사용을 못하고, 오후 4시 정도에 다시 받아서 카카오톡 온 거 보고 네이버 뉴스 좀 보고. 그리고 또 야자 시간이라서 사용 못하고, 집에 갈 때 영어단어 좀 보고. 집에 와서는 카카오톡이랑 카카오톡스토리 사용해요. 학원에서는 쉬는 시간에 중간 중간 카톡이나 카카오톡스토리 보는 정도.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스토리, 네이버 웹툰 정도 사용해요. 게임은 예전에는 축구게임이나 애니팡 했고, 요즘은 윈드러너 해요.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추천을 해주어서 호기심에 했어요. 한 서너달 정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영어단어 책을 하나 정해줘서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보는데, 영어단어 앱이 있어서 그걸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이용해요. EBS 동영상도 많이 봐요. 카스 나오고 나서 한 2-3주 지나고 나서부터 카스를 사용했으니까 카스 사용한지는 1년 정도 됐어요. 페이스북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잘

몰라요. 카스가 일상 같은 걸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카스 친구는 한 170명 되요. 요즘 공유기능이 생겨서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친구가 글을 올리면 느낌 100개가 되면 뭘 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이런 글을 공유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실천하게 하는 거죠.

카톡에는 220명인가, 그 정도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친구들. 자주 대화하는 애들은 한 15명 정도 되고 학교 숙제나 언제 만날까 이런 얘기해요.

웹툰은 하루에 2-3개 정도 보고, 한 15분 정도 이용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네이버 앱이나 웹툰, 카카오톡도 유용한 것 같고. 컴퓨터로만 했던 건데 핸드폰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게 유용한 것 같아요. 네이버 앱으로 주로 스포츠나 연예 기사보고, 실시간 검색어도 한 번씩 터치해서 보고. 그리고 '김급식'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걸로 학교 급식 메뉴도 볼 수 있어요. 다른 애들도 많이 써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니까 없으면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공부에 지장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작년에는 그냥 안 걷고,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놔뒀는데. 학부모회에서 걷으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걷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었어요. 근데 학부모회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의견을 모았어요. 지금은 전교에서 전체 다 걷고 있어요. 학급에 핸드폰수거함을 만들어서 한 반에 25명씩인데 다 걷게 해서, 번호 같은 것도 적어서 누가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해요. 가방이 노트북가방 같은 거에 망사 같은 거 씌워서 번호가 매겨있어요. 저희 반에는 안내는 애들이 없는데, 다른 반에서 다 안내한다고 그런 소문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 반은 선생님이 좀 무서워요. 누가 안내면 (수거 가방에) 번호가 적혀있으니까 다 뒤져요. 안 가져온 애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짜 안 가져 왔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안 낼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했는데, 그냥 안 걷고 전원 끄라고 권유만 했었어요.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집에 와서 씻고 나면 그 때가 할 게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엄마가 그만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세요.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으면 가져가서 안주시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할부가 남아서 던지지는 못하시고. 이번에 요금 바꾼 것도 엄마가 일방적으로 아무 말 없이 일주일 전에 바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1학년 때 학교에 친구들이 보는 건 많이 봤어요. 플레이 스토어에 계정을 입력해야 되는데 아예 엄마계정을 입력해서 성인용 앱을 받는 친구도 있었고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는 성인인증창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 교실에서 본 적도 있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많이 봐요. 한 명이 음란물 주소 같은 걸 알아오면 방에 모여서 같이 보니까 선생님들은 모르죠.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몰라요. 근데 그런 서비스는 너무 억압받는 것 같아서 거슬릴 것 같아요. 엄마가 아시면 쓰긴 쓰실 것 같은데.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 번 해줬어요.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그때 쯤. 스마트폰 중독 이런 내용이었는데 설명을 잘 안 들었어요. 한 두세 반 정도를 강당으로 모이게 하고, 나머지 반들은 방송으로 봤어요. 한 시간정도였던 것 같고,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었어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인생의 일부. 필요한 것. 확실히 쓰면 유용하고 좋은데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니까. 계속 쓰진 않더라도 주머니나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독방지 앱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용 중이에요. 'Addiction Stop'이라는 앱인데 사용금지 시간을 그때그때 설정할 수 있어요.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이 방해되니까 저는 보통 한 시간 정도 중독방지 앱을 설정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혹시 급하게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통화나 메시지, 음악은 놔두고 나머지는 사용금지 해놔요.

〈학생 인터뷰 7〉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10일(수) |
| 장 | 소 | 00청소년수련관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 | 000 (남, 000고 2학년) |
| 인 | 터 | 뷰 |
| 소 | 요 | 시 |
| 간 | 약 20분 |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54쓰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는 1기가 정도 되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시간으로 따지기 좀 어려운데,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5분, 6분정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카카오톡 하고요. 24시간으로 하면 17시간정도 쓰는 것 같아요. 계속 하다보면 대략 7~10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뭐가 왔는지 확인해요. 학교 가서는 아침 조회시간에 가끔 하고요. 주로 쉬는 시간 때 해요. 학교 마치고는 게임 좀 하고요. 4시 10분 쯤 되면 수련관 와서 공부 좀 하고. 동아리 활동 할 때도 게임하면서 얘기 할 때도 있고요. 집에 가면 8시나 9시 되는데, 일단 체육관 가고요. 그 때 이동하는 시간에도 들고 있어요. 잠자기 전에도 봐요.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게임하고 카카오톡하고 카카오톡, 페이스북이요. 게임은 야구게임을 많이 해요. 카카오톡 이랑 페이스북에는 주로 학교 친구랑 수련관 친구들이 있어요. 다 합치면 130명 정도 되요.

카카오톡으로는 어제는 점심 맛없다 이런 얘기 했고, 평소에는 주로 게임 얘기 많이 해요. 롤(LOL, League of Legend) 게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캐릭터는 어떻게 되는지. 학교생활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방송부끼리는 카카오톡으로 UCC에 관한 회의도 가끔 하고요. UCC 주제가 정해지면 누가 촬영할지, 기획을 언제 할지 그런 일정을 잡고 간략히 회의를 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멀리 떨어진 사람과 메시지로 대화할 수 있고요. 시간 때우기로 게임도 가끔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정보검색도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로 인터넷 기사나 일단 급상승검색어에 뜨는 것들 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1, 2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확인하고. 평소에도 검색어가 뭐가 있는지 잘 보는 편이에요. 저번 주까지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요, 아무래도 진로가 기자나 보도 쪽이다 보니까 요즘은 정치사회도 검색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만지면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힐 뻔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하다가 버스 벨도 못 누르고. 공부하다보면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하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뺏긴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 따돌림 당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제 후배가 그랬는데 카카오톡 반 채팅을 만들었대요. 그 반 애들이 축구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 후배가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런데 애들이 '너는 뭐냐'하면서 욕을 했대요. 개인적인 일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사생활 침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교는 학생 인권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사용 못하고. 반마다 자율적인 학급도 있고, 내는 학급도 있고 그래요. 저희 반은 자유로워요. 내도되고 안내도 되요. 핸드폰 걷는 가방이 있는데 강제로 거두진 않아요.

수업시간에 사용하면 일주일 압수되고 담임선생님께 통보가 되고, 청소도 하고 벌점도 받아요. 그런데 봐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자율적인 분위기 같아요. 별로 잔소리도 안하세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작년에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반 친구들은 어떤 애가 핸드폰에 담아 와서 같이 보더라고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통신사에서 개발한 것 한 번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용은 안 해봤어요. 오히려 깔면 용량만 차지하고 그럴 것 같아서 관심은 없어요.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조회시간 때 한 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반은 한 번 걸리면 다음날까지 스마트폰을 선생님에게 내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내니까 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없으면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카메라를 켜서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앱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앱을 사용하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학급회의 때는 스마트폰을 내냐 안내냐 이런 회의만 했어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지 토론을 갖는 시간이 없었어요.

〈학생 인터뷰 8〉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10일(수) |
| 장 | 소 | 00청소년수련관 |
| 인 | 터 | 000 (여, 00고 2학년) |
| 인 | 터 | 약 30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청소년전용 42요금제 쓰고 있어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잘 때 빼고 한 14시간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이나 연락 온 것 있나 보고, 등교할 때도 버스에서 계속 보고 있고. 수업시간에는 그래도 자제를 하고, 쉬는 시간마다 또 보게 되고. 학교 끝나면 그냥 잘 때 까지 계속 가지고 있고, 보고 그래요. SNS나 카톡에 있는 게임들도 순위가 있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딱히 연락이 안 오는데도 계속 쓸데없는 것도 보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저녁 11시 정도 귀가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자꾸 대화를 해야 되니까 계속 쓰게 되요.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톡도 많이 하고, 밴드(BAND) 많이 해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재밌는 게시물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채팅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요즘 밴드 많이 하더라고요. 동아리도 하고, 작년 같은 반인 친구들끼리도 하고, 중학교 때 친구들끼리도 하고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계속 방을 만들어요.

게임은 카톡에서 나오는 윈드러너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하고. 전에는 게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바쁘기도 하고, 대화하다보니까 게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카톡 친구는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150명 정도랑 얘기해요. 그리고 카톡에

보이스톡도 써봤어요. 통화 안 남고 데이터만 남았을 때. 그리고 그룹 콜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그거 자주해요. 서로 심심하다고 말하다가 심심하면 그룹 콜 하자고 해서.

방송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자주 만나기 힘들니까 동아리 회의도 카톡이나 밴드로 많이 해요. 토요일에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자고 정해요. 그런데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카톡으로 물어보고 해요. 그럼 바로 답글이 달리니까 편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미디어 센터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니까 공모전 회의는 못해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공모전 회의는 거의 카톡으로 해요.

페이스북은 그냥 지금까지 학교친구들이 많고요. 동아리도 많고. 페이스북에서 그냥 웃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올리기도 하고 그날 하루 무슨 일 있었는지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댓글도 달기도 하고. 그리고 페이지 있잖아요. 웃긴 페이지나 그런 거 '보기'해 봐서 봐요. 카카오토리도 하는데 자주하지는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올리니까 가끔 댓글만 달아주고.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전화, 문자 이런 거 밖에 없었잖아요. 문자는 비싸기도 하고. (2G 핸드폰) 학생 요금 때는 문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라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톡으로 계속 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게 있으면 실시간으로 올리면 바로 다른 애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방송반 동아리활동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많이 해요.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앱은 한두 번만 써봤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그냥 자꾸 빠지게 되는 거. 카톡 상대방이랑 대화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카톡으로만 만나게 되고 그게 편하니까,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그리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목이 아파요. 고개를 들고 하려면 팔을 들어야 하니까 팔이 아파고. 그런데도 계속 보게 되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입학할 때부터 학교에서는 걸으라고 했었고, 핸드폰 가방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마다

담임선생님 재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선생님들은 내든 말든 알아서 해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무조건 내라하고 개통이 되어 있나 확인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다 달라요. 확인 하는 거는 핸드폰을 무조건 내게 하시니까 애들이 가짜 폰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확인을 하세요.

사용하다 들키면 수업 끝나고 주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동안 압수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까지 뺏는 선생님도 계세요. 앞에서 교탁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학생은 책상 밑에 숨기면 안 보이는 줄 알잖아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 고개 들어봐, 손 그대로 두고' 하고 가서서 스마트폰을 뺏으세요.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나서 일찍 (집을) 나오고, 늦게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제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세요. 집에 들어가면 11시 되니까 씻고 자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죠. 그냥 학생요금이다 보니까 그 정도 쓰나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초과 안 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다 쓰고 없을 때, 친구한테 핫스팟 켜달라고 해서 쓰고 그래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남자애들은 보는 것 같던데. 그냥 앱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만화 앱인데 거기서 성인만화 같은 거 보는 것 같았어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그런 게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쓰지는 않아요. 오빠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썼어요. 고2, 고3때 썼던 것 같아요. 오빠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어딘가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문자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끄고, 잘못 누르셔서 메뉴가 들어가졌는데 성인용 앱이 있었나봐요. 그거 보고 엄마가 '이거를 어떻게 차단하지?' 하시다가 찾아서 이용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오빠가 대학생이라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안 쓰고 있어요. 중독방지 앱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용할 의지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긴 하지만, 스마트폰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사용을 자제하고 싶지만 계속 연락이 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작년에 창체 시간에 한 번 해줬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거. 창체 수업은 선생님 재량으로 하는데, 영상을 많이 보여줘요. 작년에 한 번 어디선가 누가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저희는 반에서 TV로 봤어요. 그 선생님은 방송실에서 방송반애들만 앞에 두고 강의를 하고, 저희들은 각자 반에 있고. 그런 걸 하면 담임선생님이 홍보를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누가 오셔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다 말씀하시면 그냥 애들은 잘 준비를 하죠. 저희반도 다 갔고, 다른 반도 비슷할걸요. 아마 강의 들은 애들은 방송반 애들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기는 했어요. 제가 지금 2학년 올라와서 음악이랑 미술을 선택으로 배우거든요. 저는 음악을 선택해서 잘 모르는데 미술 하는 애들이 미술시간에 핸드폰으로 UCC영상을 찍는대요. 그래서 미술시간마다 미술 하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핸드폰을 받아서 촬영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주변과 소통하는 그런 기계.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평소에 연락을 하다가 하루라도 없어지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불안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사진이나 글 같은 걸 올리면 바로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모르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애들하고 더 친해지고 소통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독방지 앱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이니까 학생요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낮춰서 설정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요금을 다 쓰게 되면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은 요금을 좀 낮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인터뷰 9〉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10일(수) |
| 장 | 소 | 00청소년수련관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000 | (남, 00중 3학년) | |
| 인 | 터 | 뷰 |
| 소 | 요 | 시 |
| 간 | | 약 25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요금제는 2G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3만원짜리 청소년 요금제요. 피쳐폰 요금제다보니까 데이터가 따로 안 나와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많이 하면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하고요. 적게 하면 한 두 시간 정도 밖에 안 해요. 주로 방과 후에 하고 수련관 끝나고 나서 잠깐 해요. 방과 후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하고, 수련관에서 한 두 시간해서 총 4시간 정도.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학교 갈 때 까지는 스마트폰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학교에서는 수거를 하니까 쓸 일이 없고. 학교 끝나고 나서 와이파이 존이 있으면 카카오톡 왔나 확인하고, 수련원 와서 활동하고 하면 저녁 10시 쯤 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자는 편이에요.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로 사용하는 것은 카카오톡하고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 세 가지를 주로 많이 해요. 게임은 안 해요.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은 많아봐야 20명에서 30명 정도. 주로 만나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다 보니 그 정도 되요. 교회나 학교, 수련관 활동 중에 만난 사람들이죠. 주로 오늘 어땠는지 안부 물어보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SNS로 물어보고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밴드는 미디어센터 사람들이랑 써요. 다른 데서는 안 써요. 서로 존중해주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SNS상에서도 만들어 준 것 같고 해서 주로 쓰고 있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좋은 건,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편리한 거죠. 만나지 않고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밴드 같은 경우는 동호회나 동아리 회원들끼리 모여서 일정이나 주소록을 공유한다던지 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운 걸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밴드 같은데서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막상 만나면 할 나눌 얘기가 없어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휴대폰 가방이라고 해서 번호대로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있는데, 그걸로 조회시간에 걸었다가 종례 때 돌려줘요. 안내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전체 반이 4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34명 정도 안내는 편이에요. 안내면 압수를 하는데 심하면 한 달, 가벼운 정도면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만 하고 끝내요. 학교에서 한 번씩 누가 내나 안내나 봐요. 단속하는 날은 다 내고, 단속을 안 한 날은 안내고 그런 식이에요.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자유롭게 하시는데,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타이르세요. 평소보다 조금 시간을 많이 사용할 때는 스마트폰 보시면서 '스마트폰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다른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세요. 계속 타이르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스마트폰을 놓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결(유해서비스) 안 들어가서 안 보면 되는데 굳이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을 전교생 대상으로 해요. 중독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예방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거를 하고나서 초반에는 애들이 그 전보다 스마트폰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또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가진단테스트지를 먼저 줘서 그걸 한 다음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송을 하고 마지막에 담임선생님이 끝내고 해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했었어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통신수단 정도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한번 잡으면 놓기가 힘든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제를 할 수 있게 잘 타이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1년에 23번 정도 밖에 없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2달에 1번씩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촬영을 한다든지, 미술 수업이라든지, 정보 수업에서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미술수업에서 쓴다면 원하는 풍경 같은 것을 미리 찍어놓고 보고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인터뷰 10〉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14일(일) |
| 장 | 소 | 00복지문화센터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 | 000 (남, 000고 2학년) |
| 인 | 터 | 뷰 |
| 소 | | 요 |
| 시 | | 간 |
| | | 약 40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학생 전용 35요금제 쓰고 있어요. 데이터가 750MB 정도 되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적어도 3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카톡이나 메신저나 전화나, 아니면 웹툰 같은 거 볼 때 사용해요.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카톡 확인하고,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거의 사용 못하고. 끝날 때쯤에 못한 것, 메시지 와 있는 것 그 때 다 확인하고. 아침에 한 번, 방과 후에 한 번, 학원에서 집에 돌아올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도 쉬는 시간에 사용해요.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카오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해요. 카카오톡을 주로 쓰는데, 200명 정도 친구가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중에 거의 2/3는 카카오톡을 사용해요. 학교 친구들과 예전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과인데, 주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한 30명 정도 빼고 자주 연락하는 편이에요. 그냥 만나서 놀자는 얘기나, 잡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학교 친구들이랑은 학교 과제물이나 학교 얘기 하고. 저는 그룹 채팅보다 1:1 채팅이 더 좋아서, 너무 (대화방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정도예요.

페이스북 친구는 좀 더 적어요. 120명 정도. 카카오톡과 비슷한 친구들인데 외국인 친구도 있어요. 일본사람인데 그냥 그 쪽에서 먼저 친구신청해서 수락하고, 메신저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몽골에 갔는데 페이스북 알려달라고 해서 몽골 친구도 있어요. 개가

(페이스북으로) 연락 하는데 잘 안 받아요. 일본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신기해서 받았었어요. 그 친구가 페이스북을 영어로 하더라고요. 메시지도 몇 번 받았는데 영어로 보냈었어요. 근데 말을 하고는 싶은데 영어로 해야 돼서 잘 못해서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은 잘 안 해요. 컴퓨터 게임보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하면 배터리도 빨리 닳고, 컴퓨터 게임보다 질도 떨어지고.

웹툰은 네이버 웹툰을 많이 봐요. 순정만화 빼고 다 봐요. 19세 이용가능 만화도 본 적 있어요. 핸드폰에 한 번 저장해 놓으면 로그인 안 풀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어서 봤어요. 저희 엄마 아이디를 제가 만들어 드려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서울버스 앱을 쓰는데, 학교 등교를 하려고 할 때 버스 알려주는 단말기가 정류장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서울버스 앱을 쓰면 알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그리고 날씨. 날씨는 아침에 확인해요. 핸드폰에 기본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연락 할 때도 카톡을 쓰니까 전화를 안 해도 돼서 편해요. 그리고 와이파이존에 있으면 통화료도 부과 안 되니까 보이스톡 같은 것도 편한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외국에 있는데요, 누나랑 연락할 때 보이스톡을 사용하니까 좋아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카톡이 오면 답장하고 싶고. 내가 (공부나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을 뺏기는 느낌이 들어요.

친구를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도 많이 본 적 있어요. 그냥 남자들끼리는 일상적으로 욕을 하니깐 상관없는데. 저희 학교가 남녀 합반인데요, 반 단체 특에서 누가 한 명이 나가면 단체로 그 친구 뒷담화를 하거나 욕을 해요. 반 특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애 하나가 자기 3G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을 나간 거예요. 솔직히 좀 재수 없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속으로 삭혀놨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여자애 나가니까 욕을 하고. 반 특 하다가 나가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시 초대를 하는데, 그 여자애는 다시 초대 안 해요. 그 여자애가 저희 반 내에서는 따돌림 당하는 애예요. (그 여자애랑) 같이 놀던 애들이 있는데, 그 여자애가 좀 남자애를 많이 갈아타서 그 무리에서 찍히니까

그때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요. 반 특에서 이런 얘기를 (다른 여자애들이) 해요. 재 남자만 밝혀가지고 OOO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은 그 여자애에 대한 욕을 다 봤어요.

카카오스토리에는 저격글(특정인물을 노리고 험담을 하는 행위) 같은 거 많이 올라와요. 너랑 절교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누구라고 안 밝히는데 꺼지라고 써 놓으면, 읽는 사람은 내 얘기인 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애들이 많이 써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1학년들은 입학할 때부터 걷는다고 했고, 저같이 2학년들은 자유예요. 수업시간에 걸리면 뺏는 정도. 3학년은 잘 모르겠어요. 1학년은 학교에서 일부러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2학년은 저희가 서명운동을 해서 안 걷어요. 전교회장이 2학년인데, 전교회장이 뺏히고 1학년들에 이어서 2학년들도 핸드폰을 걷는다고 하니 애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항의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알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뺏기면 3일 동안 뺏는다는 조건으로 2학년은 안 걷어요. 저희 학교가 혁신학교라 민주주의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저희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1학년들은 신입생이니까 그냥 학교에 말 못하고 걷는 거죠.

친구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다가 많이 뺏기기도 해요. 걸리면 나오라고 해서 뺏어주세요. 근데 (걸리는 애들 중) 절반은 주는데, 반은 빼기다가 징계당하고 그래요. 저희학교가 특이하게 성장반이라고 있는데, 잘못하면 성장쪽지라는 걸 줘요. 그걸 주면 108배를 해야 돼요. 기독교를 믿는 애들은 108배가 불교신앙이니까 109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번 이상 성장반에 걸리면 토요일 날 북한산 오르기를 해요. 성장반 지도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데 상담 선생님이고 좀 연세 있으신 여자 분이예요. 거의 강압적이시고 안하면 부모님한테 연락하겠다고 해요.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저 혼자 밥 먹다가 메신저 와서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잔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때 한 번 보다가 잠 안 자고 스마트폰 보냐고 제재당한 적도 있고, 시험기간에 하다가 시험기간인데 미쳤냐고 하신 적도 있고. (잔소리를 들을 때가) 거의 이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페이스북에서 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아요' 하면 타임라인에 뜨잖아요. 친구가 '좋아요'를 누른 동영상에 제 타임라인에 뜨길래, 동영상 재생하기 전에 처음에 보이는 화면 있잖아요. 그게 꽃인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뭐지?'하면서 한 번 눌렀는데 외국인 남자 둘이 발가벗고 이상한 걸 하는 게이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친구 중에 성인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모바일 P2P사이트로 보는 것 같았어요. 모바일 OOOO라고 있는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다운 받는 게 아니라 테스트뷰라고 해서 미리보기 같은 건데 풀(full)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와이파이로 보면 데이터도 안 쓰고, 동영상을 다운 받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니까 다 공짜여서. 예를 들면 부모님 명의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잖아요. OOOO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성인동영상 같은 걸 (다른 인증 절차나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볼 수 있어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몰라서 이용 안하고 있어요.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 번 들어봤어요. 한 달 전에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테스트 했었어요. 외부강사가 와서 테스트지 나눠주고 체크하는 거였어요. 저희 학교에 무대처럼 되어 있는 강의실 같은 시청각실이 있는데, 거기서 시험지 같은 걸 나눠 주시고 한 번 자기가 체크한 게 몇 개인지 세어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중독 정도 같은 걸 ppt로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5개 반 씩 들어가서 했는데, 시간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근데 내용은 시험지 같은 걸 준 것 밖에 잘 기억 안나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그냥 통신기. 애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것. 근데 없으면 불안해요. 핸드폰을 버스에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편하더라고요. 핸드폰 빨리 찾아서 카톡 왔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게임에 있는 섯다운제처럼. 그러면 좀 덜 쓰게 될 것 같아요.

〈학생 인터뷰 11〉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17일(수) |
| 장 | 소 | 00역 근처 커피전문점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000 | (남, 00고 2학년) | |
| 인 | 터 | 뷰 |
| 소 | 요 | 시 |
| 간 | | 간 |
| | | 약 30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17,000원 짜리요. 2G쓰다가 바꿨는데 요금제는 똑같이 해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께서 스마트폰에 인터넷강의를 넣어서 공부하라고 하셔서 작년에 스마트폰으로 바꿔 주셨어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를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데이터량이 작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못 쓰고, 집에 와서 쉴 때 와이파이로 많이 사용해요. 한 3~4시간 사용해요.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 10시 30분이 되요. 스마트폰을 안 쓰고 싶은데 계속 하게 되니까 새벽 2시까지 하게 되고.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시물을 보면 웃긴 거 많이 나오잖아요. 초반에는 흥미위주로 보다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마치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요.

카톡이나 카카오토리,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이트 '가생이닷컴'이라는 유머 게시판이 있는 사이트인데 보고 웃다가 시간이 다 가죠. 보통 웃기게 사진 합성한 것도 있고, 재밌게 쓴 글 같은 거 보고 웃고 해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컴퓨터)게임을 끊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게임을 많이 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공부만 시키시려고 게임에 'ㄱ'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몰래 새벽에 (컴퓨터) 게임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좋은 대학교를 가야되는데 이런 생활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게임을 끊긴 했는데 끊은 방식이 잘못됐어요. 2012년 1월에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셨는데 게임하는 대신에 스마트폰 서핑하면서 게임을 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인터넷 하는 것이 주가 되어 버렸어요. 담배 끊으려고 금연 껌을 씹다가 껌에 중독되는 것처럼 안 좋게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 게임은 많이 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에서 이런 게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초대를 하거든요. 애니팡, 쿠키런 이런거.

카카오톡도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흔히 새 학기가 되면 반톡이라고 해서 방을 만들거든요. 반톡을 통해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장난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웃기게 사진을 찍어 올리면 하지마라는 얘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번에 어디를 놀러간다 그러면 너 좋겠다며 글을 올려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학교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사이가 안 좋은 친구 둘이 있었는데, 두 명중 한 명이 나머지 다른 한명을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루머 같은 거 많이 흘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진짜로 싸워서 학생부 가고 했던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악용한 거죠.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정보접근이 쉽다는 거. 수행평가를 할 때 뭘 조사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는 굳이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찾아보고 바로 받아 적고 하면 몇 분 내로 수행평가 조사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전 앱을 찾아보면 영어 모르는 단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백과사전 앱도 있으니까 화학이나 물리를 처음에 접할 때 많이 헛갈리는데, 사전을 보면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아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은 다툼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안 좋은 소문도 많이 퍼뜨리니까. 이게 인터넷 게시판 역할을 하는 거죠. 특정 연예인 비난하는 것처럼 마녀사냥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문자로 제 험담을 여러 번 했어요. 중학교 때 애들이 좀 험했거든요. 사소한 거에도 죽일 것처럼 덤비고, 욕설 문자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은 안했어요.

이거는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중학교 2학년 때 한 아이가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어렸을 때 무슨 병인가에 걸려서 머리에 모근이 없어가지고 아예 대머리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애가 그 아이인 척 해서 20명 되는 남자애들한테 욕설문자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욕설문자를 받은 애들이 화가 나서 그 아이한테 욕설문자를 퍼부은 거죠. 경찰에 까지 신고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부터 휴대폰을 걷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게임하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선생님들이 아신 거죠. 그래서 반마다 스마트폰 가방을 사가지고 아침 조회시간마다 걷어요. 학교 끝나고 오후 5시쯤 되면 애들 밥 먹을 때 다시 빼서 주시고. 제가 입학 할 때부터 수거를 했어요.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어머니 말씀이 '이제 2G로 바뀌야 되겠다. 안되겠다.' 하시고, 아버지는 '냅뒤,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하시니까 아직은 안 바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재를 별로 안 당하는데 친구들은 시험기간에 정지를 당하기도 하고 해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애들이 보기는 하는데, 화면이 작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성능이 아직 컴퓨터를 못 따라가니까 힘들대요. 차라리 컴퓨터가 낫다고. 저희 학교 애들은 스마트폰 P2P 이용하기가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들어 봤어요. 설치는 안했어요. 음란물차단 그런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과하게만 하지 말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래서 설치 안했어요.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애들 다 모아 6개월에 한 번씩은 받아요. 결국엔 같은 내용이에요.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너희가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를 못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마라 이런 거죠. 내용은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학생들이 들을 때는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걸 극복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힘들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핑을 안 한다는 게.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끔씩 애들이 새로운 게임 초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그 게임을 하면 헤어 나올 수 없지만, 아예 시작을 안 하면 그 게임을 안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애들이 방을 만들어서 게임을 초대하게 되는 것, 이걸 없애야 될 거 같아요.

〈학생 인터뷰 12〉

| | | |
|---|---|------------------|
| 일 | 시 | 2013년 4월 17일(수) |
| 장 | 소 | 00역 근처 커피전문점 |
| 인 | 터 | 000 (여, 00고 2학년) |
| 인 | 터 | 000 (여, 00고 2학년) |
| 터 | 뷰 | 000 (여, 00고 2학년) |
| 소 | 요 | 000 (여, 00고 2학년) |
| 시 | 간 | 000 (여, 00고 2학년) |

-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청소년전용 34 요금제, 제일 싼 거요. 쓴 지 1년도 안됐어요.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 쯤, 작년 12월 정도에 샀어요.

-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하고 일어나서는 안 해요. 집에 와서는 좀 하는 편이에요. 저녁 6시에 집에 오니까 4시간에서 5시간정도 해요. 학교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내는 편이라 안 해요.

-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나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가는데 (시간이) 짧아서 별로 할 게 없어요. 시계대용으로 쓰고.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내니까 사용 안 해요. 안 내는 애들은 애들끼리 사진 찍던가 아니면 카톡하고. 게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주눅아요. 그러면 노래 듣고요, 컴퓨터로 인터넷하려면 부팅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이트 접속한 다음에 블로그 이웃에 새 글 올라왔나 확인하고. 카톡에 친구들이랑 재밌는 얘기 같은 거 올리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주로 웹툰 봐요.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밀린 거나 새로운 거 보면. 카톡은 잘 안하는 편이에요. 문자나 전화 같은걸 귀찮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터넷 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자요.

- 스마트폰 앱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스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동창이랑, 고1 때 친구들이랑 해서 한 30명 정도 친구가 있어요. 아빠랑 언니도 별로 친구 하기 싫었는데 친구신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같이 사는데 안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만 올리고 요즘에는 잘 안올려요. 아빠는 그냥 카스 가입만 해놓고 안하시고, 언니는 카스 하다가 요새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게임은 요즘 카카오톡 게임 있잖아요. 친구 추가를 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만만한 친구들이나 엄청 친한 친구들한테 초대 보내고 해요. 요새는 새로 나온 거 쿠키런 하고. 초반에는 애니팡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카카오톡 게임을 많이 해요. 경쟁 같은 게 있으니까. 이기면 점수가 더 올라가고, 혜택이나 선물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재밌어요. 쿠키런은 점수 같은 게 있어서 친구한테 하트 보내면 점수가 올라요. 그런 식으로 점수가 오르면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뽑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열 명 이상이면 돈(게임머니) 주고. 블로그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웃글에 댓글 남겨주고 이런 거 많이 해요. 블로그 친구들은 연예인 팬픽이라던가 소설의 뒷이야기 이런 거 올려놓는 사람들이랑, 실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냥 일상 올려놓는 친구들 많아요.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은 연예인 얘기 이런 거 올려놓고, 그림 그리는 애는 자기가 그린 그림 올려놓고. 아니면 먹을 거 올려놓는 애들

많아요. 저는 블로그 개설만 해놓고 글은 안 써요. 블로그는 제가 운영 안 해도 그냥 서로 이웃 신청만 해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웹툰은 너무 많이 봐요. 지금 나와 있는 웹툰 대부분 보거든요. 주로 판타지를 많이 봐요. 네이버에 있는 '신의 탑'이나 '버프소녀 오오라', '노블레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닭통령 계양반'인가 그것도 보고, '닥터 프로스트'랑 'MY Oh'인가 음악 관련된 웹툰 있잖아요. '치즈인더트랩' 그것도 봐요. 스마트툰 나오고 나서는 톡톡 터치만 하면 넘어가는 게 재밌긴 한데, 그 전에 있던 것처럼 스크롤로 내리는 게 더 편해요. 19세 이용가능 만화를 찾아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보고 있던 웹툰이 어느 날 19세로 막혀버린 거예요. 내용이 잔인하다고. 애들은 얼마나 아빠꺼로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참에 줄이자고 안보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자주 봐요. 블로그에 검색하면 애니메이션 끊어서 올려놓는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거보다 일본 애니메이션, 심슨 같은 거 많이 봐요. 집에서는 몰래 봐요. 유튜브 동영상은 버퍼링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안보고 주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서 봐요. 판도라 TV도 한번 검색하면 채널로 쭉 나와서 편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웹툰이나 인터넷 이용할 때 제일 편해요. 컴퓨터 부팅하는 시간이 절약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게임이 다양해서 좋아요. 앱 다운받는 건 대부분 공짜잖아요. 스마트폰 사기 전에는 MP3로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정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노래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 그리고 앱 보면 달력이나 시간표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편해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뭐 하고 이런 하루일과 정리할 수 있는 거. 손으로 하려면 색깔도 다르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터치해서 할 수 있고 틀리면 고치기도 쉬워서 편해요. 그리고 달력 같은 앱인데, 여자들 생리주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편해요. 용돈 관리하는 앱도 있었는데, 그건 하다보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카톡 받는 걸 귀찮아하는 편이라 너무 많이 오는 게 불편해요. 별 것도 아닌데, 전화나 메시지로 할 때는 자기 요금이 빠져나가니까 잘 안하잖아요. 근데 카톡은 와이파이에서 공짜니까 할 말도 없으면서 계속 카톡을 보내는거예요. 답장 안하면 읽은 게 티나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학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문제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약을 설치했는데, 컴퓨터에 있는 알약만큼 발달하지가 않아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스팸전화차단이 있어서 설정을 했는데, 학원에서 온 전화도 스팸으로 해서 중간에 전화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팸전화차단 취소 해놨어요.

다른 애들이 카카오토리 같은 데서 친구를 대놓고 까는 건 본 적이 있어요. 신문이나 그런데도 카카오톡으로 따들렸다고 자주 올라오던데 제 친구들은 착해서 그런 적 없어요.

-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전체에서 걸고 있어요. 그런데 안내는 애들은 또 안내요. 선생님들이 검사를 꼼꼼하게 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낼 때 스마트폰 빼고, 케이스만 내고. 그냥 내면 들키니까 케이스를 뒤집어서 내고 그래요.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서 놓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안내고 그래요. 스마트폰 가방이 좀 크게 나와서 그 안에 번호대로 칸이 나뉘져 있는데, 아침조회시간에 주머니 스마트폰을 걸어서 가져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져가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종례하고 저녁 먹을 때 그때 다시 받아요. 그냥 교탁에 펼쳐 놓으시면 애들이 알아서 자기 핸드폰 가져가요. 안내고 사용하다 걸리면 바로 압수예요. 심한 선생님들은 학기 끝날 때 와서 찾아가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보통 2주에서 3주 가는 것 같아요. 걸려서 압수당하면 교과목 선생님이 담임선생님한테 말해서 또 혼나요. 하루 끝나면 바로 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저희 반은 선생님이 감시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 열 명 정도밖에 안내요. 내더라도 껍데기만 내고. 근데 시험 기간일 때는 다 내야 되니까 거의 다 내는데, 그 다음 날이면 확 줄어요. 선생님이 봐도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부모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엄마아빠가 맞벌이인데 아빠는 밤늦게 오시고 엄마는 제가 집에 온 다음에 한 시간 뒤에 와요. 엄마 오기 전까지 스마트폰 하다가 엄마 오시면 잠깐 얘기 같이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또 해요.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근데 이 때 귀를 잘 열어놔야 돼요. 엄마가 방에 오는 소리가 나면 스마트폰을 탁 엎어요. 그러면 그냥 공부하나보다 하고 모르세요. 가끔 너무 집중해서 엄마가 오는 줄 모르고 들키면 살짝 눈치를 주세요.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드라마나 개콘 같은 거 볼 때, 저는 재미없으면 스마트폰 보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중독이라면서 좀 과장해서 말씀하시고, 엄마는 그만하라고 하고. 언니도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눈치를 줘요.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 없는데, 친구가 스캠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메시지 오면 밑으로 내리면 사진이 뜨잖아요.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누르니까 URL이런 게 뜨는 게 아니라 밑에 사진이 나와 있어서 놀랐었어요. 친구 핸드폰도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스캠 문자가 왔었어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나요?

어디서 들어 본 거 같기도 한데, 컴퓨터 인터넷은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들어본 적 없어요.

-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자주 받아요. 강당 같은 데서 뭘 들을 때도 있고, 프린트물로 나눠줄 때도 있어요. 최근에는 작년에 스마트폰 교육을 강당에서 받았어요. 외부 선생님이 와서 동영상 보여준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얘기를 해줬는데, 다들 자요. 3학년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안 불렀고 1, 2학년만 다 강당에 들어가서 들었어요. 테스트 했던 게 그 선생님이 동영상 보여주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던지, 아니면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거는 체크해서 총점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냥 다 '아니요'하거나 '보통'으로 다 체크해서 별로 효력이 없어요. 스마트폰 중독 강의는 자주하는데 좋은 얘기는 없었어요.

- 스마트폰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매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엄마한테 들기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옆에두면 제가 인터넷 하는지 모르니까. 저는 전화나 메시지를 잘 안 쓰는 편이라 저한테 스마트폰은 인터넷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하고 있으면 엄마가 몇 시간하는 거냐고 끄라고 하시는데 핸드폰은 모르잖아요.

-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절제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은 하다보면 금방 질리니까 랜참을 거 같은데. 애니팡이나 그 다음에 보석 맞추기 나오는 거나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숫자 맞추면 점수 올라가는 거. 그리고 윈드러너랑 쿠키런도 똑같은 게임이라 오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그게 그거니까 금방 질릴 것 같아요.

부록 4. 전문가 대상 인터뷰 자료

〈전문가 인터뷰 1〉

| | | |
|---|---|--------------------------------------|
| 일 | 시 | 2013년 3월 21일 (목) 11:00 ~ 12:00 (1시간) |
| 장 | 소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 인 | 터 | OOO 팀장 |
| 뷰 | 대 | |
| 대 | 상 | |
| 자 | 자 | |

- 스마트 보안관은 언제 개발했나요?
 제작년 10월 개발을 시작해 작년 2월정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4개월 정도 테스트를 실시한 뒤 작년 6월 1일 론칭을 했어요.
- 기사를 봤을 때 (설치율) 그렇게 안 높던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동통신 3사도 제공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사 범용으로 쓸 수 있어요. 일부 통신사의 제품은 유료지만 저희는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아직 비율로 따지면 설치율은 별로 높진 않죠. 부모가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일단 스마트보안과 같은 유해 정보차단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잘 다루지 못해요. 자녀가 싫어하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때문에 보급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 그러면 지금 스마트 보안관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요?
 3만 5천 명 정도 되요.
- 스마트보안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 과정에 학생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입력된 정보가 저희 관리자 사이트로 들어오고 그 DB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죠.
- 부모만 설치를 해놓으면 되나요?
 아니요, 자녀의 스마트폰에도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스마트보안관 이용 시 부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자녀는 단지 앱만 설치해놓으면 됩니다. 이 앱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자녀의 스마트폰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모들이 입력하는 정보는 어떤 게 있죠?

자녀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령등급입니다.

- 스마트보안관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잘 몰라요. 작년에 100개 학교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부모수로만 따지면 한 만 여명 됐죠. 저희가 직접 교육도 시켜드리고, 설치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인지도를 조사를 해요. 근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도 많고.

- 스마트보안관이 설치되면 음란물 앱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요. 앱 검색도 되고 설치까지 되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 해외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음란물 이용에 대한 성인 인증절차가 없나요?

네, 국내 마켓처럼 성인인증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이 앱은 19세 이상 사용할 수 있어, 동의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데 동의버튼만 누르면 바로 설치가 되요. 근데 저희가 구글 관계자도 만나보고 애플 관계자도 만나봤는데, 한국을 위해서 자체 체제를 바꿀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국내마켓은 어떤 식으로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나요?

국내마켓의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예 블라인드 처리가 되요. 청소년폰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마켓에서 음란물을 검색할 경우 안보여요. 앱 자체가 안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목록은 보이지만 선택할 경우 인증을 해야 해요. 이건 사업자마다 약간 달라요. 보안관이 설치된 폰은 '이 정보는 유해한 정보라 차단되었습니다' 하는 차단창이 떠요.

- 스마트보안관을 설치하는 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탑재할 수 있는데, 아이폰 앱스토어는 탑재가 불가능해요.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있지는 않죠?
의무는 아니고 권고할 수 있죠.

- 법으로 무조건 설치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핸드폰이 청소년용이다 성인용이다 처음부터 구분이 안 되거든요. 개통이 되는 순간에야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죠. 유해차단프로그램이 임베디드 되더라도 설치를 해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임베디드 시킬 수는 있지만, 실행을 시키는 건 본인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가입을 시키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해줘야 하는데 점원들은 되도록이면 손님을 많이 받고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니까 잘 설명을 않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 향후 사업계획은?
학교에 교사관리 툴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담임선생님한테 전달해서 애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독센터나 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나 정부에서 알아야 하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도록 하는 것은 제어가 되요. 가령, 갖고 오지마라고 하든지 학교에서 수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서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툴을 보급을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량과 이용패턴을 파악하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보안관 가입을 권고하도록 하는 거죠. 스마트보안관이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왜곡될 수가 있어서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2〉

| | | |
|---|---|--------------------------------------|
| 일 | 시 | 2013년 6월 21일 (금) 15:00 ~ 16:00 (1시간) |
| 장 | 소 | 000중학교 |
| 인 | 터 | 000 교사 |
| 뷰 | 대 | |
| 대 | 상 | |
| 상 | 자 | |

- 올해 1학기부터 학생들이 아예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면 아침에 담임선생님이 걷어요.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학교)도 작년까 지 걷다가 애들한테 한 번, 자율적으로 맡겨보자 해서 작년 12월 한 달 동안만 학생자율에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애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무 놀이도 안하고 얘기도 안하고 오로지 게임만하고 음악만 듣고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니지 싶다 해서 부서 회의를 해서 휴대폰 얘기를 좀 해보자 했어요.

회의결과 전체 설문조사를 하자고 해서 학부모도 한 번 해보고 학생들도 해보고, 선생님들도 한 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거의 100%가 스마트폰이 수업에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하고 실랑이를 해야 되니까 수업에도 지장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 자체도 집중을 못하고, 또 애들이 중독이 많이 됐잖아요. 쉬는 시간에 10분 만지더라도, 그 10분 만진 여파가 너무 큰 거예요. 수업시간에 계속 스마트폰 생각을 하니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거의 100%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쪽에 찬성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도 60% 학생들이 (선생님들 의견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학교에 안 가져와도 상관없다고. 저희 학교는 여건상 학생들 집이 학교에서 다 가깝고, 학원을 가더라도 대부분 집에 들렀다가 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찬성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학부모는 거의 90%가 핸드폰을 안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핸드폰을 관리하는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학부모들이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맨날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시간통제를 하더라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니까요.

설문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2월에 열어 거의 만장일치로 학생들이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 오지 못하게 하는 안전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로 핸드폰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필로 확인서를 써주셔서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해서 핸드폰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하면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 핸드폰을 가져오도록 허락한 학생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반에 40명이라고 놓고 두 명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반은 한 4명. 없는 반도 있구요. 평균 한 두 명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확인서를 내면 가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도 (핸드폰을) 꺼낼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교해서 집에 못 들르니까 부모님과 연락하기 위해서 가지고만 다닌다는 거지요.

- 몰래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안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가져다녀도 별 소용없어요. 또한, 저희가 상벌점제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고도 합니다.

-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의외로 큰 불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정말 불편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도 넣고 불평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이 안가지고 다니니까 자기들도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보내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도 뭐 큰 지장은 없다는 반응이어요. 저희도 수시로 물어보거든요. 아이들이 큰 불편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도 중독이지만 아이들도 카카오톡이나 카톡 때문에 따돌림도 당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고요.

-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을 학교에 안 가져오게 하는 것이 중독률이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끼고 살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중독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구요. 정말 필요한 것은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스마트폰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는 거예요. 애들도 거의 심각성을 모르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학생이 1,300명~1,400명인데 한 학급에만 강사가 들어가다 보니 나머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TV만 시청해요. 그렇다보니 애들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길어야 15분 집중하다가 안 보게

되고, 정말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중독률을 낮추겠다고 한다면 강사선생님이 한 학급에 한 분 씩 들어가서 하시면 효과적이겠죠. 근데 예산이 없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상태죠.

-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은 이뤄지고 있나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악시간에는 뮤직비디오도 찍고 UCC 제작도 수업시간에 시키고 좋은 면들도 많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해요. 한번은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휴대폰이 아이들을 망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게임도 하고 부대껴야 하는데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진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 인터뷰 3〉

| | | | |
|---|---|----------------------------|--------|
| 일 | 시 | 2013년 6월 26일 17:00 ~ 18:00 | |
| 장 | 소 | OOO lwill센터 | |
| 대 | 상 | 자 | OOO 팀장 |

-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담 하시면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대체로는 할 일이 없다고 많이 하거든요.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때우기 가장 좋은 게 스마트폰이고,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앱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방안이라고 하면 원론적인 것부터 잡아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독이 너무 심하지 않을 정도, 학교를 못가거나 그 정도만 안 된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인 것 같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꼭 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의 아이들이 카톡을 쓰는데 어떤 여자아이는 밤새도록 채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서 즐고, 저녁에 집에 가고. 그러다가 본인이 스마트폰을 엄마한테 아예 빼앗긴 거죠. 빼앗겼는데 이제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게 좋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룹 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밤새 채팅방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 스마트폰 빼앗겼어'라고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차단이 되고 핑계거리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관장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된다, 통신사와 제휴를 해서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는 연령제한을 뒤서, 왜냐면 이게 따돌림 문제와 연관이 되니까요. 그래서 판매금지를 한다든지 2G폰으로 전환을 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들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만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샀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걸 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은 차단프로그램을 깔아서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답답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주긴 사줘야 되는데, 약간 지식이 있는 엄마들은 차단 프로그램을 깔긴 깔잖아요. 스마트 보안관이나 그린아이넷이나 이런 걸 끼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것은 제한시간을 뒤야 하고, 이 친구의 사용 빈도나 아이템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는지, 아이들이 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고 하니까 주의해야 한다든지 하는 매뉴얼이 동영상처럼 설명되어 있으면 부모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스마트폰이 중독이 돼서 상담을 오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차단프로그램이 조금 업그레이드되거나 업데이트 돼서 나오는 수준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교육이랑 중독이 안 된 아이들, 잠재적인 수준의 아이들은 교육을 해서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주는 정도가 최선이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인 아이들이 걸려져서 나갔더니, 처음에는 남학생만 앉아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절반 이상이 여학생이었어요. 이번 저희 전수조사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중독을 같이 조사해서, 하나만 걸려져도 집단 상담을 필수화해서 받도록 한건데 여자아이들은 다 스마트폰 중독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애들이 '내가 왜 스마트폰 중독이냐'하면서 있다가 중독에 대한 증상을 교육 받으면서 사실 사용량이 많다고 인정을 하고 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동기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저희 현장에서는 교육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중독이 된 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대체로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교우관계가 안 좋거나 학업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 상담 인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직원은 총 9명인데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은 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예방강사는 35명, 그리고 상담하시는 강사들도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5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단상담, 1:1 개인상담 요청이 와요. 여학생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잠재위험 이상, 남학생들은 PC방게임이랑 스마트폰이 맞물려있고. 여학생은 거의 채팅, 웹툰, 아니면 연예인 블로그 같은 것 많이 들어가요. 상담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해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학원가기 전에 상담을 하러 많이 오는데, 상담실 자리가 안나요. 요즘 저희는 부모상담, 부모교육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거부해서 잘 안 오니까. 엄마들이 답답해서 오시면 상담이랑 교육을 받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진 것 같아요.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하지 못하죠. 아시다시피 편리한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편리함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가장 아이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눈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번에 중학교에 집단 상담을 갔다 왔는데 중1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앉아있는데 다 진로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자기지각이 높고,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면서 너희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 교육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사줄 때 계약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카카오톡이랑 네이버, 이정도 수준만 하고 나머지는 다운로드 자체가 안 되게끔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고 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줄 때, 이런 것들을 깔아서 관리해줘야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는 매뉴얼이 필요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희 전문가집단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우리 자녀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심리상담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전달돼야 한다는 얘기에요. 스마트보안관을 만들지만 할 게 아니라, 부모 세대는 잘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단순히 전문가들이 아이를 붙잡고 '이건 나빠' 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을 직접 사주는 부모들이 알아야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미디어 관련 문제를 단순히 심리 상담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 따돌림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넷 중독아이들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왕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50%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인터넷 중독 전문이라 다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상담은 받지 않거든요. 주요소가 따돌림이면 청소년지원센터로 먼저 보내거든요. 그런데 중독문제로 오는 아이들의 배경을 보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50%는 되는 것 같아요. 면접을 하다보면 따돌림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 쪽으로 넘어오는, 왜냐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지 않다보니까 미디어로 넘어오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톡방에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초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대해서 나가지도 못하게 공격하는 그런 게 굉장히 SNS의 심각한 피해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나빠'가 아니라, 이 미디어가 어떤 용도로 보급이 되었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심리상담은 한계가 많거든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방이 되면 훨씬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하는 이유는 캠페인을 보고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죠. 지하철에도 에티켓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계속 캠페인성으로 반복해서 가는 건데,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캠페인성 교육이. 이 캠페인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건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계속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난 아이들의 사례가 있나요?

애들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생겨야 할 것 같아요. 2G폰으로 바꾸는 아이들은 보니까 공부하는데 자꾸 카톡오고 하면 방해가 되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얘기를 해서 바꿔야지 엄마가 무조건 바꿔버리면 반감 때문에 갈망이 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려면 아이들에게서 동기가 일어나야 하는데, 동기가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에게 제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전문가 인터뷰 4〉

| | | | |
|---|---|----------------------------|--------|
| 일 | 시 | 2013년 7월 10일 16:00 ~ 17:00 | |
| 장 | 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
| 대 | 상 | 자 | 000 팀장 |

- 사이버 따돌림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이버 따돌림은 여학생들에게 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남학생들한테 일어나는 유형은 주로 다른 유형 인거고. 사이버 따돌림 같은 경우는 특히 여학생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예요. 애들 시험기간 이잖아요. 이때는 좀 전화라든지 신고가 잠잠한 시기인거고, 학기 초부터 보게 되면 사이버 따돌림이 작년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는 증가해서 문의나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쪽으로는 신고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상담으로 많이 들어와요.

-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카스에서 따돌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카톡 방에서 이 아이만 내버려두고 갑자기 다 우르르 카톡 방을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합성사진들 요새 많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유포한다든지. 그 아이 반 애들을 다 카톡 방에 초청을 해요. 피해자 아이도 포함이죠. 그 아이를 두고 옛날이야기처럼 동화식으로 스토리를 쓰면서 '나 같으면 벌써 죽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다 같이 '죽어라' 부터 시작해서 욕을 하고. 그럼 그 반 아이들이 누구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피해자 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 보면 안티카페 같은 게 카스나 카카오톡으로 공간 이동만 한 것이지 똑같더라고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뒷담화 이야기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애랑 나랑 친하지만 다른 애랑 그 아이를 욕하지 않으면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애는 '너 왜 나 욕하고 다녀' 하면서 이게 학교 폭력이 되는데. 애네들한테 왜 그랬냐고 하면 애들은 그게 당연한 거다, 그게 없으면 얘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남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남학생들은 신체폭력, 괴롭힘, 심부름 이런 거지. 유형이 달라요. 사이버 폭력은 여학생들에게 주로 일어나고, 여학생들 무리 안에서는 다른 애를 따돌림을 시켜야 내가 안전하잖아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학생들 안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그룹별로 놀잖아요. 그 집단 안에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면 쪽 심리적으로 왕따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노는 경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는 무리에서 빠져 나와도 심리적으로 외롭다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 집단 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좌절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도 괴롭게 생각하고. 남자애들은 그런 게 귀찮죠. 근데 여자애들은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슈죠. 누구한테 잘 보이거나 재량 친하면 왕따를 안 당하지만, 좀 밋상으로 찍히거나 하면 개는 반에서나 전교에서 왕따 될 각오를 해야 되죠.

- 따돌림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사소하죠?

그렇죠. 사안 자체는 사소한 건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장기간으로 되는 거죠.

- 따돌림을 하는 공간은 주로 어디인가요?

카카오톡이나 카스라던 지. 거기가 무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재 문의나 상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많고. 페이스북은 별로 따돌림이 없는 게 많이 공개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서 그룹 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페이스북은 그룹에 안 들어가더라도 건너건너 다 볼 수 있으니까 노출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들이 페이스북은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바로 대화가 가능하고.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고, 저희도 상담이 여자아이들 중 50% 정도가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사이버 따돌림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이버 따돌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피해가 있더라고요. 학교로 돌아갔을 때 다른 애들이랑 못 어울리게 막는다던지. 그렇다 보니까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피해를 당하지만, 학교에서도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사소한 문제로 따돌림이 일어나는

것은 주된 것이 말 때문이거든요. 애들이 사소한 오해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 3자가 개입이 돼서 중재를 하는 거죠. 심리상담은 추후에 이뤄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장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제 3자가 개입해서 현장에서 왜 오해가 생겼는지만 풀어줄 수 있다면 이후에 사이버 따돌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상담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 아이는 '당장의 오해만 상담선생님이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볼 때 너는 화해조정이나 중재를 원하는 것 같다' 하니까 아이가 맞다고. 그 때 글을 잘못 올렸는데 다른 아이들이 오해를 해서 사안이 커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중재요청을 받았었어요.

2011년도 저희가 조사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보더라도 남학생들은 물리적 폭력이 많고, 여학생들은 사이버따돌림이 많기는 해요. 카카오토티나 카톡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만약 제안을 할 수만 있다면, 인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저는 익명성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애 핸드폰으로 글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는 익명성이 공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통 요즘은 사이버 따돌림이 부모님들한테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애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올린 글, 사진 이런 것을 다 없애는. 그런데 피해자 아이들은 이걸 캡처 해 놓는다든지 해서 자기 증거 자료들을 다 모아놓는 애들도 꽤 있어요.

- 사이버 따돌림의 처벌 수준은 어떤가요?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피해에 비해서 낮게 처벌되더라고요. 반 애들이 다 동참한 경우에도 주동자 위주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하시더라고요.

-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여자아이들은 물리적인 것 보다는 심리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힘들어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는 영역이 교사, 선생님들의 반응이에요. 여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 당연한 일로 보니까 상처를 받고. 자치위원회를 가더라도 피해자들은 학교에 못 들어가는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받는데 반해 가해자에게 '서면사과 해라', '사회봉사 해라' 하니까 피해자 부모님들은 힘들어 하죠.

물리적인 피해를 받은 애들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나아지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멍들고 찢어지면 처벌을 강하게 하거든요. 가해자에게도 피해자한테 접근 못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버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당한 애들은 자기만 힘들게 외롭게 있다가 상담하러 오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피해자들이 힘든 게 학교로 갔을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 시간에 할 게 없대요. 다른 아이들은 짝지어서 어딜 간다던지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점심시간에 거의 혼자 밥도 안 먹고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혼자 오는 애들은 이런 따돌림을 당하는 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은 현장 학교에서도 연장이 되니까 그 시간에 할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피해자를 찾아다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강하게 대처를 한다면 피해자 부모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학교폭력에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냥 때리고 싸우고 어디 입원하고 자살시도를 했다던 지 이렇게 사안이 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강하게 처벌을 하시죠. 그런데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남자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폭력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죠. 부모님들은 먼저 교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교사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이걸 자치위원회까지 열어야 될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리적 폭력에 비해서 사이버 따돌림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학교 안에서의 대처가 잘 이뤄지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전문가 인터뷰 5〉

| | | | |
|---|---|----------------------------|---------|
| 일 | 시 | 2013년 7월 12일 16:00 ~ 17:00 | |
| 장 | 소 | 여성가족부 | |
| 대 | 상 | 자 | 000 공무원 |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해 콘텐츠를 접속하고 있나요?

양으로 보다는 실생활에서 SNS를 통해 자기가 기존에 발견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한 유해정보를

서로 돌려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른들이 돌려보던 것처럼, 애들은 유해한 것을 자기가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퍼 나르고 있어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퍼 나르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있어요. 누구한테 야한사진을 받았다 하면 친구한테 보내는 것을 당연시 하니까. 카톡으로 공유를 많이 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카톡뿐 아니라 MMS로 문자전송을 할 때도 캡처나 링크 자체를 보낼 수 있으니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차단프로그램을 전혀 안 깔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깔도록 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죠.

- 강제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일본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자가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정도로만 되어 있다 이거죠. 핸드폰 제조업체가 설치할 것인지, 이동통신사가 설치해야 될 것인지가 불분명하죠. 제조업체는 절대 못한다고 하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는 이동통신사에서 주는 것인데, 같은 핸드폰이라도 이동통신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동통신사마다 차단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기에 먼저 깔아 놓고서 나중에 이용자가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설치하는 되어 있지 않으니 사용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해버리니까.

올 1월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가입자가 780만 명이예요. 적어도 이들은 핸드폰을 자기 명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모 명의로니까 청소년 차단프로그램이 안 깔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 명의로 된 핸드폰은 차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우려면 지워라 하는 건데, 지금 법안에는 지우는 것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 된다면 강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예전에 했던 방법이 있는데, 지금도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LG U+같은 경우는 웹을 필터링을 했어요. 제가 만약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LG에서 필터링을 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중간에서 기계로 검열을 하다보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실제로 100% 차단을 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는 않았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족이나 청소년에 유해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핸드폰 안에서 다 노출되고 있는 것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안 볼 것이냐 하는 거죠.

물론 유해 웹사이트들을 차단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 PC에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예산이 110억이었어요. 그래서 이용자가 그린아이넷을 들어가면 수십 개 업체에서 제공한 차단프로그램을 깔 수 있게 했었어요. 스마트폰의 경우 예산은 9억인데, 이걸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거죠. 사실 금연정책 같은 것은 홍보예산만 90억 이예요. 스마트폰의 경우는 예산이 너무 적고,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민하죠.

- 저희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많이 접촉하던데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구글이나 애플 밖에 없잖아요. 국내에 있는 삼성앱이나 T스토어나 이런 것들은 잘 이용 안 하거든요.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이튠즈 이쪽에서 하지. 해외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성인인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거의 없다고 봐요. T스토어는 국내사업자이기 때문에 성인인증을 무조건 해요. 핸드폰 주인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기록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앱을 받는다거나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데, 해외 콘텐츠들은 이런 것이 안 되죠. 우리가 국수주의로 돌아서거나 보호 장벽을 치지 않으면 막을 수 없죠. 중국처럼 검열을 하지 않으면 못해요. 중국은 해외 콘텐츠에 대해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내용을 보고나서 차단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해 콘텐츠인 경우에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약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사실 유해 콘텐츠 자체는 시간싸움이거든요. 유해 콘텐츠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차단되고 나면 하루 이틀 만에 새로운 곳을 찾아 다시 여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서 막기까지는 절차상으로 심의도 해야 하고, 불법정보인지 합법정보인지 확인해서 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회에서 업체들한테 공문 보내야죠, 그래서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려요. 이러면 차단이 어렵거든요.
- 유해 콘텐츠 차단프로그램을 깔면 해외 오픈마켓의 콘텐츠도 차단이 되나요?
다 차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유해한 콘텐츠는 차단을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서버기관에서 차단을 하라고 하면 업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전에는 차단 프로그램을 깔기만 하고 컨트롤이 안 됐어요. 청소년들이 차단프로그램을 지우기도 하고, 자기가 컨트롤 하더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보안관은 꼭 부모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야 된다 해서, 부모가 특정

사이트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정을 할 수 있고 게임 같은 앱이나 카톡도 막을 수 있어요. 현재 유해 콘텐츠 관리자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동통신 3사 뿐만 아니라 PC용 차단 프로그램들이 모바일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다 부모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이 관리하지는 않아요. 이동통신3사 것들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가 있어요. 학생들이 관리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자유권을 주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야죠. 실제 부모가 컨트롤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청소년의 자유를 주장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게 갈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차단프로그램 보급에 장벽이 되는 거죠. 부모하고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차단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 통과 된다면 청소년들이 부모에 의해서 내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자유롭게 풀어두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이제껏 풀어놓은 것을 왜 규제 하냐고 하는 거죠. 핸드폰 교체 주기가 2년마다 바뀌죠. 같은 핸드폰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 되었더라도, 신규폰에 한해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하게 되면 3~4년 내에 많은 학생들이 차단프로그램이 있는 핸드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인데,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면 이동통신사들은 다 반대를 해요. 원래 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준비되었거든요. 예전에 모 의원실에서 청소년 차단프로그램 의무화를 청소년보호법에 넣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쪽에서 먼저 개정안이 나와 버렸어요. 강한 부분 보다 완화되어 나와서 불완전하죠. 원래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쪽은 좀 강해요. 이동통신사나 기기회사가 정확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없어요. 또한 예전에 청소년보호법에서 준비했던 것은 형사 처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권장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죠.

〈전문가 인터뷰 6〉

| | | |
|---|---|----------------------------|
| 일 | 시 | 2013년 8월 13일 15:30 ~ 16:30 |
| 장 | 소 | 000고등학교 |
| 대 | 상 | 자 |
| | | 000 교사 |

- 현재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하여 어떤 규제를 하고 있나요?

스마트폰을 전체적으로 걷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과거부터 대체로 담임선생님이 수업시작하기 전에 걷었다가 수업 끝나고 나서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임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그렇게 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대체적으로 많이 걷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방송에서 수업 코치 활동을 좀 했었어요. 1년 쉬면서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스마트폰 관련 법안을 만들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갈수록 요즘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걷는 학교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강제로 걷지 않는 학교들, 자율적으로 걷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한 반에 대다수 많은 학생들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조금만 재미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꺼내 보는 학생도 있고.

또 수업시간 외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초상권 침해라든지, 폭력적인 장면이나 안 좋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토티 등에) 올린다든지. 그게 한 번 올리면 삭제를 하더라도 벌써 퍼진 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문제. 학교에서 뭔가 분실이 되면 일단 교사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누구를 의심할 수도 없고, 뒤질 수도 없고, 반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분실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고요.

학교 현장에서만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번째 문제로는 스마트폰이 사이버불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적인 부분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현장에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저도 현장에서 교사로 있지만,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요즘 가장 자녀교육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미디어에 관련 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미디어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깨미동(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같은 경우는 미디어 교육만 한 15년 정도 해왔는데, 저희가 현장에 많은 교사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강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 그 분들이 굉장히 공감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로는 미디어교육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 가르치기가 쉽지 않고 또 학교에서 좋아하지를 않아요. 과목 시간에도 그렇고 재량교육, 진로교육, 이런 교육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미디어 교육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미디어 교육이 어느 정도 외부에서 CA라든지 방과 후 교육 또는 재단 같은 곳에서 프로젝트로 받아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존 학교 교사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디어교육이 대부분 제작교육 중심이나 신문방송학과에서 추구되고 있는 생산자 중심의 미디어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문방송학과 언론인들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고 제작중심의 교육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도구가 없으면 활용하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애들은 실제로 미디어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으로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듯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반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디어 교육이 교사 내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산업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관점들이 있죠.

- 미디어교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궁극적·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장기적인 대책에서는 우리나라 커리큘럼이 한 번은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커리큘럼 안에서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는 미디어사회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교육이 학교 정규 커리큘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사범대에 미디어 교육과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교과서가 만들어 진다든지, 교사 연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동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대책에서는 지금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오기는 힘들니까 재량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그런데서 미디어 교육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작년에 저희가 준비한 게 이런 것들을 몇 시간 이상, 특히 생산자 입장이 아니라 수용자 입장에서 아이들이 미디어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창체 시간에 할 것인가, 진로 시간에 할 것인가, 재량수업시간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대안 중에서 아이들 사이에 동아리 형태의 모임, 이런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 미디어 사용이 나 미디어 교육 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미디어 단체들이 좀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주고 한다면. 지금 입학사정관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를 공부하고 또는 그런 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운동들을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미디어 관련 동아리들은 꽤 있지 않나요?

대부분 방송반 형태의 제작 동아리입니다. 저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의도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는 제작 중심의 동아리가 있고, 하나는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수용자적 측면에서의 교육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 생각에는

세 번째 교육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정작 이 부분이 제일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깨미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는 모든 미디어들이 스마트폰으로 통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운동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법률제정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미디어교육을 학교현장에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수업권을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통제할 수 있다 라든지. 또는 시민 운동적 측면에서 부모들이 제일 스마트폰 사용을 힘들어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살 때는 자녀관리 앱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장착한다든지 하는 법률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가정들을 보면 집안에 모여서 다 따로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늘릴 수 있을까 하다가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스마트폰 바구니를 하나 놓고, 가족들이 스마트폰을 그 스마트폰 바구니에 넣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내 손안에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했구요. 그래서 지금 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반, 중·고등학교에서 몇 반 정도 7월 달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바구니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것은 가족관의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대화가 늘었느냐, 그 부분에 들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대화를 막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존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스마트폰 바구니가 가족 간의 대화를 늘렸다는 데 긍정적인 대답도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 놓은 상태에서 바구니에 넣어 두고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쓰고 다시 넣고 하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바구니 경진 대회도 하고, 디자이너에게 부탁해서 스마트폰 바구니 기획 전시회도 해 봤고. 스마트폰 바구니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게 해볼까 기획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바구니 같은 것.

그런 것도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정부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학교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팁 그런 것들을 열 가지 정도 학생용, 어른용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이 학교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만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제가 고3 문과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은 지구과학을 이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시험 앞두고 몇 주 썩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려고 하면서 공부는 왜 하는가, 성교육, 적성교육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디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수업시간에도 하고 예전에는 방과 후 교육에서 한 적도 있었고요, CA를 조직해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고3 문과를 맡았을 때는 가능한데, 고3 이과를 맡는다면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학교장 선생님의 걸림돌도 있어요. 예전 학교에서는 관리자 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다른 걸 한다고 해서 몇 번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 사이버불링 쪽은 상담하거나 보는 경우가 있나요?

예. 많이 있죠. 다른 학교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선생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깐. 특히 사이버불링은 초등학교에서 심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지 못하고 쉽게 내뱉다 보니까. 아이들이 카톡에서 아이를 초대해서 막 욕하면서 그 학생이 대꾸하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가기하면 다시 초대하고. 현재 카톡에서 나가기 했을 때 다시 초대하면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한 명씩 차단이 되잖아요. 여러 명을 한꺼번에 차단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불러서 놀리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스. 불러서 욕하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가 새롭게 사귀는 여자친구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모욕적인 글을 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 밖에도 친구들 이상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사례들을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적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고등학생은 심각한 피해사례를 공개하는 그런. 초등학교는 그냥 욕이 많지만, 고등학교는 개인의 심각하거나 아주 개인적인 문제를 오픈해서 사회적으로 왕따를 만드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빈도수는 좀 적죠.

- 사이버불링 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열리나요?

그게 사이버불링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야 학교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은 전혀, 학교 안에 있으면 눈치라도 보이는데.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교사가 눈치 채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으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징계를 하고 그러는데.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상에서 나타나니까 우리(교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응 매뉴얼을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각 교실 앞에 붙여서,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불링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애들이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하는 매뉴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 인터뷰 7〉

| | | |
|---|---|---------------------------------------|
| 일 | 시 | 2013년 10월 10일 (목) 14:00 ~ 15:00 (1시간) |
| 장 | 소 | (주)블랙스톤 |
| 인 | 터 | 뷰 |
| 대 | 상 | 자 |
| | | OOO 대표 |

- 모바일가디언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하고 핵심개발자하고 2010년부터 모바일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 2011년 말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친구의 폭력에 견디지 못한 한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신문을 보니까 이 아이를 괴롭히는 문자메시지가 그동안 많이 온 걸 보고 만약 이 문자를 부모님이 사건 있기 전에 일찍 보셨다고 하면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바일을 활용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계기로 이 모바일 가디언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 언제 모바일가디언을 개발했죠?

2011년 말에 그 기사를 보면서 그때부터 개발에 착수하게 된거죠. 그 결과, 2012년 12월

작년 말에 이제 베타버전이 나왔구요. 그 전에는 기존 학생들의 핸드폰에서 SNS만 캐치를 하다가 문자메시지 보다 요즘 학생들은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메신저까지 되는 베타버전을 작년 말에 출시했습니다.

- 그러면 학생들이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것도 서비스 되는 건가요?
 페이스북은 안 되고요 모바일 메신저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주로 PC기반으로 하는 거고 물론 페이스북도 모바일이 있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카카오톡, 라인, 틱톡, 조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밴드는 친목위주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구요. 근데 저희가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의 90%가 카톡이에요.

- 이게 유료서비스죠?

무료로도 서비스합니다. SK텔레콤과 저희가 제휴를 맺어서 SK텔레콤의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는 친구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월 3,000원씩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SKT하고 제휴를 했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SKT에게는 요금을 받지요. 그런데 상품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 지금 이용자 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유료 회원은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SKT 쪽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바로 올해 10월 1일부터 무료서비스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SK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 모바일 가디언을 개발할 때 지원은 좀 받으셨나요?

예.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서비스 개발 응모 사업에 2012년도에 응모를 해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1억 7천정도 지원받았습니다.

-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었나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몇 분 만나 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부모님이 자녀의 스마트폰 내용을 아셔야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부모님이 알려고 하면 애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경제 환경이 어려워 대부분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모르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이 그런 상황을 아실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될거 라는 거죠. 가끔 부모님들한테 고맙다는 연락도 받습니다. 이런 정도인지 몰랐는데 아이랑 많이 상담을 하게 됐다 이러면서 뭐 그런 전화도 받구요 그럴 땐 좀 보람을 느낍니다.

- 특정인으로부터 자녀를 괴롭히는 텍스트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저희가 보낼 때 발신자번호는 안보내지만 인덱스는 드려요. 즉 같은 사람이 보냈다는건 아실 수 있게. 예를 들면 이게 SNS로 0001번이 보낸 메시지다, 카톡으로 0002번이 보낸 메시지다 라는 식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발신자는 알 수 없지만 특정인이 보낸 메시지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애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아예 노출 안 시키구요 저희가 임의로 생성한 인덱스 번호가 나갑니다.
- 키워드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키워드는 한 천 개 정도 있는데요. 욕설, 폭행, 협박, 갈취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국어연구원에서 청소년 언어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청소년패널을 구축해 청소년들로부터도 의견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흔히 욕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힐 때 사용하는 축약형 언어도 다 포함시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부모에게 전달되나요?
부모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송됩니다. 이메일은 실시간이구요. 즉 저희 서버에서 바로 분류해서 이메일로 부모에게 보내줍니다. 문자의 경우 돈이 들기 때문에 모아서 하루에 한번 저녁 6시 무렵에 보내줍니다.
-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모두 10명인데 이 중 7명이 이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8〉

| | | |
|---|---|---------------------------------------|
| 일 | 시 | 2013년 10월 22일 (화) 16:00 ~ 17:00 (1시간) |
| 장 | 소 | SK 텔레콤 |
| 인 | 터 | OOO 부장 |

- SK텔레콤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현재 뭘 하고 있나요?

이동통신 3사가 경쟁체제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 내부에서도 고객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청소년안심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완전 중독이 되거나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유익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쪽으로 쓰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안심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올 10월부터 무료로 학교폭력지킴이(모바일가디언서비스), 스마트아이코치(스마트폰중독예방 및 자녀위치제공서비스), 청소년안심서비스(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묶음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앱들을 따로따로 제공하다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나로 묶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앱 안에서 세 가지를 같이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안심서비스의 경우 예전부터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해 온 서비스이고 학교폭력지킴이는 그동안 유료로 제공해 왔는데 이번에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기존에 가입돼있는 고객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앱들을 기존고객들에게 다 제공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입을 시키거나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현재는 이렇게 각각의 앱들을 서로 안내하는 것만 할 건데요. 저희가 2차 계획으로 이 앱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개의 앱으로 만들겁니다. 이거 한 개 앱만 다운 받으면 이 앱들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앱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부모와 같이 가입을 하려오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앱들은 부모와 자녀 양쪽의 스마트폰에 다 깔려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나요?

지금은 각각 다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통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T청소년안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만 정도 되죠. 꽤 많이 다운 받았구요. 오래 전부터 의무로 바로 가입을 시켜왔고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학교폭력지킴이' 하고 '스마트아이코치' 같은 경우엔 나온 지 얼마 안 되가지고 많이 다운을 못 받았습니다.

- 그러면 이게 올해 10월부터 서비스가 무료로 되면 이제 확산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 같구요. 뭐 따로 이제 SK텔레콤에서 부모를 상대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뭐 왕따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반비례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차선책을 드리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부모님들의 관심이나 이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저희가 이런 것들을 드린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사실 앱이라는게 프로그램이니까 해킹을 하고 이걸 뚫을 수 있는 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니까 이게 부모의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사실상 없어요.

- 올 10월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했잖아요. 피드백 같은거 있나요?

저희 본사로 전화가 와 가지고 "아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공급해서 정말 고맙다"라는 전화를 몇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비자와 컨택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는 쪽이라 저희 고객센터 통해서 받고는 있거든요. 어차피 그 쪽으로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 이런 서비스만 잘 처음에 세팅이 되면 상당부분 스마트폰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왕따나 거기서 일어나는 자살이나 폭력이 생기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한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저희 정보통신법 상 자녀에게 온 그것을 모두 부모에게 알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왔다고 알려주고 누가 보냈는지도 사실은 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좋다고 보는데 뭐냐면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때부터는 대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니? 누가 어떤 일이 있었니? 누구랑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러면서 서로서로 대화를 하는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사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필요할 때는 학교로 조치를 취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청소년 상담하는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야겠죠.

- 영국에서는 2010년부터 'Digital Parenting'이란 책자를 만들어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한 스마트폰사용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안내하고 있던데요. 통신사에서 이런 걸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런 책자를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대리점을 통해 배포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리점 직원을 교육시켜 부모들에게 안내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매장에 가장 잘 보이는데다가 배치를 해 두면 청소년들이 언제나 부모와 같이 오기 때문에 드리기 편한 거고 좋은 거고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쪽에 교육을 시켜야죠. '오시면 이거 좀 드리세요' '이런 분은 꼭 쓰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Abstract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Protect Youths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

Because of portability and easy access to the information, smartphone has spread rapidly in the past few years. However, as the time passes by, there are more and more young people who complain smartphone addiction and bullying through smartphone and use of harmful contents are becoming seriou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online survey of 3,000 students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 and analyzed the smartphone use of young people. As a result, one out of three was addicted to smartphone, which shows that smartphone addiction was very serious among young people. Also, 14% of respondents downloaded application only for adults and most of them did through foreign open market such as Google store and Apple store.

Seven out of ten did not install filtering service on the smartphone, which indicates the necessity of filtering application installment. 6.2% of total respondents were bullied through smartphone and bullying through chatting service was the most. The result of in-depth interview with young people showed that random chatting through smartphone was serious among young people. Youths can use this service easily without the strict subscription and tend to be exposed to sexual harassment and sexting. Therefore, we need to monitor this random chatting service more thoroughly.

Young people tended to consider smartphone as their other self, which indicates that smartphone is routinized among young people.

Key words : smartphone, cyberbullying, addiction to smartphone, Kakaotalk, game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유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부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이 민 희 (평택대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문 연 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박사)

◆ 자문진 ◆

고 영 삼 (한국정보화진흥원·수석연구원)

김 경 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교수)

김 태 동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주무관)

박 남 수 (건국대 신문방송학과·연구전담교수)

오 창 우 (계명대 광고홍보학과·교수)

이 은 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교수)

이 호 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정 의 철 (상지대 언론광고학부·교수)

최 영 재 (야탑고등학교·교사)

연구보고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재연

등 록 1995. 08. 31 제 301-2012-019호

인쇄처 동진문화사 전화 02)2269-4783 대표 이병무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682-9 93330

